CR 63 (CO 35)

칼빈의 욥기 설교

제3권 · 설교 제119–159편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존 칼빈의 설교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vol. 35 (Corpus Reformatorum 63), Brunsvigae 1887. CCEL 디지털본 (ccel.org/ccel/calvin/sermons) 기준.

AI 초벌 번역판 · 신학 감수 전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 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번역문은 CC0 1.0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합니다.

일러두기

- 원문은 칼빈 전집(Corpus Reformatorum) 35권에 실린 16세기 프랑스어 본문이며, CCEL 디지털본을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 본문 사이의 작은 표시 `CO1` 는 전집 35권의 쪽수입니다. 그 표시 뒤의 내용부터 해당 쪽에 실려 있습니다.
- 설교체를 살려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설교 첫머리 본문 상자와 설교 안의 성경 인용은 칼빈이 읽은 프랑스어 본문을 옮긴 것이며, 장절 표기는 개역한글판을 따랐습니다.
- 원문에 표기된 성경 장절이 실제 구절과 맞지 않는 곳은 바로잡고 각주에 원래 표기를 밝혔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의 시편 절수는 한국어 성경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 설교 끝의 기도는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원문이 첫머리만 적고 “등” 으로 줄인 곳은 번역도 첫 문장만 옮겼습니다.
- 이 판은 번역지침 v3에 따라 원문과 쪽마다 대조해 고치고, v3.1 용어 결정을 반영한 검토 초안(2026-11-24)입니다.
-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은 욥기 38–41장의 절수가 개역한글과 다릅니다. 해당 설교의 장절은 개역한글 절수로 바꾸었고, 절수가 다른 편은 첫 각주에 칼빈의 절수를 밝혔습니다.

차례

제119편 욥기 32장 설교 1(32:1–3) 7
제120편 욥기 32장 설교 2(32:4–10) 25
제121편 욥기 32장 설교 3(32:11–22) 42
제122편 욥기 33장 설교 1(33:1–7) 60
제123편 욥기 33장 설교 2(33:8–14) 77
제124편 욥기 33장 설교 3(33:14–17) 96
제125편 욥기 33장 설교 4(33:18–25) 114
제126편 욥기 33장 설교 5(33:26) 132
제127편 욥기 33장 설교 6(33:26–28) 150
제128편 욥기 33장 설교 7(33:29–34:3) 167
제129편 욥기 34장 설교 1(34:4–10) 186
제130편 욥기 34장 설교 2(34:10–15) 204
제131편 욥기 34장 설교 3(34:14–20) 224
제132편 욥기 34장 설교 4(34:21–26) 241
제133편 욥기 34장 설교 5(34:26–29) 258
제134편 욥기 34장 설교 6(34:29–32) 276
제135편 욥기 34장 설교 7(34:33–37) 294
제136편 욥기 35장 설교 1(35:1–7) 312
제137편 욥기 35장 설교 2(35:8–11) 330
제138편 욥기 35장 설교 3(35:12–16) 347
제139편 욥기 36장 설교 1(36:1–7) 364
제140편 욥기 36장 설교 2(36:6–14) 382
제141편 욥기 36장 설교 3(36:15–19) 400
제142편 욥기 36장 설교 4(36:20–24) 416
제143편 욥기 36장 설교 5(36:25–33) 433
제144편 욥기 37장 설교 1(37:1–6) 450

제145편 욥기 37장 설교 2(37:7–13) 466
제146편 욥기 37장 설교 3(37:14–24) 482
제147편 욥기 38장 설교 1(38:1–4) 499
제148편 욥기 38장 설교 2(38:4–11) 516
제149편 욥기 38장 설교 3(38:8–17) 534
제150편 욥기 38장 설교 4(38:18–32) 552
제151편 욥기 38–39장 설교 5(38:33–39:4) 570
제152편 욥기 39장 설교 2(39:5–18) 587
제153편 욥기 39장 설교 3(39:19–40:2) 603
제154편 욥기 39–40장 설교 1(40:3–11) 620
제155편 욥기 40장 설교 2(40:9–24) 636
제156편 욥기 40–41장 설교 3(40:15–41:34) 653
제157편 욥기 42장 설교 1(42:1–5) 671
제158편 욥기 42장 설교 2(42:6–8) 688
제159편 욥기 42장 설교 3(42:8–17) 705

제119편

욥기 32장 설교 1

CO 35:1–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이 세 사람은 욥에게 말하기를 그쳤으니,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람의 가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욥에게 노하고 몹시 분개하였으니,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노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할 말이 없었는데도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욥 32:1–3)

CO 1 여기 이야기된 것과 이제부터 우리가 볼 것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가 이미 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욥은 좋은 소송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잘못 이끌었고, 그를 위로하러 온 자들은 나쁜 소송을 가졌으면서도 좋은 논증과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서, 거기서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허물이 있었으니, 좋은 기초 위에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도 허물이 있었으니, 그 자체로 좋은 기초를 가졌으면서도 잘못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 사람 엘리후가 언짢아했고 노여움으로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욥을 논박하지 못했으면서도 그 사이에 그를 정죄했기 때문이요, 또 그가 욥에게도 언짢아했으니,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후의 이 노여움이, 욥을 거스른 것이든 그를 위로하러 온 그의 세 친구를 거스른 것이든, 까닭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욥은 의롭고 합당한 다툼을 가졌는데도 지나치게 넘쳐 버렸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이유들을 썼는데도 하나님께 맞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엉뚱한 데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의 세 친구는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으므로 더는 그와 다투기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욥이 자기 의를 그렇게까지 높이 여겨서 자기 안에 흠잡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 고난을 잘못 판단하는 자들의 입맛대로 자기를 정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생각과 상상은 이러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가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허물대로 벌을 받는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아끼시고 그들의 죄악을 못 본 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더 무거운 정죄를 위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그들을 기다리셨을 때 그분의 선하심이 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 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신다 해도, 그 때문에 그들이 더 싸게 치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고 해서 그들을 의롭다 하지 맙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매로 맞는 것을 볼 때, 그 때문에 그가 온 세상의 나머지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도,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친구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에 동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는 그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밝혔듯이) 나쁜 다툼을 붙잡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와 뜻이 맞지 않으면 그가 아주 정죄받아서 더는 그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툼에 들어가기 전에 진리를 잘 확신해야 합니다. 서두르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급함이

우리를 휩쓸어 가고, 성급한 재판관에게서는 어리석고 경솔한 판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늘 들어맞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니 진리가 우리에게 잘 알려질 때까지 판단을 미루어 두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CO3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정죄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헐뜯는 자들이 입이 막혀서 우리를 논박할 이유를 하나도 가지지 못했다 해도, 그들은 그래도 그런 교만에 끌려서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내던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경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논증도 없이 그렇게 악의로 우리를 정죄한다 해도 우리는 지나치게 언짢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하나님의 종인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오류와 미신과 거짓 가르침이 좋다고 결정해 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들은 선생 같은 말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툼에 들어가거나 일이 어떠한지 이치로 따져 볼 필요가 없다.” 자기들에게 모든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우리를 거슬러 벼락을 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런 시험에 맞섭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게 합시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곧 자기편에 아무 이유도 없는 자들이 좋은 소송을 대담하게, 거리낌 없이 정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그렇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늘 우리 길을 가며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에 한결같이 붙어 있읍시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도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서둘렀을 때는 더 큰 겸손 속에 걷도록 경고를 받읍시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끓어오르는 것이 있어서 충분히 자기를 억누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때 계속 밀고 나가지 말고, 고집이 무모함에 덧붙지 않게 합시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들판으로 뛰쳐나간 사람은 대개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악 속에 계속 있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붙잡기를 배워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분수를 넘었다. 내가 마땅히 지켜야 했던 그런 절제 속에 나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 내가 굳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나쁜 길로 들어선 것을 보았으니 고삐를 돌려야 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본보기로 하나님의 영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경고하십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거슬러 다툼을 붙잡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생겼다면, 적어도 고집부리지 말고 악 속에 버티지 말며, 오히려 우리 허물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엘리후에 관해서는, 성경이 그가 어떤 혈통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CO4 부스 사람, 람의 집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앞에서 다룬 그 오래됨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려 하신 가장 중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곧 많은 헛된 상상에 휩싸여 있던 자들 가운데에도 경건(religion)의 어떤 좋은 씨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새겨 둘 만한 조항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곧 등을 돌렸는지, 모두가 부패와 거짓으로 빗나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홍수 뒤의 일입니다. 그토록 무섭고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있었고, 살아남은 노아의 자녀들이 그 뒤로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의에 어떻게 원수를 갚으셨는지 자기 자녀와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 바른 경건을 버리고 거짓과 우상 숭배와 온갖 방탕으로 빗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람이 더할 나위 없이 연약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함과 좋은 경건 안에 붙들어 두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악에 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한결같아서 아무도 우리를 굽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안의 악을 바로잡으려 할 때 어느 끝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그것을 끝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딱할 만큼 굳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은 우리가 곧 잃어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꾀어내는 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여 주는 아름다운 거울이 있습니다. 곧 홍수 바로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잃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앎이 자기들에게 보여졌는데도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엘리후라는 인물의 이 본보기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둠 한가운데에 어떤 좋은 씨를 남겨 두셨고 어떤 좋고 거룩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핑계할 수 없게 되어서, 어디서나 다스리던 무지를 내세워서는 안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섬김과 경배를 받지 못하신 것이, 사람들이 그분께 등을 돌린 것 말고 누구 탓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럴듯한 빛깔을 입힐 수 있는 단순함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명한 악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속이기를 원하지 않고, 그런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문제가 될 때 그들은 눈을 감고, 빛나던 모든 빛을 끄며, 온갖 속임수에 빠지기만을 구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곧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다 해도, 그들에게서 나온 가르침은 선지자의 인격에 걸맞을 만큼 그런 위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CO5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그것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 안에는 뛰어난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밝혔듯이) 앞에서 풀어 놓은 것은 성령의 학교에서 온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1] 그런데 이 인물들이 그토록 뛰어났다 해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1. 원문은 “rocou“입니다. 문맥에 따라 “receu“(받아들여진)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교회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율법이 공포되었다 해도(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백성에게 정해 두신 가르침에 참여할 만한 아무 왕래도 거기서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고, 노아나 그의 자녀들이 홍수 뒤에 공포한 가르침 말고는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뛰어난 영을 가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나라에 살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일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앎을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 무지 속에서 핑계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데라와 나홀의 때에 우상 숭배가 다스렸고 그들 자신도 우상 숭배자였으며(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말하듯이), 그들에게서 나온 자들이 그들을 따랐다 해도, 람의 가문인 이 엘리후와 다른 세 사람은 그 시대의 일반 부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순수한 경건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세상의 고집과 그것이 빠져 있던 무지를 꾸짖기에 충분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멸망 속에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백성과 교회에 남겨 두셨던 특별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핑계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길을 잃고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모두 멸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 마음에 어떤 씨가 남아 있었고 그들은 유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아무 경건도 없었다” 하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스스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복종해야 할 어떤 하늘의 위엄이 있다는 것이 양심에 새겨진

채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롬 1:20) 특히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 새기신 증언을 말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O 6 그 사이에 우리는 로마서 둘째 장(14–15절)에서 다루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그런 확실함을 기록해 두셔서,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 가진 앎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욥의 세 친구에게서 듣는 것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자기 안에 아직 어떤 가책을 가지지 않고,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악을 정죄하고 선을 인정할 어떤 분별을 가지지 않은, 그만큼 거칠고 야만스러운 사람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무지한 자들의 마음에 남겨 두신 자국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핑계로도 자기를 덮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안에 감추어 가진 소송 기록으로 정죄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 다스리던 가르침을 지키려고 하나님과 싸운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앎이 세상에 그토록 밝게 빛나서 모든 사람이 거기서 빛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나무와 돌을 경배하고 해와 달을 경배하며, 그것들로 꼭두각시를 만들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는 알지 못할 만큼 그런 둔한 짐승 같음에 빠진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람이 한낮에 알면서 가서 부딪치고, 술 취한 사람이 바른 길을 자기 눈앞에 보면서도 빗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단순함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악의로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니 그것을 잘 새깁시다. 더는 이 익숙한 빠져나갈 구멍으로 달려가서 “오, 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눈부셔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핑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말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자들이 이것을 내세울 때 사도 요한에게서 말하는 것(요 1:5)

을 대답으로 삼읍시다. 곧 빛이 늘 어둠 속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본보기로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기꺼이 그리로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토록 둔하고 엄청난 미신 속에 그렇게 길을 잃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구원의 바른 길을 버리고 자기 우상들에 빠졌을 때 무지와 함께 악의와 반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빛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동안 걷는 데 우리가 그만큼 더 주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하고, 잠잘 때가 아니며, 하물며 알면서 눈을 감을 때는 더욱 아닙니다.[2] 오늘 우리는 세상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큰 어둠 같은 것을 봅니다. 불쌍한 교황주의자들은 CO 7 길을 잃고 헤매며,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럴 만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이 진리를 잊어버렸으니 그분의 원수 갚음이 그들을 덮어 멸망에 빠뜨리는 홍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우리 위에 비치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낮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동안 걸으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따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앎을 알면서 지운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첫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노여움에 관해서는, 그것이 여기서 지나친 격정으로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그것은 좋고 칭찬할 만한 분개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여길 만큼 자기를 의롭다 하려는 것을 보고, 엘리후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가진 열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는 이런 앎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악인

2. 원문은 “former les yeux“입니다. 문맥에 따라 “fermer les yeux“(눈을 감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이라고 그를 거슬러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니라고 밝히고, 진실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분수를 넘고, 그의 소송이 좋다 해도 그것을 잘못 이끌며 나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이 지나치게 넘쳐 버렸고 때로 참지 못해 원망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후는 함부로 나쁜 소송을 떠맡고는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정작 필요할 때 거기서 무너진 채 남는 자들에게 언짢아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진노로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의 열심이 좋으므로, 성령께서 그에게 있던 진노와 노여움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다는 이 말을 새겨야 합니다. 물론 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신성모독을 생각했느니 차라리 땅이 자기를 삼키거나 세상에 결코 태어나지 않았기를 백 번이라도 더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가 넘쳐 버릴 때마다 그것이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것을 내던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많은 격정이 자주 새어 나오지 않게 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늘 자기를 정죄했고, 허물이 있었다면 그것을 핑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좋고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채 자주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입니까? 그분을 거슬러 다투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특히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좋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CO8 우리가 그분보다 의롭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그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하도록 그분의 의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정죄에 충분합니다. 이것은 본보기로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꾸밈없이 그것을 압니다. 자기에 관해서는 그는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고 자기 안에 흠잡을 것이 많다고 고백하며,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려 한다면 한 조항에 대답하기도 전에 천 번이나 유죄로 드러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욥은 곧바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그분과 대등하게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놀란다. 내 안에 흠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는 연약함으로 가득한 불쌍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슬러 당신의 억센 팔을 펴셔야 하는가? 왜 첫 번에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는가?" 욥이 그렇게 많은 원망과 대듦에 자기를 내맡길 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괴롭히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에게 보이고,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상대편으로 거기 나오시기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첫 번에 자기를 삼키지 않으시고 구렁으로 보내지 않으신다고 대듭니다. 그러니 욥이 그토록 격렬한 격정을 가질 때,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미 말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우리 격정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채 자주 신성 모독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조심하게 해서, 우리 격정에 고삐를 풀어 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채 하나님을 모독할 만큼 비참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성령께서 선언하시기를, 자기 고난 속에서 대들고 원망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합당하다고 고백하도록 그분의 강한 손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없는 모든 자, 그들은 모

두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결코 그런 생각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백 번 단언한다 해도 일은 그러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판결을 내린 자격 있는 재판관이 있으니, 그것을 거슬러 발길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 소송 기록을 다 갖추어 가져가서 우리가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실 그분의 심판이 너무 쓰게 보일 때에는 더 따져 묻지 말고 그것을 인내로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CO 9 우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고, 우리가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까닭을 보지 못한다면, 악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끼지 않으시며 마땅히 그러셔야 할 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 상상에 고삐를 풀어 주어 거기에 동의하지 말고, 오히려 늘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의 까닭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연약함과 우둔함 말고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재야 합니까?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거칠다 해도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아, 주님, 내가 주님과 소송에 들어간다면 내 소송은 진 것임을 잘 압니다." 예레미야가 (렘 12:1) 그렇게 나아가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의 길을 보여 줍니다. 혼란이 너무 커서 그가 나머지 백성과 함께 겁에 질려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는 이런 서두를 씁니다. "주님, 나는 주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나는 주님을 거슬러 다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내 육적인 욕구에 부추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볼 때 주께서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따져 묻는 이 허락을 나 자신에게 주기 전에, 나는 이미 주께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주께로부터는 찬양받을 만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가 이것입니다. 곧 우리 정신이 그토록 높이 오를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깊은 구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실천합시다. 사람들은 위선으로 가득하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깨끗하고 죄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격하게 자기를 추궁하실 까닭이 없다고 여기기는 할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죄가 유죄로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줄이려고 자기에게 아첨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자들 가운데 하나는 아니다" 하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우리 눈앞에 눈가리개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으로 부풀어 있으므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이 교훈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의 징계가 지나치게 거칠다고 여겨지더라도 그분을 거슬러 다툼에 들어가지 말고, CO 10 오히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분수가 있고 그분은 지나치지 않으시다는 것을 압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온하게 그분의 뜻에 따르기를 가르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닐 때에도,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만큼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 해도 그분은 늘 우리를 벌하실 의로운 이유를 가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완전함에서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 인내를 시험하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은혜까지 베푸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예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그 위에서 우리를 낮춥시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겸손을 가집시다.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식으로 다루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나를 괴롭히시는 데 분수를 넘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분이 내게 베푸시는 그만큼의 은혜다.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분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것인 의를 돌릴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입을 다물 때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셋째 장에서(19절) 그것을 다룹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알고, 그분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으십니까? 곧 우리가 모두 정죄받은 채로 남고,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할 그런 대담함을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모두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고백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이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곧 그분의 의가 그것에 마땅한 찬양과 함께 우리에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높아지고, 자기를 정죄하도록 자기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매여 있는 빚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하려 한다고, 곧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려 한다고 단언한다 해도, 그들은 그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엘리후가 그렇게 불타올랐다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오는 노여움과, 우리 저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영예나 자기

자신 때문에 가질 노여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사사로운 격정으로 노하고 대드는 사람은 아무 핑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소송이 좋다고 내세운다 해도, 어쨌든 그는 노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격정 속에서 너무 눈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O 11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곧 우리는 모든 노여움에 고삐를 짧게 쥐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 이웃에게 언짢아하도록 부추김을 받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좋은 노여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당하실 때 우리가 가지는 느낌에서 나오는 노여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열심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다툼을 지킬 때, 우리가 노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죄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노여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누가 육적인 격정으로 노한다면,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자기가 자기 친구들을 편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사람을 차별함이 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노와 노여움을 인정하시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엡 4:26). 그는 특히 시편에서 말하는 것(시 4:4)[3], 곧 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자기를 샅샅이 살피고, 자기를 정죄하며 자기의 모든 격정과 싸우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노여움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해야 하고, 이 끝에서 우리 노여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곧 저마다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죄와 자기 악덕에 대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불러일으켰고 우리가 그토록 많은 비참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 분노를

3. 원문에는 “시편 4편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언짢아하고 분해하며 그런 끝에서 시작합시다. 그다음에 악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우리 안에서든 우리 친구들 안에서든 그것을 정죄합시다. 그리고 어떤 사사로운 미움에 끌리지 말고, 우리가 이미 어떤 사람에게 나쁜 감정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에게 우리 분노를 쏟지 맙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노여움은 칭찬받을 만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분수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을 다스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분수를 넘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열심 속에 지혜와 절제를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이 노여움이 그런 샘에서 올 때, 곧 우리가 악이 발견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우리 자신 안에서라도 그것을 미워할 때, 그 노여움은 그 자체로 칭찬받을 만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CO 12 우리는 모든 노여움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아오르고 분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늘 그것을 악덕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듯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그렇게 폭풍을 일으켜야 하는가? 노해야 하는가? 평온한 방식을 쓸 수는 없는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께 대들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많은 사람이 모든 좋은 가르침을 뒤엎고 싶어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더는 알지 못하고 그분의 진리가 묻혀 버리도록 어디에나 그런 부패를 심기만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그들은 사람들이 못 본 체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야기나 늘어놓고 아무 꾸짖음도 없기를 바랍니다. "참 그럴듯하다. 노하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는가?" 하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덧없는 피조물이 모든 좋은 가르침을

발로 짓밟으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러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 줄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기를(시 69:9)[4] 하나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우리를 삼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 어떤 모욕이 가해지고 그분의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만큼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악덕을 못 본 체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들이 자기 사사로운 다툼 때문에 흔들리고 불타오르는 육적인 노여움을 분별합시다. 여기서 엘리후가 분개로 불타올랐고 격렬하게 노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덕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으로 우리가 첫 번에 모든 노여움을 물리쳐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왜 불타오르는지 그 까닭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진리가 뒤엎어지는 것이 그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이 좋은 샘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내가 이미 말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영예가 상처 입고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를 흐리게 하거나 꾸며 바꾸려 애쓰는 것을 볼 때 우리 분노를 펼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그것으로 흔들리고 불타오릅시다.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증거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는 분수를 지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가운데 우리의 지나친 격정을 섞지 않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악덕을 미워하고 몹시 싫어한다 해도, 그래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애씁시다. 물론 CO 13 이것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성령께 이끌리기를 허락하고 그분께 우리 위의 모든 권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이

4. 원문에는 "시편 69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가르침을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는 노할 계기를 끝없이 보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모든 경건을 없애기만을 구하는 교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독교 세계를 지키는 시늉을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짓누르기만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갈가리 찢기는지 보고, 그들이 토해 내는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을 봅니다. 묻건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건드리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단검을 꽂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으로 상처 입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예가 상처 입으면 우리는 너무 예민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예는 온갖 모욕과 치욕에 내맡겨지는데 우리는 아무 기색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예를 지키려는 아무 애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황주의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더럽히기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주둥이를 들이밀며 모든 것을 뒤엎으려고만 애쓰는 이 개들과 돼지들을 볼 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자들을 볼 때, 모든 것을 웃음거리와 조롱으로 바꾸어 버리는 이 더러운 속된 자들을 볼 때, 악인들이 그렇게 일을 꾸며 바꾸고 CO 14 거짓 비방으로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비뚤어지게 하는 것을 볼 때, 이단들이 모든 것을 망치려고 자기 독을 뿌리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묻건대, 우리가 그것으로 건드려지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때 그것은 마치 그분께 치명상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기가 찌른 자를 느끼리라“(슥 12:10).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께 단검을 꽂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이 근심하시고 시들어 가는 것 같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웃어넘기기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이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을 들을 것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갈가리 찢길 것입니다. 오늘은 업신여김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 우리가 튀르크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해도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우리는 한쪽에서는 음행과 방탕이, 다른 쪽에서는 모욕과 폭력이 저질러지는 추악함을 봅니다. 요컨대 모든 것이 끝까지 넘쳐 버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달리 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무슨 증거를 줍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까지 가지지 않았던 다른 열심을 가지도록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마다 언짢아할 때는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게 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크게 노여움을 당하시는 것을 볼 때 그러하게 합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여움을 가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성령께서 칭찬하시는 노여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빗나가기 쉬우므로 우리 격정에 고삐를 풀어 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 열심이 온전히 깨끗해져 그분께 인정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0편

욥기 32장 설교 2

CO 35:15–2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엘리후는 욥이 그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으니, 그들이 모두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엘리후는 이 세 사람에게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을 보고 노여움이 일어났다. 그래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나이가 당신들보다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하오. 그러므로 나는 내 의견을 내놓기를 두려워하고 꺼렸소. 내가 생각하기를, ‘나이가 말할 것이요, 긴 세월이 지혜를 낳으리라’ 하였소.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오. 그러므로 큰 자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연로한 자라고 판단력이 있는 것이 아니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도 내 가르침을 보이겠소.” (욥 32:4–10)

CO 15 어제 우리는 엘리후의 열심을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보기가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어야 하는지 보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가 흐려지고 그분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마음을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예에 어떤 애정을 가진다면, 그때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그분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만한 가르침을 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능력과 분량에 따라 우리 뜻이 악에 맞서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열심이 이성으로 절

제되어야 한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곧 우리가 너무 큰 격렬함에 휩쓸려서는 안 되고, 어떤 좋은 신중함이 거기에 섞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곧 엘리후는 지나치게 서두르지 않고, 내놓인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자기 겸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함부로 나선다면, 그것이 그에게 열심으로 여겨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말할 자리를 얻기만을 구하는 사람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그 말을 훨씬 더 잘 풀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제때 거기 이르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성급함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말하는 사람이 그것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선생이 되려고 끼어듭니다. 그런데 또 둘째 허물이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나 CO 16 그다지 기초가 잘 닦이지 않은 사람이 지껄이면, 더 많은 은혜와 더 잘 세울 수단을 가졌던 사람들의 입을 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겸손이 없는 곳에서는 열심이 경박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잘 나누어 주시지만, 결코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그분이 지혜의 영이라고 불리시므로, 우리는 언제 말할 필요가 있고 언제 잠잠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가장 능숙한 사람이 아니고 그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어떤 좋은 말을 내놓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은 두려움 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는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준비하고 채비하여 왔으며 선생보다 제자이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아갈 때,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다 해도 그는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을

길게 늘이고 거기 끝이 없으며 모든 것을 단정한다면, 그것으로 그는 자기 안에 어떤 헛된 야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밖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의 본보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말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직 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자기가 나이에 영예를 돌렸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욥과 그와 함께 말하는 자들이 나이 든 사람들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경험과 무게를 함께 가져오므로, 엘리후는 끼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오래 살게 하셨으면 그에게 더 젊은 자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많이 보았고, 그 사이에 또 더 차분해야 하며 어떤 지혜를 얻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엘리후는 자기 앞에서 말한 자들이 나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좋고 유익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잘 실천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겪음으로 보여 주신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만큼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경고를 주는 데에도 쓰여야 합니다. 또 거기에는 무게도 함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해도, 어쨌든 우리는 CO 17 많이 보지 못했고, 그것은 큰 결함이다." 사람에게 겪음이 없으면 그는 번번이 함부로 뛰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일의 결말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 혈기는 이성과 좋은 판단에 완전히 반대됩니다. 젊은 사람이 잘 다스려져 있고 지식도 함께 가졌다 해도, 그래도 젊음은 사람들을 곤두박질치게 하

고, 그들 본성에는 자기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끓어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음의 욕구에 매이지 말라고 권하는 것을 봅니다(딤후 2:22). 그런데 그는 젊음의 욕구라는 말로 놀이나 음행이나 술취함이나 다른 방탕에 빠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그 자체로 모든 거룩함의 거울이요 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딤전 5:23 참조). 그런데도 그는 그에게 젊음의 욕구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이가 젊었으므로 아직 어떤 일들에서는 너무 성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혜와 무게에서 연로한 자들을 넘어섰던 디모데가 이 경고를 받아야 했다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이 더 많은 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조언을 따르는 이런 예의를 가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든 덕을 가졌다 해도 이 한 가지 악덕이 그것들을 다 더럽히고 얼룩지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제넘음은 아주 흔한 악덕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일에 있는 어려움을 느껴 보지 못했으므로 대담하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고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젊음은 늘 주제넘음을 함께 데려오고, 그것은 너무나 흔한 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젊은 사람이 그 밖에 많은 덕을 가졌다 해도 자기를 믿고 나이 든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나머지를 이끌 만큼 자기가 능숙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모든 교만 속에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은혜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젊고 아직 많이 보지 못한 자들은 그만큼 더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이 그토록 넘쳐 버려서 젊은 사람들이 마귀 같은 대담함을 얻어, 가르침이든 무엇이든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일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만큼 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젊은 막된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매에 매이지 않게 되자마자 어른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CO 18 아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들은 깨어난 지 사흘 된 병아리 같은데도 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직 십 년은 매 아래 두어야 할 텐데, 그들 보기에는 다 자란 어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그렇습니까? 대담함에서입니다. 거기에는 창녀 같은 뻔뻔함이 있어서, 그들은 더는 어떤 훈육이나 바로잡음에도 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어떤 악덕이 그토록 흔하고 마치 옮는 병 같을 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하고, 거기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계하고, 자기가 겸손할 때 그렇게 화려한 겉모습이 없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려는 자들이 그들이 이마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는 까닭으로 그들을 업신여긴다 해도,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훨씬 더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들 안에 있는 이 예의를 복 주셔서 그들이 지나치게 성급한 자들이 네 해에 얻을 것보다 두 해에 더 많은 유익을 얻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어떤 열매가 아주 일찍 익고 곧 제 빛깔을 얻으면 금세 시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늦게 익는 열매는 오래갑니다. 때를 앞질러 나서려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물론 그들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맛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로 아무 단단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끄러움과 예의를 가지고 서둘러 나설 아무 주제넘음도 없는 자들은, 물론 늦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오래가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간직할 좋은 점이 이것입니다. 물론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맞는 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곧 연로한 자들에게 영예를 돌리고, 자기들 편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끓어오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본성으로 충분히 차분하지 않고, 또 요구되는 만큼 지혜로울 만한 겪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젊은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처신했으면, 그는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펼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라도 말입니다. 연로한 자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젊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채우는 것을 본성의 질서가 막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 살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잘못 쓰고 완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방법이 이것입니다. 곧 CO 19 젊은 사람들이 나이 더 많은 자들에게 돌리는 공경이, 늘 진리가 지켜지고 하나님께서 영예를 받으시며 악덕이 억제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잃었거나, 속임과 불충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고집 세고 정신 나간 자들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멍에 아래 그렇게 붙잡혀서 연로한 자들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좋고 거룩한 것에서 돌아서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겸손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알지도 못하도록 짐승처럼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그들이 때가 되기 전에 앞다투어 나서서 자기 거품을 내던지려고 자기를 주제넘게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듣고, 가르침을 잘 받으며, 어떤 좋은 말이 내놓일 때 늘 잠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 남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연로한 자들이 좋은 본을 보이지 않고 심지어 선을 악으로 돌려 비뚤어지게 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교황제의 미신 속에서

자라난 자들은 세상에서 오래 살았을수록 가르침을 그만큼 덜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를 바라며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랜 경험을 가졌던 나이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앎도 경건(religion)의 순수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나이가 더 큰 고집 말고 무엇을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오류에 절여져 있었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들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놓을 젊은 사람들을 부르려 하셨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고삐에 매이셔서 젊은 사람들은 말하지 못하고 연로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연로한 자들도 쓰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당신의 진리가 나이에 매여 있지 않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겸손이 있어야 하는지 봅니다. 곧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동안 배우도록 평온해지고, 자기를 내세우기를 탐하지 않으며, 겉모습을 보이려는 어리석은 욕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놓는 것을 잠잠히 받으며, 자기가 CO 20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에게 이끌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자기를 높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었습니까? 오, 우리는 연로함이라는 구실 아래 더는 판단하지 못하도록 붙잡혀서는 안 되고, 불쌍한 짐승처럼 다니면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 그들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신탁처럼 받들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 열심과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의 영께서는 그 둘을 다 그 안에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겸손이 있다면 열심과 분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산 자들의 권위에 우리가 고삐 매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우리에게 끌어온다 해도 연로함이 바르고 유익한 것에 아무 손해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이미 말했듯이, 교황제의 나이 든 사람들이 모두 복음을 거슬러 공모하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익숙한 방식에 머물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문을 닫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연로한 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오래 악을 길러 와서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는 데 방해를 받는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그것에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아버지들과 조상들이 이렇게 산 지 백 년이다. 오백 년, 아니 천 년 동안 이것이 지켜졌고, 사람들이 그것을 법과 틀림없는 규칙으로 여겼다" 하고 말한다면, 말하건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시간의 오래됨을 내세울 때, 심지어 우리를 세상의 창조에까지 데려간다 해도, 그런 구실 아래 하나님의 진리가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겸손하려고 불쌍한 눈먼 자가 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중용과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말할 것이요 많은 해가 지식을 알리리라 하였다. 그러나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신다." 그러니 보십시오, 본성의 질서가 앞서갑니다. 곧 우리는 연로한 자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한 도시나 한 나라에서 다스릴 자들을 뽑아야 할 때, 자기 몸 하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고 경박하며 정신 나간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재판관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본성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차분한 사람들, 무게 있고 원숙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들은 자기 집에서 썩게 내버려 두고, 그 사이에 바람 든 자들,

하룻밤 사이에 생긴 작은 달팽이 같은 자들을 데려다가 재판석에 앉히는데 그들이 CO21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을 결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너희는 구운 고기와 고기 파이를 먹을 것이다" 하고 말하면, 그들은 그것에 기꺼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결혼입니까? 말하건대, 재판석에 앉은 자들도 그러합니다. 더 무게 있고 경험 많은 자들을 뽑는 데 아무 고려가 없어서, 그들 안에 어린아이들보다 지혜도 이성도 없을 때 말입니다. 그러니 첫째로 본성의 질서가 지켜져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나이 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직무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들 아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큰 자 행세를 하려 하고, 더 오래 산 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만함은 죽을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본성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이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리는 직분에도 그러합니다. 경험이 많고 자기 안에 어떤 지혜가 있으며 시험을 거친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쓰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나 함부로 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확정된 규칙을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갑절을 산 자들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신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한 이 질서가, 하나님의 영께서 드러나시는 곳에서 그분이 받아들여지고 그분이 나누어 주시는 대로 은혜들이 쓰임에 적용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연로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디모데를 골랐습니다. 그는 이 뛰어난 사람을 보았을 때(그가 사람들뿐 아니라 성령의 증언도 가졌으므로) 그를 나이 더 많은 자들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후도 그렇게 합니다. 그는 듣고 난 뒤에 사

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나이 든 사람들이 노망났다거나 그들에게 자리도 설 곳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나이에 이런 영예를 돌려서 ‘그래, 많이 본 사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세상에서 산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젊은 사람 안에 계시면 그가 나서야 한다.” 그러니 본성의 질서가 지켜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꾸며 주신 젊은 사람들이 늘 그분의 교회를 섬기고 CO 22 자기 또래와 동료뿐 아니라 가장 나이 든 자들까지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간직합시다. 그러므로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기대어 참지 못하고 모든 경고를 물리치며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젊은 사람이 내게 내 교훈을 보여 준다고?”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될 만큼 유익을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인도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던 자들에 비하면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자에게 요구되는 은혜를 내게서 거두셨으니, 나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뒤따라야 하고 앞서 걸어서는 안 되었던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더 넉넉히 베푸신 것을 볼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풀어 놓은 것에서 실천할 좋은 가르침을 얻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께서 본성의 질서 위에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담긴 것을 더 잘 깨닫기 위해, 엘리후가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깨닫기를 기뻐하실 때 마치 특권처럼 베푸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성 있는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것으로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판단력과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한 사람은 굼뜨고 둔하며 다른 사람은 날렵하고, 한 사람은 바람 들고 다른 사람은 자기 안에 좋은 무게를 가진 것을 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손에 쥐고 계시고 당신 뜻대로 좋으신 대로 누구에게든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압시다. 엘리후가 여기서 나타내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어머니 배에서 가지고 나온 본성의 유산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고, 자기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고 이미 얻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셨다. 물론 우리는 어떤 이성을 가질 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분량대로일 것이다.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만큼 더 매이고 빚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지는 것은 우리가 교만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깨달음과 재능을 가졌을 때 더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셨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큰 두려움 속에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만큼 더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물을 베푸려 하셨다면, 그것은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CO 23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세우는 데 그것을 쓸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만큼 더 죄 있는 자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여기서 두 단계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곧 이 덧없는 삶에 속한 일들을 분별하도록 사람들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복음의 가르침, 참되고 순수한 경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성으로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재주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좋은 학교 선생이 되거나, 좋은 변호사나 의사가 되거나, 도시의 좋은 상인이나 들판의 좋은 농부가 되는 것이 문제라 해도,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일에서 날카로워야 할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기술이 때로는 장사보다 더 큰 재능을 요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평범하고 값어치가 적어 보이는 그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복음의 가르침으로 오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에 담긴 하늘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 아들의 인격 안에서 아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 아래로 내려오셨다 해도, 우리는 그분의 신적 위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고 그분 안에 쉬게 할 수 없습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인간 본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손으로 하는 기술과 덧없는 삶에 관련된 인간 학문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나누어 주셔야 한다면, 하물며 우리의 교묘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이며 그분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3:18) 그런 지혜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거기에 대해 내리는 판결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 곧 사람들이 자기 본성 그대로 남아 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코 그분의 말씀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1:18)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음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치 없는 가르침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밝혀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을 볼 때, 심지어 나이가 지긋하고 CO 24 세상에서 오래 산 많은 사람이 자기 미신 속에서 미쳐 날뛰며 복음의 가르침을 거슬러 사납게 싸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주 눈이 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놀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걸림돌에 맞서 우리를 무장시켜야 할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불쌍한 눈먼 자들이고, 복음에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무지에 잠겨 있는 것을 봅니까? 그것에 놀라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밝힘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젊든 늙었든 하나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볼 때, 오랫동안 이 교황의 어리석은 것들에 흠뻑 젖어 있던 어떤 연로한 사람이 바른 경건으로 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압시다. 또 젊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께 이끄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들은 주제넘음으로 가득하므로 쉽게 멍에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들이시고 그들을 가르침 잘 받는 자로 만드신다면, 그분의 능하신 손이 거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이 두 가지에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우리 정신으로는 하나님도 그분의 진리도 알 만큼 그토록 높이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비우고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 것을 아무것도 가져와서는 안 되고, 이것이나 저것을 가졌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은혜를 어느 몫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분이 그것을 계속 베푸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마땅히 받으실 만큼 그분을 높이고 크게 찬양하기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넣어 주실 때까지 우리 안에 좋은 깨달음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를 늘 그분께 순종하는 데 머물게 하고 더 큰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걷게 하는 데 쓰이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빛을 끄신다면 우리가 어둠 속에, 그렇습니다, 결코 거기서 나올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어둠 속에 있으리라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첫째 쓰임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대다수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따르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 버리고 들짐승처럼 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CO 25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만큼 더 잘 크게 찬양할 근거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반역을 보면서 휩쓸리지 맙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본성을 따르고 자기 머리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일하셔서 눈을 열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자기 짐승 같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 밖에 엘리후는 그 위에서 결론 내리기를, 그러므로 큰 자라고 늘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나이 든 사람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깨달음도 지식도 지혜도 더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엘리후는 여기서 본성의 질서를 뒤집으려는 것이 아닙니다(그는 앞에서 연로한 자들의 말을 들으려 했고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고 단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미 짚은 것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나이에도 신분에도 자질에도 매여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기를 기뻐하실 때, 좋습니다, 그분이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그를 쓰려 하신다면 그가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그를 빈손으로 두실 것이고,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사람들은 그를 갑절의 짐승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도록 뽑힌 사람이 있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은혜를 베푸려 하시면 그분은 이 사람을 당신의 영으로 꾸미시고, 그에게 당신 말씀의 깨달음과 그것을 백성의 쓰임에 적용하고 거기서 좋은 가르침을 거두어 낼 솜씨를 주시며, 그에게 열심과 요구되는 다른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토록 분명하게 드러나셔서, 그분이 우리 유익에 필요한 것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갑절로 있어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려 하실 때 그들에게 자기 의무를 다할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알릴 자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될 것이고, 그들이 일을 꾸며 바꾸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길 것이며, 그들 아래서 좋은 가르침이 헐뜯기고 더럽혀질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좋은 선생은커녕 제자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큰 자라고 지혜롭지 않을 것이요 연로한 자라고 더 잘 깨닫지는 않으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보여 주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같은 잣대를 대고 ‘이 사람은 신분과 지위가 높다. 그러므로 그는 박식하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결론을 거기서 끌어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자들을 빈손으로 두셔서 그들이 큰 짐승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 26 그들이 오래 살았을수록 하나님의 비용으로 먹고 자라며 빵을 많이 축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차라리 소 한 마리를 먹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고, 그것이 더 견딜 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섬김에 쓰려 하시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시는 만큼, 그들이 그만큼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거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들이 달리 한다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완전히 눈멀게 되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로 특히 그렇게 위협하시며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사 29:14). “연로한 자들이 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짐승같이 되며 완전히 멍해지리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보다 큰 자들과 연로한 자들과 다스리는 자들 위에 더 무서운 원수 갚음을 선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틀림없는 권위를 돌려서, 마치 그들이 결코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로한 자들과 큰 자들과 권위 있는 자들을 그렇게 눈멀게 하신다면, (묻건대) 그분이 그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주시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이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위협을 하시는지 그 까닭을 잘 새깁시다. 그것은 사람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만 그분을 섬겼고 그들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분을 섬기려 한다고 단언했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의 전통에 빠졌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홀로 다스리지 못하시고 사람들이 판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시고 연로한 자들에게서 영과 이성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 위의 다스림과 주권을 그분께

맡겨야 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 규칙으로 삼고 그것에 다스림 받기를 받아들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찾읍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말씀을 알릴 목사들이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서 바로잡음과 권면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만큼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결함을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위에 모든 우위를 가지시기만을 구할 만큼 그런 겸손 속에 걸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CO 27 그분의 성령으로 밝힘을 받는 만큼이 아니면 이성도 깨달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은 결코 우리가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모든 지혜 안에서 점점 더 굳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첫째 장에서 말하듯(고전 1:7–8 참조)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들의 온전한 계시를 받을 마지막 날까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1편

욥기 32장 설교 3

CO 35:28–3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보시오,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준비하며 할 말을 찾는 동안 귀를 기울였소. 그때 나는 당신들을 지켜보았소. 그러나 당신들 가운데 욥을 꾸짖고 그의 말에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소.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그를 넘어뜨린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지 마시오. 그가 내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니, 나는 당신들의 말대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소. 그들은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쳤소. 내가 기다렸으나 그들은 말하지 않았소. 그들은 멈추어 서서 대답하지 않았소. 나도 내 차례에 대답하고 내 의견을 보이겠소. 내게는 말이 가득하고, 내 배 속의 영이 나를 몰아세우오. 보시오, 내 배는 빠져나갈 데 없는 포도주 같고, 터지는 새 통과 같소. 그러니 내가 말하여 숨을 쉬겠소. 내 입술을 열어 대답하겠소. 나는 이제 사람의 낯을 보지 않겠고, 사람에게 칭호를 붙이지 않겠소. 내가 아첨한다면 나를 지으신 이가 곧 나를 멸하지 않으실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오. (욥 32:11–22)

CO 28 어제 아무도 너무 성급하게 나서서는 안 되고, 필요가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배우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듯이, 이제 여기서도 흔히 말하듯 사건의 실체를 잘 알기 전에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자기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일을 두고 다투려는 자들이 어떻게 길을 잃고 엉뚱하게 말하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엘리후의 본보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또 지켜야 합니다. 곧 함부로 어떤 말을 내놓지 말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데 너무 성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교훈은 특히 재판하는 신분에 세워진 자들에게 속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실을 판단하기 전에 잘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이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제 밝힌 것을 따라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첫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말한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사람을 다스리실 때, 그분이 그에게 열심을 주시고 경건(religion)에 관해 그를 움직이시듯이, 또 그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하나가 결코 다른 하나 없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스려진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에게 아무 덕도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에서 다스리신다면 그는 이것들이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지키는 은혜를 베푸신다면, 또 언제 말할 때이고 언제 잠잠할 때인지도 보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이성을 주셔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함부로 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말입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다. 나는 일이 그런 줄로 들었다” 하고 말할 때 그 핑계는 너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더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분의 손으로 다스림 받기를 구합시다. 그래서 좋은 열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잘 절제하고 다스릴 이성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말하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자기 논쟁이 다른 사람들의 논쟁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넘어뜨리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하지 말라.” 여기서 엘리후는 자기가 욥을 거슬러 논쟁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다른 방법을 가지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은 까닭 없는 것이 아니다. CO 29 그러니 네가 악인이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네 고난은 너무 크고 엄청나서 세상에 너만큼 짓눌린 사람을 볼 수 없다. 그러니 네가 죄악에서 모든 사람을 넘어선다는 것이 뒤따른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그를 논박하려 할 때 삼은 기초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 이야기를 이어 갔다면 그것은 늘 악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었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걸었으므로 자기 온전함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가 잘못한 것은 자기 정신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온전히 붙들어 둘 수 없었고 자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긴 것뿐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서는 그의 소송은 좋고 의로웠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마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너희가 잠잠한 것으로 지혜롭다고 말하지 말라. 죽을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충분히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자연스러운 뜻은 내가 말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그들이 지혜를 찾았다고 여겼다고 꾸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담으로 말하듯, 어떤 사람이 무슨 교묘한 것을 가지고 어떤 모임에 끼어들어 자기 의견과 자기가 지어낸 것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하찮은데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가진 것처럼 여겨질 때, 그는 과자 속의 콩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5] 이제 엘리후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문제의 매듭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짓누르시고 그토록 혹독하게 괴롭히셨을 때 그분이 그의 원수시라는 것 말이다. 말하건대, 너희는 그보다 더 좋고 단단한 기초는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라는

5. 주현절 과자 속에 콩을 하나 넣어 두고, 그것을 찾은 사람을 그날의 왕으로 세우던 풍습에서 나온 속담입니다.

것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그들의 몸과 재산과 자녀로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셨다 해도, 욥은 그렇게 박해받은 것이 아니었고, 다른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기는 자들을 위협하신다고 해서, 원하실 때 신자들의 인내를 훈련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당신께 남겨 두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이 저지른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해도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이 까닭밖에 없다 해도 그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육적인 정욕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6] 때로 우리 안에는 감추어진 악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터지기 전에 처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실 때 때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더 밝히 보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CO 30 선한 자들을 괴롭히실 것이고, 당신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자들에게도 거칠게 대하시고 큰 엄격함을 쓰셔서 그들을 완전히 구렁에 빠뜨리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악인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이 점에서 지혜를 찾았다고 여겼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논증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짚은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실 때 신중하고, 하나님의 매로 맞는 사람이 정죄받아야 하고 고난으로 죄를 재야 한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무모하고 경솔하게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괴롭히시는 여러

6. 원문은 "eternelles"(영원한)입니다. 문맥에 따라 "charnelles"(육적인)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 물론 죄를 벌하시는 것이 그분의 보통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때로 그분이 선한 자들,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계명을 따르는 데 힘을 기울인 자들의 순종을 시험하려 하실 때, 그들은 가장 악한 자들보다 더 큰 엄격함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겸손과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까닭이 거기 있으니, 누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판단을 미루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당신의 백성을 그들에게 닥칠 어떤 시험에서 지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노엽게 했다면, 그분은 그들을 괴롭히심으로 그런 악에 처방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가장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자들이 가장 악하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거꾸로, 그분의 의도와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 밖에 이것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합시다. 그러니 많은 악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첫째로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데 서두르지 말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방탕한 자, 엄청난 악덕에 빠진 자가 크게 괴로움을 당한다면 이렇게 압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 갚음이 무엇인지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 거기서 우리는 판단할 정당한 계기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스스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평생 방탕하게 살았으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히시는 것을 볼 때, 오, 거기에는 아무 의심이 없고, 일이 흐릿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판단은 너무 성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따져 물은 뒤에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괴롭히시는지 그 까닭을 보지 못한다면(이를테면 CO 31 누가 올곧게 걸었을 때), 거기서 우리는 고삐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

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악인들이 마땅히 받을 만큼 바로잡음을 받는 것을 본다면 그들을 정죄하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합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고전 10장). 곧 남의 값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걷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도둑들과 반역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며 걷기를 배우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어지는 자들처럼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께 온전히 반역한 자들에게서 당신의 원수 갚음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자들이 그렇게 찾아오심을 받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푸른 나무가 이렇게 불에 던져진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를 반쯤 죽은 것 같은 자들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더 큰 덕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수단으로 깨어날 때, 그것은 더는 우리에게 악을 행할 자유를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붙잡혀 마치 묶인 것처럼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보내시는 매와 바로잡음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우리 차례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벌하실 때 이렇게 압시다. "오,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기에 충분한 재판관이다." 그러나 그 뒤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격하시고 우리가 그 까닭을 보지 못한다면, 좋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입맛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을 어지럽히도록 하나님과 다투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원수이시고 우리를 거슬러 벼락을 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앞에서 욥이 말하는 것을 보았듯이 그래도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절제해야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를 판단하는 데에도 이렇게 신중해야 합니다. 엘리후가 사람들이 지금의 고난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손이 어떤 피조물 위에 그토록 잔인하고 거칠고 혹독할 때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셨다" 하고 말하려 한다면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반 규칙을 따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CO 32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였듯이 우리는 번번이 거기서 속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꾸짖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기다렸는데 그들은 더는 말하지 않았고, 자기 말을 그만두었다." 여기서 그는 그들이 기초를 잘못 놓았으므로 할 말을 잃은 채 남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진리가 늘 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소송을 가진 사람이 늘 말을 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 정신 나가고 미쳐 날뛰는 자들이 판을 칠 때 좋은 소송이 짓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들이 말할 정당한 계기를 가진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이 좋은 질서로 이끌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소송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거리도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진리는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길 한가운데서 할 말을 잃은 욥의 친구들을 조롱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참되다는 것을 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버틸 논증과 이유도 주셔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꾸려 애쓰는 자들에게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결코 이유를 잃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새겨 둘 만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자주 좋은 다툼을 감히 떠맡지 못하는 까닭이, 요구되는 만큼 한결같이 맞설 줄 아는 수단과 솜씨가 없다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런 소심함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진리를 지키는 열심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소송을 지킬 용기를 가진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속임과 간계로 짓눌린다 해도 (우리가 말했듯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그들은 결코 할 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헛되이 말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지키는 소송이 좋은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지도 어떻게 그런지도 모른 채 다툼을 떠맡는 자들의 경박함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입을 벌린 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은 우스운 꼴로 남아 모든 사람에게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나치게 나서는 자들의 정당한 삯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송이 좋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기댑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좋은 소송을 지켜야 할 자들이 대개 오리처럼 몸을 사리고, 어떤 말을 내놓을 수 있을 때에도 CO 33 거기서 죽은 사람처럼, 할 말을 잃은 채 남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을 벌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부르지 않았고 그분께 기대지 않았으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충분하시리라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담대함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오늘 좋은 소송이 있어도 그것이 발아래 짓밟힐 만큼 불신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자기 거짓말을 내세우는 데에는 용기가 넘치고, 진리가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모든 것을 뒤엎고 일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할 수 있는 한 힘쓰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데,

그 사이에 거기에 맞서는 사람이, 적어도 요구되는 만큼의 힘으로 맞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바라고 거기에 어떤 애정을 가진 자들도 불쌍한 믿음 없는 자이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할 말을 잃은 욥의 친구들을 조롱할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것으로 그들이 나쁜 소송을 가졌고 욥을 거슬러 그것을 잘못 싸웠다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도 자기 차례에 말하겠다고 덧붙입니다. 이 "도 "라는 말을 헤아려야 합니다. 엘리후는 자기가 알맞은 때에 자기 말을 내놓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젊었으므로 나이 든 사람들에게 공경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본성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겸손이 앞서야 했고, 엘리후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자들이 말하도록 두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사람들이 한 것보다 소송을 더 잘 가려낼 은혜를 주시니, 그는 자기 차례에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곤두박질치지 않는다는 것, 곧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알맞은 때를 기다린 뒤에 그때 말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또 잘 새겨야 할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14:40)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좋은 질서로, 품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째로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질서와 함께 예의가 있어서 일이 품위 있고 알맞은 것입니다. 그러하니 엘리후의 본보기를 간직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끌어온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붙듭시다. 곧 우리 가운데 혼란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끌어온 구절의 다른 대목(27절 이하)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많은 선지자를

일으키셨고 CO 34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며 심지어 가르칠 거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내놓을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분수가 있어야 하며, 그다음에 지켜야 할 어떤 예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자기가 말하겠다고 할 때 그의 본보기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일이 잘못 이끌어졌고, 욥의 친구들이 진리를 꾸며 바꾸었으며, 그들이 나쁘고 거짓된 원리를 주장했다는 것을 볼 때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꾸미려고 아름답고 그럴듯한 이유를 가졌다 해도, 그들이 그 위에 지은 기초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은 자기편에서 정당한 소송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잘못 이끌었고 지나친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평온하게 들은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어갈 문과 길을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씁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는 또 거기에 몰리기도 합니다. 그가 자기 영이 답답하고 새 포도즙이 가득한 통 같다고 덧붙일 때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통에 넣어 닫아 두고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 포도주가 끓을 때 통이 터질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자기 영이 갇혀 있어서, 마치 통에 새 포도주가 가득해 더는 견딜 수 없고 모든 것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필요가 자기를 몰아세워 자기 말을 내놓게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잘못 논쟁된 소송이 이제 이치에 따라 풀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여기서 큰 격렬함으로 말하므로, 어떤 이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교만한 정신과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욥을 정죄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정죄하시며, 모두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 사이에 엘리후는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보다 위에서 판단하는 이

권위를 차지하려 할 죽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은 너무나 큰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것을 그렇게 새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밝힌 것을 간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엘리후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당신의 율법을 공포하신 뒤에, 그분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선지자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열여덟째 장에 기록되기를 "너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가지 말라. 너는 이방인들이 찾는 그런 계시를 가지지 말라. 너는 많은 지식을 좇아다니지 말고, 죽은 자에게 물으려 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께서 늘 네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묻고 가르침을 받을 많은 CO 35 수단을 찾는다. 왜 그런가? 그들은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선지자도 없으며, 이끌고 인도받을 확실한 가르침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늘 어떤 선지자를 주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거하고 내 진리가 너희에게 알려지게 하겠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들이고, 그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지 않은 자들 가운데 살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율법 이전에 있었거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엘리후의 할아버지 또는 조상인 데라와 나홀이 우상 숭배자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우리가 보듯 말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큰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능력을 보이시며, 엘리후가 자기가 바뀐 것처럼 느끼는 것을 새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언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거기에 어떤 뚜렷한 표지를 두신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입

니다. 사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부르려 하셨을 때 그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람들은 그가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말하듯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신분에 부름 받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깊이 건드리셨다면, 그들이 그분의 약속을 따라 거기 있었고 그것이 익숙한 질서 같았는데도, 말하건대 그분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셔서 사람들이 그들이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면, 하물며 그분이 당신의 교회 밖에 있던 어떤 이방인 안에서 일하셨을 때는 뚜렷한 표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하나님의 원숭이여서 그분의 일을 흉내 냈듯이, 우상의 이름으로 계시를 가져온 믿지 않는 자들의 거짓 선지자들도 비슷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넋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앞일을 알아맞힌다는 소문과 명성이 있던 우상들에게 어떤 감추어진 것을 물으러 오면, 좋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선지자들, 남자나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물으러 온 자들에게 대답할 때가 되면 반쯤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들은 간질로 쓰러진 사람처럼 몸을 끌었고, 거품을 물었으며, 눈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마귀가 불쌍한 무지한 자들의 눈을 부시게 하려 했고, 그들을 짐승같이 만들어서 그들이 싫든 좋든 CO 36 공경심에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니 여기에는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은 사탄의 술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꾸밈으로 하나님의 일을 흉내 냈고,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지옥에서 온 것을 하늘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엘리후가 자기 영에 그런 격렬함을 가진 것을 더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그렇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을 거슬러 싸움을 떠맡도록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음은 그 자체로는 연로한 자들 가운데서 말을 들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 나이로 자기를 높이 여기고, 자기가 덕을 얻을 수 있었고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더 오만하게 하고, 그들은 거기서 어리석은 의견에 사로잡혀서 큰 어려움으로, 마치 억지로가 아니면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르침이 연로한 자들 가운데서 더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들어갈 길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깊이 건드리셔야 했고 그 안에 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엘리후에게 그런 영의 격렬함을 주셨을 때 여기서 그를 믿을 만한 자로 만드시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은 까닭도 있습니다. 곧 그가 진리가 짓눌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 다툼이 좋았는데도 그것을 잘못 지켰고, 다른 사람들도 일을 꾸며 바꾸고 나쁜 기초를 놓았으며, 그들이 삼은 나쁜 기초를 인정하려고 좋고 거룩한 이유들을 가져왔으므로 하나님의 것이었던 말씀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그는 자기 안에 품은 열심에 움직였습니다. 그의 영은 끓어오르는 것 같았고, 그가 그것을 쏟아내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를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쓰여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가르침에 그런 표지를 새기셨고 하늘의 영이 그의 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니,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아야 합니다.[7]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표시하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공경을 받게 하시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엘리후가 앞으로 풀어 놓을 것을 죽을 사람에게서 온 것처럼 받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인을 치셨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확실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7. 원문은 “a ;D primé “입니다. 문맥에 따라 “a imprimé “(새겼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거기에 복종하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를 도구처럼 쓰시므로, 우리 믿음이 피조물의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CO 37 엘리후에게서 흐릿했던 이 표지가 그의 가르침이 온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에게 쓰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과 당신의 모든 예언에 주신 그토록 크고 장엄한 인증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엘리후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성령에게서 온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그런 격렬함으로 부추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높이시고 인증하셨는지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장엄한 방식을 볼 것입니다. 율법이 공포되었을 때 공중이 울렸고, 하늘이 천둥과 번개로 흔들렸으며, 나팔이 구름 속에서 울렸고, 땅이 떨었으며, 산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양처럼 뛰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이 가르침에 증언하지 않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이 온전히 하늘의 것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했을 때에도 기적이 뒤따랐습니다. 그것은 늘 그토록 큰 인증과 함께였으므로, 거기 나타난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말하자면 그것이 우리 눈을 찔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주신 한 가지 표지만으로 그의 가르침이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안 뒤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문제가 될 때에는 우리가 훨씬 더 움직이고 부추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엘리후에 관해 말한 이것은 덧붙은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는 또, 엘리후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꾸며 바꾸고 그분의 말씀을 위조하는 것을 보고 열심에 움직였듯이, 우리도 적어도

비슷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8]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가르침을 흐리게 하려고 일어날 때, 악인들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도록 이끌려고 자기 신성 모독을 꾸밀 때, 나쁜 소송이 지켜지고 사람들이 정의를 뒤엎으려 할 때, 우리는 벙어리나 무관심한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격렬함을 우리 안에 가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이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엘리후라는 인물에게서 우리에게 내놓인 본보기를 잘 간직합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를 그와 견주어 봅시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자라지 않았고 거기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휩싸여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드리셨을 때 그렇게 열심에 움직여서 자기 양심을 쏟아 낼 때까지 마치 터질 것처럼 답답했다면, 묻건대 하나님께서 CO 38 당신의 말씀으로 그토록 가까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선이 흐려지고 심지어 완전히 뒤엎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증언하지 않고 거기에 맞서지 않는다면 핑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짐을 지우실 때,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 선을 지키기를 아랑곳하지 않거나, 아니 오히려 우리 침묵으로 악인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그분 교회의 몸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진리를 지키려 했고 마치 억지로 그렇게 된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만큼 더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 이 억지는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쓰려 하실 때 그들을 넋 빠지게 해서 억지로 가게 하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의 선지자들과 참된 종들입니다. 그분은 악인들을 그들이 싫든 좋든 잘 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8. 원문은 "le moine"(수도사)입니다. 문맥에 따라 "le moins"(적어도)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분이 예언의 영을 주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 그분은 그들에게 좋은 애정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발람의 입으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그가 미혹하는 자이기를 그치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를 모욕과 치욕에 두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엘리후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선지자로 일으키셨고 그는 기꺼이 그분을 섬겼습니다. 곧 그는 진리를 지키는 데서 자기를 돌아서게 할 수 있었던 모든 방해를 이겨 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진리가 짓눌리고, 어떤 자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다른 자들은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까닭으로 우리를 물고, 심지어 삼키려 애쓰는 것을 볼 때, 그런 시험과 싸웁시다.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억지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좋은 다툼을 지키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익살꾼들이 대담하게 우리에게 혀를 내밀고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을 웃음거리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물리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시험들이 우리가 그것에 맞서 힘써 싸우는 것을 막지 않게 합시다. 좋은 다툼을 지켰다는 까닭으로 미움이 우리에게 다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러 어떤 악을 꾸미는 것을 본다 해도, 그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맙시다. 물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거꾸로 끌어당기고 우리 입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후의 본보기를 따라 그런 시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은 필요가 그렇게 요구할 때 진리에 고백을 드리는 데서 CO 39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자기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아첨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 한다면 자기 창조주께서 자기를 멸하지 않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엘리후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자기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권위에 고삐 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길게 풀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니, 엘리후의 뜻을 요약해서 가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영예로운 칭호로 부르는 것이 나쁜 일이거나 완전히 정죄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마치 일이 닥치기도 전에 꺾여 버려서, 우리 의무를 다하고 말할 일이 있을 때 입을 크게 열어 말하는 데 요구되는 만큼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므로, 엘리후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호를 돌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진리가 그 위에 있지 못할 만큼 사람들을 높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간직합시다.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허락되고 심지어 그래야 하며, 우리와 대등한 자들이나 윗사람들뿐 아니라 아랫사람들도 존중해야 하지만(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듯이), 그래도 우리 또래에게든 아랫사람에게든 지위에서 우리를 넘어서는 자들에게든 늘 진리가 사람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저마다 자기에게 속하고 마땅한 영예를 돌린다 해도, 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꾸밈없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영예를 그분께 드리려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솔직하게 잘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것이 저마다에게 영예가 돌아가는 것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고, 늘 저마다 자기 부르심을 따르며, 말할 일이 있을 때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의 이 마지막 말에서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공적인 직무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솔직하게 말하도록 잘 살피고, 또 저마다(모든 사람이 가르치거나 공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직무를 가지지는 않는다 해도) 진리를 말하도록 요구받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께 드려지는

영예의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을 지키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고 모든 피조물 위에 높이려는 것이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2편

욥기 33장 설교 1

CO 35:40–5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러므로 욥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보시오, 내가 입을 열었으니 내 혀가 내 입천장에서 말할 것이오. 내 말은 내 마음의 올곧음이요, 내 입술은 순수한 가르침을 말할 것이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셨소. 할 수 있거든 내게 대답하시오. 여기서 나를 맞서서 당신의 소송을 힘껏 다투어 보시오. 보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같소(또는 당신의 입대로 있소). 나도 진흙으로 빚어졌소. 내게 당신을 어지럽힐 두려움이 없으니, 내가 당신을 몰아세운다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이오. (욥 33:1–7)

이 설교는 앞 장의 마지막 세 절을 더 다루고, 그다음에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40 우리는 엘리후가 죽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올곧게 말하겠다고 한 이 단언을 풀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혔듯이) 하나님을 따라 올곧게 말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눈을 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움이나 호의에 끌린다면 우리 안에 잘 다스려진 것이 하나도 없고, 어지러움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모든 육적인 애정에서 돌아서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특히 자기가 CO 41 그렇게 사람들의 높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없애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높음을 추어올렸다는 것만으로 그 사

람을 없애신다는 것이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권위를 드리고 그것이 힘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9]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 마음이 흩어져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치욕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땅의 어떤 군주에게서 보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도록 내버려 두고 오리처럼 몸을 사리며 자기에게 맡겨진 전갈을 감히 전하지 못한다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 비겁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먼지에 지나지 않고 완전히 쓸모없는 우리를 당신의 섬김에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토록 영예로운 직무에 우리를 두시고, 그것이 온갖 권위와 공경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떨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꾸며 바꾸어 거짓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는 제 본래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분칠할 것입니다. 묻건대,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가하는 너무 큰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그것에 경의를 표할 만큼 그런 꾸밈없음과 자유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엘리후가 말하듯 벌이 마련되어 있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자들, 목사로서 가르치는 이 직무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도 굽히지 않을 만큼 그런 한결같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싸우려면 놋 이마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결코 큰 반역이 없지 않을 것이고, 어떤 지위나 영예로운 신분에 오른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자기를 사로잡을 수 없고 늘 뿔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께 복종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잘못

9. 원문은 “quand lieu nous fait“입니다. 문맥에 따라 “quand Dieu nous fait“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알 때, 우리는 이길 수 없는 한결같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 의무를 다할 때 원한과 시비를 사리라고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래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말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도록 목사로 세워진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도 일반적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교를 들으러 올 때, 우리 악덕을 꾸짖음 받을 때 하나님께 말대꾸하려는 그런 거만함을 여기 가져오지 맙시다. 사람들이 우리 옴을 긁을 때 언짢아하는 CO 42 쓴 마음을 가져오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잠잠하셔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고 오만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어떤 자질이 있다는 구실로 아낌 받기를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왕이요 군주라 해도 하나님의 멍에를 받으려면 목을 숙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듯(고후 10:5 참조) 모든 높아진 것이 꺾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설교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따르고 그분께 다스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대목에서 다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거슬러 높아지는 모든 높아진 것을 우리가 낮추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저마다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신분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왕보다 더한 자라 해도 하나님의 진리가 설교될 때에는 자기 몸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는 어떤 주인에게서 보냄을 받았는가? 온 인류 위에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저마다 그분께 복종해야 하는 분에게서다." 그러니 우리가 중간 신분일 때, (묻건대)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 주고 못 본 체하며, 우리 악덕이 바뀌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위해 위조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미친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습을 바꾸실 수 있

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살아 있는 형상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첨하기를 구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비위를 맞추시려고 당신의 본성을 바꾸시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시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마귀 같은 무모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갖 겸손과 낮아짐으로 오기를 배웁시다. 우리 순종이 이 자리에서 시험받아야 하고, 아무도 아낌 받지 않으며, 허물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바른 자유로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물론 나는 혀로 말하고 내 입천장에서 내 말을 하지만, 그 사이에 내 말은 내 마음의 올곧음이니, 너는 내 입에서 참되고 바른 것 말고는 듣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말을 들어 주기를 바라며 하는 단언입니다. 곧 그가 꾸밈으로, 두 마음 품은 사람처럼 말하지 않고, 자기가 일을 안 대로, 그것들이 자기에게 드러난 대로 순수하게 내놓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로 그는 덧붙입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께 대해 너와 같다." 또는 "네 입대로 있다." 그가 쓰는 낱말은 본디 "입"을 뜻하지만, 때로는 "분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CO 43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느끼던 그런 두려움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오시기를 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등한 분 같으시다면 나는 그분께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내 위에 모든 권위를 가지셨다 해도 나는 내 소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나는 네 입대로 있다." 곧 네가 구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라, 나는 네 분량대로 있다." 곧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은 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낱말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늘 엘리후가 돌아가려는 곳을 바라봅시다. 곧 그는 욥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처럼 진흙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는 죽을 수밖에 없고 덧없으며 자기 안에 아무 힘도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빚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시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그를 거슬러 그런 이치로 말해서 욥이 거기서 지게 하리라고 밝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더는 하나님께서 너를 두렵게 하신다고, 그분께 너를 두렵게 하는 영광이 있어서 네가 그분께 맞서 권리를 얻을 수 없다고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보라, 흙과 진창의 불쌍한 덩어리다. 물론 내게는 영과 생명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다. 어쨌든 보라, 나는 너처럼 연약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 둘 사이에는 이치만이 다스릴 것이고, 너는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 담긴 두 가지 점을 봅니다. 첫째는 엘리후가 자기 말이 자기 마음의 올곧음이고, 자기 안에서 생각하고 품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리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새길 만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지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혀끝에 수다를 가져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을 내던져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스운 연극을 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자기 안에 새겨진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직무에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려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 혀를 붙잡아서, 우리 마음 안에 새긴 것 말고는 말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끌어와(시 116:10; 고후 4:13) 하나님 말씀의 모든 사역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리라.” 물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 성령의 기관으로 세우신 자들은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통해 말을 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니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큰 영예를 베푸셨으니,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CO 44 가르침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고 그것이 거기 뿌리를 내리게 하며, 그다음에 입이 우리가 아는 것을 증언하게 해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선생이나 박사가 될 수 있기 전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설교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수와 무리에 들어가게 합시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 채 말하는 사람은 우스운 연극을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럽히는 것입니까?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강단에 오를 때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을 잘 미리 생각해 둡시다. 곧 우리 마음의 올곧음이 혀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어떤 가르침이 바르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를 세우려 애쓰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을 온갖 겸손으로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완전히 반역하는 자라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엘리후가 그런 서두를 쓸 때, 그는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붙들어 두려 하시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어떤 수단으로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는 올곧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규칙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곧 내놓인 가르침이 거룩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확신을 얻었는데, 거기에 따르도록 온갖 두려움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던 사람에게 맞선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될 때 저마다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당신의 뜻을 가까이 밝히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그분께 거칠게 굴지 말고, 그분에게서

나왔다고 우리가 아는 것에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과 복음이 그 올곧음이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증언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이 가르침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그 정죄를 위해 다른 소송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요컨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 더는 의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되돌릴 수 없는 판결로 붙들게 하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신자들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알면서 짐승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CO 45 불쌍한 교황주의자들이 아무 분별 없이 끌려다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순전한 짐승 같음에 지나지 않아서 눈을 가려야 하고 자기 안에 아무 이성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져올 거짓 가르침에 속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과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감각과 상상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듯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성과 깨달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것이 좋고 바른지 판단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온갖 겸손으로 그분께, 그분의 손 아래서 다스림 받기만을 구합시다. 이 수단으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말에 올곧음이 있는지 알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실 때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요 8: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를 향하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가 바라는 목표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것임을 본다면, 오, 더 다툴 필요가 없고 거기서 온전히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하려는 것이라면, 우리를 그분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게 하려는 것이라면, 야망과 헛됨에만 쓸모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맡기고 그분을 순수하게 부르며 그분의 은혜와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신뢰하고 거기 쉬도록 기초를 얻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거기 아무 올곧음도 없다는 것을 잘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올곧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들을 가질 때, 우리 탓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잘못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선이 당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밝히십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또 우리 삶 위에 다스리실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거기에 그런 고삐를 쥐셔서 우리가 당신께,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완전히 꺾이고 자기 의와 지혜와 힘에 대한 신뢰를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선의 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길어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수하게 부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제정하신 성례가 당신 은혜의 증거로,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더 거리낌 없고 CO 46 더 뜨거운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도록 우리를 재촉하는 수단과 도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십시오, 이것들은 주석이 필요 없고, 흐릿하거나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가르침을 시험할 일이 있을 때 늘 이런 솜씨를 가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올곧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 주신 대로, 그것이 바른지 굽었는지, 참된지 거짓된지, 순수한지

아니면 부패와 섞임이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더는 여기서 의심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기만 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늘 헤맬 것이고 어린아이보다도 분별할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듯이(엡 1:18)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비추는 등불 같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는 본성으로 육과 흙에 지나지 않고 늘 아래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밝혀 주시면 우리는 가르침을 판단하고, 그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시험에 속지 않을 만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고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하려 애쓰는 많은 말썽꾼을 일으킨다 해도,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빛이 되시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때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입으로 말씀하신다 해도(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때로 핑계로 말미암아 나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헛된 영광과 다른 헛된 것에 끌리는 위선자들이나 사람들이 얼마 동안 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당신 택하신 자들의 구원에 쓸모 있게 하시리라고, 그것이 그들의 더 큰 정죄가 된다 해도 그렇게 말하듯이), 그러니 그런 일이 때로 일어날 수 있다 해도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함께 마음과 열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그런 표지를 주셔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알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직무에 있는 자들은 내가 이미 말한 것을 그만큼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곧 무엇이든 내놓기 전에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이 입보다 먼저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이 건드려 주셔서 그분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잘 뿌리내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자기가 함부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밀려 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엘리후는 자기가 CO 47 덧없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욥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이치와 진리로만 그를 이기려 한다고 단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기 전에, 그가 쓰는 이 말투를 지나가며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자기를 살리셨으며, 그 밖에 자기는 진흙과 진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잘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잘 간직했다면 모든 교만이 우리 안에 묻힌 것처럼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오만한 까닭이, 첫째로 자기 기원을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그것이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기를 기뻐하시므로 그들이 생명과 그것에 딸린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달을 줄 모른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첫째로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할 수 있고, 둘째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선을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들은 참으로 낮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창과 진흙으로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 자랑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를 내세워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본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오만의 시험을 받고 지나치게 높아지려 할 때, 그는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데려오셨는가?" 우리 발에 진흙만 묻어도 우리는 값어치가 덜해진 것처럼 여깁니다. 진흙이 우리에게 닿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신발에만 닿아도 우리가 더럽혀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나온 출신을 그렇게 잊어서는 안 되고, 늘 이것이 우리 앞에 떠올라야 합니다. "너는 흙과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말은 아주 흔하고 저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 하나면 우리를 모든 교만에서 깨끗하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주제넘음과 오만이, 그들이 무지로 부풀어 있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 잊어버린다는 것 말고 무엇이며, 바람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창과 진흙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을 그만큼 더 잘 헤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본성에는 높이 여길 만한 위엄과 탁월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듯이) 아담 안에서 부패했으니, 우리가 갑절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비뚤어져서 CO 48 하나님께서 거기서 영화롭게 되시려고 우리 안에 두셨던 표지가 그분의 모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있는 자로 만드는 그만큼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더럽히고, 자기 본성 그대로 남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좋은 것들을 남용하기만 하고 그것들을 온갖 악에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선물로 우리 부끄러움이 늘 더해 갑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처음 있던 그 온전함 속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하셨다는 구실로 우리 자신을 주제넘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짐승과 구별하고 우리를 더 뛰어나게 만듭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재주로 가졌습니까? 우리 힘으로 그것을 얻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서 유산으로 그것을 가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낮추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엘리후가 자기가 진창으로 지음 받았고 자기가 가진 영과 생명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자기에게 나누어졌으니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 구절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예로운 신분에서 쓰려 하시는 자들은 이 교훈을 그만큼 더 잘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어떤 영예의 자리에 두실 때, 그것은 그들이 높아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가 그분께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으며, 자기를 날카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로 말미암아 영예를 받으시도록 자기의 모든 감각과 모든 애정을 기울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촛불은 감추어서는 안 되고 온 집에 비치도록 선반 위에 둔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더 귀하고 높은 부르심으로 올리시는 은혜를 베푸신 자들은 자기 이웃을 비추고 그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질식되지 않도록 그만큼 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이 둘째로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온전히 벗어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10]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남겨 두려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잘 샅샅이 살폈을 때, 우리 장부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만큼의 항목을 적고, 우리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찬양을 빼앗지 않을 것입니다. 곧 그들이 CO 49 자기에게 선이 한 방울도 남을 수

10. 원문은 “se desnouant“(풀다)입니다. 뒤따르는 “벗기다“, “비우다“의 문맥에 따라 “se desnuant“(벗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없고 모든 것이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고 힘쓸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아무 손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돌린다면, 무엇인지 모를 것을 유산처럼 자기 것으로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만한 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부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모든 영광을 비울 때 줄어들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좋은 것도 없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위에서 주어진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모든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런 쓰임에 적용하도록 살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꾸미시면서 그것이 좋은 쓰임에 적용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쓸모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것이 제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도록 살핍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 이웃의 구원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니, 특히 서로를 세우는 것을 바라봅시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여기서 하는 말과 그 실체로 옵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의 숨결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는 너를 두렵게 할 두려움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치만이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엘리후는 좋은 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곧 입을 열기 전에 자기를 잘 바라보고 자기를 비추어 살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잘 알지 못한 자들은 자기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한 자들을 꾸짖으려 할 때 그런 격렬함으로 가서, 불쌍한 길 잃은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더 길을 잃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할 아무 수단도 가지지 못할 것이고, 가르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업신여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한다면, 우리 연약함을 아는 이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이 우리를 겸손과 온유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교만과 반역으로 가득한 자들이 많으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굳음을 부수고 깨뜨리는 망치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첫째로 우리는 CO 50 가르침을 잘 받으려는 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참아 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느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기 비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슬픔에 자기를 맞추고 거기에 응할 연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지한 자들을 신실하게 가르치려 합니까? 우리 안에 무지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나머지 모든 사람보다 더 나빴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불쌍한 괴로움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려 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가 거기를 지나왔으며, 우리가 고난과 슬픔에 건드려져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위로하고 그들을 참아 줄 줄 알게 합시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한 자들을 꾸짖으려 할 때에도 너무 큰 격렬함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불쌍히 여깁시다. 물론 때로는 격렬함도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달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반역 속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오, 그들을 찌르기만 할 때가 아니고 그들을 깊이 찔러 상처 입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이것을 앞세워야 합니다. 곧 우리 연약함을 알았고, 우리가 엄격함의 정신으로 올 때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

들을 때리고 낯선 사람에게는 쓰지 않을 훨씬 더 거친 말을 쓴다 해도, 그가 그렇게 모습을 바꾸어야 할 때 그의 마음은 피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같은 애정을 입지 않고, 먼저 자기 연약함을 알아서 자기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길 만큼 그런 연민에 자기를 맞추지 않는다면, 사람이 결코 가르치기에 알맞지 않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여기서 엘리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권위 있는 자리에 세워진 모든 자는 자기 아래 있는 자들을 짓누르려고 자기 권력을 폭정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자기 권위를 구실로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예와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의 구원을 무엇보다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셈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에스겔도(겔 34:4 참조) 폭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나쁜 목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힘으로, 온갖 권위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이웃에게 충실하게 의무를 다하려는 모든 자는 윗자리에 세워졌을 때 그 때문에 CO 51 높아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고 공포를 가져오려 한다면, 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이 양 떼를 놀라게 하는 들짐승을 여기 두시려는 것이 아니었고, 에스겔의 그 구절에서(18절) 말씀하시듯 뿔로 받고 물을 흐리는 숫염소를 두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재판석에서 칼을 주신 자들과 당신의 말씀을 알리도록 강단에 두신 자들을, 불쌍한 양들을 짓밟고 짓누르는 숫염소가 되라고 거기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우리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곧 우리가 그것이 참되고 바르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억지로

강요받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말대꾸 없이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자리와 말의 정황에 관해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내놓을 때, 좋습니다, 보십시오, 죽을 사람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이치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봅니까? 말대꾸하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에 충분한 재판관인 우리 양심과도 싸운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는 아주 유익한 경고를 잘 거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르침을 받으러 올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가르침이 바르다는 것을 볼 때 더는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지고 들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이치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밖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가르침을 우리 감각과 상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 내려서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이 결론을 품는 것입니다. “오, 우리 창조주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셔야 하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 보십시오, 있어야 할 준비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에 들어가는 것, 곧 가르침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만함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지혜롭다고 여기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거기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가르침을 따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함께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섞임은 아무 혼란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도 그 때문에 눈을 뜨고 자기가 거짓과 진리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겁에 질리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쓰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생각할 더 많은 여유를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봅시다. 그분이 당신의 위엄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실 때, 그분은 우리 연약함에 맞추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진리를 우리가 더 편하게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머지는 뒤로 미루어 두고,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3편

욥기 33장 설교 2

CO 35:52–6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런데 당신은 내 귀에 말하였고, 나는 당신 말의 이 소리를 들었소.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고 내 안에 죄악이 없다. 그분이 나를 칠 구실을 찾으셨고 나를 원수로 여기셨다. 그분이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지켜보셨다.” 이 점에서 당신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시다고 내가 당신에게 대답하겠소. 당신은 왜 그분과 다투시오? 그분은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오. (욥 33:8–14)

CO 52 어제 다룬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 맞추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죽을 사람의 입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말씀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큰 선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위엄에 겁먹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을 묵상할 더 나은 여유를 가지며, 우리가 듣는 가르침을 잘 깨닫고 그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평온하고 쉬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CO 53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움직일 것이고, 따라서 가르침이 더 많은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할 때 우리는 말해진 것을 더 편하게 맛보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이 이 점에서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율법이 공포되어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게 하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멸망한다" 하고 말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보이기 시작하시자, 보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불쌍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들을 삼키시리라고 결론 내립니다. 모세가 올 때에도 그는 눈 앞에 수건을 드리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표지를 주셨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칠 사람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때,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너무 꺾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유로운 정신으로 가르침 안에서 세워지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친숙해지고, 우리가 그만큼 더 큰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힘을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에 맞추시려고 작은 자처럼 되시고 당신의 크심을 내려놓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기로 우리에게 말해진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 추한 배은망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11]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보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그릇, 곧 자기 안에 온갖 연약함밖에 없는 죽을 사람들로 우리에게 내놓인다 해도, 우리는 늘 그것을 마땅한 만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들의 입에서 당신이 경청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하는 꾸짖음으로 옵시다. "그런데 너는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네 말의 이 소리를 들었다. 곧 네가 의롭고 죄가 없으며 어떤 죄악에도 죄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이다. 그러니

11. 원문은 "tenir contre"입니다. 문맥에 따라 "tenir conte"(아랑곳하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이 점에서 너는 너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곧 너는 잘못하지 않고서는 네 다툼을 주장할 수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보다 크신데 네가 그분께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너는 그분이 너를 괴롭힐 구실을 잡으셨고 네 발을 차꼬에 채우셔서 네가 더는 네 소송을 주장할 자유가 없다고 그분을 고발한다. 그런데 CO 54 그것으로 빠져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신 것이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네게 느끼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 엘리후가 욥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 했다고 고발하는 것이 부당한지 정당한지 살펴야 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그가 욥이 한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비방으로 그것을 다른 뜻으로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다는 것은, 욥은 결코 자기 안에 죄가 없을 만큼 그런 완전함을 자기에게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엘리후가 자기가 들은 말을 위조하고 완전히 거꾸로 적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지 않고(우리가 보겠듯이), 심지어 우리가 이미 그가 다른 사람들의 방식으로 욥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을 들었으므로, 여기서 그는 욥이 한 말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욥이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나는 불쌍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허물을 저지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일에서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까닭을 내가 보지 못할 때 내게 절대 권능을 쓰신다. 고난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니 욥이 일반적으로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지 않았다 해도, 자기 고난의 까닭에서는 의롭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도 엘리후가 그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그의 죄 때문에 벌하려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 해

도, 그분은 그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신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것을 알았을 때 그에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자기를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우리 순종의 시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낮추려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께 복종할지 알고자 하시며 또 우리 정욕을 죽이려 하신다는 것을 안 뒤에, 우리가 이런 바른 방향을 가질 때 함께 또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우리를 벌할 거리를 충분히 찾으셨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쓰려 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늘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괴롭히시는지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고 왜 그분이 우리를 CO 55 그렇게 다루셨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판단을 미루어 두고, 원망하지 말며, 우리 격정에 고삐를 풀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이 두 가지에서 잘못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 해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마땅한 그런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를, 그렇습니다, 그의 죄 때문에라도 훨씬 더 엄격하게 괴롭히실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그가 마치 들판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되어 속으로 대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나는 여기서 불쌍한 피조물인데, 그분이 나를 거슬러 당신의 팔을 펴셔야 하는가? 거기에

무슨 이치가 있는가?" 그러니 그가 하나님을 어떤 폭정으로 고발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너는 마치 죄악이 없고 깨끗하고 결백한 것처럼 너 자신을 의롭다 하려 했다." 그는 말합니다. "이 점에서 너는 결코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네 소송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신다면 첫째로 우리가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면, 우리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토록 여러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 그분의 매로 맞아도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데 다른 목적이 있으시고, 그분이 악에 완전히 넘쳐 버린 자들과 당신의 위엄을 대놓고 조롱하는 자들보다 우리를 더 거칠게 다루신다면,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시험하려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것인지 알고자 하십니다. 일이 우리 입맛대로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뜻을 버려야 하고, 우리의 모든 본성적 감각을 사로잡아야 하며, 요컨대 우리 애정과 싸워야 할 때,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아보는 참된 시험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기 있을 때 이렇게 압시다. "물론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만 번이라도 삼키실 수 있다. 그분이 내게 그분을 경외함 속에 걷는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그분을 섬기려 애썼다 해도, 어쨌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분이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주시지 않았

다면 나는 일 분도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참아 주려 하신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은 나를 당신의 손 아래 복종시키시고, 내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좋다, 그분은 좋은 까닭으로 그렇게 하신다." 그 점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은 뒤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왜 CO 56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혹독하게 괴롭히시는가? 왜 그분은 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가? 나는 모른다." 우리가 그 까닭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오, 내 하나님, 주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우둔함과 내 정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알 수 없으니, 주께서 왜 그런지 내게 알려 주실 때를 나는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여기서 불쌍한 눈먼 자처럼 있은 뒤에, 주께서 내 눈을 여시고, 이 일들이 어디를 향하며 그 끝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게 느끼게 해 주실 것이고, 나는 지금보다 거기서 더 잘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든 신자에게 있어야 할 지혜가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하시는 일의 까닭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을 자기 안에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그들은 온갖 겸손으로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은혜로 그들을 참아 주려 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실 이유를 충분히 찾으셨으리라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인 것으로 옵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칠 구실(또는 다툼)을 잡으셨고, 그 사이에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고 나를 괴롭히시며 내 모든 길을 지켜보신다. 그분은 나를 엿보시고 내게 눈을 두셔서,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곧 허물을 저지른 것이 된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불의로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그분이 까닭 없이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가 자기 격정에 휩쓸려서 핑계할

수 없는 반역이 그에게서 터져 나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때가 요구했을 때, 곧 그 자리에서 새겼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을 거슬러 지나치게 덤벼들었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했고 늘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이 목표를 가졌다 해도, 그래도 그는 때로 어지러웠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를 만큼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새겨야 하고, 우리는 거기서 좋은 가르침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려 할 만큼 휩쓸리지는 않는다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유를 가지면, 오, 곧 흔히 말하듯 돌쩌귀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 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딱합니다. 그는 악으로 가득 차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방종을 허락하자마자 이쪽이나 저쪽으로 넘어지고 바른 길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길을 잃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누가 욥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잔인하게 다루시려고 너를 칠 구실을 찾으시느냐?" 하고 물었다면, 분명 그는 "아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선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찮은 구실을 찾으신 것처럼 그분을 거슬러 다투었다고 꾸짖음을 받고, 그것은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CO 57 왜 그렇습니까? 욥이 자기 슬픔 속에서 흔들렸고, 때로 마땅히 그래야 하듯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나아가서 신성 모독을 입 밖에 내느니 차라리 죽기를 더 바란다 해도, 그래도 우리가 우리 격정에 고삐를 풀어 주면 곧 어떤 나쁘고 정죄받을 말이 우리에게서 새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특히 우리가 고통에 짓눌릴 때 슬픔은 너무 격렬한 격정이어서 아무 절제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너무 덤벼들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부딪치고, 그것은 결국 그의 파멸일 뿐입니다. 그것을 볼 때 첫째로 우리 본성이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비뚤어졌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

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든 그분께 잘못과 모욕을 드리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또 다른 생각에 들어가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마다 거기서 복종한 채 있으며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아, 물론 보라, 나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이르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매를 인내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잘 유익을 얻은 것임을 압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이치에까지 이끄셨다 해도 우리는 아직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좋다, 너는 네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시는 징계를 받도록 너를 그렇게 잘 준비시키셨으니 이미 그분께 빚졌다. 그러나 그 사이에 네 안에는 아직 그토록 많은 연약함이 있어서, 손바닥 한 번 뒤집기만 하면 너는 곧 참지 못하고 그분을 거슬러 반역자 노릇을 할 것이고, 생각지도 않은 채 곧 그분을 모독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의심스럽게 여겨서 시험을 미리 막도록 경계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이것을 압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따르고 그분에게서 오는 고난을 인내로 견디려는 좋은 뜻을 가졌다 해도, 우리 인내는 완전하지 않고 흠잡을 것이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나쁜 상상이 우리 머리에 떠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붙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몹시 싫어하며, 늘 이렇게 말하는 목표를 가진다 해도 말입니다. "보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분이 내 위에 주인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아래서 나를 낮추는 이런 겸손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 그분이 나를 발로 짓밟으려 하실 때에도, 심지어 나를 가장 깊은 구렁에 두려 하실 때에도 나는 그분께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에도 많은 나쁜 CO 58 상상이 우리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다면 늘 무엇인지 모를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우리

말을 그렇게 짧게 고삐 쥐어서 늘 우리 육과 우리 본성적 감각의 것들이 그 가운데 얽혀 들지 않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했다 해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욥이 엘리후에게 그토록 무겁게 꾸짖음을 받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려 애쓰지 않고 그분께 속한 영예를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죄 있는 자로 드러나리라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했다고 정죄받는다면, 우리가 너무 휩쓸려서 우리 안에 인내가 더는 없을 때, 우리가 대개 보듯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쓰시려고 헛되고 하찮은 핑계를 찾으신 것처럼 그분을 거슬러 다툰 자인 양 이 정죄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 속에서 의로우시다고 거리낌 없이, 기꺼운 뜻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결론 내려 확정하지 않은 모든 자는, 마치 "그렇다, 보라, 하나님은 폭군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그들에게 가증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리로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이치와 공평과 올곧음에 기초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의 안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중간이 없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폭정을 쓰신다고 꾸짖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성 모독이 늘 같지는 않을 것이고, 또 늘 동의가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시는 데 아무 이유가 없다" 하고 말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그를 휩쓸어 간 끓어오름이 있었으므로,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정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온전히 평온하지 않고, 입은 한마디도 내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괴로움이 있어서

노새가 재갈을 씹는 것처럼 될 때 원망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정죄가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을 살핍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이런 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정당하게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핑계를 찾으셨다고 그분을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발을 차꼬에 채우셨다" 하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엘리후는 욥의 말을 자기가 이해한 대로 되풀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는 아무 자유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수를 차꼬에 채워 둘 때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은 그가 CO 59 원하지 않는 것을 싫든 좋든 고백하게 하려는 일종의 고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비유를 써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다툼이 좋은데도 그것을 주장할 아무 수단도 더는 주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이에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괴롭히시는지 그 까닭을 잘 아신다는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짓누르시는 것처럼 놀라고 자기 고통 속에서 대들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다면 그는 "아니다" 하고 대답했을 것이고, 곧 말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에게는 격렬한 격정이 있었고, 그것이 그를 찔러서 생각지도 않은 채 이 말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함부로, 부주의로 한 말을 그토록 혹독하게 꾸짖으셨다면, 우리가 고집스럽고 굳어져서, 생각지도 않은 채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고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경고를 받으려 하지 않고 늘 우리 본성적 감각과 상상을 따른다면, (묻건대) 그 반역이 욥에게 있던 그 부주의보다 백 배나 더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잘 새길 만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그분께 폭군 같은 권능을 돌려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 보라, 하나님께

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연약함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시면서도, 그 사이에 까닭 없이 우리를 괴롭히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는 지나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함께 묶읍시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두렵고, 나는 그것으로 온통 어지럽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의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놀라고,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괴로움을 느낄 때에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데 지나치시다거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이려 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합시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극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가 첫 번에 삼켜지지 않도록 당신의 능력을 누그러뜨리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난이 우리 편에서는 혹독하고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CO 60 우리 걸음을 엿보신다면, 그분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욥을 꾸짖으려고 쓰는 논증으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이 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욥을 설득하고 지금의 소송을 결판내기에는 아주 싱거운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그것을 알지 못할 만큼 미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드는 망상가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새로운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소송을 주장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 뒤따른다." 오히려 엘리후가 욥이 한 말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곧 "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엄격함을 쓰시지만, 그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크시고 나는 그분을 당해 낼 수 없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불쌍한 질그릇에 지나지 않으며, 내 안에는 연약함밖에 없다." 그러니 오히려 여기서 욥이 하나님께 절대 권능을 돌려서 "오, 하나님께서는 이유도 공평도 없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리를 쓰실 것이다" 하고 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낱말이 울리는 것과 달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의 크심을 말할 때,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묶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들을 떼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그분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12]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덕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이나 의나 지혜나 선하심을 말할 때, 우리는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떼어 놓을 수 없고, 그분의 본질에서 구별되어 빼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가 다른 하나 없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 있으십니까? 또한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그분의 선하심도 그분의 의도 손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크시다고 말할 때, 그는 그분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만 크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이 크심과 능력과 함께 무한한 의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2. 원문은 "pour e qu' elles "입니다. 문맥에 따라 "pource qu' elles "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논증이 모든 사람에게 침묵을 명하고 그들을 겸손으로 따르게 해서 더는 하나님을 거슬러 다투지 않게 하는 데 좋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CO 61 뜻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까닭이, 그것이 충분하거나 지나치다고 여기는 까닭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엄격함을 쓰시는지 호기심으로 따져 묻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크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첫 번에 거기서 붙잡히고 갇혀서, 오, 더는 원망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말대꾸할 방종을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너무 크고 지나친 애정, 우리의 모든 원망, 그와 비슷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그분에게서 그분의 위엄을 벗겨 내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이고, 그것을 몸서리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은 채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일이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다툼에 들어가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우리 열심이 좋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을 대로 일을 처리하시도록 그분을 따르게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일이 완전히 거꾸로 되면, 보십시오, 우리는 곧 겁에 질립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 가까이 말할 허락을 주시기만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일이 달리 되어야 한다고 따져 말씀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그분의 뜻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거기서

이렇게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진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정반대로 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슬러 소송과 다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 힘이 닿는 데까지 그분에게서 그분의 크심을 벗겨 내고 그분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욥을 거슬러 이 원리를 쓰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크시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소송하려 하느냐?” 그런데 그것으로 첫째로 우리는 이런 경고를 받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지나치게 언짢아하고, 일이 달리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당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분의 권리를 벗겨 낸 뒤에 그분을 우리와 대등한 동료로 만들어서, 그분이 더는 우리 위에 주권도 우위도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뜻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만큼 더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잘 꺾일 수 없고, 일이 완전히 거꾸로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CO 62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그분께 요구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에게서 그분의 크심을 빼앗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크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것을 당신의 손과 다스림 안에 가지신다는 것을 충분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박하고 공중에 매달린 고백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에서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우리 쓰임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셔야 하는가?" 곧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데 빠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여기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시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며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리저리 옮기신다 해도 우리가 늘 이 결심에 굳게 남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평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보내지 않으신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크심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알아보아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당신 좋으신 대로 우리에게 하실 모든 권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꾸밈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따를 수 없고, 결코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시며 당신 안에 무한한 영광을 가지신다는 이 견줌을 우리가 했을 때, 말하건대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나서려는 이 헛된 신뢰를 더는 가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늘 하듯 고삐 풀린 말처럼 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크심을 돌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잘 나타내려고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큰 알맹이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려 하지 않으시므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가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나타나시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좋고 알맞은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능력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능력에 따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 사이에 그분은 우리 깨달음을 넘어서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은 당신께 남겨 두십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간직하면 CO 63 하루 동안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짐과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선생이 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적어도 우리는 그분의 학생이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선생의 직무를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움에 이바지한다고 아시는 것, 곧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가 귀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 영예를 베풀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짐승 같아서는 안 되고, 그분 아래서 유익을 얻는 데 우리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 항목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는 불쌍한 교황주의자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오, 보라, 하나님의 비밀을 따져 묻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물론 거기에는 겸손과 공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귀가 막히거나 먹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해지고 내놓이는 것을 받을 준비와 채비가 늘 되어 있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첫째에 관해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보며, 아직 온전히 드러나는 날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낮의 빛이라고 불린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우리 분량에 맞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충분히 비추시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 얼굴로 변화되도록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마련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이 말하듯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분량을 가진다면 그것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신자들은 이 지금의 삶 동안 하나님의 뜻을 맛보고 그 어느 몫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전부를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하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욕심을 가진다면, 오, 보십시오, 그것은 미친 지혜이고, 차라리 우리가 완전히 무지한 편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CO 64 신자들은 자기에게 드러난 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보십시오, 그것이 아무 구별 없이 모든 것을 따져 묻으려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나은 지혜라는 것을 새깁시다. 이것이 둘째입니다.

그런데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두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뜻을 더 밝히시는 데 인색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좋다고 아시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경에 담긴 것과 날마다 설교에서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을 알았을 때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을 때, 오, 그들은 마치 충분히 깨닫지 못한 것처럼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고 알맞은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명하셨고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감추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당신을 드러내셨으니 그만큼 더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만족할 거리가 있고, 호기심을 가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 많은 사람이 분수를 넘어 따져 묻으려 합니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은 한쪽에서는 "오, 하나님의 비밀을 따져 물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하고 그런 구실로 거룩한 성경을 물리쳤으며, 다른 쪽에서는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일을 따져 묻는 어리석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런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하는 어리석은 망상을 가졌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아무것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심지어 거룩한 성경 전체도 그들에게는 가나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룩한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남겨 두신 신비들이 있었다" 하는 이 마귀 같은 신성 모독을 토해 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지어냈습니까? 무함마드가 자기 쿠란이 큰 완전함이라고 말했듯이, 교황도 거룩한 성경 너머에 자기에게 남겨진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 능력과 분량에 맞추어 재셨는지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고, 여기에 우리의 경박한 욕구를 가져와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눈을 뜨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읍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의 끝에 이르렀습니까? 잠잠히 있읍시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CO 65 그분께 우리 신뢰를 두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불러야 하는지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

리에게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까? 좋습니다, 거기에 온전히 멈추고, 그분이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분은 우리 깨달음이 감당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신 것은 너무 흐릿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온갖 겸손으로 받는 이 영예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추려 하시는 것을 깨닫고자 할 만큼,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미치거나 오만하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보듯 어떤 이들은 "오, 나는 그런 것은 하나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내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더러운 두꺼비야,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을 네게 와서 셈해 주시지 않는다고 감히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모독하느냐? 네게 감추어져 있고 네 짐승 같음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거슬러 부딪치게 할 그런 교만으로 부풀지 말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맛보기만 하며 거울로 보듯 바라보는 일들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날 그 큰 날을 인내로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4편

욥기 33장 설교 3

CO 35:66–7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오. 꿈에, 밤의 환상에, 잠이 사람을 사로잡아 그들이 침상에서 쉴 때, 그때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 위에 당신의 징계를 인 치시오. 이는 사람을 그 하는 일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의 교만을 감추시려는 것이오. (욥 33:14–17)

CO 66 여기서 엘리후는 지난번 설교에서 이미 했던 말을 이어 갑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죽을 사람들에게 셈해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미 밝힌 것을 새겨야 합니다. 곧 여기서 엘리후는 우리에게 밝고 쉬워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로 단언하시듯이, 사 45:19) 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흐릿할 때, 그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그러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신이 멍해진 우리의 눈멂에서 나오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거룩한 성경에 담긴 가르침은 참으로 빛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뜻 속에서 정하시는 규례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당신의 말씀을 두실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우리 능력을 헤아리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아직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우리 구원에 유익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신의 뜻 속에 남겨 두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지를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분량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알게 될 온전히 드러나는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흐릿한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볼 때까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유익을 얻읍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여기서는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께 간직해 두시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으므로 아직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비밀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에 대답하지 않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신의 일을 셈해 주셔야 하고, 그분이 왜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일하시는지 자기가 알아야 한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고 덧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실제 일로 보여 주시는 많은 판결이 있지만 그 까닭은 알려지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셔도 때로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마지막 날까지 그들에게 묻혀 있는 것 같은 일이 문제가 될 때 말입니다.

CO 67 물론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풀이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멈추어야 하고, 두 사람이 맞서 온다 해도 그분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도 하찮게 여기시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온전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 본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셈해 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는 그분께 자유를 돌립니다. 곧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이르시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이를 박을 수 없을 만큼 그러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잠이 사람들을 어지럽힐 때 밤의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징계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에 연결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는 말씀의 두 방식처럼 보입니다. 곧 때로는 그분이 감동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때로는 또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건드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엉뚱하고 억지스러운 뜻입니다. 그 밖에 자연스러운 뜻이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 여러 가지 풀이를 찾는 데 오래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밝힌 것을 따릅시다. 곧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엘리후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압니다. 이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로 우리의 작음을 압시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지 않을 만큼 찾고 샅샅이 살피려는 이 어리석은 오만을 자기 안에 가지는 까닭이, 자기가 이것저것 따져 물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잘 꺾여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지나치게, 자기 분수를 넘어 찾으려는 거만함과 높음은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유익을 잘 얻으려면, 첫째로 우리를 낮춥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이 아주 작고 아주 우둔하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님의 감추어진 심판이 무서운 구렁이라는 것, 그분의 길은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캐는 것은 허락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압

시다.[13] 그러니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생각할 때 그분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압도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제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땅 위를 기고, 그분이 하늘을 얼마나 넘어서시는지 압니다. 그러하니 그분의 감추어진 심판을 경배합시다. 그렇습니다, CO 68 그분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무릅쓰고 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언하실 이 권위를 가지시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말씀하실 때, 곧 그분이 당신의 기뻐하심과 당신의 뜻을 보이실 때,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리라는 것, 사람들은 너무 우둔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가지신 것을 한마디로 깨닫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거기서 완전히 처음 보는 자 같을 것이고, 한 해 끝에, 열 해 끝에 가서도 거기서 여전히 눈이 부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자주 보았다 해도 그 까닭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만함만 아니라면 이것은 경험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면 결코 이치에 이르지 않고, 우리 무지가 넘치도록 드러나는데도 늘 지혜롭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묻히고 감추어진 것처럼 가지시리라는 경고를 받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 보이실 때까지 거기서 짧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무엇이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죽을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짚은 조항을 따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

13. 원문은 “souder“입니다. 문맥에 따라 “sonder“(캐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추려 하시는 심판만을 말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온전히 아는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예순두째 편(시 62:11)[14]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것을 두 번 듣겠다고 단언한다고 하는데, 곧 하나님께 권능과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 우리 기억에 되살려지고 끊임없이 내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걷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느끼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주인이시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다스리시며 그분의 율법이 고삐가 되어 우리가 그 아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요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요 구원자로 알아서 온전히 그분께 우리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의 순전한 자비에 기초를 두고, 우리 안에 죄와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며,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CO 69 건져 내셨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둘째 점에 관해서 우리가 굳게 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내놓일 때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구절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가르치려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 하고

14. 원문에는 "시편 62편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셔서, 더는 의심하거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거슬러 말대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두 번 들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며 들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만 말씀하셨다 해도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하며,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이 짧으므로 저녁에도 아침에도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신자들의 직무가 무엇인지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잘 듣는 데 온전히 힘쓰고, 거기에 그들의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더 따져 묻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지혜롭기를 탐하지 맙시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분이 감추어진 심판을 당신께 남겨 두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도 이 주제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처리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며,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보십시오,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있고, 우리는 말대꾸 없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왜?" 하고 따져 묻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의 이유를 우리에게 대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말대꾸하려고 다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독으로 가득한 이 두꺼비들은 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자기 신성 모독을 토해 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면 그분이 죄의 장본인이시다. 그러니 악이 그분께 돌려져야 한다.” 보십시오,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분량 안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모든 CO 70 일을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거기서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에 당신이 기뻐하신 자들을 택하셨고 다른 자들은 유기되었다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온갖 공경으로 받고, 우리 구원이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마땅합니다. 그분이 이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덩어리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 점에서 너무 높은 사변으로 날아다니려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것이고, 그것이 정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자 하고, 그것은 그분을 거슬러 싸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미친 짓이 벌받지 않은 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곧 사람의 정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잠이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이 침상에서 쉬며 잠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귀를 여신다.” 그렇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들을 그들의 일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있는 교만을 꺾으시려고, 곧 감추시려고” 말입니다. 곧 그것을 무너뜨리고 묻어 버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당신의 훈육, 당신의 가르침을 인치시려고” 말입니다. 그분이 그들이 굳어서 그분이 주신 단순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지 않는 것을 보시면, 그때 그분은 치셔야 하고 매로 그들을 길들여서 당신의 진리로 가르침 받도록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여기서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기 시대에 맞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나누어 주시려고 택하신 이 백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우리가 들은 사람들과 욥 자신이 모세 이후에 있었다 해도(그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이 가진 앎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꿈으로 그러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치 그들의 귀를 잡아당기시고, 그들이 당신을 생각하도록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룩한 성경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가책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다시 부르시는 그만큼의 소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 앎을 묻어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을 구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캐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재촉하는 찔림과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이 CO 71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짐승같이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되새기시는 것임을 압시다. 특히 밤에 우리가 물러난 것 같고 우리 정신이 모여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을 때 말입니다.[15] 그때 더 깊고 우리를 짓누르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를 땀 흘리게 하고 떨게 할 만큼, 아니면 우리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처럼 거기서 괴로움 속에 있다면, 거기서 일하시고 우리를 소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15. 원문은 “reouoillis“입니다. 문맥에 따라 “recueillis“(모인)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도망자 같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깃털을 바람에 날리러 나가서 자기 아버지 집을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은 것을 보시고 이 밤의 환상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물론 그것들은 엘리후와 욥과 엘리바스와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었던 도움, 곧 설교되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복음을 손에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설교되기를 원하시는 가르침으로 우리 귀가 끊임없이 두드려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도 설교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의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컨대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옛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만스러워하며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알맞은 다른 수단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누어 주려 하셨으니, 그것은 너무 큰 배은망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자들은 "그런데 왜 그분은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하늘에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왜 그분이 모세로 말씀하신 것, 곧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표상과 꿈으로 말씀하시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수단을 주셨고, 우리가 손에 가진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거기서 충분히,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을 텐데, 그분이 옛날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정하신 이 방식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하늘에서 환상으로 옛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그들이

아직 기록된 율법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분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직 흐릿하던 것을 더 넉넉히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충분히 밝고 뚜렷하니, 우리는 CO 72 지난 시대의 환상들을 우리 믿음을 굳게 하는 데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그 샘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두려 하시는 단순함 속에 걸읍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압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글로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 줄 사람들을 일으키신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건드리시고, 거기 안에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에게 가책과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온갖 방식으로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당신께 이끄실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신 돌보심을 압시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사람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인 치신다고 덧붙일 때, 그것은 아주 기억할 만한 조항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흔히 말하듯 하나님께서 주먹질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초대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다음에 이 부드러움이 유익하지 않은 것을 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길들이시려고 더 큰 격렬함을 쓰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꾸짖으시고, 거기서 두려움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당신의 심판에 소환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붙잡도록 살피고, 그분 아래 꺾인 것처럼 되어 우리 비참을 고백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탄식해서 그분이 우리 허물을 깨끗하게 해 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들을 쓰셨습니까? 곧 부드러움과 거친 말로 우리를 당신께 이끌려고 애쓰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전과 같이 남고, 우리 굳음 속에 고집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굳어졌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강한 손을 들어 우리에게 덮치시고 모루 위를 망치로 치듯 치셔야 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그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신다고 말했습니다(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그 감동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감추어진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이것을 덧붙이는 것은, 우리가 너무 멍해져서 우리에게 좋은 시간을 주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힘이 닿는 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온갖 헛된 것 속에서 헤매기만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실 때 그분이 우리 귀를 여시는 것입니다. 자기 악 속에 굳어져서 모든 정의의 기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강도라도, 그 사이에 자기를 찌르는 찔림과 가책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귀 열기가 두 가지라는 것을 새깁시다. CO 73 그분은 때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가 그분이시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귀를 여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고집부리고,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과 바로잡음을 밀어내며, 고쳐지도록 그분에게서 아무 징계도 받지 않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다른 귀 열기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꺼이 받으며, 온전히 그분의 가르침에 빠지도록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귀를 여신다고 할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그분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유기된 자들도 어떤 귀 열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이 이를 갈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을 밀어내고 발아래 짓밟으므로 늘 귀먹은 것처럼 남습니다. 그 사이에 선한 자들은 거기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대꾸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인 치신다고 덧붙일 때, 그는 박차에 너무 둔하고 너무 고집 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길들이실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든 가르침을 밀어내는 그 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곧 그들이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세게 때리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당신이 그들 위에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엘리후가 쓰는 이 말투를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징계로 당신의 가르침에 서명하시거나 인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물리치거나 아랑곳하지 않을 때 징계가 그 가르침을 공증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하지 않으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기만 하시고 당신의 뜻에 대한 아무 앎도 보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은 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짓밟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거기서 넋이 나갈 것이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화가 났으며 왜 이 노여움이 그에게 왔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이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에게 "이 나쁜 녀석아, 네가 한 짓을 보라" 하고 말하고 그 위에서 때린다면, 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자기 허물을 압니다. "보라, 내가 그것을 단순한 말로 받지 않았으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가르침을 인 치신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진리가 그들에게 CO 74 설교되고 그들이 거룩한 성경을 읽는 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에게 우리가 말한 그 가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둘째 장에서 보여 주듯이, 그리고 우리가 본성으로 그것을 충분히 겪듯이, 자기 양심에 증언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핑계할 수 없게 만드는 데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께 가르침 받기를 참지 않고, 귀를 막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하찮게 여기며,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는 경고를 조롱하기만 하는 것을 보시므로,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잊어버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을 인 치시고 공증된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이렇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좋다,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신다. 내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고 그분의 위엄이 마땅한 만큼의 공경을 내게서 받지 못했으므로, 이제 나는 억지로라도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내게 주셨던 가르침을 더 잘 생각해야 한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악이 생각지도 않게 나를 덮친 까닭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나를 가두어 붙드신다. 그러니 보라, 이렇게 그분의 가르침이 내게 권위를 얻는다. 곧 그것이 내게 그런 것이 되어서, 내가 이를 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전보다 더 잘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어떤 징계를 보내실 때마다, 말하건대 그것이 그분이 앞서 우리에게 주셨던 권면에 찍으시는 인이라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편지에 인이 쳐지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할 것이고, 그것을 내놓아도 공증된 것이 아니므로 믿음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이 찍혀 있으면 편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보십시오, 그것은 정식 증서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곧 그분이 가르침을 인 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설교되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이나 무엇이든 하나도 없으며, 이방인들과 튀르크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 양심밖에 없다 해도, 우리가 우리 악의로 그것을 질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해 충분히 경고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앎을 충분히 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율법과 선지자들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그토록 가까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않으려 할 만큼 그토록 굳고 고집 세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게 치시고 우리가 당신께 오도록 재촉하시는 것에 놀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고난으로 지나치게 어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실 때 CO 75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덤벼드는 사람이 많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입으로 우리가 당신께 오도록 재촉하셨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한 걸음 옮기는 것도 하찮게 여기니, 우리가 가진 이 앎은 그만큼 더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발길질하는 것밖에 일이 없을 때, 우리가 갑절로 괴로움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를 평온한 마음으로 받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헛되이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마땅한 만큼 우리에게 공증된 것인지, 곧 우리가 양과 어린양처럼 우리 목자를 따르도록 가르침을 잘 받고 순한지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거기에 붙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우기만을 구하거나, 귀를 막거나, 아니면 한 귀로 들어온 것이 다른 귀로 흘러 나갑니다. 그러니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공경이 없고, 다른 자들은 드러내 놓고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하며, 다른 자들은 그것을 조롱하는 것을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못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 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으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역경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러나 본성으로 우리에게 혹독하고 괴로운 이 징계들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지도록, 엘리후가 말하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일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교만을 감추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인 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높여 그것이 위엄을 가지게 하시는 것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목표로 삼으시는 끝이, 그렇지 않으면 고난에서 드러나는 쓴맛을 달게 하는 설탕 같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견디기 괴로운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욕구에 거스르는 모든 것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노하셨다는 표시이고, 그래서 우리는 겁에 질리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표로 삼으시는 끝을 보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누그러뜨리십니다. 곧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따르게 하려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그분을 따르기만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일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며 덧붙이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일을 말할 때, 그것은 사람들이 꾀하는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모함과 오만으로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CO 76 그분은 우리가 놀거나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지 살피고, 저마다 자기가 받은 능력에 따라 거기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를 우리 일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시는 것, 곧 우리를 완전히 쓸모없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병으로 쓰러질 때 우리 팔과 다리는 부러진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를 시중들어야 하며, 세상이 우리 때문에 번거로워지고, 우리는 아무 섬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일에서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물러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꾀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시고 고삐를 목에 걸쳐 두신다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꾸미는 데 얼마나 대담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한다. 나는 저기로 가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군주들이 그런 일을 꾀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손에 쥐면 거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여덟 개라도 만들어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자들에게서 그렇게 드러나는 교만은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있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독을 쏘려고 꼬리를 흔드는 전갈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길을 잃은 채 일을 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이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으로 우리의 경박한 꾀함에서 우리를 물러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할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토록 고집 세서 결코 기꺼운 뜻으로 그분께 오지 않으니, 우리가 억지로 붙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본성으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들짐승처럼 길을 잃은 채 뛰어든다는 것을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누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그분이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당신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고삐 쥐어

붙드시며,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큰 격렬함이 있는 것을 보실 때 고난으로 그것을 길들이시는 것에 대해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끝에 덧붙이는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감추려 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모든 꾀함의 근원, 곧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오르고 공중으로 몸을 던지며 그런 발길질을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눈멀게 하는 이 어리석은 주제넘음입니다. 사람들이 CO 77 자기를 안다면 꽤 빨리 길들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가 대단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조건으로 태어나고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만이 우리 안에서 꺾일 때까지 우리가 길을 잃기에 너무 대담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꾀함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 안에 너무 다스리는 이 교만의 병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만을 감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묻어 두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엘리후는 우리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자주 쓰는 이 비유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뽐내려 할 때 사람들이 "가서 숨어라, 이 못난 놈아"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꾸짖음을 내놓아서 그가 감히 더는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집에 묻히듯 들어가야 할 때처럼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그의 교만이 내쫓기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척하려 해도 우리 어리석음은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만이 늘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알려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곧 그분이 오셔서

우리 뺨을 치시고, 그때 우리에게 그런 치욕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추함을 알아차리고, 까닭 없이 지나치게 높아지려 했던 못난 자들처럼 가서 숨어야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을 덮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분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발아래 두시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게 대담하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짐승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깊이 찌르는 가책을 보내시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 뒤에 우리가 그분의 손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굳고 고집 세서 들짐승처럼 길들여져야 하기 때문임을 압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 그것으로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권면을 인 치시고 확증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높이고 인내로 받읍시다. 그분이 이 수단으로 우리 유익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평생에 그분께 참된 자녀임을 보이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빠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5편

욥기 33장 설교 4

CO 35:78–9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그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시고, 그의 생명이 칼에 이르지 않게 하시오. 그분은 사람을 그 침상에서 고통으로 징계하시고, 징계로 그의 뼈를 부수시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빵을 물리치고, 그의 생명이 먹고 싶던 음식을 싫어하오. 그의 살은 말라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그의 뼈가 튀어나오오. 그의 영혼은 무덤에 가까워지고, 그의 생명은 죽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가까워지오. 천 명 가운데 하나인 말 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올곧음을 밝혀 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화목을 찾았다” 하고 말씀하시리니, 그의 살이 아이의 살보다 더 싱싱해지고, 그는 젊은 날로 돌아갈 것이오. (욥 33:18–25)

이 설교는 16절과 17절을 더 다루고, 그다음에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78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은 꾀함에서 억지로 우리를 끌어내셔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성으로 너무 오만해서 하려 하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고 지나치게 끼어들지 말라고 권하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미친 대담함이 있어서, 마치 들짐승을 쇠사슬로 묶듯이 큰 폭력이 아니면 순종 속에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게 쳐서 길들이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자기 꾀함에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CO 79 교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에 있는 교만이 꺾여 발아래 짓밟힐 때까지, 그들은 늘 들떠서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심지어 짐승처럼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낮추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꾀할 만큼 더는 그렇게 어리석거나 대담하지 않는 것임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인도 아래 걸으며, 그분이 명하시는 것을 지키도록 늘 그분의 입에 물어보고, 우리의 모든 힘과 덕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가 저녁에도 아침에도 되새겨야 할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우리가 짊은 것을 더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이 수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부풀어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나서는 것이 사람의 파멸이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우리가 치명적인 추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할 다른 처방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무덤에 떨어지지 않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이 약이 얼마나 거친지 보여 줍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 살을 말려 버릴 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의 사람의 모습을 더는 가지지 못하고, 땅에서 꺼낸 죽은 자들 같으며, 뼈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더는 숨 돌릴 수 없으며, 끊임없는 괴로움 속에 있고, 아무 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세차게 추격하셔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첫 번에 사람들에게서 바랄 만한 것, 곧 그들이 고개를 숙이도록 자기가 비참하고 연약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얻으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래도록,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설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복종하거나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 점입니다. 그런데 첫째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되니 고난을 인내로 견디기를 배웁시다.[16] 우리가 무덤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여기서는 지나가는 몸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로 영원한 저주를 구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만 부러지려고 떨어질 참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고, 생명책에서 지워지며, 하늘나라에서 잘려 나가려고 떨어질 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오만이 우리를 이끄는 형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며 우리에게 어떤 CO 80 덕이 있다고 여기고 그 위에 상상으로 집을 짓는 동안,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주제넘음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우리는 넘어져 영원히 멸망할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맞다고 아시는 처방을 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는 그분의 매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인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에 처방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내시는 것을 견딜 수 없으니 그것은 너무 큰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고 사랑스럽게 만드시려 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징계가 우리에게 보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평온하게 견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육의 감각에는 아주 이상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보다 우리 구원을 더 잘 마련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려고 죽음으로 이끄셔야 합니까? 사람이 이성을 따라 따진다면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 처리 방식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죽이신다는 것은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16. 원문은 “querelles“입니다. 문맥에 따라 “qu’ elles“(그것들이)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생각할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분 진노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병은 죽음의 전령이고, 우리가 품는 모든 슬픔은 우리를 삼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슬픔과 병과 괴로움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마치 고문 속에 있는 것처럼 거기 붙들어 두셔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고, 여기서 말하듯 우리 생명이 무덤에 가까워질 만큼 시들게 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익숙한 그 작은 고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큰 극한까지 이끄셔서 우리 안에 더는 아무 소망도 없게 하시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던지셔야 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소송을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거룩한 성경은 그분께 살리시기 전에 죽이시고, 무덤에서 건지시기 전에 무덤으로 이끄시는 이 직무를 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한까지 살피셔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고, 숨도 되찾을 수 없어서 완전히 질식한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이 여기서 우리 순종을 훈련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기까지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손에 다스림 받기를 견딜 수 있는지 알려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어지러움과 괴로움 속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떠올라 우리를 기쁘게 하게 합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덤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거기서 건지려 하시고, 그들의 살을 말리시면서 그들을 회복하려 하시며, CO 81 그들을 끝까지 괴롭히시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쉼으로 이끄시려 한다고 하셨다." 그러하니 이 위로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리기에 충분하게 합시다. 우리가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 가르침의 힘으로 늘 더 나아가며, 우리가 구렁에까지 꺾였을 때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엘리후가 하나님의 징계를 그토록 길게 묘사하는 것은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경고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거룩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 진노의 크기를 생각합니까? 시편 아흔째 편, 모세의 노래에서(시 90:11) "누가 주의 진노의 크기를 알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 버릴 불이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설교에서 그것을 다루고, 우리가 그토록 아름다운 구절들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건드려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거의 장난처럼 보이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잘 새겨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뼈를 말리시고, 그렇습니다, 그토록 큰 폭력을 쓰셔서 사람들에게 있는 힘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되고, 그들의 살이 먹혀 사라지며, 죽음의 형상밖에 보이지 않고, 끊임없는 괴로움이 있으며, 사람이 거기서 죽은 것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내놓이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 가운데 우리 죄를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슬러 당신의 심판을 펼치실 때, 그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더 무서운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생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거룩한 성경이 그토록 많은 비유를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이빨로 부수고 깨뜨리며 발톱으로 찢어발기는 사자에 비유합니까?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잔인함을 그분께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둔해서, 그분을 거슬러 높아진 자들에게 그분이 보내시는 벌을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는 그런 둔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거룩한

성경은 하나님을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거기 오시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분이 CO 82 사람들에게 맞서는 분으로 나타나려 하실 때에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할 만큼 큰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쓰임에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경고가 어떻게 미리 우리에게 쓸모가 있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또 때로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슬러 덮치실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십시오, 기억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살을 말리시고, 하나님께서 부수고 깨뜨리시며, 하나님께서 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엄격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분의 진노가 우리에게 무섭고, 여기 담긴 것들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인 이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 슬픔에 삼켜진 것처럼 되고 거기 구렁 속에 있는 것을 견딥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남겨 두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다루셨다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엘리후가 내가 이미 끌어온 이 모세의 노래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 까닭 없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쓰여야 하는 방식입니다. 곧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묵상할 여유를 가져서,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걷고 그분의 손 아래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칠게 찾아오실 때, 그분이 당신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지나치게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을

새롭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슬프게 하신 뒤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괴로움에 삼키신 뒤에 온전히 기쁘게 해 주시기를 기다린 자들에게 우리를 맞추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 두시는 그 길이도 새깁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사람을 괴롭히셔서 그가 멸망한 것처럼 보이다가 곧이어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괴롭히려 하시는 자들 위에 손을 얹으시면 그 손을 점점 더 무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불쌍한 피조물이 많이 괴로움을 당한다면 내일은 갑절이 되고, 그다음에는 더 늘어서, (보기에는) 끝도 분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볍게 해 주려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전에 사람이 백 번의 죽음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느끼자마자 거기서 건짐을 받기는커녕, 고난은 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CO 83 우리가 많은 죽음과 싸울 때까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혹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듯 거친 나귀에는 거친 나귀꾼이 있고, 우리가 단단한 나무이니 아주 단단한 쐐기가 필요하고 큰 망치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고 실상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안에 악의를 길러 온 것이 작거나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17]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재갈을 씹어서, 고난이 커져도 늘 이를 갈며 거기서 들짐승처럼 있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자들은 어떤 겸손의 표시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경박해서 하루 사이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갇혀 있는 동안, 오, 물론 그는 "내가 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7. 원문은 "datter"입니다. 문맥에 따라 "flatter"(아첨하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위선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치려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완전히 바뀌었고 자기 안에 더는 아무 나쁜 애정도 없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음 날 건져 주신다면 그는 전보다 더 나쁘거나 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를 거듭 내리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얻어질 수 없고 오히려 오래도록 바로잡으셔야 할 만큼 그런 거만함이 있는 것을 보신다면, 그분은 더 거칠게 일하셔야 합니다. 병이 뿌리내렸을 때처럼 말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환자는 어떤 물약이나 알약을 먹고 피를 좀 뽑았으면 다 나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하건대, 그에게는 자기가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병의 뿌리는 아직 다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주 거칠고 쓴 약을 먹고 음식을 가려야 하며, 한 달, 두 달, 아니 한 해 내내 의사의 손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처방과 긴 치료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 교만의 악덕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내려서 뼛골까지 파고들었고, 모든 것이 그것에 감염되어 우리 안에 건강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고난 속에서 계속되는 이 길이를 말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 처방을 쓰셔야 합니다. 그분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고, 이제는 이런 종류를, 이제는 저런 종류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그것을 헛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불쌍한 피조물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이 CO 84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시니, 그분이 바뀌시고, 말하자면 모습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알맞다고 보시는 것에 당신을 맞추시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을 그 침상에서 고통으로 징계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우리를 추격하시면 아무 쉼도, 아무 휴전도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이시면, 곧 우리가 그분의 진노를 깨달으면, 우리가 쉼을 찾을 때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는 뜻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이시고 우리에게 노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이 참으로 그러하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죄를 싫어하도록 놀랄 필요가 있으므로 그분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끝없는 싸움을 해야 하고, 어떤 가벼워짐을 얻으리라 생각해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화목할 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쉼을 주신다면, 그분이 그만큼 우리 연약함을 참아 주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칠게 살피시고 우리가 무덤 가장자리에 있다 해도, 그분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 선하심의 어떤 맛을 주셔서 우리가 숨을 돌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았고, 어떤 자들은 아무 쉼도 없도록 추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유기된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수단으로 그 구원을 이루고 앞당기신 자들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보시므로 우리에게 작은 매질 몇 번만 주실 때,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 밖에 그가 사람이 음식을 물리친다고, 그렇습니다, 먹음직한 음식에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느낌에 건드려지고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아무것에서도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모든 은택에 맛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은혜입니다. 물론 속된 사람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든 자처럼 자기 죄에 절여지고 거기서 완전히 짐승같이 되어 더는 아무 아픔도 없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즐거움, 그렇습니다, 그들의 CO 85 짐승 같은 즐거움에서 충분히 맛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맞서신다고 느끼는 자들은 그 본성상 바랄 만한 모든 것에 싫증이 나고 그것으로 언짢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생명에서조차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많은 비참으로 가득하고 모든 불행의 바다 같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두시고 거기서 보존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그분을 우리 창조주요 아버지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목적으로 지음 받았고, 이 덧없는 삶 속에서 유지되어 우리를 거기서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우리 생명은 우리에게 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하신 분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 생명은 우리에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구렁에 빠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고 말하리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맛을 느끼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나머지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바랄 만하고 우리가 거기서 맛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맛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빠져서 이렇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손 아래 평온하게 따르기를 구하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졌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때, 마실 때나 먹을 때나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일에서, 우리 기쁨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아는 이 쓰임에 돌리도록 기뻐하기를 구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한 몸까지 돌보려 하시니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신 돌보심을 잘 밝히신다. 보라, 썩을 시체들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것들을 먹이시는 분이 되려 하신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시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모든 것에 싫증이 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 미움이 될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감추셨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은택에 맛과 향을 주는 그분의 아버지 같은 호의를 더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탄식하고 당혹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CO 86 우리에게 숨을 돌리게 하고 쉼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여기 이어서 말하듯이) 전에는 완전히 꺾여 있던 대신 한창때 같게 하는 데 쓰이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의 살이 사라져서 그가 살아 있다고 더는 말하지 않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곧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그러뜨리신다면, 인내로 무장하도록 살피고, 그런 극한에 이른다 해도 다툼에 들어가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다루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 하시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으로 정하셨고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그분이 이끄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들을 일그러지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멸망한 자로 판단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죽은 자 같을 때에도 그분이 그래도 우리 생명을 당신의 손에 감추어 붙드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것만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혹독하게 괴로움을 당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런 엄격함을 쓰신다 해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생명은 죽음의 한 종류요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셋째 장에서(골 3:3)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 나무들이 겨울에는 꽃도 잎도 아무 기운도 없고 생명이 안으로 물러나 있듯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 맡기는 이 영예를 드렸을 때, 그분은 마침내 당신이 좋고 신실한 지킴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잠시 동안 우리를 그렇게 당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 은혜의 아무 표시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것처럼 보이기를 기뻐하신다면, 좋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그분이 여기서 말하는 그 기운을 우리에게 돌려주실 때까지 탄식합시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그렇게 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기 전에 그들이 파멸한 것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인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은혜를 느끼게 하려 하실 때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쓰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은 자들을 살리시는 수단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그들에게 천 명 가운데서 하나를 찾기도 어려운 사자를 보내시고, 그가 올곧음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은혜 안으로 맞아들이신

다는 소식을 가져옵니다.[18]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자 같았던 뒤에 이렇게 회복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CO 87 우리에게 당신 선하심의 소식을 보내셔서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밝혀진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아름답고 뛰어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사람이 하나님 선하심의 증언을 가질 때 새 힘을 얻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에 이런 성질을 주셔서, 거기 담긴 약속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모든 시험과 싸워야 한다면 가장 큰 싸움은 불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슬픔이 우리 눈을 부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늘 어떤 가로막는 것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하고, 저마다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거기 와서 끼어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판단을 미룬 것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이 약속을 듣는다. 그것은 한 세상을 되살릴 만하다. 그러나 어떤가? 나는 늘 시든 채 남는다. 그것이 내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것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확증해 주는 사람을 보내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를 괴롭혔다. 그러나

18. 원문은 “en oye“입니다. 문맥에 따라 “envoye“(보내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것이 큰 엄격함으로였다 해도, 나는 너희가 받아 마땅한 대로 너희 악행을 벌하려는 재판관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의사였다. 물론 너희는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지지기와 뜸을 써야 했고, 뼈를 살펴야 했으며, 아주 거센 처방을 써야 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이에 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왔다. 그러니 그것에서 내 선하심을 알라. "[19]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거룩한 성경책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그분 자비의 어떤 약속을 발견하며, 그분이 우리 허물을 용서하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사람을 보내실 때마다 이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 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이 증언을 보내실 때 그분은 실제로 그것을 보여 주신다." 특히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되는 이 좋은 것을 가질 때 말입니다. 우리는 설교의 쓰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CO 88 땅에서 풀려서 하늘에서 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곧 우리가 모두 사로잡혀 영원한 저주 아래 갇혀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에게 정해진 자들이 우리를 풀어 주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 곧 우리를 확증해 주도록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 고유의 직무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설교에 있는 힘과 효력을 나타내려 하셔서, 거기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렇습니다, 죽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고후 5:18)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의 사신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회에 있고 거기서 복음이 순수하게 알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그렇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 두셨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19. 원문은 "ie vous si tormenté"입니다. 문맥에 따라 "ie vous ai tormenté"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우리 결박을 끊을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압시다. 선지자 이사야에게서(사 61:1)[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포로들에게 놓임을 알리도록 보내지시리라고 미리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당신 몸으로만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당신의 사역자들로 그것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과 우리가 본성으로 빠져 있던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짐을 교회의 모든 목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옥에까지 두셨고 구렁에 빠진 것 같던 자들을 회복하시는 수단을 보여 줄 때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그들에게 올곧음을 밝혀 줄 사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는 올곧음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야 할 자들이 아첨을 써서 우리가 의롭다고 믿게 하고 우리 덕과 공로를 설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올곧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이 더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나 우리 덕으로 올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올곧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점입니다. 세상이 이 올곧음을 찾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공로를 가져가려는 것이고, 세상은 자기가 잘못했다 해도 그분께 어떤 속상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흔한 쓰임,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속는 남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괴로움에 시달리고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느끼면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CO 89 잘 살지 않았는가? 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허물을 저질렀다면 그것을 갚을 무언가가 아직 있지 않은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께

20. 원문에는 "이사야 61장 11절 "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된 말씀은 61장 1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어떤 빗장을 걸어서 그분이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가지시지 못하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올곧음을 자기 공로에서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올곧음을 주려 하실 때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을 쓰십니다. 곧 우리 죄를 감추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알아보시고 그런 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올곧음은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입니다. 그분이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 얼룩을 씻으신 뒤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으로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건지신 뒤에, 우리 죄를 지우시고 우리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알리는 올곧음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이 늘 이 "의롭다 하다 "라는 말을 쓰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것도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말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의의 샘이시고 그분과 죄악 사이에는 아무 어울림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인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스럽고, 그분에게서 물리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컨대 우리가 의롭고 올곧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바라보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묻으시고, 그것을 감추시며, 우리를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안에서 지워져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실 때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는 더는 우리 안에서 죄악을 찾지 않으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올곧음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특히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이 사자가 천 명 가운데 하나라

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이 좋은 것, 곧 우리 화목의 수단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증인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과 화목하도록 중재해 줄 사람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발밑에 던져 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CO 90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도(사 52:7) "우리에게 평화를 알리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바랄 만한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발로 오심과 함께 있음을 뜻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자비를 밝히실 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세상이 안다면, 세상은 복음을 알리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넘어서는 보물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끌어와서(롬 10:15)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 적용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셔야 하고, 그런 좋은 것은 그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너무 큰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흐리게 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설교와 나머지 모든 것을 가질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찾으러 오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이 은혜와 특권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가 높이 여기고 세상을 따라서도 우리보다 더 높이 여길 만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녀 보고, 지난 시대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민족들을 다 찾아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학문이 갇혀

있는 것 같던 그리스를 찾아가 보고, 이탈리아와 지금 어느 정도 존중받는 프랑스로 가 보고, 스페인으로 가 보십시오. 거기서 온통 황폐함 말고 무엇을 찾겠습니까? 거기서는 구원의 사자가 되어야 할 자들이 완전히 벙어리일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사냥개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려고 짖는 것이 들리고, 불쌍한 영혼들이 멸망으로 이끌려 가며 마귀가 거기서 사냥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단에 오르는 설교자 수만큼, 그들은 모든 것을 사탄의 그물로 몰아넣어 불쌍한 영혼들이 다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달리고 몰아세우는 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도록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신실한 사자가 천 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할 드문 은택이라는 것을 말하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높이 여기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좋은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끌어당기시고 우리에게 CO91 당신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증언하기를 기뻐하실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잘, 더 큰 공경으로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불쌍하고 비참하며 우리 안에 죽음과 저주밖에 없다 해도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려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기서 건지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6편

욥기 33장 설교 5

CO 35:92–10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을 누그러뜨리고, 승리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오. 그리고 그의 의가 사람에게 돌려질 것이오. (욥 33:26)

이 설교는 23, 24, 25절을 더 다루고, 그다음에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92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수단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악인들도 똑같이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어지고 하나님께 대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하기는커녕,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그만큼 더 드러내고 그것을 극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분은 그들을 꺾고 죽이셔서 그들이 당신의 위엄 앞에서 떨고 부끄러워하며 거기서 반쯤 죽은 것처럼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 관해서나 세상에 관해서나 더는 생명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가 신자들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수단을 풀어 줍니다. 곧 그분이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실 때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제 다루었듯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그 끝으로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끝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독하게 다루셨다 해도 무슨 일이 있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려 한다고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 영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마땅한 만큼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 죄 사함의 증인이 되는 이는 천 명 가운데 하나 같아서 우연히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누구에게든 남겨 두시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낼 짐과 직무를 맡기신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하늘나라의 열쇠가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권위로가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이 자기 구원을 그만큼 더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그분의 재판석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고 신실한 교사를 보내시고, 당신이 정하시는 자들에게 멸망 속에 있던 불쌍한 피조물을 속량하고 건져 내는 이 짐과 직무를 맡기실 때 그분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더 잘 이해되도록 여기서 지켜볼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후가 우리에게 우리 죄 사함의 까닭과 기초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둘째는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의 직무가 불쌍한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 내고 그들을 풀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위임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그토록 높고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가로채는 것은 그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첫째에 관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은혜의 이 근원으로 우리를 다시 이끄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앞지를 수 있어서가 아니며, 우리가 그분을 우리에게 움직이게 할 무언가를 그분께 가져가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성령께서는 여기서 우리 죄 사함을 하나님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에 돌리십니다. 우리가 비참하고 우리 안에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끝없는 비참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므로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CO 93 당신의 선하심이 그분을 거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항목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얻으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공로로 그분을 누그러뜨리거나 우리 죄 사함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그분이 함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선하심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경고를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마련하려 하신다 해도, 우리는 늘 그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다거나,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하찮게 여기신다거나,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흐릿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때로 넋이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분이 그들을 잊으셨거나 물리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때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하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죄 사함의 증언을 보내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전에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겪고, 얼마 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의 선하심을 차지하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의 직무가 죄를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억할 만한 조항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멸망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말했듯이) 그것이 또 우리가 그분께 기쁨이 되는 올곧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갖 저주의 구렁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밖에 우리가 그분과 화목할 때 낙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알아보시며, 하늘의 유산이 우리에게 다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 줄 좋고 신실한 교사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목표로 삼으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복음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곧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사신 직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밝히듯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입니다. 곧 죄가 무엇인지 모르셨고 흠 없는 어린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저주에 복종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피에 잠기고 CO 94 그분이 드리신 이 제사 아래로 와서 놓인 뒤에, 그 제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는 이 능력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거나 설교에 올 때, 하나님 선하심의

어떤 약속이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이것을 압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셔서, 우리가 잠겨 있던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듣고, 그의 목소리가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이 가르침이 우리가 빠져 있는 저주와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지기에 충분하게 하시리라는 것, 우리가 사탄의 결박에서 나올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것이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긋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인을 건지라”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내어 낙원에 들어가게 하라고 분명한 짐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울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야고보는 사사로운 사람들에게 말하면서(약 5:20) 자기 형제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길 잃은 자들을 좋은 길로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그것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교회의 목사들로 우리에게 설교될 때 그 말씀에 주신 이 특별한 서명을 우리가 가질 때는 어떻겠습니까? 곧 우리가 이미 사도 요한에게서 끌어왔듯이 그들의 직무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 마태에게서 끌어왔듯이 매고 푸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복음에 담긴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구렁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셋째 조항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기 때문에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교황의 신성모독과 구별하려는 것입니다. 교황은 자기와 자기 사제 떼거리가 하늘나라

의 열쇠를 가졌고 용서하는 직무를 가졌다고 잘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에 무슨 위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죄 사함을 자기들의 고해에 매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자비를 얻으려면 사람의 귀에 자기의 모든 비밀을 고해해야 한다고 밝히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탄식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밝히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을 사람이 법을 지우겠다고 주제넘게 굴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낙원의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CO95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놓고 가로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교황은 죄 사함의 기초를 세우려고 자기 교서와 면벌부와 사면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가질 것이고, 또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의 능력을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피를 섞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에게는 복음의 약속이 하나도 없고, 시시한 장난과 마법사의 의식, 등에 수없이 긋는 성호, 이것저것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그것은 사탄의 원숭이 짓일 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죄 사함이 하나님의 소식 없이는, 곧 설교와 가르침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황은 죄를 용서할 때 벙어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져오지 않고, 말했듯이 자기 주문과 마술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비뚤어지게 하려고 폭군 같은 법을 지웁니다. 그다음에 그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그분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는 것을 막는 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황의 교회, 이 마귀의 회당은 죄 사함을 잃었고,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의 전통에 머무는 동안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에게 죄가 용서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들이 지어낸 의식이나 사람들이 제멋대로 고안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 사함을 손에 쥐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규칙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복음이 공포되고,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 속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단순함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위임이 위에서 오고,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 상상으로 아무것도 꾀하거나 가로채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지시리라"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은 위에서 와야 하고, 여기서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로도 단언하시듯이 말입니다(사 43:25). "이스라엘아, 네 죄악을 지우는 이는 나다, 바로 나다." 그러니 그런 은택은 그분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피조물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이 잘 이해되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알맹이가 있는지 봅니다.

그런데 함께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불쌍한 죄인들이 무덤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엄격함으로 그들을 추격하시는 동안,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것 같고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CO 96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 사함의 이 소식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무덤에 떨어지지 않도록, 곧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악을 미리 막으신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는 일시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질러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빠져 버렸을 멸망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동안 우리는 죽음의 어둠에 덮여 있고 아무 출구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몰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대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그분은 그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채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 구원의 첫 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곧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택하셨고, 그것을 따라 늘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감추어지고 우리 본성적 감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복음이 우리에게 설교될 때 하시는데, 그때 그분은 우리가 무덤에서 건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복음의 약속을 맛볼 때 우리는 우리 건짐과 구원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의 작은 맛을 주시고, 우리가 낙원의 문이 우리에게 온전히 열린 것을 보고 무덤에서 건짐 받을 때까지 점점 더 우리를 거기서 굳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말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화목을 찾으셨다고 말할 때, 여기서 그는 조금 전에 짚은 것을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곧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맺으시는 화해를 우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에 돌려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생각이나 애정을 가질 수 있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일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그분을 잊어버린 동안 그분이 우리를 찾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서(사 65:1)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그분을 노엽게 했을 때 그분께 돌아가라는 명령은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분이 거기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깊이 건드리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싫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우리

에게 CO 97 어떤 소망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 거기 피하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밝혀 주시는 이가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화목을 찾으셨다고 덧붙이는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부풀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안에 들어올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굳어져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은혜를 멀리 밀어냅니다. 우리가 우리 더러움에 절여져 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화목이 무엇인지 맛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셔야 하고, 그 일은 그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첫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토록 많은 가책으로 우리를 우리 죄를 아는 데로 이끄실 때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분은 거기 안으로 두려움을 보내셔서, 마치 우리를 당신의 심판 앞에 소환하시려고 나팔을 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고 마음이 흩어진 것을 보실 때 감추어진 감동으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를 꾸짖을 사람들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죄를 깊이 지적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좋고 신실한 교사들을 가질 때 그것은 또 큰 좋은 것입니다. 그 밖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우리가 보듯 우리는 박차에 너무 둔해서 하나님께서 더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고 쑤셔야 하므로), 그분은 당신 손의 바로잡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매질을 물리치는 모루처럼 되지 않도록 바로잡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저주받은 본성에 있는 이 굳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바로잡음을 쓸모 있게 하셨습니까? 그때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하실 알맞은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목을 찾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우리 편에서는 앞지를 수 없고 심지어 그분에게서 뒷걸음질 치기만 한다는 것을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기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을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 욕심에 취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경고를 보내시고 우리가 우리 악에 대해 확신하게 된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묻어 버리려 애씁니다. 다른 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할 때 이를 갈고 대들어서, 그것을 견디기는커녕 물고 발길질하는 것밖에 일이 없습니다. CO 98 다른 자들은 감각이 없는 것 같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둔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아무 고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셨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 바른 순종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쌍한 정신 나간 자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 가인과 유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 형편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소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길들여지고 한숨 쉬고 탄식하기만 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절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의 다른 대목에서 "보라, 은혜 받을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다" 하고 말하듯이 이 은혜 받을 때가 와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는 구원의 때를 은혜 받을 때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때를 고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이사야의 다른 구절에서 주께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슬픔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이 그들을 괴롭힌 것을 넘치도록 뉘우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할 때가 왔다고 덧붙이십니다.[21]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짧게 짚은 것을 더 확실히 밝힌 것을 봅니다. 곧 화목을 찾는 것이 하나님 고유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들로 그것을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내놓일 때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주실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그런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 정하신 알맞은 때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앞지르지 않았고 우리를 찾으신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를 낮춥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짚은 이사야의 이 구절을 끌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실 때 우리가 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화목이 찾아져서 우리에게 내놓일 때 하루하루 미루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소식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다시 젊어지고, 회복되며, 그의 살이 아이의 살보다 더 싱싱해진다고 결론 내립니다. 거기서 그는 우리가 기뻐하는 참된 수단을 보여 줍니다. 곧 하나님을 잊고 우리를 취하게 할 하찮은 헛된 것을 찾는 것이 CO 99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조항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려 애쓰는지 봅니다. 곧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우울한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충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기뻐하려 할 때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모든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21. 원문은 “les lesions“입니다. 문맥에 따라 “les siens“(당신의 백성)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마치 일부러 작정한 듯 하나님께 대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으로밖에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고 우리도 같은 병에 물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쁨이 위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생각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후가 곧 덧붙이겠듯이)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모신다면,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것은 오래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한지 모르고, 그분과 화목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거기서 우리 더러움 속에 썩고 있는 동안, 우리가 기뻐하기를 바랄수록 그것은 우리를 거슬러 하나님의 원수 갚음을 불붙이고, 그분 진노의 불을 늘 더 키우며, 우리를 그만큼 더 깊이 구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거룩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늘 우리를 거기로 다시 이끕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놓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에게 은혜로우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기뻐하라. 보라, 너희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너희를 찾으시는 너희 구속자이시다. 기뻐하라. 평온하라. 너희 양심에 쉼을 가지라."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지 모르는 동안 우리가 어지러움과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물론 악인들도 기뻐하기를 충분히 구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듯) 하나님께 대들면서 흥겨워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찔림을 보내셔서 그들을 괴롭히시므로 그들이 거기 갇혀 있고, 그들이 뛰논다 해도 그것은 모세에게서 말하는 방식대로입니다. 곧 그래도 늘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서, 자기

사람을 기다리는 개처럼 거기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악인들은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자기 양심에서 갉아먹히지 않고서는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가두어 붙드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곧 평화를 얻는 일이 문제가 될 때, CO 100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고, 우리 죄를 묻어 버리지 말며, 오히려 늘 우리를 위로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위에서 기뻐합시다. 그때 우리 기쁨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맛을 가지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 없이는 우리가 완전히 기진해야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아무 수단도 없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려 하실 때 많은 슬픔이 섞여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흔히 말하듯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보내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자비를 얻으리라는 이 확신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기 좋은 길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질 때, 말하건대 우리가 이 담대함을 우리 무모함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언하시려고 당신의 거룩한 입을 기꺼이 여셨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복음이 공포될 때 그렇게 하십니다) 가질 때,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온전히 멈추어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고 그 모든 것을 이겨서, 우리 비참과 환난 속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요 구원자가 되시려

하고,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의 독생자의 인격 안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이 새 기운을 얻고, 회복되며, 그의 살이 어린 시절처럼 싱싱해지리라고 할 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을 느낀다 해도(이 덧없는 삶을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비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것 위에서 이기는 기쁨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빌 4:7).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에서 승리를 얻게 하라." 그가 이 하나님의 평화를 말할 때 그는 우리 죄 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 밖에 그는 이 평화가 모든 사람의 감각을 넘어선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 CO 101 승리와 종려나무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어지러움과 괴로움을 가질 것이고, 심지어 번번이 죽음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화가 위에 서야 하고, 우리가 싸우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해야 합니다. 시편 넷째 편에서(시 4:6–7)[22] 말하듯이 말입니다. 곧 세상의 모든 풍요도 육에 속하여 여기 아래의 것들을 바라는 자들을 그만큼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해를 만나고 먹고 마실 것을 넉넉히 가지면 흥겨워합니다. 물론 보십시오, 그들은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비추신다면, 우리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데 익숙한 모든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함께 덧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22. 원문에는 "시편 4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6절에 해당합니다. 인용된 내용이 6–7절에 걸쳐 있어 6–7절로 적었습니다.

기도하여 그분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또는 "그분이 은혜로우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십시오,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의 열매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마치 그분의 품에 쉬듯 쉴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려 한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기 아래 사는 동안 그것이 그들의 가장 높은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보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에게서 떠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신다 해도, 어쨌든 지금 우리는 겉보기에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분의 위엄 앞에 나아가 서며, 요컨대 그분과 결합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부를 자유를 주시는 이것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함의 끈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지 않고서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분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편 다섯째 편에서(시 5:7)[23] "주님, 주의 많은 선하심 가운데 내가 주의 성전에서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감히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입은 닫히고, 우리 마음은 갇힐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분을 부르는 이 특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거기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양자 됨을 인 쳐 주시는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 말을 들어 주려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고

23. 원문에는 "시편 5편 8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CO 102 이 믿음이 신뢰를 낳아서 우리가 온갖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약속으로 기쁨을 얻었을 때, 함께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이 은혜로우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은 채 드리는 모든 기도는 순전한 꾸밈일 뿐이고, 심지어 가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우리는 요구되는 만큼 확신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들 위에 기초를 두었으므로 우리 아버지께 가듯 하나님께 가는 이 결심을 우리 안에 가지지 않는다면, 그분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죄로 바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교황주의자들의 형편이 얼마나 저주받고 비참한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구렁에서 건져 내신 것에 대해 그분의 선하심을 그만큼 더 크게 찬양하도록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가 충분히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원칙을 가질 것이고, 심지어 그분의 약속을 맛보는 것은 문제도 아니며, 그들은 완전히 운에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많이 에둘러 가고, 그토록 많은 수호성인과 변호자를 찾으며, 하나님께 가는 그토록 많은 수단을 지어냅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거기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이 영예를 그분께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은 늘 의심 속에 있고, 심지어 의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들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이 특권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늘 물리침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듯이(약 1:6–7) 사람이 의심 속에 하나님께 구하러 온다면 결코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후가 여기서 사람이 그렇게 기쁨을 얻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고 말하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우리가 결코 기도할 준비가 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일반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서(호 2:23) 말하는 것을 따라서 말입니다.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면, 너희는 내게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분이 먼저 노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노래를 시작하시지 않으면, 곧 그분이 당신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CO 103 우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지 않으면 좋은 가락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마다 거룩한 성경에 담긴 약속에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우리 말을 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두려움 속에 걷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아가 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말하건대, 내가 방금 끌어온 시편 다섯째 편의 이 구절에서 "주님,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두려움으로 주께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듯이, 그것이 우리를 겸손과 공경으로 이끌게 합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알고, 두려워하고, 낮아지며, 온갖 겸손으로 그분께 복종합시다. 그러나 그래도 늘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기를 그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께 갈 때 그것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기를 기

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품고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한다 해도, 그래도 그분 앞에서 온갖 겸손으로 우리를 낮추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바른 길을 지키며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늘 그분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로 만나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7편

욥기 33장 설교 6

CO 35:104–11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은 그에게 은혜로우실 것이오. 그는 기쁨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분은 사람에게 그의 의를 돌려주실 것이오(또는 되돌리실 것이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할 것이오. “내가 죄를 지었고 선에서 돌아섰으나,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분이 내 영혼을 속량하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내 생명이 빛을 보게 하셨다.” (욥 33:26–28)

CO 104 어제 말한 것을 따라, 여기서 엘리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평온하고 온전히 확신하는 양심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쉼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 형편도 온전히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차지한 채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 분도 그것들을 누리리라고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평생 편안하고 즐겁게 지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그가 그것을 순수하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 같은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에게 저주와 파멸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가 그분께 기쁨이 되리라는 확신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를 수 없다면 우리 삶이 딱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성령께서 보여 주

시는 순서를 그만큼 더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을 때, 그분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담대하게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실 것이고 그의 의가 이 수단으로 그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또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뜻이 아주 분명하니 낱말에 오래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서 꾸짖음을 받는 동안 온갖 두려움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그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사람들이 더는 자기에게 그분을 말하지 않으며 그분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죄인들이 자기 악 속에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을 구하고, 사람들이 그분을 떠올리면 그것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악행자가 자기 재판관 앞에 끌려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불쌍한 피조물들은 자기 죄 속에 묻혀 있는 동안 괴로움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 사함의 증언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에 관한 말을 기꺼이 듣고, 심지어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CO 105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그는 악인들이 잠들었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만큼 멍해졌을 때 말고는 쉬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십시오, 속된 사람들과 자기 악덕 속에서 자기를 기르기만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으려 애쓰고 그 위에서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올리게 하시면 그들은 깨어나는데, 그렇습니다, 괴로움을 당하려고 깨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신

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믿음이 그것의 좋고 확실한 증언이 되듯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에 가까이 갈수록, 그분이 실제로 보여 주셨듯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만을 구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 그만큼 더 큰 신뢰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의가 돌려지리라고 할 때 어제 한 말이 다시 확인됩니다. 엘리후는 앞에서, 불쌍한 피조물이 고난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원수 갚음을 느낀다면 복음이 설교되지 않는 한,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순수하게 알릴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불쌍한 죄인이 구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낙원의 문이 자기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 않으시는 한, 그를 기쁘게 하고 심지어 생명을 돌려줄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그것을 다루면서, 복음을 알리는 이가 그렇게 다루어지는 사람에게 그의 올곧음을 밝히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올곧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올곧거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 올곧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묻으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들을 그것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씻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보여 주듯이(벧전 1:2) 성령으로 뿌려질 때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의가 사람에게 돌려진다는 것, 또는 그것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우리를 추격하시고 셈을 하라고 소환하시는 동안 우리는 우리 허물에 짓눌리고, 우리를 거스를 다른 소송도 증인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다시 부르시고, 우리가 매여 있는 죽음의 의무에서 건짐 받을 좋은 처방이 있다는 것,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받아 끌어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 보십시오, 이렇게 전에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렸던 우리 의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더는 CO 106 우리 죄를 우리 품에 기르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 악덕을 덮으려고 고약을 붙이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취는 그만큼 더 커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터져서 완전히 감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고 헛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일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꾸짖음 받기를 견딥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질 때, 우리를 낮추고 우리 죄악을 싫어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권면에서 우리가 유익을 잘못 얻었다면, 적어도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고칠 수 없는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매로 맞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것으로 너무 꺾여서, 그분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완전히 구렁에 빠진 것을 보고 그분의 순전한 자비를 찾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단으로 의가 우리에게 돌려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선지자 이사야로(사 1:18)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우리 죄로 온통 피투성이이고 그 물이 우리 안에 배어 있다 해도, 우리가 마음의 순수함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처럼 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채 내버려 두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권, 곧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말을 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특권을 쓸모 있게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덧붙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할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고 선에서 돌아섰으나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분이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 이 구절을

어떤 이들은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곧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누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그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대신 생명의 빛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낱말 그대로는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할 것이다. '내가 잘못했고 선에서 돌아섰으나 그것이 내게 아무 쓸모가 없었다' " 또는 "그것이 내게 공평하거나 알맞지 않았다"이므로, 엘리후가 자기 말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쉽게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자기 허물을 느끼고 무덤 가장자리에 이를 만큼 그렇게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며 심지어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확신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하실 때,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자기 비참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느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크게 찬양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 사함의 둘째 열매입니다. 곧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물리치지 않으셨고 CO 107 여전히 자기에게 당신께 나아갈 문과 길을 주신다는 것을 알 때, 그가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믿음의 열매를 쓸모 있게 하듯이, 또 그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그를 건져 주실 때까지 그가 빠져 있던 비참을 보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복음의 약속을 보내신 뒤에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께 구해야 하듯이, 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탄식해야 합니다. 저마다 사사로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로 말미암아 높여져야 하며, 저마다 자기 이웃을 부추기는 데 힘써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지 겪은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거기서 본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런 합의가 있을 때 우리는 또 함께 하나님의

찬양을 설교해야 합니다. 저마다 그분께 매여 있고 빚졌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덤에서 백 번이나 건지시고 살리셨다고 정당하게 고백할 수 없는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더 잘 유익을 얻으려면, 늘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가며, 그다음에 우리 이웃에게 와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켜볼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순서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잘 살피고 자기 삶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모든 죄악 속에서 부끄러워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하다는 것을 잘 알아차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구하고 용서를 빌도록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이 끝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우리 허물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끼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깨달아서, 우리가 넋이 나간 것처럼 되고, 지옥이 우리를 삼키려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며, 온통 놀라서 "아,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서 아무 쉼도 없고, 오히려 우리 비참 때문에 시들어 가며 뜨거운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러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야 할 첫 계단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앞지르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자비에 피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선하심의 어떤 약속이 CO 108 우리 앞에 놓일 때, 그분이 죄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시려고 찾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 쓰임에 적용합시다. "좋습니다, 내 하나님, 주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려 한다고 밝히십니다. 보십시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심지어 너무 넋이 나가서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내게 주의 은혜와 선하심을 느끼게 해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거기에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주께로부터 돌아서게 할 만한 많은 어지러움과 괴로움이 있다 해도, 주님, 나는 주의 약속에 멈추고, 그 위에서 주를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에 맞서 나를 굳세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곧 우리 이웃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밝히고, 그분이 한마음으로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자비 말고는 구원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유일한 처방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저주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계단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의 찬양을 설교하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에 잘 묵상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 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나는 이랬고, 저런 짓을 했습니다" 하고 남들에게 잘 들리게 하면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기 안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위선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바람이 많고, 그들은 마음보다 입이 더 넓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겨우 맛보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을 끝까지 느꼈고 그것으로 가득 차 배부르다고 여기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말하려고 그렇게 입을 넓히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마땅히 묵상하지 않아서, 그것이 자기 양심에 잘 새겨지고 자기가 참으로 그것으로 먹여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헛됨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 죄를 잘 따져 묻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기에 부지런하며, 지옥의 구렁에 삼켜진 것처럼 되는 데까지 이르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아서, 우리가 온전한 신뢰로 그분을 부를 수 있을 만큼 그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그토록 생생하게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CO 109 온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기에 이르러야 하고, 거기로 나아가야 하며, 거기에 힘써야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오, 그렇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크게 찬양할 때입니다. 우리 본으로 저마다 그분께 이끌리고, 그분이 당신 아들의 죽음과 고난을 쓸모 있게 하셔서 우리 허물을 없애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며, 우리 얼룩과 더러움에서 씻김 받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 말고는 구원에 대한 다른 기대가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교황주의자들의 고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잘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죄 사함을 사람의 귀에 대고 하는 고해에 매어 두는 것이 교황제의 가증스러운 신성 모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허물의 백분의 일도, 말하건대 가장 무거운 것들의 백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지도 않은 채 저지르는 죄들을 세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교황주의자들 가운데 있는 고해는 지옥의 구렁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걸림돌을 저질렀을 때 저마다 그 악을 바로잡도록 자기 허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그다음에 우리 악에 처방하셨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귀에 가서 우리 모든 죄를 거기 속삭일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저지른 허물과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단 위에 올라갈 일도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비참을 고백하기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짓눌렀을 우리 고난에 바람직하고 복된 끝을 주셨으니 우리를 넘치도록 당신께 빚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노엽게 하고 나쁜 본을 보였을 때, 우리 허물을 알고 우리 안에서 부끄러워하며 그것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아주 잘못 실천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에게 있는 교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감히 "우리는 의롭다" 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위선의 외투일 뿐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 악을 느껴야 할 텐데, 우리는 와서 남의 외투로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여 있는지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추려 할 때, CO 110 우리가 우리 양심에서 느낀 대로, 우리가 빠져 있던 비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죽음에서 나오게 하셨는지대로 말합시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걸림돌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독받으셨거나 음행이 한 거리를 더럽혔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면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허물을 지적한다고 해서 자기를 교황제로 되돌리려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길러지기를 원하시고, 교회에 어지러움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굳음과 고집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어지러움이나 걸림돌을 일으켰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쓰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알아보도록 입을 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곧 죄인이 용서를 얻으려고 하나

님께 구할 때, 그리고 그분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비를 믿으며 가까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는 또 사람들에게도 향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숨어서만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마음속으로만 "내가 죄를 지었다" 하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이웃에게도 돌아설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잠재우려 했던 대신, 그는 자기 안에 그런 언짢음과 부끄러움을 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시고, 잠든 것 같던 자들이 깨어나며, 싫증 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떤 맛을 느끼고, 괴로움에 삼켜져 있던 자들이 "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아갈 문을 우리에게 여신다" 하고 알며, 요컨대 절망한 것 같던 자들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되찾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밝히려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저마다 사사로이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일반적인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주받은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느끼며 우리 죄 속에서 우리를 낮추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미 언급한 이 순서를 새겨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 끝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처음에, 죄인이 깨어나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심의 가책을 보내실 때 그러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가 받은 권면에서 유익을 얻지 않으며 사람들이 그에게 한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분의 손을 너무 혹독하고 무겁게 느껴서 탄식하도록 자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CO111 죽은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를 살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그에게 설교되고 구원의 약속이 그에게 내놓이게 하실 것이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 거기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는 자기 하나님을 부를 것이고, 그런 신뢰를 품어서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아버지께 가듯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 당신 자녀의 수에 넣으셨으니, 나는 그분께 나아갈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그토록 부드럽게 초대하실 때, 나는 그분이 나를 받아 주려 하신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 안에서 탄식하고 잘 건드려지기 전에 아름다운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본성의 질서를 뒤집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어지러움을 잘 느낀 뒤에, 그다음에 복음의 약속을 받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선하심에 기댈 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려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 모든 것을 한 뒤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곧 둘째로 우리 이웃을 세울 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에서 밝힌 것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선에서 돌아섰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화롭게 되셔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곧 우리가 그분 한 분만 의로우시고 우리 안에는 죄악밖에 없다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셋째 장에서(롬 3:4)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다고 말할 때, 그는 첫째로 우리가 정죄받아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지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섞인 공통의 의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유죄로 드러나고 아무도 감히 빠져나가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자원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로 달려갈 때, 그분이 모든 의의 샘이시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분께 속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할 때,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알아보아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하기를 배웁시다. 그것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모든 신자를 위한 일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보여 주신 그분의 선하심을 널리 알리려 합니까? 우리는 이 입의 고백을 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열째 장에서(롬 10:10) 말하듯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좋고 신실한 풀이자입니다. (우리가 이미 밝혔듯이) CO 112 우리가 입에서 시작한다면 바람과 연기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곧 저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며, 그다음에 약속들을 묵상하여 하나님께, 그분의 순전한 자비에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둘째로 입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듯이 둘은 떼어 놓을 수 없으므로 함께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고 선에서 돌아섰으나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하고 말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고 거리낌 없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위선자들처럼 반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은 "오, 물론 온 세상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 보기에는 그것으로 아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장난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곧 그것이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보듯 다니엘도 그렇게 합니다(단 9:5).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덧붙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고, 주의 율법을 불충하게 어겼으며, 악하고 비뚤어졌습니다." 왜 다니엘은 그토록 많은 말을 덧붙이고 거기서 그런 쌓기를

합니까? 자기 허물에 대해 작은 말 한마디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려는 자들은 위선자일 뿐이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 결코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엘리후는 하나님께 무죄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자기 허물을 고백하리라는 것을 보인 뒤에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선에서 돌아섰다" 하고 말합니다. 거기서 그는 사람이 빚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완전히 비뚤어지고 악했다. 나는 타락했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졌으며,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섰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사탄에게 빠져 있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느낀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입도 그것과 맞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선하심의 보물을 펼치시도록 어떤 길을 열어 드리는지 바라봅시다. 어디서나 굳음과 뻔뻔함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반대로 모두가 들짐승이고, 가장 죄 많은 자들이 자기 CO 113 죄악을 주장하는 데 가장 뻔뻔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바로잡으려 할 때마다 뿔로 들이받으러 올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복음을 자랑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오, 개혁은 그들에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나다가 무엇이며, 우리가 되새겨야 할 첫 교훈이 이것 말고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우리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느껴서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으로 완전히 부끄러워하도록 밝힘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끌어안고 깨달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수단으로 그분과 화목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찬양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사람들 앞에서 우리 비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온통 익숙해져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짚었듯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면, 그것도 가볍게가 아니라, 하나는 술꾼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하는 자이며, 다른 하나는 신성 모독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악의와 잔인함으로 가득하며,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때렸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면 거기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결코 길들일 수 없는 들짐승들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권면을 조롱하기만 합니다. 열 명 가운데 하나도, 자기가 잘못했을 때 빚을 고백할 만큼 자기 안에 어떤 겸손과 낮아짐을 가진 사람이 겨우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문을 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에게 내놓인 은혜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설교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모든 핑계를 빼앗고 그들이 그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지옥 깊은 곳에 빠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을 받으라고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싸웁시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 빚을 고백하는 것을 막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위선은 우리가 늘 우리 죄를 덮으려 애쓰고, 우리 마음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동안에도 선에 힘쓰는 시늉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평판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 우리는 사람들에게 존중받기를, 아니면 적어도 꾸짖음에서 면제받기를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안다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정죄가 커지고 갑절이 됩니다. 그러니 이 교만이 온전히 꺾일 때까지

그것을 길들이기를 배워서, 온갖 겸손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CO 114 우리 비참을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우려 애씁시다. 누가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고 알려지고,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백 없이 지내실 수 있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이 온통 드러나고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꺾이고 마치 절망한 것처럼 되지 않으면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해 알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우리가 잠겨 있던 멸망에서 건지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느낀 선하심을 우리 이웃에게 고백해야 하는 첫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본으로 세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지셨으며, 그분은 내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차례에 그들을 괴롭히실 때 그들이 이렇게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 그분이 나를 소환하신다. 왜 그런가? 나는 내 죄에 취한 것 같았고, 길 잃은 짐승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분이 나를 당신께 끌어당기시고 구원의 길에 다시 두려 하신다는 것을 본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느낀 하나님의 일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듯 지난 시대의 신자들이 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다윗이 그가 느낀 그토록 많은 고난 속에서 보여 주고 그것을 끝까지 이겨 낸 본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작은 악을 느끼자마자 절망에 빠진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이 다윗에게 좋고 유익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괴로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달려갑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무덤에 잠기게 하신 뒤에 거기서 건지시는 것이 그분의 직무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엄격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그다음에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 이웃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그들 차례에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처음 겪는 자처럼 되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들이 자기가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알면서 처방,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자기 신뢰를 두는 것을 찾으며, 그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겪었을 때, 곧 그분이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 받아 주셨을 때 점점 더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부추김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보여지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CO 115 한 사람의 본으로 백 사람이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 선하심을 크게 찬양하고 그것이 한마음으로 설교되게 하는 데 게으르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그다음에 결론으로 "그분이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생명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금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밝힌 것과 이어 붙이는 데 필요한 만큼 작은 요약을 가지면 충분할 것입니다. 죄의 고백, 곧 사람들이 자기를 정죄하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된 것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함께 덧붙여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고, 선에서 돌아섰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는 우리 비참을 알아보고 거기서 부끄러워하라고 가르치셨듯이, 함께 우리가 하나

님의 자비를 우리가 느낀 대로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처방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멸망했겠지만,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인들에게, 그들이 자기 창조주께 맞서는 동안에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 죄가 덮여 있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심지어 헛된 아첨으로 그것을 기르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 아, 그것은 늘 우리의 더 큰 멸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실 때,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은 우리 유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달려가도록 부추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고 악이 우리에게 돌려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고 우리를 가엾게 여기실 때까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처방이 더는 없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보십시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부활이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아무 생명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다시 기운 나게 하시고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기를 기뻐하실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죄 사함의 은혜를 크게 찬양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그런 좋은 것에서 돌아서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을 보는 만큼, 그것을 마땅한 만큼 높이 찬양하도록 우리가 그만큼 더 불타오르고 부추김을 받읍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8편

욥기 33장 설교 7

CO 35:116–12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보시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세 번씩 하시오. 그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빛으로 밝혀 주시려는 것이오. 욥이여,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잠잠하시오. 내가 말하겠소. 할 말이 있거든 내게 대답하고 말하시오. 나는 당신이 의롭다 함을 받기를 바라오. 그렇지 않거든 내 말을 들으시오. 잠잠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소. 엘리후가 다시 말하였다.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깨닫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귀는 말을 시험하고 입천장은 음식을 맛보아 가리기 때문이다.” (욥 33:29–34:3)

CO 116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구원을 마련하시는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비참한 피조물이므로 그분 편에서 우리 악덕에 처방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멸망하고 파멸합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우리에게 밝혀졌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로, 고난으로, 큰 매질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받기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굳고 굼뜬 것을 보시면 매를 더 세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기진하여 더는 견딜 수 없는 자처럼 그분께 오지 않을 수 없게 하십니다. 그 위에서 그분은 CO 117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부를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느꼈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으로 그만큼 더 굳게 서며, 또 우리 이웃도 그것으로 굳게 세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모든 것을 다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한 번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가르침을 되풀이하신다고 덧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첫날에 충분히 유익을 얻을 만큼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고, 우리를 낮추시며, 그다음에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격정을 계속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본성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걸을 만큼의 힘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후의, 아니 오히려 성령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교황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없는 의를 묻어 버린 것 같을 뿐 아니라, 더 절제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이 가르침을 흐리게 하고 훼방 버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화목하면 공로를 쌓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계속 차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은 완전히 절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루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좋은 길에 두시기만 하신다면, (묻건대) 우리 육에 있고 우리가 너무나 확신하는 그 연약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이 그것을 끝까지 이어 가시고 필요한 대로 그것이 늘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쓸모없을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우리 육이 너무 들뜨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길들여져서 멍에를 질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을 구한다 해도,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바뀌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반역이 일어나며, 우리가 어떻게 타락할지 그 수단을 아는 사탄이 간계로

우리를 미혹하러 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만 바로잡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거기 내버려 두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하루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은 위로를 우리 스스로 쓸모 있게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흘러가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곧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방탕으로 돌아가고, 그분의 매가 CO 118 우리에게 요구되는 만큼 기억할 정도로 잘 새겨지지 않으며,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데 뜨겁지 않고 오히려 날아다니며 우리 헛된 것 속에서 헤매고, 우리 구원을 그분 안에서 찾는 대신 이리저리 휩쓸리며, 우리 정신이 너무 경박해서 마땅히 멈추어야 할 곳에 멈출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번번이 다시 시작하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여기서 세 번이라고 할 때, 그는 거룩한 성경의 흔한 방식으로 여러 번을 뜻합니다. 정해진 수를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시는 것이 우리 유익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변하기 쉽고 한결같지 않으므로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하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 속에서 살리셨다고 했던 말을 확인하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느끼는 징계의 엄격함을 우리에게 누그러뜨리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본성에 거스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것들을 피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맛대로 우리를 다루시고, 결코 우리에게 거칠지 않으시며, 우리가 결코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늘 편안하며, 그분이 우리를 기쁨과 쉼 속에 지켜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상상대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좋지 않고, 그분이 그 위에 당신의 판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롭다고 아시는 것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 고난에서 위로를 얻으려면 그 끝과 결말을 바라봅시다. 곧 그것들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쓰다 해도,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그분 사랑의 증거이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 구원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의 모든 원망을 가라앉혀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이 어떤 병에 쓰이는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고 가볍고 흔한 병에서 나으면, 물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처방을 그래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버림받아 사람들이 그를 죽은 자로 여기는데도 그가 살아난다면, 그가 받은 처방은 그에게 그만큼 더 귀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보여 주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면서 우리 악덕에 처방하신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서 건지시고 살리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돌이키시지 않고, 심지어 폭력을 쓰시지 않으면 CO 119 우리는 끝장이고 멸망 속에 빠져 버린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 굳음을 생각하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에 너무 빠져 있어서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그분이 달리는 끝내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니(어제 더 넉넉히 다루었듯이),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보이시는 선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둘째 점이 이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그 길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건지시려고"라고 말할 때 그는 다급한 필요를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수단 없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그분의 권능을 따지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엘리후는 우리 형편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추어야 할 곳도 거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드럽게 다루시고 평안 속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은 채 우리 죄 속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멸망의 까닭이 되리라는 것을 배웁시다.[24] 그러니 그분이 자주 하시듯 우리가 그런 엄격함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연약함과 약함을 참아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거칢을 쓰셔야 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저마다 괴로움을 당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무덤과 생명의 빛 사이에 놓인 견줌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때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빛 속에 두십니까? 보십시오, 한쪽에는 극한의 악이 있고, 다른 쪽에는 가장 높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욕구를 따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무덤으로만 향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곧 우리는 결코 나올 수 없을 멸망 속에 완전히 빠져들기만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삐를 풀어 주실 때 그가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짐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싫어할 좋은 계기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파멸을 찾으려고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를 그치지 않고, 결코 충분히 빨리 우리 악의 밑바닥에 이르지 못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마치 알면서 멸망하려는

24. 원문은 “paient“입니다. 문맥에 따라 “paix“(평안)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처럼 본성으로 온갖 악에 빠져 있으니, 우리 저마다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안 뒤에 자기를 싫어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안에 그토록 형편없고 불행한 다스림이 있는 것을 보며 CO 120 하나님께 다스림 받기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세상이 흠뻑 젖어 있는 그 모든 어리석은 주제넘음, 곧 저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질 만큼 충분히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을 잊어버립시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지혜와 힘을 많이 가졌다고 믿으며 스스로 속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것보다 더 많이 알려는 우리 안의 이 저주받은 애정을 억지로 바로잡으셔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 사이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생명의 빛으로 건지실 때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압시다. 그분은 "너희는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고 시들기만 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중간 상태에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곧 우리가 썩지 않는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나는 이 새로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아래서 많은 부패 가운데 걷고 그것에 둘러싸이며, 심지어 그것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 뼈와 골수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려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찾도록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이 무한한 은혜를 훨씬 더 잘 확인해 주는 견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에 들여놓으셨을 때 날마다 나아가는 데 힘쓰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 주시기를 구하며 가르침 받기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여러 번 다시 넘어지고 가재처럼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에 두시고 우리가 길들여진 것처럼 되었을 때, 때로 우리 육의 악덕이 우리 안에서 너무 다스려서 우리가 곧 그분에게서 멀어지고, 연약함이 불신과

함께 다시 시작되며, 우리가 어둠에 덮이는 일이 생긴다 해도, 그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맙시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려고 여러 번 그 안에서 일하시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가졌을 때, 때로 어지러움과 괴로움 속에 있어서 폭풍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를 그치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다시 시작하시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삐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심합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에게서(사 35:3) 말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곧 떨리는 다리를 굳게 하고 CO 121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의 은혜를 아랑곳하지 않는 데 억세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거기 깊이 맞아 상처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떨며 우리 무릎이 휘청거리고 더는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고유한 본성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짐을 진 모든 자에게 약한 다리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도도 그것을 모든 신자에게 적용하듯이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공적으로 가르치는 짐을 진 자들을 말했지만, 사도는 히브리서에서(히 12:12) 저마다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놀랄 때 그것이 우리를 나쁜 상상에 빠뜨리고 절망에 떨어뜨리는 데 쓰이지 않게 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우리 팔과 다리가 부러지고 깨진 것처럼 되며,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더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굳세게 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덧붙입니다. “욥이여, 내 말을 들으

라. 귀를 기울이라. 그렇다, 네게 나를 거슬러 내세울 말이 있지 않다면 말이다. 나는 네 입을 막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너를 의롭다 할 거리가 있다면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고, 내가 말하고 너를 지혜로 가르치는 동안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네가 의롭다 함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네가 무죄 판결을 받기만을 구한다. 네게 좋고 유효한 변론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다물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내놓을 때 잠잠하고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굳음과 그들 안에 있는 거만함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유익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반대가 있고, 우리 정신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의 겸손으로 따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고 거룩한 것을 내놓아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큼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뜻 말고는 아무것에도 복종하지 않기를 바랄 그런 거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고 늘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 발길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악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악덕에 매여 있으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내놓게 하실 때 가르침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CO 122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약 1:21). 곧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수단을 나타낸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유익을 얻는지 밝히려 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온유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 선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악으로 바꿀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맛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선을 뒤엎어서 빛이 우리에게 어둠으로 바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

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놓는 것을 참되고 좋은 것으로 여깁시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한다면, 그것은 죽을 피조물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같은 주제넘음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으려면 잠잠해야 합니다. 요컨대 사람들의 참된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권위로 자기에게 내놓인 것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하는 권면에서 첫째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한 사람에게 말하지만,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 사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 직무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꾸짖음을 받을 때 잠잠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말한 것 말고도 우리가 또 지켜보아야 할 정황이 있습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그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히 그분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들을 무덤에서 건지시는 것도 그분께 달렸으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분께 달렸고, 그렇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도 그분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속는 것이 이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안에서 온전히 부끄러워한 채 남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인지 모를 것을 자기에게 돌리려 합니다. 그들이 자기 추함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늘 어떤 주제넘음으로 부풀어 있고, 어떤 헛된 상상으로 눈이 부십니다. “그런데 내게 이것이 있지 않은가? 저것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가 완전히 의롭지는 않다 해도 모든 선을 잃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무언가를 자기에게 남겨 두려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값없는 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곧 CO 123 우리가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로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악한 우리 행위를 바라보셔서가 아니라 당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므로, 우리 안에 본성으로 비참과 저주밖에 없는데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붙드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 까닭으로 엘리후는 여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빚져 있어서 그 영예가 그분께 돌려져야 한다는 것, 곧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보인 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라고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셋째 장에서(롬 3:19) 말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그것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이 무죄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쓴 마음이나 다툼으로, 사람들이 상대편에게 대하는 데 익숙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대들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밖에 그에게 그럴 거리가 없을 때 그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기관으로 말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를 거슬러 벼락을 치실 때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을 빼앗으시려고, 마치 그분이 우리를 시기하시고 우리가 어떤 찬양받을 만한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 부끄러움을 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경고를 받읍시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그분께 무슨 손해를 가져다줍니까? 우리 편에 참으로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줄어드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온전히 꺾일 필요가 있으

므로, 우리가 모든 주제넘음과 헛됨을 비우지 않으면 그분이 내놓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분은 첫째로 우리에게서 모든 헛된 영광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온갖 추함밖에 없으며 우리 더러움 속에 감염되고 썩은 것 같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의를 언짢아하셔서가 아니라(그분께는 그것이 아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구원의 약속을 받는 것 말고 무엇이 남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평온하게 듣지 않도록 부추기므로, 우리 정신을 고삐 쥐고, 짧은 고삐로 쥐어서 이렇게 말합시다.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네 주인이 되셔야 하며, 너는 그분의 이름으로 네게 내놓인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하는 권면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내가 CO 124 이미 짚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잠잠하기를 배울 때까지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말하는 이 침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는 우리 머릿속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대꾸하며 "이것은 어떻게 되고, 저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말하는 데 교묘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자기가 붙들어야 할 것을 결론 내리려 할 만큼 오만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시고 그런 교만을 벌하셔야 하리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침묵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곧 우리 본성에 있는 이 모든 거만함이 꺾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어

떤 지혜를 가졌다고 여기지 말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 거기서 유익을 얻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일반적으로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깨닫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입천장은 음식에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가리고, 귀는 말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엘리후는 먼저 이 가르침이 거칠고 무식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쓸모가 있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마치 이미 충분히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거기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여기서 아직 굳게 설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담긴 것을 들으면서 자기 시간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설교되는 가르침을 듣는 데 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하찮게 여긴다면, 마치 그분이 쓸모없는 것을 제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설교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이 아직 무지하고 가나다에 있는 것 같은 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교회의 온 몸에 대한 것이어서, 그분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규칙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엡 4:13) 우리가 온전한 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에 이를 때까지 이 질서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서 발견되겠습니까? 그는 이 죽을 삶에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완전함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몸을 벗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교회의 온 몸이, 그렇습니다, 가장 온전하고 뛰어난 자들이 가르침 받기를 원하셨으니, 가르침이 우리에게 쓸데없고 우리가 CO 125 그것이 더는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너무 추한 오만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본을 바라봅시다. 그는 천사 같은 거룩함의 거울이었는데도 날마다 여전히 힘쓴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에 가까웠고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용감하게 싸웠는데도 자기가 한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가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많은 것을 겪었다 해도, 그는 자기에게 남은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했다고 바라보며 그 사이에 잠들고 더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나는 나아가고 남은 것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말하건대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잘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에게 내놓이는 가르침을 마치 그것이 더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고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물리칠 만큼 너무 까다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여기서 특히 하나님의 영께서는 지혜로운 자들과 가장 깨달은 자들에게 말해지는 것을 듣고 받으라고 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무한해서 결코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에 대한 어떤 맛을 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유익을 얻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잘못 간직하고 곧 잊어버리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되새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빈손으로, 그분께 소망이 없어 절망한 것처럼 남지 않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내놓는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머리로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흔히 말하듯 인간 학문처럼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충분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날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되새겨 주고 보여 줄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봅시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과 깨달은 자들이 여기서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권면을 받는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말했듯이) 모든 오만이 내려놓아져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데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싫증 난 것을 보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규칙을 그만큼 더 따라야 합니다. 무지한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므로 스스로 문을 닫고 결코 좋은 가르침에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경박한 자들은 지나가며 그것에 관해 어떤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토록 큰 박사라고 여겨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 그 위에서 지나쳐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겪듯이 말입니다. CO 126 귀가 막힌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고 그들이 생명과 구원의 가르침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 무엇인지 모를 것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가 너무 큰 학자라고 믿어서 더는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망상가들, 이 경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 나는 진리를 깨닫는다.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안 지 여러 해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압니까? 금요일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고해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그것에 관해 지껄이고, 자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를 것 가운데 가증스러운 신성모독을 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그렇게 벌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가르침에 그만큼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잠 1:5), 곧 지혜로운 자는 들으면서 늘 지혜 안에서 굳게 서리라는 것을 잘 새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경박함을 그렇게 벌하신다면, 그들이 알면서 모든 좋은 가르침에 스스로 문을 닫고, 업신여김을 품고 두꺼비처럼 부풀어서 결코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이 교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지혜로운 자들과 깨달은 자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고 권한 뒤에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입천장은 음식을 맛보는 것이고, 귀는 말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 가르침 받기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 그리고 이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점점 더 굳게 서기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본성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고, 심지어 괴물 같고 짐승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25]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자기 본성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성과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모든 진리로 밝힘을 받게 되어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자처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날마다 먹고 마실 생각은 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익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짐승과 공통으로 가집니다 (짐승들도 음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낙원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고자 할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래도 짐승처럼 먹고 마시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에 그가 받은 귀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에 쓰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 덧없는 삶에 지켜 주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쓰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본성을 거스르는 괴물이나 갑절의 짐승으로 여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CO 127 이제 엘리후의 뜻이 무엇인지 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 벗들아, 누가 가르침 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가 무엇을 하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손에서 먹을 것을 받도록 음식을 맛볼 입천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귀도 주셨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25. 원문은 "conformez"입니다. 문맥에 따라 "confermez"(굳게 서다)의 오식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것은 바지와 신발과 모자와 빵과 포도주를 사려고 서로 말을 주고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혀와 귀의 쓰임은 훨씬 더 귀하다. 곧 우리가 말을 수단으로 진리로 이끌리고, 우리가 썩지 않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면 저 위에 우리에게 마련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요컨대 하나님께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롬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그토록 뛰어난 쓰임으로 정하셨으니, 곧 그것이 우리를 하늘까지 올려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바라보게 하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으신다는 증언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부패 가운데 그분이 썩지 않는 생명의 씨를 두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귀로 그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 구원이라고 우리가 아는 진리를 우리에게 내놓을 때 우리가 귀머거리 행세를 하거나 귀를 막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너무 큰 짐승 같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가르침 받기를 견딜 수 없을 때 더는 자기가 온전하고 지혜롭고 깨달은 자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였듯이 그는 세상의 모든 짐승보다 더 나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자체로는 긴 풀이가 필요 없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알도록 찔리고 부추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지 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지금의 삶에 관한 것에는 충분히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돌볼 것입니다. 서너 시간 전에 그것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미리 비축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의 생애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덧없는 좋은 것들을 마련하는 데 그토록 큰 염려를 가져서, 결코 그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늘 그것을 쫓아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을 가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모자랄 것처럼, 심지어 죽은 뒤에도 그럴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이 CO 128 세상의 덧없는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몸보다 더 뛰어난 것, 곧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성으로 그토록 짐승 같다는 것을 보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그만큼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셨으며 우리 몸에도 우리 영혼에도 놀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쓰임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쓸모 있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땅의 염려에 너무 바빠서, 어떤 자들은 먹고 마시는 데서 썩고 자기 탐식과 무절제를 좇아다니며, 다른 자들은 자기 탐욕과 인색함을 좇아다녀서 점점 더 모으기만을 구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음행을, 다른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내세우고 신망을 얻으려는 자기 야망을 좇아다니는 것을 보니, 우리 자신을 더 잘 생각합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여기 아래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모든 흩어짐에서 돌아서도록 살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왜 지음 받았는가? 이 삶에 우리에게 쓸모 있을 수 있고 우리 육을 따라 바랄 만해서 우리가 탐하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만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으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귀는 무엇인가? 우리 땅의 일과 사업을 서로 거래하기 위해서만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오고, 온전히 그분께 붙으며, 그분의 하늘 영광에 이르도록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의 부패 가운데 우리를 이 썩지 않는 좋은 것으로 이끄는 수단을 두셨으니, 곧 그분이 우리에게 들음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는

핑계가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세우는 것, 곧 "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내게 너무 높고 너무 흐릿하다. 나는 거기에 이를 박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유익한 것을 받을 판단과 분별을 주시지 않으리라고 의심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이 겸손한 자들을 가르치시리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감각을 믿지 말고, 우리가 불쌍한 짐승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밝혀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이 약속, 곧 그분이 겸손한 자들과 작은 자들의 선생이 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가르치시리라는 것, 우리가 그분께 다스림 받기를 받아들일 때 그분이 우리를 바른 길에 두실 것이고, CO 129 그분이 우리를 한 번 거기 들여놓으셨으면 우리를 점점 더 나아가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벗어난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바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넘어진다 해도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귀가 들으리라고만, 곧 그것이 듣는 이 쓰임으로 지음 받았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을 판단하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이는 가르침을 독처럼 받으라고 우리 귀를 열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우리 영혼에 영적인 양식이 되도록 우리에게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집을 때 "오, 거기 독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말하며 먹고 마시기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독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에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음식에 독이 들까 봐 굶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려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리석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을 가려서 그것에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의

쓰임을 주신 것이,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에게 너무 높고 너무 흐릿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받기를 두려워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압시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내놓일 것을 우리 유익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고 유익한 것을 분별하도록 지혜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29편

욥기 34장 설교 1

CO 35:130–14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우리가 판단을 골라서, 무엇이 더 나은지 우리끼리 살펴보자. 욥이 말하기를 "나는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뒤엎으셨다. 나는 또한 내 공평함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내 화살의 상처는 아무 죄 없이도 무겁다" 하였다. 누가 욥과 같으랴? 그는 조롱을 물처럼 마신다. 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고, 악인들과 함께 걷는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 죄악이 있고 전능자께 어떤 악이 있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욥 34:4–10)

CO 130 우리 삶을 셈하는 일이 문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재판관을 가지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상소할 길 없이 당신이 아신 것을 우리에게 선고하실 것이고, 그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말대꾸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반역하고 억지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경에서 이런 말투를 쓰십니다. 곧 그분이 우리와 중재에 들어가고, 마치 중간 재판관이 세워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소송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더 꾸짖음 받고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에게서(사 1:18)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나 사이를 판단할 사람들을 고르자.” 물론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우리 소송을 그분과 다투려고 그분을 소환할 자유를 가진다 해도 늘 우리가 지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실 뿐입니다.

엘리후가 “판단을 고르자” 하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자기가 두려움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26] 그러니 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시고 자기는 심리를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으므로, 엘리후는 그 위에서 말합니다. “좋다, 나는 너를 두렵게 해서 네가 너를 위한 아무 이유도 없다는 이 핑계를 내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평온하게 네게 갈 것이고, 너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된다. 네게 너를 변호할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세우고 내놓아서 모든 것이 논쟁되게 하라.” 이제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을 가졌으니,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도록 살핍시다. 그러니 첫째로 우리가 거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공평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소송을 다툴 자리를 가진다 해도 CO 131 우리는 할 말을 잃은 채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다룬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험해 보려는 폭군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슬러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흔히 말하듯 절대 권능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은 무한하되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늘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물론 우리가 늘 그분 일의 까닭을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이고, 또 그분의 의가 우리 감각처럼 그렇게 작은 분량 안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늘 이 조항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너무 권능이 있으셔서 모든 것을 의와 공평으로 처리하

26. 원문은 “il ., mit protesté“입니다. 문맥에 따라 “il avoit protesté“(단언했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소송에 부르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맙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 이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소송할 자유를 가진다 해도 그것은 우리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늘 죄 있는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 재판관이 아니시라 해도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권능을 가지셔서 우리를 정당하게, 그리고 그분이 원하실 때 반박하지 못하실 말대꾸가 우리 입에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 공평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삼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욥이 자기 상처가 무겁고 그것이 죄 없이 생겼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너무 뒤엎으셔서 자기에게 참으로 자기를 의롭다 할 거리가 있는데도 자기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고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꾸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뜻이 그러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는 앞에서 욥이 곧바로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 격정 속에서 분수를 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가 그런 자라고 고백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실 아무 까닭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견주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거칠게 다루시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욥이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는 하나님의 엄격함을 그렇게 깨달아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여기고, 자기가 불쌍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며 자기 생명과 힘이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짓누르셔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는 그를 핑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그는 좋은 소송을 다루면서 좋은 순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대편이 나쁜 소송을 다루면서 좋은 논증과 좋은 이유들을 썼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에 관해서는, 그가 정당한 소송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잘못 이끌었습니다. CO 132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인내했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마음먹었다 해도, 그래도 그는 자기 격정을 붙잡아서 지나침이 없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길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자기를 사로잡아 두려고 애쓸 때, 그는 그것을 그만큼 온전하게 해서 그 사이에 이 말씀(갈 5:17; 롬 7:19)을 알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곧 육이 영을 거스르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하여 온갖 악에 고삐를 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하려는 가장 좋은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를 본보기로 내세워서, 죽을 사람에게 가능한 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으려고 힘썼다 해도 아직 그것을 끝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험이 크고 격렬할 때, 욥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리고 우리 육과 벌이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고 많은 연약함이 없을 만큼 한결같은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봅니다. 그는 천사와 씨름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으로 절뚝거리고, 그가 사는 동안 그의 엉덩이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그 승리를 자기 안에 연약함이 하나도 없을 만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요 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 연약함의 표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엘리후가 여기서 그를 꾸짖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욥이 단순히 하나님을 불의와 잔인함으로

고발하려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욥이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런 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 줍니다. 물론 그는 거칠게 말하고, 욥의 말을 비틀어서 실제보다 더 나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악덕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새깁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보십시오, 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했고, 심지어 자기 몸에서도 그분을 그런 분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자기 격정에 너무 거칠게 흔들려서 이런 말이 새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거기에는 아무 이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소송할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이 나를 거슬러 그토록 격렬하실 만한 것을 내가 받을 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욥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뜻을 살펴보면 그것은 가장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휩쓸어 간 그 끓어오름만 있었을 뿐입니다. CO 133 그가 자기 격정에 그렇게 흔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덤벼들지 않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엘리후는 지금 그토록 엄하게 그를 꾸짖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의심, 우리가 그분과 벌일 가장 작은 다툼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성령께서 감추어진 것 같던 악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의를 흐리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상상이 떠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무서운 허물이고 우리가 충분히 정죄할 수 없는 것이며, 교황주의자들이 만들듯 소죄(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지 의심할 때에도, 심지어 그에게 가증스러운 상상이 많이 떠오를 때에도, 그가 거기에 동의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대죄(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는 무거운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짐승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교황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완전히 확정된 것으로 붙듭니다. 반대로 여기서 성령께서는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그토록 반대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거슬러 벼락을 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발하려는 곧바른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그렇게 나쁜 생각에 얽혀 있고 우리 격정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평온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핑계를 얻을 수 없다는 것, 마치 우리가 의롭고자 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비해 죄 있는 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분께 죄악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허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주장하려 한 것처럼 우리가 꾸짖음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27]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늘 다툼 없이 유죄를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빠져나갈 구멍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거기서 잠드는 이 버릇이 있다 해도, 어쨌든 결국 우리는 이를 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긴 말대꾸와 우리가 내세울 모든 아름다운 핑계를 뒤엎으실 줄 아신다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줄이고 그분의 의를 의심하게 할 어떤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가 이미 신성 모독하는 길에 들어서 있고, 그것이 곧 지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넘치도록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닌 어떤 생각을 가질 때에도, 어쨌든 우리가 CO 134 그분을 거슬러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려 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기를 배웁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죄 선고하려 하면서 그 사이에 마땅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27. 원문은 “es que“입니다. 문맥에 따라 “et que“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을 잃은 채 남고, 우리에게 그분을 거스를 아무 변론도 없으며 고개를 숙이는 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권리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십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첫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그만큼 더 잘 새겨지도록, 엘리후가 욥이 악인들과 함께 걸었다고 말하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엘리후가 욥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방탕한 삶을 산 자로 고발합니까? 욥은 앞에서 자기가 그런 완전함 속에 걸어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가 눈먼 자들의 눈이었고, 저는 자들에게 다리가 되어 주었으며,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그의 손이 가난한 자들에게 닫히지 않았으며, 추위에 떠는 자들의 허리가 그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의 집이 늘 궁핍한 자들에게 열려 있었으며, 나그네들에게 잘해 주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망을 가졌는데도 결코 그것을 남용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후원을 받았는데도 그토록 단순하게 걸어서 아무도 짓밟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엘리후가 그를 악인들과 함께 걸었다고 고발합니까? 그것은 그가 한 말을 따른 것입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슬러 말대꾸하면 그분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도, 도둑도, 술꾼도, 살인자도, 싸움꾼도 아니었다 해도,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올곧음과 선하심에 복종할 수 없는 어떤 교만을 자기 안에 가졌을 때, 그래도 그는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의 공범이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한 영예를 드리지 않을 때, 그 밖에 우리 삶이 천사 같다 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악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새겨야 할 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세상을 따라서 그에게 아무것도 꾸짖을 수 없고 그가 덕스러운 삶을 살았으면 그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께 속한 것을 빼앗기고 벗겨지셨을 때, 그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훔쳤다면 나는 죄가 있고, 내가 다섯 푼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했다면, CO 135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고 그분의 위엄을 없애려 애썼을 때,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도둑질이나 모든 음행, 모든 살인, 모든 독살, 모든 거짓 맹세, 그리고 그런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범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엘리후가 여기서 욥에게 그가 악인들과 함께 걸었다고 꾸짖을 때, 그것은 세상에 드러난 악덕 때문이 아니고, 그가 살인자나 음행하는 자나 도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반대로 그분을 정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곧바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악으로 괴로움을 당했으므로 하나님을 거슬러 말대꾸하며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지 못함은 인내와 섞여 있었다 해도 신성모독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고, 욥은 그것으로 악인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아무 속임도 손해도 잘못도 하지 않으며 살되, 그 사이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늘 그분의 찬양이 우리 마음과 입에서 울리도록 그런 겸손 속에 그분 앞에서 걸으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말하건대 마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입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지러움이 닥칠 때 곧 유죄를 인정합시다. 다른 데서 우리가 정죄받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엄숙하고 공공연한 판결을 선고할 재판관들을 보내시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그분이 하늘에서 벼락을 치시기를 기다리지도 맙시다. 오히려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알고, 우리 상상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경박한 생각까지 몹시 싫어합시다. 말하건대 그것이 엄청나고 죽을 범죄라는 것을 압시다.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기꺼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데 재빠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받아 주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나 고집 부리고 다투며 말대꾸하려는 자들은 결국 자기 완고함이 자기를 갑절로 부끄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두 돌판으로 나누신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할 영예가 앞서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온 삶의 기초 같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 지으셨고 우리를 지키시며 먹이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서로 매여 있는 대로 아무 해 없이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려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CO 136 그런데 이제 여기 담긴 말투들도 바라봅시다. 엘리후가 욥에게 그가 "나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내 판결을 뒤엎으셨다" 하고 말했다고 꾸짖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욥이 그렇게 대놓고 짧게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뒤엎으셨다고 고발하려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을 사람이 그렇게 딱 잘라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그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그분의 의를 거슬러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 지켜보아야 할 조항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뒤엎으셨다고 말할 이 대담함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런 극한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의롭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입이 막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대꾸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혀를 날카롭게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편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이 그들을 괴롭히실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시는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도록 자기를 낮출 수 없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맞서시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고 그분을 불의로 고발한 죄가 있는 자로 우리를 정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단언해도, 일은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셨는데 여기서 둘러댄다고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 담긴 이 첫 말에 관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내 권리에서 거짓말쟁이로 드러난다" 하고 말할 때, 그것으로 그는 자기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치 재판관들이 이치에 어긋나고 잔인해서 자기 권위로 어떤 좋은 권리를 짓누르려 할 때 같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그가 하나님을 고발했다고 꾸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 보라, 나는 죄 있는 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입맛대로다. 그분은 내 변론을 들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나를 짓누르시고, 내 입은 막혔다. 내가 이유를 가져와도 그것은 자리도 들어갈 길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욥은 돌쩌귀에서 그렇게까지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말한 것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가 단순하게 빚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폭군 같은 권능을 가지시고, 이치나 공평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것이니 마구잡이로 우리를 처리하신다고 말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이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에 우리가 몸서리친다 해도, 어쨌든 우리에게 아무 변론이 없고 우리가 죄 있는 자라는 이 점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CO 137 하나님과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의를 깎아내린 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함께 욥이 조롱을 물처럼 마신다고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가 너무 멍해져서 자기가 쓴 말이 추하고 물리쳐야 할 것이며 사람들이 마치 그가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그것을 조롱하리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욥이 뛰어난 말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의 기관이어서 우리가 그가 말한 것에서 큰 가르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하니 왜 그에게 그가 조롱을 물처럼 들이켠다고 꾸짖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격정으로 불타오를 때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를 만큼 휩쓸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묻건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내는 규칙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가 얻은 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징계에서 일반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그는 뻔뻔한 사람, 더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물고기가 물을 마시듯 온갖 추함을 마시는 사람으로 고발당합니다.[28] 그것이 그에게, 그것도 정당하게 꾸짖어진다면, 묻건대 우리가 그보다 백 배나 더 참지 못하고 우리를 덤벼들게 하고 하나님께 대들게 하는 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멍해졌다고 잘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여기서 재난이 우리를 지나치게 괴롭히고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이 거기 섞여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를 갈고, 재갈을 씹으며, 너무 놀라서 더는 길도 오솔길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여 주려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덧붙이는 이 말로 옵시다. 그는 욥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말했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과 함께

28. 원문은 "nu homme"입니다. 문맥에 따라 "un homme"로 보고 옮겼습니다.

걷는다“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그렇게 빠져서 늘 셈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아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빚으신 분이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나는 그분의 손을 피할 수도 그분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다. 그러니 나는 그분 눈앞에 있어야 하고, 그분은 내 모든 행위뿐 아니라 내 생각까지 아셔야 한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거룩한 성경이 이 말투를 쓰는 것은, 흔히 말하듯 사람들이 숯장수의 자루 같아서 서로를 검게 물들이기 때문입니다. CO 138 그리고 경험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걸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구실로 악을 행할 방종을 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는 또 자기 이웃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계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자기 고유한 악덕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 어떤 식으로든 나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무서운 혼란 속에 걷습니다.[29] 섞임밖에 없고, 우리 삶에는 너무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거기서 더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따라 걸으면서 부패하고, 저마다 자기 이웃을 악으로 끌어당기며 함께 그들을 따라가니, 그것은 모든 질서를 뒤집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맞추는 것 말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30]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비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온 세상이 더할 나위 없이 부패했다 해도 에녹은 온전함 속에 자기를 지켰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삐를 풀고 넘쳐 버리지 않도록 자기 정신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땅 위에 홍수 같았다 해도 그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오, 그래도 나는 내 하나님

29. 원문은 “n(119“입니다. 문맥에 따라 “nous“로 보고 옮겼습니다.
30. 원문은 “ne 19 recueillir“입니다. 문맥에 따라 “nous recueillir“로 보고 옮겼습니다.

앞에서처럼 걸어야 한다." 그 밖에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겉모습을 가지는 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높이 여겨지고 세상 앞에서 악을 삼간 것으로 만족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손이 깨끗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악덕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바깥 삶을 정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양심도 응답해야 하며 우리가 모든 악하고 비뚤어진 애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셋째로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율법에 우리를 맞추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가 또 우리 좋은 의도로 자기에게 아첨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 교황제에서 자기 상상을 따라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더할 나위 없이 빚지셨다고 여깁니다.[31]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거룩한 성경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지은 자기 고유한 고안물을 가지므로, 그 모든 것은 잡동사니요 더러움일 뿐입니다. 그러니 잘 살고 바르고 확실한 규칙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곧 곧은 줄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행위를 그분이 명하시는 것에 맞추어야 하고, CO 139 사람들이 지어냈고 우리에게 좋게 보일 것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에 관해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옵시다. 욥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아무 쓸모가 없으리라는 뜻으로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괴로움 속에서 멍해진 것처럼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 삶을 모든 올곧음에 맞추고 다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

31. 원문은 "é ils cuident"입니다. 문맥에 따라 "et ils cuident"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지금 형편과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따라 그분의 의를 평가하거나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또 그가 자기 상대편과 벌인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선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며 악인들은 번성한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남겨 두신 더 높은 심판을 가지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것에 우리 정신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마다에게 그에게 마련된 것을 갚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너무 짐승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 다툼을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그는 자기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눈이 부신 것처럼 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휩쓸려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빠져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니 욥이 그렇게 넋이 나가고 길을 잃은 채 있었으므로, 그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는 이 신성 모독을 입 밖에 냈다고 꾸짖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본 체하시는가? 왜 그분은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리고 폭력은 어떻게 이토록 큰가?" 하고 말하는 생각에 들어갈 때, 짧은 고삐 속에 우리를 붙들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말하건대, 짧게 고삐를 쥐고 있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러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신성 모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 때문이고, 어쨌든 우리는 그것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우리는 성령께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런 신성 모독이 우리를 언짢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몸서리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쁜 상상이 우리 생각에 떠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

으면 그것이 우리를 더 큰 신성 모독으로 이끌 것을 알고 그것을 물리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폭풍에 그렇게 흔들렸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만큼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예레미야는(렘 12:1)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보이는 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드시는지 물을 때, CO 140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분의 심판이 바르다고 잘 단언하며, 자기를 고삐 쥐려는 것처럼 이런 서두를 씁니다. “주님, 나는 주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흔들리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봅니다. 하박국(합 1:3)도 비슷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공경으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다윗은(시 73:13) 자기에게 훨씬 더한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듯 그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손을 씻은 것이, 모든 올곧음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애쓴 것이 헛되다. 나는 내 시간을 잃었다.” 다윗이 거기까지 갔을 때, 묻건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물론 그는 자기를 꾸짖지만, 또 자기 발이 얼음 위에 있었고 넘어지기 직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그는 덧붙입니다. “주님,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더는 사람이 아니고, 이성 있는 피조물로 여겨질 자격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나귀와 말처럼 완전히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런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았다고 고백할 때, (묻건대)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도 이 말을 흔한 것으로가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선언합니다(사 3:10). “의인에게 열매가 있다고 말하라.” 그는 신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열매가 있다고, 곧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고를 잃지 않으리라고 결론 내리고 결심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아주 흔한 말처럼 보이는데도 선지자 이사야는 그것을 특별한 말씀으로 만듭니

다.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이 혼란스러운 것이 보이고(우리 가운데서 늘 그러하듯이), 그러므로 불쌍한 신자들은 자기 감각에서 넋이 나가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엄격함으로 괴롭히시는가?"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는 곧 원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편드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밝히시지 않는다면 심지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것, 그분의 엄격함 한가운데서 그분이 당신의 매를 누그러뜨리시리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손으로 무죄 선고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분이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지 않는다면 십만 번이라도 삼켜지고 매 분마다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욥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다고 정죄받는 이 점에 관해서입니다. 그가 완전히 그것을 확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괴로움 속에서 당황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분의 뜻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O 141 물론 그는 늘 부분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평온하고 잠잠하게 있지 않았으므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도록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십만 배나 더 정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하나님께 죄악이 있고 전능자께 불의가 있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장에서 볼 모든 이야기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엘리후의 말의 요점이 무엇인지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장 전체의 요약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흔해서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마땅히 그래야 하듯 알아보는 사람은 백 명 가운데 하나도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자들도 거기서 아직 잘못합니다. 말하건대 가장 의로운 자들도 자주 우리가 말한 그 의심들에 재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데 훈련되지 않았고 거기에 자기 힘을 기울이지 않은 속되고 짐승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그것을 잘 확신하게 된 사람은 많은 유익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압시다. 하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 년, 천 년을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그만큼 산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주제를 지금 길게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따를 것에 문을 열도록 한마디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까? 그분의 뜻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유로 충분하고, 우리가 왜 그런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좋고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잘 확신할 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로 깨닫는 대로만, 달리는 말고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려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복종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하도록 그것을 완전히 결론 내려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뜻이 모든 올곧음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CO 142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상상에 이상하게 여겨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래도 이 두려움으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의 샘이시므로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겨야 한다고 고백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상에 떠오르는 모든 것에서 이 의를

알아서, 늘 이것이 우리 앞에 떠오르게 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악인들이 다스리고 판을 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늘에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첫 번에 처방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당신의 직무를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재산에서, 이제는 우리 몸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온 교회가 일반적으로 발에 짓밟히고 악인들의 폭정에 매여 있는 것을 볼 때,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보기에 왜 일이 그토록 나쁘게 되는지 그분이 밝혀 주실 때를 기다리고, 그분이 그렇게 처리하시는 데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일이 우리 욕구와 완전히 거꾸로 갈 때에는 눈을 감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데 결심만 합시다. “주님,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주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셔서 주께서 왜 인류의 형편을 그렇게 처리하시는지 내가 알아차릴 때까지 나는 이 의로 만족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내 상상을 따른다면 나는 원망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주께 대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의 무한한 지혜와 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그 까닭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주께서 인정받으셔야 하고, 주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0편

욥기 34장 설교 2

CO 35:143–15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께 불의가 있고 전능자께 죄악이 있다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저마다 자기 길대로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헛되이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전능자께서는 공의를 뒤엎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말고 누가 땅을 돌보았느냐? 누가 그분을 세상 위에 두었느냐? 누가 그것을 지었느냐?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께로 돌리시고 당신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때 모든 육체가 함께 쇠하고 사람은 티끌로 돌아갈 것이다. (욥 34:10–15)

CO 143 우리는 꽤 흔해 보이는 이 말씀을 풀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확신할 만큼 알아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만 하실 때에는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인정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짢아지자마자, 우리를 어지럽히는 어떤 악이나 역경이 있자마자 우리는 원망에 들어가고, 우리가 앞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의를 더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단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에 이르렀을 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기고, 기꺼이 그분의 권능에 복종하며,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을 거슬러 소송에 들어가지 않고, 그분이 우리 욕구가 가리키는 것과 다르게 다스리신다고 분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요컨대, 일이 우리 공상과 뜻이나 판단대로 오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서 그분께 잠잠히 순종하는 이 이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에둘러 그분을 불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과 손으로 처리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당신의 권능 안에 가지신 분을 거슬러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복종시키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좋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의로우신 분으로 여기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로 속을 태우며 거기에 트집을 잡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을 불의하다고 부르며 그분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CO 144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아쉬움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우리 격정을 길들이고 그것을 사로잡아 두며, 우리 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므로 이치와 올곧음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격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도록 부추길 때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고, 저마다 자기 길대로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만큼 그분의 본질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펼쳐져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신지 알고자 합니까? 여기저기

둘러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분에게서 트집 잡을 데 없는 그런 공평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의를 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마다 자기 차례에 불려 나갈 때 하소연할 아무 계기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자기를 참아 주셨고 정당한 엄격함으로 자기를 벌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내세우는 이 이유에서 우리가 지금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조항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이 다만 당신 안에서만 의로우시다고 상상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의 의를 마땅히 그래야 하듯 깨닫고, 그것을 마땅히 넓혀야 할 데까지, 곧 세상의 모든 다스림에까지 넓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공평으로 이끌리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므로 우리가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높은 뜻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셔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좋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마다 자기를 살피게 될 때, 자기에게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할 아무 덮개도 없다는 것, 사람이 그분을 잔인함으로 고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도 그분이 자기를 잘못 대하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다루시는 일에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이 말을 깨닫고 그것을 잘 확신하고자 한다면, 먼저 저마다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 CO 145 가까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 그분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없으며, 늘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는 이 대담함을 가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헛된 아첨으로 눈이 멀고, 저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허물을 잘 알아보는 이 지혜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말대꾸가 그치고 풀릴 것이 확실하고, 저마다 겸손하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셨으니 나는 주의 의를 알아보고 주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말대꾸도 없다는 것을 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늘 악덕을 줄이려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뻔한데도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위선으로 우리 허물 속에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기는 쉽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인정하여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돌리고자 할 때 참된 처방은, 먼저 자기 소송을 스스로 다루고, 자기 자신을 고발하며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수고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를 잘못 대하지 않으셨고 자기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들이 자기 안에서 넉넉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징계하셨다면 그것은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그들에게 어떤 엄격함을 쓰셨다 해도 어쨌든 늘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로 그들을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저마다 자기 길대로 얻게 하시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첫 번에 당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벌하시고 선한 자들을 지켜 주신다는 식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한동안 악인들을 참으시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에 고삐를 풀었을 때 그분이 못 본 체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각도 없으시고 그들을 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이 또 악인들을 완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더 큰 대담함을 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벌하지 않으신다는 구실로, 그들은 자기가 빠져나갔고 벗어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즉시 벌하지 않으시고, 엘리후도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래 미루시고 악인들에게 기한을 늘려 주신 뒤에, 그분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리셨다 해도 그들의 범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자기를 위해 그분의 진노의 더 큰 보물을 쌓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32] CO 146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남용했을 때, 그 기한은 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릴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기 허물을 알고 스스로 고칠 겨를을 가지도록 첫 번에 그들을 벌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첫날부터 집행하셔서 그분이 저마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죄를 고르게 벌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는 다른 날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우리 믿음의 조항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컨대 선한 자들에게는 더는 상이 없고, 악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또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 그분이 날마다 저마다에게 그가 받을 만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갚으실 것이다"(롬 2:6)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입니다. 엘리후는 이 말씀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할 때,

32. 원문은 "un plus rand thresor"입니다. "un plus grand thresor"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는 참된 것을 전제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보여 주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정신을 미결 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우리 믿음은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참으며 기다리는 가운데 훈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의의 어떤 표지를 주시고, 그 두드러진 본보기들을 보여 주셔서, 그분이 사람들을 그 범죄 때문에 징계하시려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지금 당신께 남겨 두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참읍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쓰임에 잘 적용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곧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셔서, 그분이 벌하시는 자들을 참아 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선하심도 보이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그들에게 엄하시고 그들이 그분이 자기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 해도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세상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같은 분량으로 벌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병이나 가난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첫 번에 구렁에 빠지고 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벌을 느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구렁에 빠뜨리시려고 당신의 권능 있는 위엄으로 무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게 되자마자 같은 분량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보응을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을 참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CO 147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일 뿐이고, 아직

우리에게 회개할 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은 고칠 수 없는 자들이므로 이미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송을 다루실 뿐 아니라 그들의 정죄 판결을 기록하셔서, 그것이 그분이 원하실 때 집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모든 징계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죄에 견주기에 어림도 없고,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또 다른 조항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길대로 갚으시되,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당신께로 돌이키려 하실 때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당신께 남겨 두지 않으시는 식으로 갚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그들을 자비로 받아 주시고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은 그들의 허물을 묻어 버리셔서, (시편 143편 2절에서 말하듯이) 그들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를 벌하지 않고 없애실 이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그분의 의를 조금도 해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려 하실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기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것으로 우리를 찌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거슬렀는지 느끼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죄를 언짢아하고 그 때문에 탄식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로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허물의 재판관이 되어 그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받아 이를 갈고 자기 악 속에 고칠 수 없이 고집스럽게 남아 있는 것보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훨씬 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당신께 이끄실 때 그분은 당신의 직무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우리에게 아첨하도록 그것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것은 갑절의 벌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악을 우리가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있던 비참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빛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33]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허물을 용서하시면서 당신의 의를 조금도 해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길대로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늘 참되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말했던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을 그분의 의 안에서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늘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있으시며, 우리가 CO 148 소송에 들어간다면 우리 소송은 우리에게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34]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주셔서, 그분이 마땅히 하실 수 있는 대로 우리를 거슬러 극한의 엄격함을 쓰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더할 나위 없이 빚지고 있다는 것을 늘 느낄 계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컨대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보응을 느끼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아끼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거칠고 매섭게 보이실 때에도 그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늘 의로우셔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무죄 선고하려 생각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께 오라고 재촉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미리 우리 허물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언짢아하고 그 때문에 탄식해서 하나

33. 원문은 “les ma IX“입니다. “les maux“로 보고 옮겼습니다.
34. 원문은 “que eu a raison“입니다. 앞뒤 문맥에 따라 “que Dieu a raison“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하시도록 기울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 엘리후는 더 큰 확증을 위해 하나님께서 헛되이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고 공의를 뒤엎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내세운 것에 대답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이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에게 잘못하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억지로 믿게 하신다고 내세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의 재판정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불쌍한 죄 없는 사람이 짓눌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허물도 없는 하찮은 일을 그에게 들이댈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짓누르려는 거짓 증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흔히 부당하게, 까닭 없이 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인지 보여 주실 필요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으실 때 증거로 삼고 당신을 변명하시려고 커다란 장부를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안에 자기 소송을 기록하여 잘 봉인해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 말고 다른 재판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35] 그리고 지금 저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우리를 잘 깨우실 것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고 있었다 해도 결국 그분께 우리를 벌하실 정당한 까닭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로 우리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또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뒤엎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런 빠져나갈 구멍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당신이

35. 원문은 “antre iuge“입니다. “autre iuge“로 보고 옮겼습니다.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거스를 수 없으므로 그분은 마구잡이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런 에두른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는 불쌍하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구실로 그분께 CO 149 그분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신다고 억지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왜곡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곧 그분은 사람들을 벌하시되 늘 당신이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 그들을 참아 주시려고 살피지 않고서는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아낄 무언가가 있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분은 무엇이 그들에게 맞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그분께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하지 않도록 입을 다뭅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겸손합시다. 위선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우리 범죄 속에서 우리에게 아첨하게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서 의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평도 뒤엎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송을 가졌다면 그것은 그분에게서 지켜질 것이고, 대리인도 변호인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 보증인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죄 선고하는 것 말고는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정죄받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받을 만하고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마다 자기 홀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 가르침을 자기 기억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그리고 어떤 이는 가난으로, 어떤 이는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어떤 이는 누가 자기에게 하는 어떤 잘못을 당할 때 그러합니다. 악이 어느 쪽에서 우리에게 오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보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이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아주 정당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이고, 그분께 더할 나위 없이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분께 우리를 벌하실 거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벌이 지나치다고 말하려고 우리 허물을 줄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훨씬 더 큰 엄격함을 쓰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짓누르기까지 하신다 해도, 우리 죄가 꼭대기까지 이르렀으니 그것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누구를 세상 위에 두도록 세우셨느냐?” 하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쓰는 낱말은 때로 “돌보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은 늘 하나이므로 우리는 낱말에 크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엘리후는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께 동료가 없으며, 그분은 하늘과 땅을 한 번 지으신 것만으로 창조주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당신 손에 가지시고 오늘 당신의 피조물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셔서 그분의 뜻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CO 150 이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데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권능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구실로 그분을 폭정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연약함과 약함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거슬러 일어설 계기를 어떻게 잡는지가 이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주인이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당신을 억제하고 절제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누가 그분의 사람들을 언짢게 하고 괴롭혀도 그분은 그것을 마음 쓰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어떻게 보여 줍니까? 그분만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흔히 말하듯) 결정적인 이유이고 우리 입을 막기에 넉넉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그가 곧이어 “불의한 자가 다스리겠느냐?” 하고 덧붙이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관해서는 악인들이 때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만들어진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속으로 왕관에 이릅니다. 제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은 자기 뚜쟁이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들에게 관직을 줄 것입니다. 궁정 신하들이 어떤 자들인지 다들 알듯이 말입니다. 아니면 그들은 그것을 팔 것이고, 그렇게 모든 정의가 무너질 것입니다. 선거와 백성의 투표로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는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공의로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술집에서 표를 모으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꾀를 꾸밀 것입니다. 그러니 왕들과 제후들과 그들의 관리들, 그리고 선출된 관원들이 그런 마귀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리에 이를 때, 악인들이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본성으로 세상의 지극히 높은 통치권을 가지시고, 그것이 그분께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혼란이 판치기를 바라고, 자기를 악 속에서 감싸 줄 자들을 뽑으며, 모든 질서와 좋은 다스림을 뒤엎는 것만 바라는 불량배들에게 뽑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술집에서 표 모으기와 악한 술수로 뽑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호의로 당신의 직무에 부름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신분 의회가 그분이 죽을 아버지를 이어받도록 허락한 것처럼 상속으로 그것을 이어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 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본성으로 세상의 다스림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죽지 않는 본질과 그분이 가지신 다스리는 권위는 떼어 놓을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36] 그리고 그것이 CO 151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잔인함이나 지나침을 쓰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논증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악인을 선인과 함께 구렁에 빠뜨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우리가 죽을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스스로 조심하시라고 경고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그리고 여호사밧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이 자리를 피조물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당신의 보좌로 부르신 것이니, 거기 앉는 자는 누구든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려야 한다" 하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의 재판관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경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사람들이 선에 머물기보다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온전히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의 덕과 꿋꿋함이 어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은 욕구가 있을 때에도 요구되는 만큼의 열심은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땅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직무를 권면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것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선인을 악인과 함께 정죄하시겠느냐고 내세울 때, 그는 다른 뜻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만큼 늘 의로우시지 않을 만큼 달리 모습을 바꾸실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공평보다 더 고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불의로 고발하려 할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의 본질을 없애려 하는

36. 원문은 "ne nature il a le gouvernement"와 "l' authorité qu' il : de gouverner"입니다. 각각 "de nature"와 "qu' il a de gouverner"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상이 되시려고, 죽고 한가한 것이 되시려고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지극히 높은 위엄을 가지셔서 재판관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시니, 그분 안에 트집 잡을 데가 없을 만큼 공평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어 지금 엘리후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의로울 수밖에 없고, 그분 안에 불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보호와 이끄심 아래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참된 뜻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위해 우리에게 맞는 교훈을 거두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일들을 뒤죽박죽 내버려 두셔서 흔히 말하듯 모든 것이 운수로 다스려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하시듯 당신의 피조물들을 계속 지키려 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라고 부를 때 그것을 한순간에 가두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 모든 것을 당신의 권능 안에 가지시며, 이 아래 일들을 처리하셔서 CO 152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세어져 있으며, 그분이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으로 정하지 않으신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분 말고는 아무도 세상 위에 세워지지 않았고 아무도 땅 위에 두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창조와 다스림이 맞붙은 두 가지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 않고 어떤 일은 운수로 일어난다고 상상한다면, 그 운수가 세상의 한 부분을 창조한 여신이 되고, 그 찬양이 그분께만 마땅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은 저주받을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를 세상의 부분적인 창조자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

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 사이에 떼어 놓을 수 없는 끈이 있다는 것을 배웁시다.[37]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당신의 피조물들을 처리하시는 일을 도우라고 동료를 부르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아래 수단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권위를 줄이시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료를 가지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늘 그 위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왕들이 하나님의 손 말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을 쓰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모든 것을 자기 재주로 했다고 여긴 저 교만한 산헤립을 꾸짖으시듯이 말입니다. "그렇다, 너는 치는 자의 손에 든 도끼가 아니면 무엇이냐?" 사람이 톱을 쥐거나 칼을 쥐고 그것으로 자르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쓴다면, 그 연장이 사람을 거슬러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손과 팔을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는 것들도 자기 명령 아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죽을 피조물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존재와 움직임을 가지는 것은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단들을 쓰시고 사람들을 도구처럼 부리려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의 권능을 줄이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압시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은 도리어 당신이 그 이끄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명령하시고 휘파람만 부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듯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 지옥의 마귀들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37. 원문은 "il apprenons"입니다. "Ainsi apprenons"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이 그들의 의도와 완전히 거꾸로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거센 권능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그분이 CO 153 당신의 계획으로 정하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봅니다. 곧 그분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을 미리 보시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공상가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래 일들을 멀리서처럼 바라보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대책을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훨씬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그분이 정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분의 뜻이 모든 것의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늘 이 첫째 원인으로 와야 합니다. 물론 때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것입니다. 욥에게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속임수나 폭력으로 우리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모함과 악행으로 우리를 짓누를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군가를,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는 욥이 했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약탈한 강도들에게 향하지 않고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가져가셨다" 하고 말했습니다.[38] 그런데도 사탄이 그 일을 꾸민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시려고 늘 지켜보시고, 여기서 보여 주듯이 그것을 당신의 이끄심 아래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이 사람들 쪽에서 나와서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하고 폭력을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고삐를 쥐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알게 되고 유죄를 인정하도록 그것을 우리 재판관이신 그분의 손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조금 전에

38. 원문은 "le Seigneur l' avoit esté "입니다. 욥 1:21의 말씀에 따라 "l' avoit osté "(가져가셨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악인들이 이 아래에서 다스리는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압시다. 왜 일이 이렇게 어지럽고, 어떤 이들은 악한 표 모으기와 부패로 관직에 이르며, 다른 이들은 그것을 사서 나중에 불쌍한 백성에게서 본전을 찾으려 하고, 이 사람을 할퀴고 저 사람을 삼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다스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 사탄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판치는 모든 불의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그만큼의 채찍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말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우리는 심지어 제후들과 땅의 재판관들이 악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에 더 큰 빛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CO 154 저지른 범죄를 징계하시며,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멀어지셔서, 우리가 고삐를 풀고 그분의 멍에를 내던지고 들짐승처럼 되었으니 마귀와, 그의 앞잡이들이요 그가 일으킨 악인들이 우리 위에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어지러움을 보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영화롭게 되실 만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 불의한 것을 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남의 뜻으로 세상의 군주가 되신 것이 아니고, 악한 술수와 속임수로 뽑히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본성으로 그러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만큼 공평하셔야 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분의 의는 그분의 권능에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숨을 거두시려고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시면 모든 육체가 쇠할 것이고, 우리가 곧 온전히 티끌로 바뀔 것이라고 보여 줍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선하심과 이어 붙입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매 순간 멸망하지 않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잘 느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재로 만들고 완전히 없애는 데 하나님의 한 번 바라보심 말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숨을 부시면, 보십시오, 그들의 푸르름이 곧 바뀌어 시들고 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사 40:7)는 사람들의 힘을 풀이나 꽃에 견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부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풀밭을 말리는 바람 같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마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세의 노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끝을 향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과 숨을 당신께로 거두시면 우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시 104:29)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39] 그리고 그것은 또 내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 내세운 것을 따른 것입니다(행 17:28). "우리가 살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40]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위에 부어 두기를 기뻐하시는 만큼만 존재하니, 그분이 그 능력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곧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41] 그러니 우리는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만큼만 자기 존재 안에 머문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 능력을 거두어들이시자마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없음으로 돌아갑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말한 것이 남습니다. 곧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선하심과 이어 붙어 있어서, 그분이 우리

39. 원문은 "v. 30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 피조물이 죽어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시편 104편 29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0. 원문은 "17, 27 "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41. 원문은 "Puis que nous ce sommes "입니다. "nous ne sommes "로 보고 옮겼습니다.

위에 CO 155 엄격함을 펼치실 때에도 그 사이에 우리가 아직 아낌을 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매 순간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지킬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움직여 우리를 지키시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묻건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키실 까닭은 그분이 선하시고 모든 선의 샘이시기 때문밖에 없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 손에서 받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도록 그분을 움직이는 다른 곳의 어떤 이유도 없으며,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느끼게 하기를 기뻐하실 뿐이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생명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넉넉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거칠게 다루어지고, 시들어 가기만 하며, 악과 비참함으로 어지럽혀진다 해도, 그래도 숨 쉬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곧 멸망하여 티끌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어쨌든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다루시든 사람들은 늘 그분께 빚진 자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더 길게 풀 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 우리가 말한 것을 저마다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분의 권능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이어 붙입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을 계신 그대로 고백하도록, 곧 그분께 온전히 우리를 복종시키도록 움직여집시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되 무게와 분량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당신의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감각에 이상하게 보인다 해도 우리가 그분을 그런 분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1편

욥기 34장 설교 3

CO 35:156–16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리겠느냐? 악한 자가 의로운 이를 정죄하겠느냐? 왕에게 "너는 신의가 없다" 하고, 제후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하겠느냐? 그분은 큰 자들의 낯을 보지 않으시고,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돌아보지 않으신다. 모두가 그분 손으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갑자기 죽을 것이고, 백성들이 한밤중에 끌려가 멸망할 것이며, 강한 자가 손 없이 제거될 것이다. (욥 34:16–20)

이 설교는 14–15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156 우리는 앞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 연약함을 경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땅 위에 머무는 것을 그분의 은혜에 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명과 숨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봅니다. 일이 그러하니 우리는 그분을 지나친 엄격함으로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우리 모두를 멸절시키실 정당한 계기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거리를 가지지 않으실 만큼 그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이 세상을 지키시는 것을 보고, 우리 저마다 그 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비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나친 엄격함을 쓰시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에 놀라야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런 죄악이 있는 것을 견디실 수 있는지, 그리고 첫 번에 당신의 보응을 벼락처럼 내리셔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지 말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누가 그분을 거슬러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참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분은 반대로 우리 쪽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똑같이 참아 주신다고 우리에게 잘 말대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42] 그러니 그것으로 늘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 못지않게 그분의 자비 안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은 전능하시지만, 그래도 CO 157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당신을 절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 다른 아주 유익한 권면도 거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거나 우리 형편을 이어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동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밖에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그분을 섬기는 데 우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보는 그런 멍청함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생각이 납니까? 그리고 그들이 의식으로 그렇게 한다 해도, 자기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작은 바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깊이 찔림을 받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을 그만큼

42. 원문은 “nous pourra bien repliquer“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하나님을 주어로 보고 옮겼습니다.

더 되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 생명은 그림자일 뿐이고 헛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알맞은 때가 오면 우리를 세상에서 거두기도 하실 분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낮추고 우리 힘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듯이, 반대로 우리에게는 기댈 것도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 저마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영과 숨을 거두시면 우리가 모두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 동안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담대하게 무시합시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의 폭력을 바라볼 때, 그들은 사나운 이리 같고 우리는 양 같아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숨을 당신께로 거두는 이 직무를 당신께 돌리시고 남겨 두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거두려 하시고 우리 달음질을 마치게 하실 때까지 우리 생명을 당신의 지키심과 보호 안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만족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묻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거두실 때 우리가 멸망하리라고 말하니 우리 영혼이 바람 같은 것이냐고 한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는 자들이라 해도 그것을 자기 고유한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가진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 밖에 죽음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CO 158 우리를 티끌과 썩음으로 보내실 때 당신의 숨을 당신께로 거두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 영혼을 거두어 마지막 날까지 지키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컨대 엘리후는 여기서 우리가 연약하고 쇠잔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붙들리는 만큼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겉보기로, 곧 실제로

우리를 흩으실 때,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신 것을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늘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고유한 힘을 믿고 놀라운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저 경박한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오히려 겸손과 조심스러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으러 와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권면을 덧붙입니다.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그는 다시 참된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곧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 가르침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오만으로 부풀어 있는 자들, 너무 배가 불러서 사람이 자기에게 무엇 하나도 보여 줄 수 없을 것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완전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혜의 첫 입구와 기초가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분별하기에 넉넉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짐승 같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이 헛됨일 뿐이며, 그들의 지혜는 온통 어리석음일 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일이 그러하니, 우리가 다른 데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튼튼히 기초 놓인 지혜를 가지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내놓는 가르침을 듣기를 배우고, 그것을 받도록 가르침을 잘 받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을 것이고, 심지어 지혜롭다는 큰 명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헛됨과 거짓일 뿐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엘리후가 "네가 깨달음이

있다면 들으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에게 분별과 이성이 있다면 그가 평생 유익을 얻도록 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견디리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는 사람이 자기가 품은 것을 경솔하게 밀고 나가고, 누가 자기에게 깨우쳐 줄 겨를을 주지 않으며,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면, 그는 CO 159 어리석은 자일 뿐이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미친 자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모든 좋은 가르침에 문을 닫고, 자기가 너무 지혜로워서 더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우리가 모든 것을 밀쳐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려고 거기에 빗장을 거는 것은 참으로 일종의 미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좋은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깨달음 있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말하고 깨우쳐 주는 것을 잠잠히 받아서 그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것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를 만큼 사납다면, 좋은 권고를 멀리 내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고 정신 나가고 모든 이성이 벗겨진 자로 정죄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지혜의 겉모습이 있든 우리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부분적일 뿐이고, 우리는 깨달음의 작은 맛만 가졌을 뿐 완전함은 아닙니다. 아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그만큼 더 움직여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바로잡기에 맞는 가르침을 이어 가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우리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놓는 것을 계속 받고 늘 거기서 훈련하여 그분의 뜻을 점점 더 배우도록 합시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엘리후는 자기 말을 이어 가려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견줍니다. 그는 욥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왕에게 '너는 신의가 없다' 하고, 제후들에게 '너희는 악하다' 하겠느냐? 네 위에 다스리는 주인이 있다면 너는 그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를 모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서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는 것이 마귀적인 미침이 아닌지 살펴봅시다. 무슨 닮은 데가 있습니까? 왕은 어떤 위엄을 가졌든 악할 수 있고, 제후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악하면 그들은 자기 의무를 아주 나쁘게 수행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진 위엄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아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낯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따라 영예를 받는 이 모든 큰 자들을 부수시고, 그들을 가장 작은 자들처럼 쓸어버리시며, 피조물의 모든 높음이 당신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주십니다. 그 위에서 누가 감히 그분을 거슬러 입을 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엘리후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더 잘 깨달으려면, 제후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영예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들이 CO 160 자기 사람됨으로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당신의 표를 새기셨고, 사람들이 당신께 이 영예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좋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되지 않은 시험입니다.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선한 아버지처럼 다스리고, 그들이 우리를 잘 다스리는 것 말고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사악하고 비뚤어진 자들이 있고 우리가 두드러진 허물을 볼 때,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의 고삐와 멍에 아래 머물 만큼 절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공경을 드린다는 표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위에 윗사람으로 세우시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에서 "너는 네 백성의 통치자를 비방하지 말라"(출 22:28)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군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잘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그런 벌로 위협하십니다. 특히 그분이 악하고, 약탈하고 억누르는 것만 바라며, 온갖 지나침으로 다스릴 다스리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을 영예롭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윗사람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아무 값어치 없는 자들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권세와 공적 권위를 가진 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기까지 이끄셨을 때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종살이 아래 들어가야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본보기(단 9:7, 13)도 봅니다. 그는 악인들이 다스릴 때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을 사람들을 거슬러서가 아니라 하늘의 재판관을 거슬러 대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어떤 공적 권위를 가진 자들을 영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연히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혼란을 본다면 그것을 우리 죄에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으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고 준수되어야 합니다. 곧 제후들과 윗사람들이 순종을 받고 사람들이 CO 161 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율법에서

자기 백성의 통치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을 인정하기를, 또는 악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땅벌레일 뿐인 사람의 위엄이 하나님의 의를 뒤엎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악을 선이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제 갈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다스리는 자들을 비방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어지러움 없이 살고 재판의 자리가 어떤 공경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운데 더는 아무 질서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들짐승보다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것이 왕들과 제후들에게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는 사람 없이 악을 행할 권세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너는 산들을 꾸짖을 것이다", 곧 가장 높은 자들을 꾸짖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너를 왕국들과 제후국들 위에 세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렘 1:10). 모든 영광이 꺾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고 속되게 하는 자들, 자기 손에 맡겨진 칼을 남용하는 자들의 허물을 꾸짖지 않으면 마땅히 그래야 하듯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쁘고 불의한 다스리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받을 만한 대로 매섭게 꾸짖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지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합니다(고후 10:5).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높아지려는 모든 높음을 낮추어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권위를 구실로 사람들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 악덕을 건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자들은 가서 새 복음을 지어내라고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보듯 왕들은 신성한 자로 여겨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옴을 긁지 않기를 바라며, 오히려 아무도 감히 한마

디 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비틀 방종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들과 큰 제후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작은 지위를 가지면 자기가 우상 같다고 여기고 자기를 숭배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따라서도 우스운 일인데도, 그리고 거기 아무 까닭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데도(그들은 불쌍한 촌뜨기들이니까요)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가 조금 높아졌다는 구실로 모든 좋은 깨우침을 발로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반대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이 높음이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고 이 큰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의를 바치지 않는 만큼, CO 162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가르침을 지키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곧 왕들과 제후들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 재판의 자리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평화와 안식을 마련하고 어지러움과 반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잘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지위와 위엄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다면 그것은 악을 행하거나 모든 바름을 뒤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혼란을 막도록 고삐를 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공경을 드려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보아서 그분이 당신의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을 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지극히 높은 위엄에 이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스린다 해도, 왕이든 제후든 다스리는 자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악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일입니다. 그분은 늘 온 세상 위에 지극히 높은 통치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악한 술수로 세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술집 앞잡이들이 그분을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무슨 표 모으기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호의나 부패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분은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이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자유를 가질 것이다” 하려고 그분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상속과 사람의 승계로, 또는 우연히 거기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세상의 왕이시요 재판관이시기도 합니다. 일이 그러하니, 이제 누가 감히 그분을 거슬러 대들려고 입을 열겠습니까? 우리는 왕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만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셨으니 그것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신 분에 견주면 온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쥐시려고 손을 펴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하듯 그분이 손을 쥐고 계셔도, 그분은 왕들과 다스리는 자들을 사람들의 온 무리와 함께 작은 티끌 한 알처럼 쥐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그러하니, 이제 우리가 감히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겠습니까? 무슨 대담함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하고 일어서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 공경 말고 다른 정죄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을 다루지 않으실 때 그렇게 욕을 쏟아 내는 자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셔야 하는가? 왜 그분은 악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CO 163 선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사이에 처방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원망하는 자들, 말하건대 그런 논쟁을 들려주고 감히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에게, 손에 칼을 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 얼굴에 침을 뱉으며 “당신들은 악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오, 나는 감히 못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의 작은 불티 하나를 주셨다는 까닭으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데, 너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을 거슬러서는 일어서겠느냐?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분의 권능을 너는 아랑곳하지 않겠느냐? 너는 미친 사람처럼 그분을 거슬러 대들려 하는데, 이길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그렇게 들떠 있을 때 그것은 네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자들을 여기 놓인 이 비유로 어떻게 되돌려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짢아지는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저마다 스스로 기꺼이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험은 저마다에게 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으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소송하려는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재촉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너는 네 윗사람이고 다스리는 왕이나 제후를 거슬러 감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 위엄의 어떤 표를 새기셨으므로 너는 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너는 감히 하늘을 거슬러 부리를 쳐드느냐?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누구냐?" 다니엘서에서는 왕들과 제후들이 순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당신의 섭리를 잘 보여 주신다고 말합니다.[43] 사람에게 본성상 복종하는 것보다 더 거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적 지위에 세우시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결코 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에게 당신의 두려움을 두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이 짐승같이 된다 해도, 그래도 재판의 자리에 높아진 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이 감각은 아직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영광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위엄에 드러내 놓고 싸움을 걸러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목을 부러뜨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단 세 칸을 뛰어내려도 몸이 부서지고, 사이에 한

43. 원문은 "Il est dit e Daniel "입니다. "en Daniel "로 보고 옮겼습니다.

층밖에 없는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보십시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위로 뛰어넘어 거기서 깡충거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발길질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 어떠한지 잘 바라보아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 그분 아래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은 큰 자들의 CO 164 낯을 보지 않으시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돌아보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손을 대시며, 하룻밤에 그들을 멸절시키시고, 가장 강한 자들까지 손 없이 끌려가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먼저 큰 자들이 자기 재물이나 신용이나 지식이나 그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물론 사람들을 따라서는 그들이 영예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부자이고 가진 것이 넉넉하며 호의를 받으므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자기 큼으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공작이 꼬리를 보며 뽐내듯 그렇게 자기를 비추어 보는 자들은 자기 부끄러움으로 곤두박질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아첨하는 만큼 늘 악을 행할 대담함을 더 가지고, 그것은 그들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더 지필 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큰 자들이 하나님께서 낯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이 가르침에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또 작은 자들과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짓밟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가르침이 무엇에 적용되는지, 하나님께서 낯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무슨 쓰임을 위해 깨우쳐 주는지가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을 둔 사람이 그들을 억누르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듯 공평을 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적 권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시기까지 영예를 주셨으니 그들을 자기 형제로 알도록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큰

자들은 작은 자들을 함부로 다루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거슬러 거만하게 높아지지 않기를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사람의 낯을 보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재물과 신용의 그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늘 어떤 자인지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그들의 정죄를 준비하고 갖추어 두셨으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듯 곧 사라지는 이 세상의 형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압시다(고전 7:31). 그런데 그 사이에 큰 자들도 작은 자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끌려가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쉬고 저마다 긴장을 푼 것처럼 보이는 한밤중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리라는 것,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이 손 없이, 곧 큰 준비 없이 끌려가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억센 자들을 뒤엎으시려고 많은 사람을 무장시키시거나 많이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 위에 숨을 부시거나, 앞에서 다루었듯이 당신의 CO 165 영을 거두시려고 당신의 마음을 돌리시기만 하면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쇠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작은 자들을 억누르면서 자기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만큼 더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기 고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사도 야고보가 하는 말(약 1:9–10)을 간직해야 합니다.[44] 그는 "세상에서 높아진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과 영예를 받는 자들, 학식 있는 자들이나

44. 원문에는 "(17 9)"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10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신용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면, 그들은 동시에 자기를 잊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며 파멸로 곤두박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에서 말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도록 자기를 더 가까이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서 받았으니 그분께 온전히 자기를 바쳐야 하고, 자기 아랫사람들을 짓밟을 계기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하듯(롬 12:16), 자기를 낮추어서 그들의 작음에 도리어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작은 자들에 관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으니 그들은 자기 큼을 자랑할 거리를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자기 처지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토록 업신여김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그분이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기를 기뻐하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공통된 교훈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자기 생명과 거기 딸린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가장 억센 자들을 손 없이 쓸어버리시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분별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제후들도 자기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는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자기 계획을 이룰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하실 때 막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데서 힘을 빌리시거나, 삯을 주고 사람들을 사시거나, 대포를 주조하고 다른 군수품을 갖추는 데 매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의 손 없이, 사람의 도움 없이, 애쓰심 없이, 말하건대 모든 것을 무너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숨을 부시고 눈을 뜨시기만 하면 되고, 보십시오, 우리는 짓눌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당신의 눈길로 산과 바위를 녹아내리게 하신다면, 우리를 구렁에 빠뜨리시려고 우리 위에 벼락을 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길을 던지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CO 166 그분의 숨이 우리를 거슬러 몰아칠 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쇠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이것을 특히 밝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따라 잘 갖추어져 있을 때 가지는 이 모든 헛된 공상과 주제넘음을 우리에게서 없애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리치고 그분 손의 타격을 막아 내려고 자기가 무장되어 있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부자에게 가난을 경고하면 그는 "어떻게?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하고 둘러볼 것입니다. 그는 입을 다 열어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 재산을 믿고, 그의 재산이 그를 지켜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 주는 데 사람은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억세고 기운 있으며 한창 나이인 사람은 자기가 늙음에 이르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예를 받는 자들은 치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주제넘게 구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이 세상의 큰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고 길들여질 수 없다는 데서 보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호의, 어떤 신용을 가지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스를 방벽을 가졌다고 여길 것이고, 이런 사람의 수단들로 성벽을 쌓을 것입니다.[45] 그리고 그뿐 아니라 누가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허물을 깨우쳐 주면,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그들에게 자리도 들어갈 길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그것을 듣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면 결코 겸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잘 갖추어져 있고 자기를 지킬 수단을 가졌다고 여길 때 취해 있는 이 헛된 신뢰 때문입니다.

45. 원문은 "Si dol c "입니다. "Si donc "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러니 특히 하나님께서 억센 자들을 손 없이 멸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군수품을 마련하고 오래전부터 우리의 모든 일에 대비해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실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빠져나가리라고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헛된 공상을 상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잘 붙잡으실 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렁에 빠지는 것은 손 없이, 아래 수단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활 없이, 창 없이, 칼 없이, 사람의 손 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46]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가 되실 때 세상의 모든 수단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며, 저마다 우리가 본성으로 부풀어 있는 이 헛된 교만을 벗어 버리도록 배우듯이,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드리고, 그분이 우리에게서 CO 167 돌아서시면 매 순간 우리를 바꾸어 없음으로 돌리시고 가장 높이 오른 자들을 쓰러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이 절제를 권면받듯이, 반대로 우리가 이 아래에서 짓밟히고 억눌릴 때, 큰 뒤바뀜을 보고 폭군들이 불쌍한 양들과 하나님의 양 떼를 삼키려는 이리 같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 없이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끝까지 그것을 행하시리라는 이 약속으로 옵시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사람의 수단을 빼앗기고, 우리가 먹잇감으로 내놓인 것 같고,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십만 번이라도 구렁에 빠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으로 갖추어져 있다 해도, 좋습니다, 세상에 관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우리는

46. 원문은 "sans are"입니다. "sans arc"(활 없이)로 보고 옮겼습니다.

사람의 손 없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이 가르침에 늘 더 굳게 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리들의 아가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펼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시적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면, 묻건대 훨씬 더 높고 귀한 것인 우리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지옥의 구렁에서 건져내시고, 마귀와 죄의 폭정에서 풀어 주시며, 당신의 하늘나라로 높이시고, 그 많은 시험에서 지켜 주시는 것이 문제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 고유한 능력으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헛된 주제넘음으로 부풀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거스를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그분 아래에서 떨며, 그분 앞에 우리를 내드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아보시기를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처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구렁에 빠지고 쓰러졌습니까? 내가 말한 둘째 것으로 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 없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뻐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관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그래도 그분이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 없으시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막히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2편

욥기 34장 설교 4

CO 35:168–17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의 눈은 저마다의 길 위에 있고,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을 보신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수 있는 어둠도, 그렇게 짙은 캄캄함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 지우지 않으시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재판에 나아가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조사 없이 강한 자들을 부수시고 그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다. 그분은 그들의 행위를 밝은 데로 끌어내시고, 밤을 돌이켜 그들을 부수신다. 그분은 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악인처럼 치신다. (욥 34:21–26)

CO 168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려 하실 때 큰 준비를 하시거나 사람들을 무장시키시거나 다른 데서 힘을 빌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눈길 하나로 모든 것을 구렁에 빠뜨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쩔 수 없어서처럼 사람의 손을 쓰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자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그분께 매여 있고, 그분을 섬기는 데, 심지어 그분이 내리려 하시는 벌을 집행하는 데 쓰이지 않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강한 손 아래 우리를 낮추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스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출 아무 수단도 없고, 그분이 당신의 뜻 가운데 우리에 대해 정하신 모든 것을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

들이 아무리 거만하게 높아져도, 그래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룬 말을 이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 권능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사람들의 길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을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CO 169 그러니 아주 억센 백성이 쓰러지고 한 왕국이 무너지는 그런 큰 징계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까닭 없이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 엄격함을 쓰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아는 일을 그분께 맡겨 드립시다. 그것은 그분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 곧 사람들의 길이 그분께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논쟁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해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만큼 밝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길을 판단하시는 것이 그분의 직무이니, 그분과 뜻을 맞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지 보지 못한다 해도, 그분이 사람 하나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를 그렇게 징계하셔야 하니 그분의 소송이 늘 좋고 의롭다고 드러나리라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걸음을 아신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때로 그것은 그분의 섭리와 관련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다른 많은 구절에서도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그분께 알려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온 삶이 그분 앞에서 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 눈앞에서처럼 걷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도 소용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도 악인들이 숨을 수 있는 어둠도 그렇게 짙은 캄캄함도 없다고 덧붙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덧붙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듯,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아보시고 그것의 재판관이셔야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위에서 눈이 부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10:11)에서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임수와 악의를 조금도 보지 못하시리라고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땅 밑에 굴을 판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니 위선이 사람들의 눈을 그토록 멀게 하므로,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 만큼 어두운 어둠은 없다는 이 말씀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먼저 우리가 다룬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런데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를 그치지 않고, 그 위에서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숨는 곳에서 너무 깊이 잠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위선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스스로 속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들이 CO 170 그분을 기억에서 잃어버렸을 때, 그분도 등을 돌리셨고 그들의 악행을 생각지 않으신다고 그들에게 여겨진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그런 상상에 속지 맙시다. 그분이 한동안 못 본 체하신다 해도, 결국 그분은 당신의 직무, 곧 온 세상의 재판관이 되시는 직무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행위만 밝은 데로 끌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모든 생각까지 그러실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것이 그분께 고유한 일이고, 그분이 그 칭호를 당신께 돌리시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47]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두 조항이 이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그토록 뿌리 박힌 이 악덕, 곧 우리가 우리의 빠져나갈 구멍으로 하나님의 손을 피하리라고 여기는 악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에 취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눈을 감으시거나

47. 원문은 “toutes 108 pensees“입니다. “toutes les pensees“로 보고 옮겼습니다.

눈을 가리셨거나, 그분 앞에 휘장이 있어서 우리가 숨기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분 앞에 드러나리라고 말하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우리 죄악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더 싸게 치렀다고 여기지 말라는 경고도 받읍시다. 보십시오, 그것이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아니면 적어도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자들의 입을 막을 때 그러합니다. 그때 그들은 개선 행렬을 하고 감히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속았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어떤 아름다운 겉모습이 있었든 결국 하늘의 재판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에 닫혀 있던 책들을 여실 것이고, 지금 일들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모든 어둠을 밝히시려고 당신의 큰 날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경이 그토록 자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어둠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한 곳에서, 한 번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그토록 되풀이됩니까? 그것은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비난을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휘저으셔서는 안 되고 그것을 드러내셔서는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것을 아는 일을 하늘에까지 이르게 하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죽을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시리라고 성령께서 그토록 여러 번 선언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여기서 거기서는 죄인들이 숨겨지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눈이 부시고 악덕이 그들에게 CO 171 덕으로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들이 너무 악해서 서로 아첨하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악이 유행할 때에는 더는 악덕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마다 거기에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 경험으로 보듯이 악덕이 다스리고, 사람들 가운데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만큼 그런 홍수가 있어서, 더는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판이 뒤집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을 세상보다 더 높이 들고,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다니엘서에서 책들이 드러나리라고, 곧 그때 장부들이 내놓이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부입니까? 종이나 양피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이 대답해야 할 것이고, 저마다 자기 소송을 지니되 써서가 아니라 너무 깊이 새겨서 더는 아무것도 꾸밀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그런 밝음으로 거기 계셔서, 지금 큰 구렁 밑에 있는 것 같은 것들까지 모든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낙원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의 눈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는 다른 두려움 속에 걷고 모든 위선을 벗어 버리도록 그것을 기억합시다.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아첨해서는 우리 셈을 조금도 낫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주인 없이 셈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우리 삶을 살피는 것이 문제일 때마다 저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자기를 소환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것을 압시다. 곧 마음과 가장 깊은 생각을 살피는 것이 그분의 직무이니, 오늘 우리가 세상에게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의 손을 피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48]

그러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지는 것을 견딥시다. 그 직무도 그 말씀에

48. 원문은 “puis que c’ est bon office“입니다. 문맥에 따라 “son office“로 보고 옮겼습니다.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숨길 수 있는 죽음의 어둠도 그렇게 짙은 캄캄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히브리서의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듯 그분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아서 우리 생각과 애정을 분별하고, 그렇습니다, 골수까지 들어가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는 마치 누가 우리의 모든 항목을 적어 두었고 우리 온 삶을 내놓은 것처럼 꾸짖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완전히 죄를 깨닫고 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CO 172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얼마나 죄가 있는지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꾸밈을 바로잡도록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우리를 소환할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옴을 긁고 우리를 꾸짖을 때마다 그것을 참음으로 견디고, 감히 고집을 부리지 맙시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악덕이 건드려질 때 분해하고 독이 오르는 많은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아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께서 더는 자기 위에 아무 권위도 가지지 않으시고 더는 자기 재판관이 아니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바라본다면, 늘 "그게 뭐냐?" 하고 묻는 그들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것밖에 깨우쳐 주지 않아도,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뻔뻔하게 나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기서는(곧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는) 아무 어둠도 없다는 이 가르침이 무슨 값어치가 있는지 한 번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속되게 하고, 돼지처럼 주둥이를 땅에 박고, 너무 깊이 잠들어서 자기의 모든 죄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 죄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거기에 절여져 있는 것 같은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냄새가 배어 버렸으므로 자기 더러움이 그들에게 냄새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가르침을 조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악덕을 보여 줄 때 지금보다 더 잠잠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악이 모두에게 뻔하고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고 그분을 업신여기며 꾸짖음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무슨 뻔뻔함입니까?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을 살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땅 밑에서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악이 넘쳐흘러서 가엾을 지경인 것을 봅니다. 공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를 바라고, 복음을 이빨까지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어뜯으려고(그들은 사납고 미친 개들이니까요) 가지고 있는 이 선한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못 본 체해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추함을 드러낼 때 자기에게 큰 잘못을 한다고 여깁니다. 바로 말하자면 그 추함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함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자들은, 결국 더는 어둠도 캄캄함도 없을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가 CO 173 우리 죄를 잘 생각하도록 우리를 밝혀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한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내세운 것을 실천합시다. 곧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 박힌 악의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끄러워하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마련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런 능력과 효력을 느껴서,

우리를 언짢아하도록 우리 온 삶을 잘 살피려 애쓸 때입니다. 그러나 고집을 부리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들뜬 것처럼 그분께 부딪치러 오고, 아무 권고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가망 없는 사람들로서,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 어둠도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만큼 어두운 숨을 곳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묻어 버리시려고 그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주시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그들의 추함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모든 곳에 퍼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숨을 곳을 드러낼 이 밝음의 힘으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가르침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이 큰 날로 위협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날을 앞질러 대비하게 하시려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방은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송을 다루시려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날마다 복음으로 당신의 재판권을 행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요 16:8) 하고 말씀하시듯이 말입니다.[49] 그러니 복음이 전파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지극히 높은 재판권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이 오늘 그렇듯) 몸 위가 아니라 영혼 위에 행사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 거기서 정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국 이 큰 밝음으로 나아가야 하리라고 그토록 자주 경고하실 때, 오늘 우리가 알면서 우리 눈을 가리지 맙시다. 그분이 우리 더러움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려고 당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 스스로 원해서 눈먼 자가 되지 맙시다.

49. 원문은 "iugera le momie"입니다. "le monde"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단에서 유익을 얻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들짐승처럼 굴려 하고 늘 우리의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면, 그래도 결국 우리는 싫어도 하나님 앞에 아무 어둠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50]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오늘 그분 말씀의 거울에서 보려 하지 않은 것을 그분의 얼굴과 영광스러운 위엄 안에서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CO 174 더 지우지 않으셔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재판에 나아가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풀이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마땅한 것보다, 그리고 사람이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어지는 흐름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문제이므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다툴 계기를 가지도록 우리를 괴롭히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말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말씀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고자 할 때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문제다. 보라, 다루는 주제가 이것이다. 보라, 모든 것이 이리로 향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일반 주제는 이것입니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큰 엄격함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일들이 잘 알려지면 우리 입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많이 변론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소송은 지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 곧 그분이 우리를 분량을 넘어 괴롭히지 않으셨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50. 원문은 "si nous voulons taire des bestes sauvages"입니다. "faire des bestes sauvages"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분이 때로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그들을 치신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이치보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만한 것보다 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렇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게 몰아붙이는 미침에 대해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변론합니까? 우리에게 그분을 판단할 재판관이나 중재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을 해 드리셔야 한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일들이 우리 입맛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는 데 더 대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도록 그들을 부추기는 이 마귀적인 대담함 때문에 정죄받는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을 재판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기까지 낮아지시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거기서 우리 상대편으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서 그분이 거기까지 오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책임을 지셔서 당신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 변명하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께 반박할 수 있도록 입이 열려 있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셈하고 따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 175 너무 많이, 이치의 틀을 넘어 지우지 않으셨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그분께 알려져 있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만한 징계의 분량을 아실 만큼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거만함이 어디서 우리에게 오는지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 하려고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권위를 주었습니까? 보십시오,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온갖 겸손과 공경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 대해

선고하시는 것을 아무 반박 없이 듣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자기 소송에서는 자기 말을 믿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 죽을 사람들에게 드리는 만큼도 드리지 않습니다. 땅의 재판정에서는 자리에 앉은 자가 재판관이면서 당사자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썩기 쉬우니 그는 자주 불의하게 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나아갈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할 때 어떻게 모든 이치에서 벗어나 들떠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악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인도 봅니다. 그것은 내가 말한 것, 곧 우리가 우리 공상대로 우리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신께 남겨 두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걸음을 살피는 것은 내 일이다. 나는 너희를 표시해 두고 속속들이 살핀다. 너희는 여기 와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심판하려고 나서는 자는 자기에게 마땅하지 않은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추어진 많은 악덕을 표시해 두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소송을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물론 나는 내 허물의 백분의 일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내가 악에 절여져 있고 마귀가 나를 홀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먼저 내가 주 앞에서 저지른 죄악을 더 잘 느껴서 나를 죄 있는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내 허물을 알 만한 자격 있는 재판관이 아니라 해도, 그래도 주님, 주께서 나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이 영예를 내게 베푸시니, 주께서 내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내 소송을 주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송에 들어갈 때에도 그분이 빚진 자로 드러나지

않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거슬러 소송을 걸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아름다운 겉모습과 빛깔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가 내세울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이 구절에서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CO 176 그런데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그렇습니다, 조사 없이 부수시고 그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리라고 덧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들의 행위를 밝은 데로 끌어내시고, 그들을 깨뜨리시려고 밤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을 조사 없이 부수시리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너무 멍청해서 그토록 대담하게 업신여기는 이 권위를 우리에게 더 잘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조사"라는 낱말을 "수"로 풀이합니다. 마치 권세 있는 자들이 끝없이 많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수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낱말 그대로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권세 있는 자들을, 또는 많은 사람을 부수실 것이다." 그 낱말은 둘 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사가 없을 것이다." 그 낱말이 거기 있고 그것이 본래 "찾다", "조사하다"를 뜻하니, 엘리후가 하나님께서는 땅의 재판관들이 하듯 조사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하려 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므로 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수단들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알아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으니, 그분은 우리가 이 아래 다스림에서 보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는지 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는 않으리라는 것, 우리가 거기에 눈멀어 있으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이 조사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일과 관련됩니다. 마치 이

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판관들이 소송을 다룰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방식과 형식이 지켜져서 일들이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판결문이 공포되고, 사람들은 범죄자의 죄와 그가 어떻게 유죄로 입증되었는지를 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권위를 이런 사람의 법으로 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조사 없이, 곧 왜 그런지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으시고 부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판결을 선고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분이 왜 우리를 벌하시는지 풀어 주려고 죄목이 거기서 낭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에게 감추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은 그래도 당신의 의를 집행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을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것이 불의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놓으실 것이라고 그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사 없이, 곧 사람의 다스림에서 요구되는 그런 형식을 지키지 않고 벌하신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이치와 올곧음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날 알려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분이 지금 얽히고 뒤죽박죽인 것을 밝히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더는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권면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이 늘 우리가 CO 177 우리 줄을 계속 끌어당기게 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받지 않고 남아 있을 때 우리는 악을 행할 방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통의 방식으로 우리를 징계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멍청함과 육신의 안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그분이 큰 거칢으로 오실 때, 그분이 갑자기 벼락을 치시자마자 우리는 너무 놀라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뻐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오래

못 본 체하신 뒤에 그분은 손만 드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듯 한순간에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저녁과 아침으로 자기를 재촉하도록 이 구절을 간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긴 절차를 밟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은 어떤 법에도 매여 계시지 않다고 말할 때 말입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늘 준비하고 갖추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치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조심스러움으로 그분의 심판을 앞지릅시다. "자기 마음을 조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 무서운 위협도 기억합시다. 악인들이 "평안하다, 모든 것이 잘된다" 하고 말할 때 파멸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지리라는 것입니다.[51] 그러니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기를 기뻐하실 때, 죽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림돌에 따라 하듯 한쪽 끝에서 시작해서 일을 이어 가다가 그것을 미루실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첫 번에 정죄하시고 당신의 판결을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긴 소송을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숨 돌릴 겨를도 없을 것이고, 그분의 손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괴로움 속에서 시들어 가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진 것처럼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에 짓눌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허물을 느낍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것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위로받을 거리도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다, 그 허물이 우리를 언짢게 하고, 우리가 악을 덮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서 우리가 자비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며 탄식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을 무죄 선고하시고, 자기 죄를 자기 눈앞에 두고 그것을 고백하기만 바라는 자들의 죄를 묻어 버리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리낌 없이 우리

51. 원문은 "diront, pas"입니다. "diront, paix"(평안하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허물을 고백하는 것을 보실 때, 그분이 그것을 완전히 지우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조사 없이 벌하신다는 이 말씀을 간직해서, 우리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삶을 잘 살피고, 우리 안에서 부끄러워하며, 우리를 낮추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CO 178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자들과 억센 자들을 부수시고 그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그들을 눈에 보이게, 그렇습니다, 악인으로서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그런 자격으로 벌하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를 두려워하고 그분이 폭정이나 잔인함을 쓰신다고 상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그분이 이치를 넘어 펼치시는 그런 권능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물론 그분이 지키시는 이치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 하나만으로, 단순히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그것은 또한 모든 올곧음의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나아가시고 이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 나쁜 공상을 가지지 맙시다. 오히려 반대로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상해 보인다 해도 그래도 그것이 가장 좋은 이 규칙, 곧 모든 의를 뛰어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조절되어 있다는 것을 완전히 결론 내려 둡시다. 엘리후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 자신에게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자신이 괴로움을 당할 때, 자기 허물을 회개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괴롭히신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참된 회개를 가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했듯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위를 드러내시고 그분이 벌하실 때 그것을 내놓으신다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와 범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살피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는 이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의 자리에서, 곧 그런 자격으로 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말대꾸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울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분이 그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변화의 원인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그것을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 시편은 이 말씀의 바른 풀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병이 한 나라의 인구를 줄이고, 거기에 기근이 일어나고, 아주 기름졌던 땅이 마치 소금을 뿌린 것처럼 메마르게 되며, 또는 전쟁이 그런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보십시오, 한 나라가 황폐해지고 CO 179 통치권이 바뀌는 것을 볼 때 놀라움에 넋이 나간 것처럼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의 수단들 위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바꾸시고 그런 뒤바뀜을 일으키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들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일로 여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운수에 돌리지 맙시

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분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팔을 펼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배은망덕이 어떠한지 알고 그것을 바로잡읍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찌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자마자, 우리는 너무 잘 대접받은 말들처럼 그분을 거슬러 발길질하려고 일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만과 그런 배은망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대신다고 놀라야 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의 절제가 어떠한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실 때 그들이 그것을 오래 소유하고 있을 수 있도록 처신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곧 그것을 빼앗으시도록 그분을 무시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과 배은망덕이 내가 말한 만큼 그렇게 더러운 것을 볼 때, 일들이 바뀌고 많은 뒤바뀜이 일어난다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도록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끌어가시고 그 자리에 다른 백성을 세우시며, 한 나라에 새 주민을 두시고 그렇게 살림을 옮기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하건대 그것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형편에 있는 동안, 그분의 좋은 것들을 누리되 우리가 늘 그것을 소유한 채 남아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으로 이끌려서 그분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이 영원한 유업을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남은 것은 내일로 미루고,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3편

욥기 34장 설교 5

CO 35:180–19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악인처럼 치신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아서고 그분의 모든 길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고 괴로움당하는 자의 외침이 들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평안을 주실 때 누가 어지럽히겠느냐? 그분이 얼굴을 숨기실 때 누가 그분을 보겠느냐? 백성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다. (욥 34:26–29)

CO 180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못한 자들을 조사 없이 벌하시는지, 그런데도 그분께 그렇게 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무도 그분을 고발할 거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엘리후는 그분이 그것을 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가르침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그것은 저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알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서 본보기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바로잡으시려고 그렇게 벌을 행하실 때 정의가 땅 위에 이르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서, 또는 보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범한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이 말을 덧붙인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심판을 잘 새기고 표시해 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분이 남의 희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거나 멍청하게 있다면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실 때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분의 매가 우리 가운데서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공통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징계를 받았을 때 저마다 말하자면 자기 차례를 가져야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CO 18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오백 명, 그렇습니다, 천 명의 가르침에 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경고를 흘려보내고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으므로, 보십시오, 그것이 저마다 자기 차례에 불려 나오고, 우리가 모두 몸소 나서서 우리 범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부수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배은망덕이 어떠한지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이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잘 이야기할 줄 알 것입니다. 어떤 도시가 함락되거나 약탈당한 일, 어떤 패배나 다른 일들을 다룰 때, 좋습니다, 소식이 퍼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논쟁합니다. 더 큰 이유로,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넉넉히 이야기할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허물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늘 우리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토록 엄하게 바로잡으시는 자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도, 그 매가 결코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으리라고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그것은 너무 크고 견딜 수 없는 배은망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자들을 몰래 벌하셔서 아무도 자기 바로잡음을 위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우리 모두가 거기서 유익을 얻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를 행하시려고

처형대를 세우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더 밝게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눈먼 것은 이미 말했듯이 우리 자신의 악의와 배은망덕에서 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그분에게서 돌아서고 그분의 모든 길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본 것,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벌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말고도, 모든 악의 근원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곧 모든 의의 샘이신 분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이 어떻게 다스려져야 하는지도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찾으며, 그분 얼굴 앞에서처럼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분에게서 물러날 때에는 온통 혼란 속으로 갈 수밖에 없고,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멸망으로 가지 않을지 보여 주는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가집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꼭 붙어 있는 것처럼 머물러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분과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지혜를 가질 때, 보십시오, 우리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CO 182 하나님을 잊습니까?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갑니까? 우리 삶이 여기저기로 헤맵니까? 우리는 멸망한 것이고, 보십시오, 정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돌아서는 모든 자를 눈에 보이게, 무서운 방식으로 벌하시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가졌으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배운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밝음의 맛밖에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을 말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악에 빠지므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자들에게처럼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지는 않았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 일반 규칙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실 때,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본성의 질서를 따라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바른 과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헤매게 되고 우리 탐욕이 다스리며 우리가 거기에 고삐를 풀어 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합되어 있어야 할 분에게서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이방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고발하는 것은 그런 식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가지지 않았다 해도, 내가 말한 그 가르침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14절)에서 그것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선과 악을 가리는 어떤 분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려고 기록된 종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그것을 자기 마음에 새겨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그만두었다고 정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비할 데 없이 더 가까이 사귀시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선과 악에 대한 어떤 지식을 새기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그분은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그분은 가까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모세가 단언했듯이) 이것이 길입니다. 우리는 헤맬 수 없고, 무지라는 핑계를 더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에서 말하듯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우리에게 다 닦여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아는데도, 그 사이에 저마다 고삐를 풀고 악을 행하고 자기 격정과 탐욕 속에 떠돌 허가를 자기에게 준다면,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한마디도 들어 보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으므로 여기서 배교자로 불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스승과 선생의 직무를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도록 세우시는 자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우도록 우리를 당신의 학교에 두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CO 183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갑절의 배교자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를 가까이서 살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고 우리 구원에 맞는 것을 증언해 주시려고 말하자면 입을 열고 계실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무슨 값어치가 있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그것이 (흔히 말하듯) 손가락 끝으로 핥을 만큼밖에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임을 압시다. 더 큰 이유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이되고 우리가 또 다른 쪽에서 그것을 읽을 수도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짧은 고삐 속에 붙들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며, 그분을 섬기려 애쓰지 않는다면, 그분의 손은 잘 인도받도록 본성의 질서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거칠고 무섭게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이 그분의 모든 길을 살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무지하고 둔하다 해도 그들을 죄 있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빠져나갈 구멍을 없앨 악의가 그들 안에 없을 만큼 그렇지는 결코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다룬 것처럼) 엘리후는 온 세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감각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분의 길을 살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르침의 밝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못하고 헤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사람들을 몰아붙이셔서, 그들의 정죄가 정당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좋고 바른 마음을 가졌는데도 자기를 다스려 줄 사람이 없었으므로 무지 속에서 잘못했다는 이 덮개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순수하고 온전한 욕구를 가졌다면, 그분 쪽에서 그들에게 모자라시지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들판을 가로질러 길 잃은 것처럼 헤매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가려는 순수하고 바른 욕구가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그들은 어떤 경건심의 겉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 교황주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열심 있는 자들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가려는 경건심에 (보기에는) 완전히 넋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을 가까이서 살펴보면 위선밖에 없다는 것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CO 184 정당한 까닭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불쌍한 이방인들이 어둠 속에 있고, 그들을 더듬으며 길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견줄 수 있으며, 아주 무거운 무지가 있다 해도, 그래도 그들은 악하고 반역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일부러 선에서 악으로 돌아서지 않았다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살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감각도 없는 짐승이나 돌에 돌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장 둔하고 가장 야만스러운 자들도, 말하건대 그런 자들도 바로 가기를 거부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좋은 욕구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이 그런 결론을 낼 때 그들은 자기가

순전한 짐승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람들이 무지로가 아니라 분명한 악의로 잘못한다고 말하면, 교황주의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 일이 그러하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잘 다스릴 넉넉한 이성이 있고, 우리는 밝게 볼 수 있으며, 요컨대 우리에게는 선으로도 악으로도 갈 자유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논증하는 것은 너무 큰 어리석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보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것과, 그런데도 그 사이에 그들이 완전히 악한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교만이 그들을 들뜨게 했으므로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둘을 어떻게 서로 맞추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곧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성과 깨달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받은 유산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는 어지럽고 뒤죽박죽이며, 우리 구원에 맞는 것을 알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을 거꾸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까지 우리 밝음조차 어둠으로 바뀐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무지는 우리가 우리 애정에서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실 수 있는 선을 우리가 지워 버리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비뚤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공상이 그분의 의를 거스르는 그만큼의 원수 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7절)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지하고, 그런데도 비뚤어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도 기꺼이 헤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려면 강요를 받거나, 그분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반역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비추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으실 때까지, 우리는 늘 그분의 길을 살피지 않으려고 눈을 감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내가 말한 이 점으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면 핑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이유로 우리,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이끄신 우리는 갑절의 배교자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선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따라 처신하고 걷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묻건대 그들에게 주어진 것과는 아주 다른 지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룬 모세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 길이 여기 있으니 그 길로 걸으라“(신 30:19).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 앞에서 단언한다. 그것들이 내 증인이 되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죽음을 보여 주었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못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라. 너희가 멸망하기만 바란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당신의 뜻을 선언하시는 이 특권을 베푸실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너희 손에 생명을 쥐여 주시는 것과 같은데, 너희는 그것을 내던지고 죽음만 바란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들은 완전히 마귀 들린 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이 단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잘 생각하도록 우리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거울에서처럼, 생생한 그림에서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내놓으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소경이나 애꾸눈처럼 굴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모르려고 우리 앞에 휘장을 치지 맙시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넉넉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를 만큼 우리를 의심 속에 내버려 두시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좋은 가르침과 교훈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은 또 지킬 만한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어서 무엇을 붙들고 따라야 할지 모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그분이 우리를 헛되게 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조롱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CO 186 좋은 가르침을 받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따르도록 깨달음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작음을 알고 그분께 자기를 맞출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바른 길로 인도받고 거기 머물려는 이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유익을 위한 이 쓰임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살피지 않았으므로 돌아설 때, 그가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모든 악의 원인이고, 그것은 그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아직 새겨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모든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우리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실 모든 말씀에서 사람들이 그분께 귀 기울이고 예외 없이 그분께 복종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계명들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지실 수 없듯이, 그분의 의도 조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것을 당신의 율법 전체 안에 담으셨습니다. 그분은 간음을 삼가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도둑질만 금하신 것이 아니며, 살인만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열 계명을 이어 붙이셨고,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이는 정결함으로, 어떤 이는 이웃을 약탈하지 않음으로, 어떤 이는 모든 모욕과 폭력을 삼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악을 행할 자유를 자기에게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찢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계명이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지켜야 할 거룩한 끈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분 길의 한 부분에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여기서 새기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를 생각하는 데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피려 할 때,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들고 거기에 우리 행위와 생각을 재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드러난 실제 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더 멀리 가서 우리에게 나쁜 애정이 없었는지 살핍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느끼는 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사람들이 방탕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점점 더 헤매고, 하나님을 온전히 부인하고 그분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타락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우리는 CO 187 첫날부터 모든 악덕에 빠질 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판을 가로질러 내달릴 방종을 취한다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죄악을 못 본 체하십니까? 사탄이 우리 영혼과 몸을 차지하고, 그 위에서 우리를 너무 들뜨게 해서 우리는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참된 곧음과 단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맞추지 않은 뒤에 어떻게 썩어서, 그들 안에 더는 아무 분별도 없고, 한 가지 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온전히 내던지게 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밖에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보다 더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의가 얼마나 공평한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자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물러났고, 선을 배우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거기에 손을 대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일이 그러하니, 이것을 늘 결심해 둡시다. 곧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노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보다 오래전에 이미 그분 손에 벼락 맞아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분이 못 본 체하신 뒤에 결국 우리는 여기 담긴 것으로 와야 합니다. 곧 그분이 당신에게서 그렇게 돌아선 모든 자를 눈에 보이게, 두드러진 방식으로 부수시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이르게 하고 괴로움당하는 자의 외침이 들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벌하시는 죄의 한 종류를 짚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분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넉넉히 넘치도록 입증되지 않으면 자기 허물을 알도록 이끌릴 수 없으므로, 엘리후는 여기서 가장 드러나고 가장 보기 쉬운 한 종류를 놓았습니다. 폭력과 강탈이 저질러지고,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아무 도움도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람들은 하소연을 듣고, 저마다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몸서리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큰 자들에게나 작은 자들에게나 넉넉히 알려질 죄악의 한 종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된 일이냐? 정의가 없고, 더 강한 자가 이긴다. 우리는 강도 소굴에 있는 것 같다. 약탈하려는 자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처방도 질서도 없다" 하고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있다면 저마다 그것을 말할 줄 압니다. 이 까닭으로 여기서 성령께서는 우리 허

물이 그만큼 더 잘 입증되도록 가장 두드러진 죄를 고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종류 아래 전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CO 188 하나님을 거스르든 그분께는 늘 우리를 벌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밝혔듯이) 그분의 율법은 나뉠 수 없고, 그 하나 됨 속에 머물러야 하며, 그분의 계명들은 서로 묶여 있어서 온전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위선적이고, 저마다 자기 허물을 숨기려고 뱀처럼 몸을 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억지로처럼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가 빚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에게 어떤 잘못과 지나침을 저질렀다면, 그는 그것의 원수 갚음을 요구할 것이고, 그 하소연이 알려져서 공기가 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러하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이 잊힐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이미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하소연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우리 죄가 부르짖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늘까지 이를 소리가 있으니, 곧 우리 범죄입니다. 누가 무언가를 휘저으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길 때, 그것은 우리가 집 한 채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걷게 하시려고 세우신 이 질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여깁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러 옵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어길 때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우리 죄가 원수 갚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사람들이 말이 없고, 입을 닫고,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

니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이 우리를 거슬러 부르짖고, 우리가 우리 죄악 때문에 나쁜 이름을 얻으며, 우리가 하소연과 원망을 들을 때, 더 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식으로든 "소돔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 내가 그런지 보려고 내려왔다" 하고 말하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귀가 먹지 않으셔서 우리 범죄가 늘 그분 앞에서 알려진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이 거기 있고 그런 혼란이 있을 때에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더욱 표시해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미 말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리러 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사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비틀러 올 때, CO 189 묻건대 그것이 무슨 혼란입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군 자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힘 있는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빼앗기고, 도움을 얻지 못하며, 친척도 친구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악을 행할 대담함을 취합니다. 말하건대 그 위에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허락된다고 여기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고삐를 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보신다고 말하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이 온갖 모욕에 내놓이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원수를 갚으시려고 그만큼 더 마음 쓰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잘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붙잡혀서 우리 이웃을, 무엇보다 스스로 원수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못살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 위에 두신 안전 보장을 어기는 것과 같고, 결국 우리는 그분이 우리 상대편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봅니까? 그에게 아무 해도, 폭력도, 지나침도 꾀하지 않도록 거기 매인 것처럼 있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을 막아서실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당할 모욕을 참으며 견딘다 해도 그 부르짖음은 하늘에 이르고 하나님께 들리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저마다 악을 행하기를 삼가며 고삐 속에 머물도록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하듯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당신의 보호 안에 두신다는 것을 볼 때 크게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나움에 고삐를 쥐고 계시고 가난한 자들을 지켜보시며, 결국 당신이 그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리라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다툼을 맡아 주시니, 그분께 우리를 맡겨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다루며, 처방이 없고, 우리가 이리 아가리 속의 양 같아 보일 때, 그것이 우리 슬픔과 언짢음을 누그러뜨리게 합시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를 모든 강탈의 부르짖음이 그분 앞에 이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버팀목을 가졌으니 만족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 구원을 돌보신다는 것을 실제로 선언하실 때를 기다립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누가 어지럽히겠느냐? 그분이 얼굴을 숨기실 때 사람에게나 온 백성에게나 누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라는 인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거는 모든 다툼을 누르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감독하려 하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 공상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분과 타협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일들이 자기 입맛대로 오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낮추기를 CO 190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하실 때 우리가 언짢아지자마자,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오, 나는 일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고 말하려고 빗장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누가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 누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성경이 말하는 이 평안을 가집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고, 그분의 선하심에 신뢰를 두며, 그분이 자기를 다스리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들은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듯이(미 4:4) 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 저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자기 포도나무 아래서 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듯 이 평화는 믿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안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에 자기를 맡기고, 그분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보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그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주께서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평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속으로는 치셔서 그들이 늘 양심에서 갉아먹히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아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사 57:20)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생각이 서로 부딪치는 물결 같다고 말하지만(그리고 보십시오, 그 안에 썩은 진창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은 늘 불안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므로 그들을 잠든 채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누가 어지럽힐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

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벌을 미루시고 늘이시는 동안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런데 왜 그분은 받을 만한 자들을 첫 번에 벌하지 않으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있기를 원하시는 자들을 어지럽히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곤두박질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 할 때 어지럽히는 것은 죽을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그것을 느끼며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평온하지 않다면, 몸으로 번성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52] 그 밖에 우리가 이 평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압시다. 평화와 전쟁이 CO 191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이 세상의 쇠잔한 형편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실 때) 어지럽히기도 하시고 가라앉히기도 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적인 평안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을 가라앉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이 세상의 혼란 한가운데서 우리가 늘 우리 발로 서 있고, 큰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처럼 흔들리면서도 버티도록 우리 닻을 그분께 박아 두는 그런 평화 속에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는 특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특권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지럽습니까? 우리에게 괴로움과 어지러움과 당혹스러움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절제를 가집시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수단을 찾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모든 불안에서 건짐을 받도록

52. 원문은 "sinor que"입니다. "sinon que"로 보고 옮겼습니다.

우리를 가라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라는 것을 완전히 결심해 둡시다. 그러니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자들이 말했듯이 이 평화를 가지고, 그들의 모든 고난과 이 세상의 모든 비참함 한가운데서 쉬며, 심지어 불신의 시험을 받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자기를 맡긴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그들의 삶이 많은 불안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기를 기뻐하실 때 날뛰지 맙시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기저기 떠돌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대하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53]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시험으로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버텨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누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CO 192 얼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코와 눈과 입이 있는 사람의 얼굴과 닮은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이나 저것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을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일들이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고 그분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모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무지 속에 두실 때, 그것은 마치 그분이 얼굴을 숨기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두고 논쟁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좋게 여기는

53. 원문은 "qu' il ce nous faille vagueur"입니다. "qu' il ne nous faille vaguer"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과 다르게 일을 하시면 날뛰고 언짢아하며, 그분을 자기 마음대로 맞추려 할 때, 그렇습니다, 마치 그분이 숨으실 때 그분이 싫어하시더라도 그분을 바라보려 하고 그분을 자기에게 끌어당기려 하는 것처럼 할 때, 그것은 사람들의 마귀적인 주제넘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러면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론 이 가르침은 더 길게 풀 만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이 끊긴 채 남지 않도록) 이것을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대로 그분의 일을 생각하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새기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상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에는 그런 비밀을 경배하고,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이 늘 의로우시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더 온전히 드러내실 때까지 아주 잠잠히 머물러 참으며 기다리면서 늘 이 결론에 머뭅시다. 이 생명 동안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4편

욥기 34장 설교 6

CO 35:193–20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셨을 때 누가 그분을 볼 수 있겠느냐? 그분은 민족들 위에, 또 함께 사람들 위에 계신다. 위선자가 다스리고 백성에게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용서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네가 내게 가르쳐 다오. 내가 악하게 행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욥 34:29–32)

CO 193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셔서 보이지 않으시는지 일부 풀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뒤죽박죽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에서 우리가 이치도 출구도 보지 못할 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잘 정돈된 질서를 볼 때에는, 마치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우리 위에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형편이 너무 어지러워서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봅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낮추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지자에게서 말하듯, 역경의 때에 지혜로운 자는 입을 땅에 대고 아주 잠잠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극한까지 다루려 하실 때 대들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씀이 향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정신이 너무 둔하고 거칠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물러나실 때 특히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을 보고, 절제와 삼감으로 우리를 권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그것이 한 백성에게나 한 사람에게나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그렇게 뒤섞으셔서 우리가 거기서 더는 이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하려 해도 어느 끝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뜻을 더 잘 나타내려고 "위선자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하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흐름이 그 뜻이 무엇인지 넉넉히 보여 줍니다. "악한 자, 또는 가증한 자가 다스리고, 백성에게 걸림돌, 또는 쳐 놓은 그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낱말은 둘 다를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악인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고, 폭정밖에 없으며, 더는 공평도 올곧음도 없을 때 그것이 우리를 어지럽히는 까닭입니다. 그때 우리는 넋이 나간 것처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엄청난 일들이 저질러지고, CO 194 사방에서 사람들이 때리고 빼앗거나, 그물이 쳐져서 불쌍한 사람들이 빠져나갈 데가 없다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물러나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헤아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더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고, 우리는 어둠밖에 보지 못하며, 우리를 인도해야 할 빛이 더는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지럽히는 악에 처방하실 때를 참으며 기다리는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멀리 캐묻지 않는 것을 늘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까닭 없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하고, 심지어 우리 죄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을

호기심으로 논쟁하려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곤두박질치게 할 뿐인 오만입니다. 그러니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불쌍한 소경처럼 이끄시려 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지혜로운 체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악한 자가 다스린다고 말하는 이 말씀에 관해서는 이것을 새깁시다. 고삐 풀린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온갖 악에 빠진 자들이 다스리는 것을 볼 때, 더는 법이 없어서 피난처를 얻으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은 혹독한 시험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물론 크고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무장하도록 여기서 그것을 우리 앞에 놓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의가 유행합니까? 악인들이 모든 것을 뒤섞을 만큼 대담하고, 일들이 그런 부패 속에 다루어져서 더는 처방이 없습니까?[54]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당신의 얼굴을 숨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밝혀 주실 때를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어지러움을 두신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내가 용서했다,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덧붙입니다.[55]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 뜻대로 이끄시려고 고삐를 손에 쥐고 계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CO 195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아무 말대꾸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완전히 아끼려 하신다면 누가 거기에 맞서겠습니까? 누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처음 보기에 사람의 감각에는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기 때

54. 원문은 "qu' ils confessent tout"입니다. 문맥에 따라 "confondent tout"(모든 것을 뒤섞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55. 원문은 "(l' est à Dieu de dire"입니다. "C' est à Dieu de dire"로 보고 옮겼습니다.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시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을 용서하십니까? 완전히 고삐 풀린 것이 보이는 악인을 왜 참아 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캐묻도록 우리 정신에서 재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분의 뜻에 맡겨 드리는 것 말고 무슨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그분을 규제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 높은 일들을 깨달을 만큼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려 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타고난 이성과 조금도 맞지 않는 일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징계하시는 그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할 때, 말한 것을 간직합시다. 곧 가장 의로운 사람도 자기가 당하는 것보다 갑절로, 그렇습니다, 백 배로 죄 있는 자로 드러나리라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소연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분이 그것을 우리 공로 때문이나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이것은 잘 새겨야 합니다. 내가 이미 다룬 것, 곧 사람들의 공상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거짓되고 악한 가르침들을 들여온 까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황주의자들은 이 오류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서 어떤 좋은 움직임을 보실 때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죄 사함을 말할 때 늘 사람이 자기 쪽에서 자기를 준비시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은 값어치는 아니라 해도, 그래도 어떤 협력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좋은 준비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돌아보셔서 그를 도우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런 헛소리를 내놓게 한 까닭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기서 그분께 주어진

그런 자유, 곧 누구를 무죄 선고하실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께 속한다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이 이 마귀적인 상상을 지어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좋은 동기로 준비되어 있고 회개하려고 마음먹은 자들을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여질 만한 자격이 있을 만큼 공로를 가지지는 않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CO 196 그들 안에서 찾으시는 좋은 준비 상태 때문에 그들을 자비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담긴 이 가르침을 간직합시다. 곧 사람들이 모두 같고, 멸망이 모두에게 공통되며 그들이 모두 거기에 휩싸여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은 그가 이미 있던 파멸 속에 내버려 두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논쟁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낮추도록 그것을 간직하고, 거룩한 성경이 말하지 않는 수단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지어내지 맙시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성령으로 그를 찌르지 않으셨다면, 누가 사람에게 자기 악덕을 언짢아하는 그런 움직임을 줍니까? 우리는 본성으로 악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미 저질렀으면 더 멀리 나아가도록 아직 거기에 기울어 있으며, 위선이 우리 눈을 멀게 해서 거기서 우리에게 아첨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인이 자기 악덕을 언짢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찌르셨다는 표입니다. 물론 가인과 유다도 자기 범죄를 느끼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언짢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이를 갈았고 악 속에서 완고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자기 안에 어떤 통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도록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은 이미 성령의 표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굽히기 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짢아하며 그분께 가까이 갈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그분 자비의

좋은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받을 만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여기서 사람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돌려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짓되게 하고 꾸몄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그만큼 더 잘 새기고 자주 기억에 되살려야 합니다. 곧 사람들이 파멸로 뛰어들고, 죄의 종노릇에 붙잡혀 있으며, 사탄이 그들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한다" 하고 말씀하실 이 권위를 가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입니까? 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여기에도 저기에도 매어 두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당신의 뜻을 쓰시고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처리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실 때 다른 사람은 그의 멸망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서(출 33:19)도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롬 9:15)은 이 증언을 다른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내세웁니다. "나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캐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그런 모든 질문의 싹을 자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용서하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자비를 베푸실 때 CO 197 왜 그것을 베푸시는지, 누구에게 베푸시는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준비되어 있었는지, 어떤 공로나 어떤 좋은 움직임이나 다른 어떤 수단이 있었는지 묻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단순히 만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떤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모두에게 베푸시지는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의에도 어떤 빛을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매여 계시거나 빚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차이는 그분이 우리를 죽음 자체에서 건지신다면 그것을 값없이 하실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그분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멸망하고 정죄받았으리라는 것을 그만큼 더 잘 보여 줍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그분의 순전한 은혜를 알며, 우리 구원이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기를 기뻐하시는 데에만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더 부추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것입니다. 곧 반대로 그분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버려두시고, 모두에게 같은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며, 어떤 이들을 뒤에 남겨 두셔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분이 그렇게 용서하셨을 때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또 좋은 가르침을 가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아끼신다면 그분은 당신이 그들과 화목하셨고 그들을 당신과 화평하게 하셨다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깨우쳐지고 잘 상기되어도, 그래도 그들이 한동안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리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분은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소와 돼지를 잡으려고 살찌우듯 악인들을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가 평생 살찌워진 적이 없어도 잡으려 할 때에는 훨씬 더 잘 먹이는 것을 봅니다. 돼지를 베이컨으로 만들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렘 12:3; 51:40)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유기된 자들의 처지가, 그들이 첫 번에 벌받지 않는다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 할 때 이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보았듯이, 오래도록 남겨 두어지는 자들은 더 싸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쁘고 자기 머리 위에 저주를 더 크게 쌓은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더 큰 엄격함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악인들을 첫날 벌하지 않으실 때, 오, 그래도 그분은 그들을 거기 당신의 진노와 보응 아래 붙들어 두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완전히 무죄 선고하시고 CO 198 더는 그들을 벌하려 하지 않으실 때, 그것은 왜입니까? 그분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가르침이 아주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56]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는 너무 육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느끼게 하지만 않으시면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노하시고 우리를 내던지시며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병자가 몸 안에서 썩은 것 같아도 아픔만 느끼지 않으면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열병이 있어도 목마름이나 머리와 허리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병은 속에서 자라서 죽을병이 됩니다. 반대로 목마름이 그를 괴롭힌다면, 주된 병인 열병에 처방하도록 얼마 동안 그것을 견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 감각적이어서, 이 증상에 있는 아픔과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만 없어지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스름을 당하셔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우리 멍청함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위에 죄를 더하고 늘 완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을 그만큼 더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병과 가난과 이것저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만 구하지 맙시다. 오히려 무엇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악에서 건짐을

56. 원문은 “coste doctrine ostoit tort utile“입니다. “ceste doctrine estoit fort utile“로 보고 옮겼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더 잘 깨달으려면, 우리가 번영 속에 있다 해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시라면 악은 늘 우리에게 남고 선은 우리에게 악으로 바뀌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씁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모든 선이 우리에게 더 큰 정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이 우리 범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는,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고난이 그분 앞에서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28절)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57]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우리가 늘 그분의 저주 아래 갇혀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꼭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악과 역경만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깥의 고난에서 시작해서 CO 199 "그분이 더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시도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고 말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분을 불붙여 우리를 거스르시게 하고 그분을 거스르는 것이 우리 안에 더는 하나도 없도록 우리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와 바로잡음은 우리를 찌르는 박차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너무 굼뜬 것을 보시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좋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손만 거두시면 나는 만족한다" 하고 말할 만큼 그렇게 낮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아주 조금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징계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

57. 원문에는 "v. 27"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을 알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매를 거듭하시고 우리를 훨씬 더 거칠게 치시는 까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좋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가장 잘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스른 뒤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건짐을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에 악을 없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불쌍한 피조물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허물을 살피고, "아아, 나는 내 하나님과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이 이치에까지 이를 정신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는 짓눌리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것 같고, 몽둥이 한 대를 피한 개처럼 귀를 털어 버릴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가야 할 데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는 바깥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징계하려 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가볍게 넘어가는지 봅니다. 그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겠지만 그것은 곧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움이 속에서 고여 있는 것을 보실 때, 사람이 자기 악을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몰아붙이셔서, 그분이 그것을 철저히 씻어 내지 않으시면 악이 커지기만 하리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우리는 더 나빠지기만 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께 건강을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우리 육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주시기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허물을 지우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더는 언짢아하실 거리가 없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과 다른 거룩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맞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주님,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CO 200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더는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은 고난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이 하나님 진노의 열매요 증거일 뿐이라는 것을 잘 보았고, 악의 근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뒤에는 벌하지 않으시리라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경고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못 본 체하시고 우리 죄에 눈을 감으신 것 같으며, 심지어 우리가 마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신 것처럼 번성한다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때 우리 멸망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 소돔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의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과 세상을 무시하기까지 했을 때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너무 취해서 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구실로 자기에게 더 큰 자유를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듯 그들은 거기서 자기 찌끼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참아 주실 때 그들이 거기서 자기 찌끼 위에 눌어붙어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자기 악덕에 절여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할 나위 없이 거기에 흠뻑 젖었을 때에는, 성경이 말하듯 더는 처방도 없고 더는 슬퍼함도 없습니다. 이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 진노의 장작을 쌓는다면, 첫 번에 불이 붙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네가 내게 가르쳐 다오. 내가 불의하게 행했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고 덧붙입니다. 이것들은 조롱하듯 덧붙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잘못했을 때 꾸짖음 받고 바로잡힘 받겠다고 나서시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들이 꽤 끊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풀이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을 그런 자유와 그런 통치권 안에서 높여서, 죽을 사람들이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고 아무도 투덜대지 않아야 하며, 그분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실 특권을 가지시되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이치에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그 이유를 보여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권위를 당신께 남겨 두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욥이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했고 자기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지 잘못 알아들었으므로 욥의 오만을 조롱합니다. 욥이 요컨대 하나님 안에, 사람들의 공상으로 CO 201 재서는 안 되는 감추어진 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거슬러 언짢아하도록 자기 격정에 흔들렸고, 때로 끓어오름이 터져 나왔으며, 그가 정신없이 말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롱으로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셈하러 나오셔서 네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것을 본다. '좋다, 내가 잘못했다면 네가 나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고,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하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밖에 이것은 욥에게보다 온 세상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그런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는 우리 정신에 어떤 멍청함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듯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품으면 그들을 거기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을 단순하게 말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에게 보여 주면 우리는 늘 말대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

께서 그들의 허물을 차분하고 엄숙하게, 그들이 단순히 이치로 이끌릴 만한 말투로 선언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집스러운 것을 보실 때 그들을 조롱하시고, 바르게 말해 줄 가치도 없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부끄러움 속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좋은 방법으로 그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결국 그가 완전히 가망이 없고 심지어 고삐를 풀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좋은 분별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의 어리석음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너무 큰 거만함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면 위협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당신이 잘못했다면 너희가 꾸짖을 때 고치겠다고 말씀하셔야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지고 들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알듯이 사람은 자기 안에 많은 하소연을 가질 것이고, 일들이 자기 바람대로 가지 않으면 언짢아할 것이며,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삐를 돌리셔서 지금 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하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대담할 때 (묻건대) 그런 오만을 가진 우리가 조롱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 말고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질 때 그는 참으로 미친 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망설이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말이 그렇게 조롱으로 놓일 때, 그때 CO 202 보통의 가르침 말투로 말할 때보다 우리가 더 잘 확신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잘못했다면 나를 꾸짖어라, 내 과제를 내게 보여 다오'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래로 오셔서 당신의 허물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바로잡음에 당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가증한 괴물이라는 것, 그것을 말할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미 말했듯이) 분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한 것에 복종시키려 할 때, 그것은 마치 그들이 그분에게서 그분의 통치권을 빼앗고, 마치 그분이 어린아이이신 것처럼 그들이 그분께 법을 지우기를 기뻐하는 대로 그분을 복종시키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들을 수 없고 몸서리치는 것을 에둘러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마귀적인 대담함을 무안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좋은 방법을 쓰셨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보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용서를 구하시고, 너희에게 가르침 받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며, 너희가 그분께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깨우쳐 드리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이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부리를 쳐들고 그분이 우리 입맛대로 하지 않으실 때 원망하는 것이 참으로 마귀 들린 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담긴 말들을 그만큼 더 잘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너무 캐묻거나 그분께 법을 지우려고 우리 생각이 간지러울 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어떤 미로로 들어가는지 압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위엄을 벗기고 그분을 이 세상으로 끌어내려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아, 그것은 그분을 너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앞에 떠오를 때,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기억에 되살립시다. "어쨌든 네가 그렇게 원망한다면 너는 네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는 것이다. 보라,

성령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 선고하셨고, 네가 어떤 혼란에 너를 빠뜨리는지 네게 보여 주신다. 그것은 마치 네가 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려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대담함만 있다 해도 너는 지옥 깊은 곳에 빠져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위엄을 흐리게 하려는, 그렇다, 없애려는 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겠느냐? 불쌍한 땅벌레, 비참한 피조물, 불쌍한 썩은 고기야, 너는 악취의 구렁이다. 네가 그렇게 네 창조주를 거슬러 대들어야 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가질 때, 그것을 없애도록, 그렇습니다, 완전히 묻어 버리도록 힘씁시다. CO 203 그리고 그 모든 공상에 문을 닫읍시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무지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을 가지지 맙시다. 그리고 이 말만 가집시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해도, 주께서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께 밝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동안 우리를 무지 속에 두려 하실 때 그분의 뜻에 단순히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알아차리지 못하신 것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우리는 하루 만에 태어난 달팽이 같아서 곧 뿔을 세웁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일 뿐입니다. 달팽이가 어떻게 생기고,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달팽이 같고 곧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뿔을 세워야 할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우리 힘과 기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몇 년이나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순이나 여든 해 있을 뿐입니다. 가장 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깨달음이 어떤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언제부터인지 살펴봅시다. 영원부터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혜가 자라지도 않으셨

고 조금도 줄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감각에 고삐를 풀고 "일이 이래야 할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넘치도록 미친 자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넉넉히 지혜롭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뒤엎고 썩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죽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숙고하지 않고 아무 의논 없이는 좋고 유익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많은 생각을 이리저리 하셔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늘 그분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 안에 아무 깨달음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을 허둥지둥 다닐 뿐이며, 우리 삶이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 가르침 받는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쌍한 소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이성과 깨달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이끌 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하나님께 그분이 하셔야 할 것을 경고해 드릴 줄 알게 하려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핑계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이성은 우리를 확신시키고 정죄받게 하는 데에만 넉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거룩한 성경은 우리가 CO 204 불쌍한 소경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심지어 우리는 경험으로도 그것을 넉넉히 경고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먼저 우리 무지가 어떠한지 알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모자람을 알았으니, 거기에 처방하시는 것이 그분께 속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에게 깨달음이 모자랍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듯[약 1:5]) 그 샘이신 분, 꾸짖지 않고 주시는 분께 그것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색하게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너무 졸라 대는 것에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데 결코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가 비어 있을 때 그분께 우리를 내드리기를 배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을 만큼 그것을 넉넉히 베푸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룬 이 가르침은 넘치도록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생각해 두지 않으신 것처럼 너무 지혜로우려 한 것 말고, 무엇이 그리스도교 세계에 그토록 많은 부패를 들여와서 좋은 가르침이 비틀리고 변질되게 한 까닭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낸 것을 내놓으며 "이것은 좋을 것이다. 저것도 해야 한다. 이런 일에 처방해야 한다" 하고 말하려고 주제넘게 굴 때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입니까? 그들의 공상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그것을 앞질러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좋고 거룩한 것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두 물 사이에서 헤엄치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생각하지 않으셨고 자기가 그분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 모욕을 하나님께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칠고 알아듣기 쉬운 일의 본보기 하나만 들어도 그것을 그만큼 더 잘 알 것입니다. 곧 교황이 하나님께서 이어 붙이신 것을 나누려 했을 때, 곧 그가 성찬에서 백성에게서 잔을 빼앗고, 사람들이 한 가지 요소, 곧 제병으로만 만족해야 하고 잔은 미사를 드리는 사제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가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오, 많은 불편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모든 불편은 포도주가 더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었다고 믿게 하는 짐승 같은 미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황이 내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 잔을 온 백성에게 내놓으면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제가 온 회중의 이름으로 마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요컨대 그것은 마치 그가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우리는 그분이 CO 205 보지 못하신 것을 보니,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을 없애려 하면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그분은 “너희가 다 마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황이 와서 이 말을 잘라 낼 것입니다. “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정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 데는 좋은 이유가 없지 않다. 그것은 불편에 대비하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그렇게 미리 내다보았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제정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무한한 의와 지혜로 짜여 있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아무 분수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고삐를 푸는지 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길을 따릅시다. 그분이 한 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것으로 잠잠히 다스림을 받는 것을 견딜 때, 헤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5편

욥기 34장 설교 7

CO 35:206–21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를 따라 이루시겠느냐? 네가 그것을 물리쳤으니 말이다. 그러면 네가 고르겠느냐, 내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아느냐? 말해 보라. 마음 있는 사람들아, 말하라. 지혜로운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 욥은 지혜로 말하지 않았고, 그의 말은 깨달음 속에 있지 않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바란다. 악한 사람들을 위한 대답들이 드러나도록 말이다. 그는 죄악으로 자기 죄를 더하고, 우리 가운데서 흥겨워하며, 하나님을 향해 자기 말을 늘어놓을 것이다. (욥 34:33–37)

CO 206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시려고 의논을 들으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이 깨우쳐 드리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셨고 잘못하셨다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오만을 조롱하시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고 번번이 그분을 감독하려 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거칠게 다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언하러 와서 “그분이 그 일을 너를 따라 이루시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그는 사람들의 오만이 얼마나 우스운지 더 잘 알게 하려고 말하자면 장난을 쳤듯이, 반대로 이제 그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큰 주인을 상대로 장난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대꾸해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우리 입맛에 매이셔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알려고 의논을 구하러 오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의 모든 질서를 뒤엎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께서 사람들이 이치와 엄숙함으로 그들에게 말해 줄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신 뒤에, 이제 그들을 매섭게 찌르시는 것을 봅니다.[58]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법이나 규칙도 지우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눈앞에 두시면서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그 일을 너를 따라 이루시겠느냐?"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시고 그들의 기쁨에 당신을 복종시키시는 것을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말씀드린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들을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권능을 내세울 때 그분의 의를 충분히 변호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밝힌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서 높여지실 때 그분은 거기서 절대 권능으로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재판관이시고, 그분께 공평과 올곧음보다 더 고유한 것은 없어서 그분이 당신의 본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에서 벗겨지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반대되는 것들의 견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이 다툼 없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죄악이 어떠한지, 죽을 사람이요 땅벌레가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거슬러

58. 원문은 "qu' on parle à ceux on raison"입니다. "à eux en raison"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대들고 그분 위에 주인 노릇을 빼앗으려 할 그런 대담함을 자기에게 돌릴 것인지 잘 알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고 그분에게서 나온 것을 좋게 여길 수 없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CO 207 그러니 성령께서 여기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로 되돌리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할 만큼 대담해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59]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영화롭게 하도록 겸손하고 절제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 본성이 어떠한지 잘 살핍시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를 짧은 고삐 속에 붙들어서 아무것도 주제넘게 굴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네가 물리쳤으니 네가 고르겠느냐, 내가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다시,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거슬러 변론할 때 그들의 거만함을 하소연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마치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만두셔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 자기 자유인 것처럼 선택과 고름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모독을 몸서리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집행하시지 못하게 막으려 하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마다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 꾀한다는 것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교만이고 너무 더러운 모독입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에 트집을 잡으려고 부리를 날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를 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는 데 큰 수사학자가 되려고

59. 원문은 "que la ils sont"입니다. 문맥에 따라 "qui ils sont"(자기가 누구인지)로 보고 옮겼습니다.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하시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잠잠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한다" 하고 말하려고 모든 것의 선택권을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 종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디서나 다스리는 너무나 엄청난 악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거나 바로잡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다투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쌍한 피조물들아, 너희는 무엇을 바라느냐? 날마다 원망밖에 들리지 않는다. 보라, 너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명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너희를 괴롭힐 때 입을 다물고 너희를 낮추는 것이었다. 너희가 그렇게 하기는커녕, 나를 거슬러 높아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매여야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해야 할 무슨 권리를 너희가 내세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치도록 멍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이 두꺼비처럼 부풀어 있다 해도 그 모든 더러움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CO 208 바위처럼 단단하다 해도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너희가 물리치느냐?" 하고 덧붙이실 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고발하러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물리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의를 거슬러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올곧음의 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내던지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그분 위에 지극히 높은 통치권을 가지려 하고, 그분이 더는 자유롭지 않으시며 우리가 좋게 여긴 것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네가 고르겠느냐, 내가 아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억지로가 아니면 자기를 정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결론으로 "네가 무엇을 아느냐? 말해 보라" 하고 덧붙이십니다. 마치 그분이 우리의 무지를 꾸짖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재빠른 혀를 가질 것이지만, 그 혀는 우리가 그 일을 깨닫기도 전에 앞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치가 한 방울만 있어도 우리가 벙어리 같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의 어리석음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내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도록 날이 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말하는지 잘 아는지 알아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무지밖에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말은 그토록 많고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 혀는 더할 나위 없이 재빠르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 감각은 완전히 멍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슨 무모함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결론이 얼마나 무거운지 봅니다. "네가 무엇을 아느냐? 말해 보라."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할 허락을 준다. 그렇다, 너희가 지혜롭고 깨달음 있는 자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기만 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리석고 너희 안에는 무지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아무 거리도 없으면서 이제 그런 말할 방종을 빼앗아야 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삶의 규칙이 무엇인지 봅니다. 곧 하나님께 그분께 마땅한 권위를 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처리하시게 하는 것, 곧 그분이 그 일을 우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법을 지우고 그분께 그분의 과제를 보여 드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하실 모든 것에 뜻을 맞춥시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 교회의 구원, 또는 우리 개인의 유익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 마음과 염려를 내려놓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소원을 그분께 알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빌 4:6). 그러니 CO 209 우리가 어떤 불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그분이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실 때에도, 사도 바울의 이 구절에서 말하듯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소원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시도록 억지로 매려 할 만큼 그렇게 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물리치시고 그 일에서 우리 인내를 훈련하려 하실 때에도 늘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의와 올곧음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했고 우리는 불쌍한 소경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셔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실천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첫째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일들을 우리를 따라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멀리 미칩니다. 곧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감각에 이상한 무언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하시도록 우리 이성에 그렇게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의 뜻이 다스리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분이 의논을 구하셔야 할 상대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원의 천사들도 땅의 사람들도 자기를 낮추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위에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실 모든 것을 그분께 그것을 하실 권한이 있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자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다

른 한편으로 우리는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하고 언짢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을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의의 유일한 규칙을 물리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악에 빠진다면, 좋습니다, 그것은 연약함 때문일 것이고, 그렇다고 그것이 핑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어기고 모든 질서를 깨뜨리고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가 꺼지기를 바라고, 빛이 어둠으로 바뀌기를 바라며, 더는 선과 악의 분별이 없기를 바랄 만큼 그런 죄의 꼭대기에 이를 때,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참으며 견디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을 때마다, 그들은 그 일에서 마치 그분 위에 그분을 판단할 권위를 빼앗으려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의를 정죄하려는 것처럼 그분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짐승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짢아지고 참지 못하도록 재촉을 받을 때 이 구절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어떤 미로로 들어가느냐? 여기서는 단순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CO 210 하나님을 거슬러 뿔을 세우는 것이다. 네가 그분의 올곧음을 지울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덤비느냐?" 그러니 우리 육신이 너무 간지러워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게 할 때, 이것이 우리를 붙잡는 빗장 같게 합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또 이 말을 덧붙입시다. 곧 우리가 고르려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고를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대담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하고 말할 자유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리실 주권을 가지시는 것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불이 물과 어울리듯 하나님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봅니다. 우리 감각은 반 손가락만큼도

뻗지 못하고, 우리는 눈을 뜨려 할 때 눈이 부시며, 대개 좋은 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우리 욕구와 우리의 모든 애정과 생각이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한한 지혜이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 우리가 매여야 할 당신의 공평을 가지신 분과 우리가 어떻게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반대가 있으니, 우리가 선택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셔야 하고, 거기 매인 것처럼 계셔야 하며, 우리 욕구가 그분께 "너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슬이나 밧줄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고난이나 다른 일에서 분해하도록 부추김을 받을 때, 세상의 형편이 뒤죽박죽이고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오지 않을 때, 이렇게 압시다. "보라, 물론 나는 그것을 바랄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복종 가운데라면 그분께 그것을 구하도록 허락하신다. 그러나 너는 그 간구를 했느냐? 일들이 네 마음대로 오지 않을 때 너는 잠잠히 있어야 한다. 심지어 네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를 무안하게 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너는 거기에 너를 맞추어야 하고 여기서 짐승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냐?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너희가 선택권을 가지고 나는 더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겠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새깁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본질을 벗기고 그분을 낮추어 우리가 그분 위의 주인이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일들이 우리 바람대로 오지 않자마자 날뛸 때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발아래 두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경솔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일들을 달아 보고 이 생각에 들어가서, 지금처럼 더는 반역하지 맙시다.

그런데 끝으로 "네가 무엇을 아느냐? 말해 보라" 하고 말하는 이 말도 잘 새깁시다. (이미 다루었듯이)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꾸짖으려 할 때 "너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 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CO 211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모든 지식을 잘 뜯어보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높게 깊게 캐물어 보면, 우리를 헤매게 하는 헛소리밖에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는 늘 재잘거리려 할 것입니다. 나는 자기 고유한 감각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할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지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그분 말씀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말이 있고, 심지어 그것은 그분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이 좋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른다고 우리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서서 끼어들어 자기 머리로 상상한 것을 말할 때,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네 모든 힘과 네 정신의 모든 깨달음을 잘 뜯어보라. 그러면 순전한 어리석음밖에 없다는 것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데 혀가 너무 재빠를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간직합시다. "네가 무엇을 아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의 모든 감각을 정죄하려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거룩한 성경의 다른 곳들에서처럼 말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시고 그들의 모든 비밀을 살피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그들의 꾀 속에서 붙잡으시고,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날카롭고 교묘하다고 아무리 믿어도 연기밖에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에게 무슨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보여 보라. 그러나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왜 말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가집니다. 곧

우리가 우리 정신을 믿도록 그것에 아무것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이 흥겨워하고 우리가 일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말하겠다고 주제넘게 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상대편으로서 그것에 맞서시고 우리 안에 어리석은 무모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어둠 속에 비친다는 것을 우리 안에 새기시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가 이것입니다. 시편(119:98 이하)에서 말하듯 우리 지혜는 그분 아래에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모든 이성을 믿지 말아야 하고, CO 212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분별이 비어 있고 우리 안에는 아무 절제도 바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말할 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가 입 밖에 내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았으며 우리 공상대로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시다. 그 모든 것이 잘 실천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과는 다른 질서를 볼 것입니다. 모든 올곧음을 비트는 것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지혜로우려 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 격정과 탐욕에 고삐를 풀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곧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말하려 할 때 그것은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리라는 것을 잘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확신했다면, 하나님께서 높여지시고 저마다 그분의 말씀에 머물며 공통된 뜻 맞음이 있고, 이것저것에 대해 그토록 많은 논쟁이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왜 교황주의자들이 우리와 다

른 모든 조항을 그토록 따집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기 때문만이 아니라, 늘 끼어들어 자기의 권위 있는 결론을 내리고 결정하며 자기가 정한 것에 양심을 묶는 이 대담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순전한 단순함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의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합의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순전한 가르침을 더럽히려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공상가들에 관해서는, (묻건대) 그것이 거룩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잠잠히 받을 수 없는 이 마귀적인 교만 말고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과 그분의 섭리와 그와 비슷한 것들을 없애려 하는 이 미친 자들에게 그들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 짐승들아, 사람이 가장 날카롭고 가장 학식 있으며 모든 교묘함과 모든 학문의 본보기라 해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트집을 잡기에는 불쌍한 땅벌레일 뿐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기 오만으로 터질 듯하고 악취 나는 독밖에 없는 순전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을 구실로 거룩한 성경 전체를 뒤엎겠다고 주제넘게 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내가 말했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높여지시도록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한다는 이 조항이 지켜지게 합시다. 이 가르침이 실천된다면, 오, 잠잠한 순종이 보일 것이 확실하고, CO 213 하나님의 순전한 진리가 우리에게 내놓일 때마다 모두에게 공통된 아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악이 있습니다. 곧 우리 격정이 터무니없고, 우리가 그것에게 날뛸 허락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일들이 우리 입맛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날뛰고 저마다 들뜹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말할 방종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분의 의가 우리 공상에 공평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의를 헐뜯을 계기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번번이 봅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이 구절이 잘 실천된다면 이 세상에서 천사 같은 질서가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성을 따르지 말고, 우리 공상대로 일을 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애정이 우리를 쓴맛 속으로 들뜨게 하고 우리가 언짢고 괴로울 때, 그 모든 것을 물리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 모든 우위를 가지시며,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좋고 의롭다고 고백하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서 영화롭게 되시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사람들을 찾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자기를 맞추어 그것을 좋고 의롭다고 알 수 없으므로 가망 없고 고칠 수 없는 자들 같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들을 본보기로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아아,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주지 않으신다면 너도 그러할 것이다. 절제가 그분의 성령 말고 어디서 오겠느냐? 그리고 너는 여기서 우리 저마다의 본성이 어떠한지 본다” 하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우리가 그렇게 높아지고 하나님을 거슬러 고삐를 푸는 이 경박한 정신들을 볼 때 저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리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내게 보내시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도록 온유한 자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모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마음 있는 사람들, 곧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말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처음 보기에 서로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라“와 “들으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하고 깨달음 있는 CO 214 사람들은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잘 말하지 못할 것이고, 기꺼이 좋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결코 가르치기에 알맞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후가 여기서 결코 떼어 놓아서는 안 되는 두 가지를 이어 붙인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한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말할 수 있되, 미리 가르침을 받고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116:10)은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가르침 받는 것을 견디지 않았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들으면서 늘 더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 말씀(잠 1:5)은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을 막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보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막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승이신 것이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고, 저마다 자기 이웃을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것을 값지게 쓰게 하시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는 내 이웃이 잘못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깨우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아주 잘 어울리고, 더욱이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질서 속에 잘 배치되고 헤아려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엘리후는 거기서 말하는 자들이 이미 배웠고 자기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가 둘째로 “그들이 들으라“고 놓는 것은, 우리가 말하되,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보다 더 많이 드러내셨을 때 우리가 듣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언에서 이 질서를 두듯이 말입니다(고전 14:29). 그는 “선지자인 사람은 말하되, 혼란을 피하도록 둘이나 셋만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을 선지자라고 부를 때, 그는 그들에게 그만한 거리가 있어야 하고 아무도 부름받지 않으면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2장(7절)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부름받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거리가 없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자기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나누어 주실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쓰려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말하는 자들이 이미 그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깨우쳐 주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드러내셨을 때에는 먼저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의 영께 자리를 내어 드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며 CO 215 그들에게 그만한 거리가 있다 해도, 그런데도 그들이 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더 잘 깨우쳐 줄 때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늘 모든 깨달음의 샘이신 성령께 자기를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아주 넉넉한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분량대로가 아니면 그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너무 높아질 계기를 가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저마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두시는 사랑의 끈이고, 우리는 형제다운 나눔으로 서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이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께 반역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셨다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가 여기서 욥을 꾸짖으려 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치 그가 자기가 잘못 배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이 큰 가르침을 가졌다 해도, 그래도 그는 자기 격정에 너무 들떠서 멍해진 것 같았고 그의 말은 헤매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는 좋은 권고를 거두어야 합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베푸신 욥이 여기서 분별을 잃은 사람으로 정죄받는다면, 그런데도 그가 자기 격정에서 지나쳤다고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가 그것을 누르려 애썼는데도 자기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주었고 그가 짐승처럼 자기 말에서 헤맨 것이 보인다면, 말하건대 일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 정죄를 앞질러 막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너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했으며 그분을 거슬러 논쟁과 소송에 들어가려 했을 때마다, 결국 성령께 꾸짖음 받는 것을 견딥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 견주면 천사였던 욥이 아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격하고 터무니없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않을 수 없는 일에서도 우리가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정신이 너무 거만해서 하늘과 땅을 규제하려 하고 말하자면 낙원의 형편을 고치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대담하니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욥보다 백 배나 더 꾸짖음 받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격정이 너무 지나친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를 크게 탄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또,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온갖 겸손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깨우쳐 주는 것을 견디지 않으면 결코 가르치기에 CO 216 알맞지 않으리라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구절로 우리를 고삐 속에 붙들려 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그것을 자기 가르침에 적용해야 합니다. 깨달음 있는 사람들이 말한 뒤에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말하는 것도, 말한 뒤에 듣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말할 판을 쥐고, 말재간을 부리며,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혜도 분별도 판단도 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탐식으로 멍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아직 지난밤의 술도 깨지 않은 술주정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곧 다시 술집에 들어가서 온종일 짐승같이 되고, 밤에는 갑절의 짐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판을 쥘 것이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잠잠하고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뻔뻔하게입니다. 가장 낯 두꺼운 자들이 이기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있는 자들은, 오,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들을 끌어들일 일이 없습니다.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판을 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악의 꼭대기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신을 가지고, 그들 안에 차분하고 침착한 정신이 있으며, 심지어 많은 지혜가 있다 해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늘 짐승같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 순전한 짐승들, 술주정뱅이와 탐식가들, 아무 바름도 부끄러움도 없는 방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말했듯이) 그런 자들이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입맛대로 말할 것이며, 아무도 감히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듣는 것에 관해서는, 오늘 누가 감히 더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깨우쳐 주겠습니까? 지금 죄가 큰 산 같다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을 용납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말하면, "무엇이냐? 그게 뭐냐?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합니다. 이 불쌍한 짐승들아, 너

희에게 눈이 없다면 너희가 그토록 정죄받을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넉넉히 확신하고 있고, 이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요컨대 설교도 경고도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너희 속을 갉아먹는 이 가책만 있어도 너희는 악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는다. 그러니 그것은 지혜로운 자들은 말하고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멉니다. 어리석은 자들, 정신 나간 자들, CO 217 미친 자들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지울 판을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권위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에게는 듣거나 꾸짖음을 받을 귀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덕을 깨우쳐 주면 그들은 아무 깨우침도 견디지 못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거슬러 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려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단단한 벽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부딪치는 자들은 그것이 자기 부끄러움과 파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일들이 얼마나 뒤죽박죽인지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배웁시다. 곧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얻고, 그것이 들리며, 우리가 모두 그것을 받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잡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 우리 위에 주권을 가지셔야 할 분께 경의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기에게 고삐를 너무 풀었다고, 자기 격정을 죽이지 않았고 그것을 충분히 사로잡아 두지 않았다고 정죄받았다면, 아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다스린 비참함을 보며 부끄러워합시다. (묻건대) 우리가 복음의 개혁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대드는 것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악이 온전히 판을 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누르기는커녕 그것은 북

치고 나팔 불며 옹호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악덕을 깨우쳐 주려고 말을 꺼내면, 오, 보십시오, 늘 어린양이 물을 흐려 놓은 것이 될 것입니다.[60]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섞여 들어온 이 악취 나는 숫염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두신 모든 거룩함을 흐리고 더럽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마치 어린양들이 악의 원인인 것처럼 어린양들을 고발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를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악을 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은지 조심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온갖 절제로 우리를 당신께 맞추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느낄 때, 가르침 받는 것을 견딥시다. 그리고 악이 다스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용감하게 그것에 맞섭시다. 악이 판을 치고 마귀가 그렇게 자기 앞잡이들을 들뜨게 할 때 못 본 체하거나 자기 눈앞에 휘장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치 그가 악을 옹호한 것처럼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경의를 드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모든 군주국과 통치권 위에 지극히 높은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60. 이솝 우화 「늑대와 어린양」을 가리킵니다. 늑대가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던 어린양에게 물을 흐렸다고 누명을 씌워 잡아먹는 이야기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을 뜻합니다.

제136편

욥기 35장 설교 1

CO 35:218–22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엘리후가 말을 이어 말했다. 네가 “내 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고 말했을 때 이것을 바르게 생각했느냐? 네가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무슨 열매를 얻겠느냐?”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네 친구들에게 함께 대답하겠다. 하늘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라. 네 위에 있는 높은 공중을 보라. 네가 죄를 지으면 그분을 거슬러 무엇을 하겠느냐? 네 범죄가 많아진다 해도 네가 그분께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네가 의롭다 해도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분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 35:1–7)

CO 218 엘리후는 여기서 줄곧 욥이 하나님의 의를 거슬러 모독했다고 고발하고,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을 넘어서기를 바랐다는 이 조항으로 그를 붙잡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입 밖에 냈다거나 그런 것을 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의를 너무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부당하게 자기를 괴롭히셔야 했던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당하게 대하지 않으시고 분량을 넘어 괴롭히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앞에서 이미 밝힌 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합니다. 욥이 자기 의를 말했을 때, 그것은 다만 자기가 자기 범죄대로 벌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무겁게,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괴롭히신다고 해서 자기를 악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시면서 늘

CO 219 그들의 죄를 벌하시려는 데 눈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려 하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삐를 풀어 주셨을 때 욥에게 일어난 일이 그러합니다. 그것은 욥이 방탕했거나 큰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에게서 트집 잡을 것을 찾지 못했는데도 그를 괴롭힐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괴롭히신 이유는 그분이 그에게 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그의 순종을 시험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자기가 자기 범죄 때문에 벌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까닭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아주 잘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는 정죄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은 그가 자기 격정의 격렬함에 어지러워져서 먼저 분량이 없다고, 너무 지나치다고, 불쌍한 피조물이 그렇게 징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욥은 그 연약함 속에서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 자기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큰 악은 그가 자기 괴로움밖에 생각하지 않아서 때로 믿음이 그 안에서 숨 막힌 것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는 하늘의 생명과, 꿋꿋이 싸운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악에 사로잡혀 있었고 말하자면 어지럽고 완전히 짓눌려 있었으므로 거기까지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모자랄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셨고, 악인들도 그분의 손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 그들이 이 세상에서 흥겨워하고 모든 쾌락을 누린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리리라는 것을 잘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욥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하려 할 때 그는 해내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죄어 있고 너무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며 그는 여기저기 둘러보지만 세 발짝

앞도 눈이 부셔서 보지 못하고, 그의 감각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됩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그가 자기에게 약속된 안식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위로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이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모든 괴로움을 누그러뜨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주님, 그래도 나는 늘 주께서 결국 여기서 자기 고난을 참으며 견딘 자들이 복되리라는 것을 내게 느끼게 하시리라고 바랐습니다.[61] 주님,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결코 그 소망에서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에 대비해 주시고 좋은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이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주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모자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격정이 그를 죄어 붙들었고, (이미 말했듯이) 그의 믿음이 CO 220 거의 숨 막혔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아주 흐리고 어두우면 물론 우리에게 어느 정도 빛은 있겠지만 멀리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짙은 구름이 거의 우리 눈을 찌르는 것처럼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러합니다. 경험이 보여 주듯, 사람이 자기 양심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더는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그에게 어둡습니다. 물론 그는 모든 신자가 가져야 할 이 원리들을 간직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슬픔 가운데서 기뻐하도록 자기를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좋다, 그래도 나는 더 멀리 지나갈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실 것이고, 나는 내가 있는 이 너무 당혹스러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하는 이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붙이시고 그에게 그의 죄를 느끼게 하실 때 그렇게 괴로움에 짓눌린 사람은 놀라서, "좋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무덤에서 건지시겠다고 선

61. 원문은 "si ostee que"입니다. "si est-ce que"로 보고 옮겼습니다.

언하셨다. 그러니 내가 완전히 구렁에 빠진 것 같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은 줄지 않았다" 하고 아는 데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유업이며, 거기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가지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자기 고난 가운데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 고난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거스른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이 가려진 것 같고, 그의 정신은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것에서 그의 모든 악을 누그러뜨릴 만한 맛을 얻도록 기뻐하고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마치 누가 몽둥이로 우리 머리를 친 것처럼 짓눌리는 것을 우리는 번번이 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몸의 고통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돌이 갈라질 만큼 큰 서리가 내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타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앞에 이 현재의 고통밖에 없어서 더는 따뜻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완전히 반대로, 너무 더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얼음으로 가득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오면, 격정이 훨씬 더 지나치니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더 짓누르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도록 바로 하나님께 가서, 우리를 온 세상 위로 들어 올리고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분의 약속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CO 221 그러나 우리는 흔히 첫 번에 그 과녁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를 위해 마련된 안식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디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것처럼 되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우리 구원에 좋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절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를 이끌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올곧게 괴롭히신다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듯(벧전 5:6) 우리가 순종 속에 우리를 맞추도록 어떻게 그분의 강한 손 아래 굽힐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분해하고 이를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욥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고 우리를 그분보다 더 의롭게 만들려는 것처럼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계기가 넉넉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가 그분 약속의 맛과 향기를 잃도록 결코 허락하지 마시고, 늘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악을 끝내 주시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그것도 우리 구원을 마련해 주신 좋은 아버지께 드리듯 그분께 찬양을 드릴 거리를 가질 그런 끝을 주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우리 고난 속에서 눈이 부신 것처럼 되어 우리를 기다리는 이 안식에 이르도록 저 높이 오를 수 없을 만큼 우리 연약함이 그러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분이 처방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분해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늘 이 과녁, 곧 우리가 그분보다 더 의로우려 하는 데로 향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것은 저주받을 모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언짢고 괴로워서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격정을 정죄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그때 우리 안에 너무나 격렬한 돌풍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성령께 정죄받는다는 것을 압시다. 욥은 이것에 대해 “나는 결코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거나

그분보다 내 의를 높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하고 말대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의로우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분 앞에 아무 핑계도 가져가지 말아야 하며,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괴롭히기를 기뻐하실 때 원망할 방종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CO 222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하신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의를 그분보다 높이려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해를 발로 차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웠으니, (내가 말했듯이) 그런 악을 앞질러 막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보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신다는 이 결론을 우리 안에 다 내리고 결심해 둡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건지시리라는 이 소망을 늘 가지지 못할 만큼 우리를 짓누르는 악에 그렇게 어지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가 더 멀리 보지 못하게 막는 모든 어지러움을 이겨냅시다.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게 합시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니 더 멀리 지나가서 우리 달음질을 담대하게 마치자."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그러하다는 것은 엘리후가 하는 풀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자기 말을 풀어서 "너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고 말했다"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욥에게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만들려 했다고 꾸짖는 것은 이 점에서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은 것과 죄를 삼간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진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피조물들을 처리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그분을 섬기면 우리 상이 확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버리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갚으실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더는 의롭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사도도 선언하듯이 말입니다(히 6:10). 그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니, 너희에게 쉼을 주시려고 너희 고난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고 말할 때,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그분이 이 아래에서 사람들을, 그들이 자기 부르심 안에서 꿋꿋이 처신했을 때에도 많은 고난으로 훈련하실 수 있다 해도,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 새겨야 할 조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잠드신 분처럼 상상하는 많은 사람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성은 헛된 공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말한 세상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것, 곧 사람과 짐승이 그분의 손과 보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CO 223 모든 것이 좋은 끝으로 이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는 일들이 그렇게 뒤죽박죽이라 해도, 그 사이에 그분께는 결코 고삐 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처리되도록 허락하시고 심지어 많은 혼란이 있도록 정하신다 해도, 그분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되돌리실 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본질에 고유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의의 찬양을 드리려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분의 손과 능력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른다 해도 그분께

하시는 일을 하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가장 온전한 자들도 때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는 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이 이 의심에 들어갔다고 내세웠듯이 말입니다(시 73:13). "그렇다면 내가 손을 깨끗이 하고 모든 더러움에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지킨 것은 시간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쓸데없는 수고였다." 다윗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자 가운데 때로 그런 공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이 우리를 짓누르는 만큼, 우리가 연약하므로,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믿지 않음을 보고 우리 믿음을 공격하러 올 것이므로,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이런 의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치고 정죄해야 합니다. 정죄할 뿐 아니라 몹시 싫어해야 합니다. "불쌍한 피조물아, 네가 감히 그렇게 네 하나님을 거슬러 뿔을 세우다니 너는 헛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러니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비틀려고 꾀하는 이 모든 나쁜 공상을 우리가 어떻게 멀리 내던져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싸움을 물리칠 만큼 충분히 굳세지 못합니다. 욥에게 일어났듯이 말입니다. 그는 분해할 겨를을 넉넉히 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나는 더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곳에 있고 싶다"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보십시오, 그가 "나는 무덤에 있고 싶다" 하고 말할 때 속된 사람,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신자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결국 그들이 그분의 무서운 손을 느껴야 하리라고 하시는 위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는 짐승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격정을 의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토록 온전한 사람, 그렇다, 하늘의 천사와 같은 사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증언을 받은 사람이 그런데도 그렇게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는 우리가 무덤에 이를 때 거기서 CO 224 뒤죽박죽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유기된 자들에게서 구별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그분의 지키심 안에 있으며, 그분이 그 좋은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고 보면서 말입니다.[62] 욥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욥은 부활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의 모든 가르침을 내던지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자기 기억에 떠오를 만큼 그것을 눈앞의 생각으로 가지지 못했고, 늘 무기를 준비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때로 사람이 기습을 당해서 너무 놀라 칼을 뽑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물러서고 비틀거리며, 자기를 방어하기도 전에 심지어 한 대 맞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그는 칼과 방패를 봅니다. 그러나 그는 기습을 당해서 마귀가 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는 거기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여 주었듯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도록 자기 정신을 하늘까지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일이 그러하니, 우리 자신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굳센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 있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쓰러지리라는 것을 알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동시에 “내가 너와 네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

62. 원문은 “qu’ on vouant au sepulchre“입니다. “qu’ en venant au sepulchre“(무덤에 이를 때)로 보고 옮겼습니다.

때, 큰 무리와 추종자가 있다 해도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치시기에 넉넉하셔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욥에게는 동료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다툼을 지키려고 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이런 뜻으로 말합니다. "네가 큰 군대를 데리고 있고, 너희가 한입으로 하나님을 고발하고 그분을 거슬러 모독하려고 함께 공모했다 해도, 그래도 나는 너희 모두에게 넉넉한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많은 지지자를 가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이기셔야 하고 그분의 의가 온전하게 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짖어 대도 물지는 못할 것입니다. 곧 선언될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고 일들이 우리 입맛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 혀에 고삐를 풀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 때문에 우리 고난 속에서 참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그분 아래 우리를 낮춥시다. 어쨌든 그분이 CO 225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우리가 대들 대담함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큰 부끄러움과 치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거슬러 결코 원망을 입밖에 내지 않고 그분을 모독하지도 않도록 스스로 자기를 붙잡고 말하자면 사로잡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많은 지지자를 가질 때에도 그것으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물리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 대들려고 음모를 꾸몄다 해도 그분은 그것에 마음 쓰지 않으시고 그것을 비웃기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땅의 왕들이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이

원하는 만큼 날뛰어도, 저 높이 계신 분은 그것을 웃기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많은 지지자와 공범을 가질 때 우리 소송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무더기로 정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또 다른 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입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물리칠 힘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뢰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주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수들이 어떤 광포함으로 일어서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한 줌의 사람들일 뿐이고 그들은 큰 무리이며, 거의 온 세상이 우리 죽음을 꾀하는데 그들과 뜻을 같이하므로, "오, 보라, 모든 것이 우리 것이다. 싸움 없이 개선 행렬만 하면 된다" 하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곧 우리에게 진리가 있으니 우리는 늘 하나가 십만을 상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이 자기가 큰 무리이고 우리는 그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뽐내며 일어설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게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네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다" 하고 기록된 것은 엘리후라는 인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소송이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툼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기에 싸움에 들어가고 끝까지 굳게 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원수들을 상대로 담대하게 싸웁시다.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이 구

절을 CO 226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때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패를 짓고, 원수들의 무리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민 많은 반대자라 해도 우리에게는 그분을 위해 대답할 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완전히 용기를 잃을 수 있을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하는 대답으로 옵시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가장 큰 하늘까지 높이 보라. 그것들은 너를 넘어서고, 너는 거기까지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은 아주 빈약해 보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 줄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적용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려는 모든 자의 입을 막기에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를 다른 생각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잘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도 그분께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손해를 입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그분을 사람을 따라 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분은 누가 당신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언짢아하실 만큼 앙갚음하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누가 자기에게 어떤 섬김을 했을 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처럼 애정에 이끌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우리 자로 재서도 안 되고, 그분에 대해 육적인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 발아래 있는 하늘조차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 본성의 무엇을 가지시려고 여기 우리 가운데 섞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보라, 여기 네 머리 위 높은 곳을 보라" 하고 말할 때, 이 이유가 감히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모든 자를 물리치기에 얼마나 넉넉한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듣도록 하나하나 풀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네가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슨 유익을 받으시겠느냐?" 하고 말할 때,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여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보십시오, 첫째가 이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이 죽을 사람들 방식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자기에게 어떤 기쁨을 베풀었을 때, 좋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매인 자들이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움도 호의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첫째, 곧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빚지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주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까닭도 거리도 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다 드릴 수 없으면서 그분이 자기에게 매여 계시리라고 그분께 믿게 하려는지 봅니다. CO 227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미신이라는 나쁜 꼬리를 끌고 옵니다. 오늘 왜 교황주의자들이 자기 의식과 장난질에 그토록 애씁니까? 그들이 많은 기도문을 늘어놓고, 웅얼거리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쏘다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무슨 유익을 받으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살림이 잘 차려지고, 그들이 자기 인형들을 잘 빗기고 씻겼을 때 그들은 멋진 일을 했다고 여깁니다. 마치 집을 잘 쓸고,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바닥에 풀을 깔고, 다른 것들을 갖춘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건대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하찮은 잡동사니에 흠뻑 빠지시고 자기들처럼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신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져다 드릴 수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16편(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선은 주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땅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 내게 존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것에서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우리 이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핍한 자들에

게 좋은 것을 베풀고, 여기서 사람들과 함께 공평과 올곧음으로 살며, 우리가 돕고 구할 수 있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우리를 쓰려 애쓸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사로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다 드릴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가르침을 간직합시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주제넘음이 꺾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에서든 우리에게 매여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시는 것처럼 아무 값어치 없는 많은 것을 하며 허둥대도록 이런 어리석은 미신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가져다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르침을 엘리후의 지금 의도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찔리고 움직이는 죽을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들은 누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의 힘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고 여기저기로 들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런 헛소리가 우리 머리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방식대로 처신하지 않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가져다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분께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를 때 우리로서는 그분의 의를 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크게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위엄을 없앤 것만큼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올곧음의 규칙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대로 갈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분이 다스리지 못하시게 CO 228 막으려는 것과 같고,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과 같으며, 거의 그분을 발로 짓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모든 것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커지시거나 줄어드실 수 없습

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분께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들도, 물론 그들이 자기 독을 쏟아 낼 때 그만큼 그분의 영광을 흐리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지혜로우신 분으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그런 분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에 내놓이고 그분의 영광이 줄어든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그분에 관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한 뒤에도 그분께 아무 해도 끼칠 수 없을 것이 확실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솜씨 좋은 궁수가 쏘아 본다 한들 하늘까지 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꾀한다 한들 하나님께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건드리겠습니까? 아닌 것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위로 던진 모든 것은 우리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겨누어 쏘고 그를 맞출 수 있다면, 좋습니다, 나는 그를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께까지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돌을 아무리 던지고, 활과 화승총을 아무리 쏘아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공격에서 아주 멀리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짖을 수는 있겠지만 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위로 공격을 던졌을 때 그것이 어디로 다시 떨어집니까? 하늘 위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머리 위로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부끄러움으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 아무 손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아주 새겨 둘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섬김을 받아 주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그것으로

아무 유익도 받지 않으시고 그것이 그분께 아무 상관도 없는데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극히 높고 무한한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마디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지만, 둔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것을 더 온전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63]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금도 셈에 넣지 않으시고 내던지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온 세상이 할 수 있는 만큼 애써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은 우리가 잘하고 CO 229 당신의 계명 안에서 걸으려고 수고하면 그것이 당신께 기쁜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하는 것을 받는다. 그것이 내게 값어치 있게 여겨질 만하지 않다 해도, 그래도 나는 그것을 받고, 마치 내가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나를 매어 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지극히 높은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행위가 그럴 자격이 없고 그분 쪽에서 조금도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우리 행위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한 값어치가 없는 것을 우리 손에서 받으시고, 우리 행위가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께 기쁠 때 우리 행위의 모든 항목을 말하자면 당신의 장부에 적어 두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잘할 용기를 주게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는 여기서 우리 앞에 놓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을 행해도 우리 하나님께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3. 원문은 "devroit est-ce entendu "입니다. "devroit estre entendu "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기심 때문에 우리 죄를 벌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스름을 당한 사람이 하듯 사람의 원수 갚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고 자기 몸에 모욕을 주거나 자기 재산을 빼앗았을 때 그것을 앙갚음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우리를 위협하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므로 우리 구원을 위한 당신의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실제로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 일에서 그분은 당신의 의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는 마치 그분이 어떤 사사로운 다툼을 가지신 것처럼 그분을 거슬러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의 직무와 본성이 그러하듯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려 하실 때에도 그분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느끼는 것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손을 느낄 때, 그것이 아무리 거칠어도 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데 눈을 둡시다. 그러면 그분께 소망을 두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며, 그 위로 속에서 그분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다 해도 그래도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기를 구하는 것 말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처럼 우리를 향해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은 모든 선과 자비의 샘이시니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려 하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때로 우리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거칠게 징계하신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짧은 고삐 속에 붙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과 당신의 징계 아래 굽히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7편

욥기 35장 설교 2

CO 35:230–24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 범죄는 너 같은 사람에게 미치고, 네 의는 사람의 아들에게 미친다. 억압하는 자들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부르짖고, 주인들의 권세 때문에 외친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는다.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깨우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는다. (욥 35:8–11)

CO 230 우리는 어제 밝힌 것의 결론으로, 엘리후가 여기서 짧게 선언하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64] 곧 우리 범죄는 사람들에게 미치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 우리 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려고 노하신다고, 또는 반대로 마치 우리 섬김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매여 계시다고 상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으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우리 감각으로 재지 맙시다. 물론 그분은 스스로 원하셔서 낮아지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높으심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으로 사람들의 둔함에 맞추어 내려오기를 기뻐하실 때, 그 때문에 그분이 업신여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반대로 그분은 그만큼 더 CO 231 우리가 그분을 높일 만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작음에 당신을 맞추실 때 그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바꾸어서,

64. 원문 머리말은 "SUR LE XV. CHAPITRE "로 되어 있으나 35장(XXXV)의 잘못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언짢게 했으므로 그분이 노하신다고, 또는 그분이 마치 그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갚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께 큰 잘못과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그분의 위엄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 줄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속한 대로 사람들에게 돌립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높으심 가운데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첫 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시고 어떻게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런데도 그 사이에 일들이 뒤죽박죽인지 살펴보는 것이 남았습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고, 억누르고, 약탈하고, 노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체하시고 거기에 대비하시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끄시고 모든 것이 그분께 의롭게 처리된다는 것과, 그런데도 그분이 처방하시지 않는 가운데 그토록 큰 어지러움과 그토록 엄청난 죄악이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합니까? 그러니 엘리후는 그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일들이 나쁘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자마자 대비하시지 않는다고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정당한 까닭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기도와 감사로 그분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심판이 늦어지고 마땅히 와야 할 만큼 빨리 오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참으며 기다려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숨어 계신 것 같아도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 영예를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여기 놓인 것의 첫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엘리후는 여기서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만한 자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억눌리고

누가 그들에게 어떤 잘못이나 폭력을 하면, 물론 그들은 부르짖고 날뛰며 탄식할 줄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악을 견디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부당하게 억눌린 자들을 돕는 것이 그분의 직무인데도 그러하신 것은,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께 향하지 않으며 오히려 뒤죽박죽으로 탄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집스러운 자들로서 거기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들을 도우시리라는 이 칭호를 헛되이 당신께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로 그분께 향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고 눈을 감으시며 우리를 도우실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CO 232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주 새겨 둘 만한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시들어 가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비참이 극한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분이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우리를 크게 어지럽히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 필요에 대비하실 돌보심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바로 그분께 가지 않으니 그분의 도우심을 빼앗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의 혼란이 너무 크고 무서워서 우리가 몸서리치지 않고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듯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 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온통 무너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집들이 불타고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시들어 가게 하느니 차라리 첫 번에 목을 베어 버리는 것이 나았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낯선 나라에 가면 거기서 많은 하소연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세금과 부과금이 있는 곳, 군인들이 급류처럼 지나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뼈까지 갉아먹힌다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이 새로워집니까?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와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아,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칠게 대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교만과 업신여김과 주를 거스르는 반역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는 주께서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아버지로 느끼고 결국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그런 말을 씁니까? 아아,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재갈을 씹고, 그 사이에 결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일들을 그런 혼란 속에 내버려 두신다고 놀라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리어 그분이 당신의 은혜를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을 견디실 수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찾고 간구하는 자들을 도우실 때 당신의 진실함을 입증하시고, 당신께 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들의 믿음과 기다림을 헛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시듯,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는 자들을 도우실 때 당신의 진실함을 확인하시고 신실하고 충직한 분으로 나타나시듯, 반대로 그분을 찾지 않은 자들이 젖어 있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오래도록 갉아먹히고 소진되며, 그분이 그들을 바라보시거나 그들의 필요를 마음 쓰신다는 것이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 그 일에서 그분은 당신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은 그들 안에 있는 무관심, 아니 도리어 교만을 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분이 그토록 넉넉히 내놓으신 CO 233 그분의

은혜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진실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을 첫 번에 도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은 또한 정당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입맛에 억지로 매려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당신을 부를 때에도 그들을 돕기를 미루신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성경이 흔히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들 때에는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세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맞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자기 악을 탄식할 줄은 잘 알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공중에 던지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 염려와 괴로움을 그분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잔인함이나 불의로 고발해서는 안 되고, 그분이 그들에게 잘못하신다고 상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벌받을 만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에 기대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자기 안에서 부추김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 믿지 않음의 삯을 받는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른다고 말한다면(어떤 기도는 물론 하겠지요), 엘리후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를 더 깨우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불쌍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른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에 대답하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꾸밈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은 헛되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대부분이 하는 기도는 위선으로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가 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만드신 분, 자기를 빚으신 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는 분, 그들이 어떤 악을 견디든 그분의 자비를 높여야 할 만큼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넉넉히 베푸신 분께 가듯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대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 손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런 자격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 안에는 꾸밈과 거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우리에게 닫히고, CO 234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기색도 보이지 않으신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아주 새겨 둘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붙이실 때 교황주의자들이 행렬을 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역병이 있거나 기근이나 다른 재앙이 있으면,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진리와 바른 마음으로 그분을 부릅니까? 아아, 어림도 없습니다. 의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경험으로 느꼈어야 할 그대로 하나님을 알 때가 아니면 그분을 바르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분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 기억에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체하는 자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 그들이 이런 앎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겠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분이 나를 빚으셨으니 내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고, 그분이 내 모든 필요에 대비하셔야 한다. 나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니,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기쁨을 따라 다스림을 받도록

나를 맡겨야 한다" 하고 말하도록 말입니다. 백 명에 하나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창조주께 드리듯 하나님께 경의를 바치려고 바른 마음으로 말하는 자를 찾겠습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다, 우리는 그분께 빚어졌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고 잘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무 짐승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내신 그대로 그분을 알지 못하므로, 기도라고 불릴 만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로 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실 준비가 되어 계신 은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그분이 밤에 노래를 주신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노래하는 새들이 우리를 즐겁게 하니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돌려야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데서 자기의 배은망덕을 보인다고 풀이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별을 빛나게 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전할 계기를 주신다고 받아들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엄이 꺼지지 않았고 완전히 숨겨지지 않았다고 말하시려는 듯 거기에 촛불처럼 불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풀이는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잠든 바로 그때에도 노래를 주신다는 뜻으로 받아야 합니다. 밤은 모든 것을 죽이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고요가 있을 때, 일종의 죽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무덤 속에 CO 235 가두어 두신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낮의 노래를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잘 높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몰두하고, 그때 그들의 기운이 드러나며, 그때 정신이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께서 낮에 노래를 주신다고 말했다면, 그것을 밤에 두는 것만큼 그렇게 뛰

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죽은 것처럼 되고 우리 정신이 쓰러진 것 같으며 더는 아무 생기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심입니다. 사람들이 밤에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당신의 보호 안에 두고 계시는지 느낄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연약함, 곧 자기가 자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깨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기서 기뻐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아, 주님, 나는 자는 동안 주를 부를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그루터기나 나무토막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 사이에 나는 주의 선하심으로 아직 숨 쉽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잠이 나를 먹여서 나도 모르게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아아,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찾지 않는 동안에도, 심지어 내가 더는 아무 감각도 없고 죽은 피조물 같을 때에도 주께서는 내게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내가 주께 나를 맡기고 주를 부를 때에는 더 큰 이유로 주께서 내게 더 가까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내가 자든지 깨든지 나는 늘 주의 손과 이끄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며 기뻐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 노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엘리후가 무엇을 노리는지 봅니다. 곧 흔히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체할 때 그들 안에 아무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택을 모아 두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쉼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기억에 되살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엾을 만큼 게으르고,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그분께 가까이 갈 무슨 방법이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실지 아닐지를 논쟁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셨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그토록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 말을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감사로 그분께 나아가게 합니다. 반면 그분의 선하심과 자기가 그분 손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원망하고 분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CO 236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을 잘 달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도록 온통 불붙어서 이렇게 말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넋을 잃기에 넉넉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그토록 너그러우셨으니, 주께서 나를 괴롭히신다면 내가 참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발아래 밟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진실로, 진지하게 그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밤의 노래를 말할 때 이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 가장 죽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조차 숨어 계신 것 같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려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에도, 그래도 그분은 아직 당신의 선하심을 높일 계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도록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찔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보편적인 은혜를 덧붙입니다. 물론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몸에 베풀어진 많은 은혜 때문에 개별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빚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너그러우시다는 것을 알고자 할 때,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시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느낀 좋은 것들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 위로 넋이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선하심을 깨달으려 하면 그것은 너무 깊은 구렁이어서 나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표지와 증거의 작은 부분만 집어 들어도, 보십시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르겠습니까?" 보십시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새겨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인류 전체에 공통되고 일반적인 것만 생각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기에 넉넉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분께 간구하러 나아갈 때 동시에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아버지로 나타나셨으므로 그분께 찬양을 드릴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점에서 우리의 배은망덕과 악의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때 위선밖에 없다는 것이 보입니다. 요컨대 엘리후가 이 구절에서 말하려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보다 우리에게 더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CO 237 사람과 짐승을 견줍니다. 땅과 하늘이 말할 줄 안다면, 그것들이 깨달음을 가지지 않았고 우리처럼 그런 존귀함으로 높여지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그분 손의 작품이고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이미 큰 영예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감각 없는 피조물을 빛기를 기뻐하셨으니 그것들에게 영예를 주셨다면, 그분이 짐승들에게서 이성을 빼앗으셨다 해도 그것들에게 영예를 주셨다면, 그분이 그런 깨달음을 주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후가 여기서 우리를 짐승과 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귀나 말처럼 만들지 않으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었습니까? 땅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나를 빚었다" 하거나 "나는 그렇게 지어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으로 지으셨을 때 그분은 그를 개나 돼지로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성 있는 피조물로 지으신 까닭을 우리 안에서 찾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심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 줄에 두셨을 뿐 아니라 짐승 위로 높이셔서, 다른 모든 동물에게는 주지 않으신 감각과 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토록 영예를 주셨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요한 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은 늘 그분의 영원한 말씀 안에 담겨 있었으나,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곧 그 빛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먹고 마시려는 짐승 같은 움직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분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과 악을 알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공경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도록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비추시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당신의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엄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만 있다 해도, 곧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미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짐승과 구별하시고, 우리가 보는 대로 고귀하고 뛰어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도 주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주의 자녀의 수에 넣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표를 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가 주를 거기로 부추겼다거나 주께서 우리의

존귀함에 이끌리셨다고 말할 만한 무엇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의 값없는 선하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CO 238 이 구절에 담긴 것을 봅니다. 곧 인류 전체에 미치는 이 일반적인 은택, 곧 그분이 우리를 짐승 위에 두시려고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을 주셨다는 것만 있다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계기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주신 이 이성은 지금 아주 썩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에 머문다면 우리는 너무 비뚤어져서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불쌍한 소경이며, 우리 안에는 헛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탐욕이 우리를 너무 들뜨게 해서 우리 안에 아무 절제도 삼감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를 짐승과 견주어 보면 사람에게서보다 말이나 소에게서 더 많은 온전함을 찾으리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성이 없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간직하지만, 보십시오, 사람은 완전히 멍해져서 자기가 가졌던 이성이 악의로 바뀌었고, 자기가 받은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경의를 바치는 대신 교만해지고 완전히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가졌다고 여기는 모든 감각이 온통 어리석음일 뿐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때 사람들이 자기 미신에 어떻게 휘감겨 있는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 주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온통 헛됨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눈이 부시다면, 그분을 섬기려 할 때 미신 더미를 지어낸다면, 엘리후가 여기서 그토록 높이는 이 이성과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본성으로 가진 모든 빛은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에게서 끌어오는 죄와 부패 때문에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사악한 것은 우리 허물에 돌려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본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헤매는 데 그토록 기울어

있고, 우리 정신이 온갖 무지 속에 갇혀 있으며, 우리 정신을 믿을 때 혼란 속으로밖에 갈 수 없을 때, 그것이 첫 창조에서 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형상이 아담의 죄로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허물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일그러졌고 그분의 모든 빛이 어둠으로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죄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새겨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모든 무지와 모든 오류와 모든 미신 한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확신시키신다는 것입니다. CO 239 그분이 우리 마음에 선과 악의 어떤 분별을 새겨 두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짐승 위로 높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헤아릴 수 없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내세운 이 구절에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친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가 그렇게 사람들의 감각을 비틀고 그들의 본성을 없앤 것처럼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을 비추시기를 이어 가셔서 첫 창조의 어떤 흔적이 알아차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을 가지지 못하고 겨우 작은 부분을 간직하고 있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짐승과 구별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을 베푸셨다는 것을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 아무도 그분을 거슬러 원망할 계기를 가질 수 없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리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 그분이 우리에게 매여 계셔야 할 무슨 까닭을 우리가 그분께 내세울 수 있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람이라는 피조물로 지으셨으니, 그 점에서 우리가 그분께 더할

나위 없이 빛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를 구별하신다면 우리에게 그분을 거슬러 투덜댈 계기가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이 공상가들에게서 보듯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 곧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으로 택하신다는 것을 말하면, 그들은 그것을 거슬러 발길질하고 대듭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을 내버려 두신다니,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매여 계시고 더는 그들 위에 아무 권위도 가지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짐승으로 지으실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기시고, 그렇습니다, 훨씬 더 높은 존귀함을 주셨다면, 이제 그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구별하시고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신의 은밀한 뜻으로 그것을 하시되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려고 하신다면, 왜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짐승으로 지으실 수 있었는데도 이미 짐승으로 지으시지 않았으니, 그분이 그를 그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에게 그분을 거슬러 원망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거슬러 그렇게 모독하는 자들이 미친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말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이 알려졌듯이 말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형식의 찬양을 썼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상적인 정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학교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거룩한 성경으로 그들의 악의를, CO 240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교만과 결합된 악의를 깨우쳐 줄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일반적으로 베푸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부추겨 그분을 높이게 해야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주셨을 때, 곧 그분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을 새

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내놓으시며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당신을 나타내셨을 때, 우리에게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좋은 것들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릴 훨씬 더 큰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조물로 지으셔서 우리에게 영예를 주셨으니, 다른 이유가 없다 해도 우리가 이미 그분께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아무 까닭도 찾지 않으시고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짐승보다 낫게 여기셨을 때, 보십시오, 그분은 그 점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나아갈 때, 그런 앎이 우리에게 길을 내고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보라, 나는 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나는 어떤 자격으로 그분을 찾는가? 나를 빚으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의 은혜를 펼치신 분으로서 찾는다. 나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왜 그분이 나를 짐승 위로 높이셨는가? 그러니 그것은 이미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분께 나아갈 신뢰의 거리와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밖에 내가 그분 손에 괴로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이유가 우리 악이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그것을 누그러뜨리지 않겠습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들을 받았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거칠게 대하려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징계 받는 것을 견뎌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말하자면 설탕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에 되살릴 때 우리 악을 누그러뜨릴 설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때 말입니다. “좋다, 나는 사람이라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과 구별하셨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말고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보라, 그분이 나를 당신의 양 떼에 두려 하신다는 것을 내게 보여 주시려고 내게 새기신 둘째 표가 있다. 그러나 나로서는 내 세례를 없애 버렸고, 나는 불쌍한 믿지

않는 자였다. 그런데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당신께로 건지셨고, 그토록 짙었던 이 어둠 한가운데서 나를 비추셨다. 심지어 나는 지옥 깊은 곳까지 잠겨 있었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셨다. 그리고 보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비추셔서, 내가 복음의 가르침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낙원의 문이 내게 열려 있는 것을 본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실 때, 우리에게 CO 241 그분을 높일 거리가 넉넉하지 않겠으며, 그분 앞에서 우리를 낮출 정당한 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봅시다. 물론 이미 밝혔듯이 악과 재앙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입니까? 그들이 자기가 그분께 얼마나 매여 있는지 미리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으로 길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를 만드신 분으로 알지 않고, 자기가 그분에게서 끊임없이 받는 좋은 것들을 기억에 되살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분이 자기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으니, 일이 그러하니,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비참 속에서 시들고 썩어 가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서 더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엘리후의 입으로 사람들의 비뚤어짐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짐을 덜어 받지 못하고 그분이 그들을 악에서 건지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진실로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시니, 우리가 악에 짓눌릴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그것에 맞서는 방패로 삼도록 조심합시다. "물론 이 고난은 너무 써서 네가 그것만 바라본다면 너를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께서 네

게 아버지로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 네가 그분의 호의와 선하심을 잘 느껴야 할 만큼 그토록 여러 가지로 말이다. 그러니 네 모든 감각이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고, 네 격정이 너무 날뛰지 않아야 한다. "[65]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쓰임이 되게 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우리 기도에서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게 그토록 너그러우셨고, 내 평생 그것을 이어 오셨으며, 그분의 선하심이 끝없는 것이니, 내가 그분을 부르러 갈 때 그분이 내 말을 들어주실지 의심해야 하겠는가?"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리라고 결론 내리게 할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또 인내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합시다. 그분을 거슬러 분해할 만큼 그렇게 악하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압시다. "좋다, 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으니, 그분께서 내 위에 모든 권리를 가지시고 당신 기쁨대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선한 뜻에 우리를 맡기러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신다 해도 그 때문에 그분께 복종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 손에서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의 멍에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적용해야 할 두 가지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65. 원문은 "tes actions ne se debatent"입니다. 문맥에 따라 "tes passions"(네 격정)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제138편

욥기 35장 설교 3

CO 35:242–253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은 헛되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신다" 한다. 너는 "그분이 너를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했다. 그분 앞에 심판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이제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은 진노로가 아니고, 크게 노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욥은 헛되이 입을 열었고, 깨달음 없이 말을 늘어놓았다. (욥 35:12–16)

CO 242 지금 우리가 읽은 첫 말씀은 어제 한 말과 이어져야 하므로, 우리는 이미 밝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때, 그들이 바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그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풀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손에서 받은 좋은 것들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CO 243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에서 가지는 경험은 우리가 이미 그분 말씀에서 아는 것을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맛보지도 못한 자들은 위선으로가 아니면 그분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도록 참고

또 그분의 뜻을 거슬러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엘리후는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하고 덧붙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다, 물론 사람들은 악이 자기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들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준비되어 그분 얼굴 앞에 나아가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분 손에서 받은 좋은 것들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신뢰의 버팀목으로 삼아 유익을 얻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욕 때문에 부르짖겠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길이 없고 그들 마음에 열린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악덕에 돌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잊으셨다거나 당신의 직무를 하지 않으신다거나 잠드신 것 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고, 그분의 손은 그들을 도우시려고 넉넉히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짐승처럼 울부짖고 자기가 향해야 할 과녁을 바로 바라보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쓸데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날뛰며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타나시는 그대로, 곧 아버지요 구원자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에 기대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느낀 그 증거들을 기억에 되살려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찾을 용기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곧 그분을 찾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심지어 그분은 우리가 길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바르게 향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악을 느껴 그분이 처방해 주시기를 바랄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께 아버지요 구원자로 나타나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66] 그리고 그 믿음이 그분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그분이 주시는 그토록 많은 표지에서도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경험했을 때,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여 바르게 무장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기를 구하면서, 이미 우리가 그분께 빚진 좋은 것들 때문에 그분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CO 244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오, 그 모든 것은 헛됨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전능자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신다" 하고 말했다고 덧붙입니다. 이 반론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그들을 비참 속에 고여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깨우쳐 주어도, 어쨌든 그들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그분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이 아래 일들이 운수로 다루어진다고 경솔하게 상상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짐승 같은 감각으로, 분별 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고 실제로 알게 될 이유를 새기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 나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본다." "그렇다, 그러나 더 알아야 하고 그 이유를 알아들어야 한다." "오, 나는 그것을 캐묻고 싶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감각과 이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빛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날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비참 속에서 그분을 무시하기만 하고, 그분께 아무 순종도 드리지 않으며,

66. 원문은 "que Don seulement"입니다. "que non seulement"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그런 자격으로 그분께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의 도우심과 은혜를 느끼게 하지 않으신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정당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시는데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면 그들은 눈을 감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묻어 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하나님의 일과 심판을 판단하도록 겸손과 절제의 이 고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이성이 우리를 그리로 들뜨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제 엘리후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으로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모독을 내놓으신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저마다 자기를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그런 비뚤어짐의 씨앗이 있어서, 번번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언짢아하고 그분이 당신의 직무를 하지 않으신다고 결론 내리는 이 광포함에 들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이 그런 오만으로 가득하고 우리가 모든 이치를 비틀기까지 고삐가 풀려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 앞에 놓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를 낮추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성에 고삐를 풀지 말고, CO 245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이유를 잘 달아 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후가 여기서 이어 붙이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는 이 반론을 한 뒤에 "네가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 하고 말해도, 그분 얼굴 앞에 심판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 하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드러난 이 비뚤어짐에 처방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생각하고 거기에 붙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들은 짧아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보라, 네가 말한다", 또는 "네가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해도"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말은 욥이라는 인물에 대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욥에게 그가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고 꾸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은 이어져야 하고,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해도" 하는 것으로 엘리후는 사람들이 너무 나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기 둔함과 작은 분량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그분을 끝까지 살피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분께 우리에게 눈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거울,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다음에 그분의 일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캐묻지 않을 만큼 그런 삼감 속에 걸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깨달음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성령으로 밝혀 주시기를 그분께 구하고, 너무 큰 호기심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알려는 주제넘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뜻 속으로 구렁의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 할 때,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오만이고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지켜야 하는지 배웁시다. 곧 너무 큰 성급함으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작은 분량과 하나님 위엄의 무한한 높으심을 알고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 구원에 맞고 유익하다고 아신 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하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앎에 머물고 여기저기 헤매러 가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네가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해도."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너는 말한다. 그러나 너무 대담하게 말한다. 너는 마땅한 것보다 더 끼어든다. 네가 누구인지 보라. CO 246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네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잊으라."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그분 얼굴 앞에 심판이 있다", 또는 "너 자신을 판단하라" 하고 덧붙입니다. 그 낱말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 자신을 판단하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겸손과 회개로의 권면입니다. 마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아, 나는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것을 본다. 네가 너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말고 무엇이 그 까닭이냐? 그러니 네 안으로 들어가 네 비참을 보라. 그러면 모든 교만이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헤매고 우리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나쁘고 갑작스러운 공상을 품었을 때 우리를 꾸짖으시려고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되돌아오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 안으로 내려가서 우리 무지와 죄를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한 채 남을 것이고, 우리를 여기저기로 들뜨게 하던 모든 터무니없는 공상을 잊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을 "너 자신을 판단하라"로 받아들인다면 뜻이 그러할 것이고, 우리가 거둘 가르침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은 엘리후가 말하듯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기다리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시선 사이에 반대되는 견줌이 있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모든 것을 공평으로 처리하시는지 물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그분을 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첫 번에 거기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좋고 의로운지 보시고 우리는 흔히 거기에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소망이 신자를 먹여서 그를 잠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자연스러운 뜻을 가졌으니,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네가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해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쏟아 낼 만큼 혀가 재빨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의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 주지 않으실 때 우리를 겸손 속에 붙드시려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혀에 고삐를 매고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께 정죄받고 싶지 않은 자들은 너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잘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미 말했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 은혜와 CO 247 특권을 베푸십니다.[67]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알맞다고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는 보이지 않으시되, 우리에게 맞는 거울, 곧 그분의 말씀과 그다음에 그분의 일 안에서 당신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 너무 캐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67. 원문은 "ceste race et privilege"입니다. "ceste grace et privilege"로 보고 옮겼습니다.

알도록 재촉하시려고 쓰신 이 방법으로 늘 우리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분은 우리 정신에 있는 대담함을 아시고, 경박함도 아시며, 우리가 가엾을 만큼 변덕스럽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담하고 고삐 풀린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은 두 가지 큰 악덕입니다. 다른 쪽에는 무지, 아니 도리어 어리석음이 있고, 더욱이 비뚤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방법 안에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곧 거룩한 성경에 담긴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갈 때 더는 헤맬 위험이 없으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머리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가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의 입에서 가르침 받는 것을 견디며 그것 말고 다른 교묘함을 우리 안에 가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일을 깨달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알기에 좋고 맞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살아 있는 형상이라고 말하니, 거기에 머뭅시다. 다른 구절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쌍한 소경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고유한 감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캐묻고자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숨겨지실 것이고 우리가 결코 그분께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는 것, 하물며 거기에 이를 수는 더더욱 없으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 안에 순전한 어리석음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를 완전히 정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나는 캐물을 만큼 넉넉하다” 하고 말할 만큼 거만함과 교만으로 가득하지 맙시다. 이 마귀적인 주제넘음을 조심합시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그분께 우리를 밝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하시는 이 방법을 정하셨으니, 거기 매인 것처럼 머물고 더 멀리 지나가려 꾀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첫 조항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 얼굴 앞에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옵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눈은 너무 짧고, 심지어 가엾을 만큼 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듯 [딤전 6:16]) CO 248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깊은 일들을 아시는 것을 당신께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결론 내립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 걸려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불쌍한 피조물아, 물론 너에게 눈이 있다. 그러나 그 눈은 너무 부셔 있고, 심지어 완전히 멀어 있다.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너를 어느 정도 비추신다 해도, 그 사이에 그분은 네가 그분을 의롭다고 고백하는 이 영예를 그분께 드리도록 너를 붙드시려 한다. 그러니 네 감각과 정신이 그토록 약한데 네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깨달으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러니 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은 네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여기서 이유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이 교훈을 간직하고, 그것이 네 마음에 잘 결심되어 있게 하라. 곧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에 들어갈 계기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보신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안에 있는 이 대담함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조금 전에 말한 반대되는 것들의 견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심판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얼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후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사람은 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람은 무지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영예를 남겨 드리고자 합

니까? 우리가 모두 본성으로 부풀어 있는 이 헛된 주제넘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지혜로우려 하고, 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캐물으려는 이 마귀적인 욕구에 간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분께 고유한 것, 곧 우리의 모든 감각과 분량을 넘어서는 지혜를 돌려 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드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의 절제와 겸손을 먹이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들이 더 잘되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결말을 주시리라고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 정신이 결코 쉬지 못하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영광을 드리고 그분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려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지금 일들이 잘못되고 모든 것이 어지러우며 하늘과 땅이 한데 섞일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에 기대야 합니다. 곧 그분이 (세상 창조에서 보여 주셨듯)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악에서 선을 끌어내실 줄 아신다면, 완전히 CO 249 비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그런 쓰임에 적용하셔서 결국 그분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좋은 가르침과 권고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첫 시선을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그 판단은 너무 성급하고 무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앞서 걸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는 등불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등불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빛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 입으로 선언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그분의 손이 알맞은 때에 펼쳐지기를 참으며 기다릴 때, 우리가 여기서 어지럽고 많은 구렁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해도, 그때 우리는 절제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다고 고백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토록 쉽게 들뜨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방탕해지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아무 안식이 없고 오히려 불안에, 그렇습니다, 끓어오르는 불안에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상대로 서두르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정신으로 생각한 대로 일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지 않았으므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가망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동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분해하게 하고 세상에서 아무 순종도 찾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들이 큰 어지러움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신 것 같으며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래도 그것이 우리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가 잠잠하게 합시다. 알맞은 때가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때를 아실 때까지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직무라는 것을 알고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하고 그분께 어떤 법을 지우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모든 교만이 꺾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것이 처음 보기에 우리에게 이상해 보여도 좋고 바르고 의롭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그분의 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많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으신다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 구절은 조금 모호합니다. 그러나 요컨대 자연스러운 뜻은 이렇습니다. 곧 지금 하나님께서 거칠고 매섭게 나타나신다 해도, 우리가 그분의 진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CO 250 두려운지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하리라는 것입니다.[68]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일들을 끝까지 따지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너무 깊이 살피지 않으시며, 흔히 말하듯 그 위를 가볍게 지나가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엘리후는 우리가 끝까지 괴로움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시려고 우리 위에 벼락을 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분의 진노가 무엇인지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이 그것을 온전히 펼치려 하신다면 그것은 한 사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십만 개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태워 없애기에 이르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 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되돌리시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우리가 누그러뜨리게 하는 아주 유익한 권고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분량 없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을 하실 수 없을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평가를 품을 때만큼 우리 쪽에서 그분을 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곧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판단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아주 거칠게 나타나신다 해도, 그분이 우리가 받을 만한 엄격함을 집행하려 하신다면 우리가 느낄 것의 백분의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한순간에 십만 개의 세상을 구렁에 빠뜨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하다는 것, 땅에 있는 사람도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것을 견딜 수 없으리라는 것, 하늘도 땅도 그 무엇도 눈처럼 녹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섭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아주 거친 징계를 보내셔도 우리는 우리를 잘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참아 주시니 우리는 아직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8. 원문은 "Ce n' est rien de oc que "입니다. "de ce que "로 보고 옮겼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가 받을 만한 대로 우리를 거슬러 당신의 격노를 펼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며 그분께 감사를 드릴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고난 한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온전히 기뻐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말입니다. "물론 나는 여기서 악에 짓눌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내 약함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면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엄격함이 내 위에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 주시니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고, 그분을 찾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아직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갈 길을 가질 수 있다는 표를 내게 주시기 때문이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CO 251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우리 고난 가운데 도리어 그분을 찬송할 계기를 어떻게 가지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문을 여셔서 우리가 아직 그분께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말을 잘 달아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그분의 진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악이 크다. 나는 더는 견딜 수 없다" 하고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아래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견주어 보고 하나님의 진노에 눈을 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지 않으시며 (흔히 말하듯) 그 위를 가볍게 지나가실 뿐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를 따지는 체만 하시지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없으므로 우리를 그렇게 엄격하게 살피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면서, 말하건대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원망을 붙잡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육신이 우리를 참지 못함으로 재촉한다면(우리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니까요), 이

처방이 그런 악덕을 바로잡게 합시다. “어찌 된 일이냐?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어디로 향하느냐? 너는 그렇게 네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느냐? 그런데 너는 그분이 아직 너를 참아 주시는 것을 본다. 너는 세상에서 백 번이라도 멸절되어 마땅할 만큼 그분을 자극했는데도, 그분은 네 위에 당신의 진노를 펼치려 하지 않으신다. 너는 지옥 가장 깊은 데 빠져 마땅한데도, 그분이 네 위에 당신의 해를 비추시고, 당신의 떡으로, 당신의 비용으로 너를 먹이시며, 현재의 생명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것을 너는 본다. 그리고 너는 그분이 창조하신 작품의 수에 들 자격도 없는데, 그 사이에 그분은 아직 네게 그분께 돌아갈 겨를을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참지 못함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로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따라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 일들을 끝까지 따지지 않으신다 해도, 그 위에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새깁시다. 아무것도 잊히지 않을 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못 본 체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재판관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셈을 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방종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 고쳐질까 하여 그들을 선으로 재촉하시려 한 분의 오래 참으심을 그렇게 남용할 때, 그 시간은 그들에게 비싸게 팔릴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때 결국 무서운 보응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신다면 깨어 있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CO 252 그분의 매를 맞을 때, 늘 그분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이 우리를 소환하실 뿐이라고 결론 내립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마지막 심판을 앞질러 대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이 큰 날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붙잡히기

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부추기실 때 저마다 자기를 정죄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 한가운데서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많은 것을 크게 따지지 않으시는 까닭이라는 것을 늘 우리 기억에 새겨 둡시다. 우리 죄의 많음이 어떠합니까? 부탁하건대 저마다 마땅히 그래야 하듯 자기를 살피려 할 때, 끝없이 많은 범죄를, 그렇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완전히 놀랄 만한 범죄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악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위선이 우리를 막고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좋은 살핌을 하려 하면, 반쯤 가기도 전에 십만 번이나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밝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허물 하나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만 가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를 안다면, 이 하늘의 재판관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당신을 붙드셔서 우리를 많은 것으로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 곧 끝까지 캐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69] 그리고 특히 엘리후는 여기서 "많은 것을 크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피조물들을 아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받을 만한 벌의 엄격함을 늘 줄여 주지 않으신다면 모든 피조물이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는 이 겸손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날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설 때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서 일부를 따지시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아무것도 따지

69. 원문은 "Ainsi de le notons"입니다. "Ainsi donc notons"로 보고 옮겼습니다.

지 않으시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범죄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져서 그것이 그분 앞에서 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마치 우리 안에 온통 무죄와 온전함밖에 없었던 것처럼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이 쓰임에 맞추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나아가도록 소망 가운데 걷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CO 253 당신의 진노와 보응의 표지를 보여 주시는 것을 볼 때 그것에서도 유익을 얻읍시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아아, 온 세상 어디서나 보이는 재앙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무장시킬 이 가르침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나 다스리는 그토록 엄청난 죄악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아 주시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엄격함으로 나아가지 않으신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 그 위에서 그분께 그만큼 더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생각과 애정을 사로잡고 고삐를 맵시다. 그리고 엘리후가 여기서 나쁜 생각과 모든 경박한 말과 모든 거짓 상상을 정죄했으니,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너무 휩싸여 있는 모든 나쁜 공상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 혀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예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다윗이 한 간구를 따라서 말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여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모든 것이 그분의 영예가 되도록 그분이 우리 정신과 혀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계기가 넉넉합니다. 그토록 거룩한 선지자였던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했다면, 그토록 잘못 배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모든 것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

분을 선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모든 것이 그분을 부르고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되도록 조심합시다. 우리가 그것으로 온전히 배부르게 될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39편

욥기 36장 설교 1

CO 35:254–26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엘리후가 다시 말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와 이야기하겠다. 아직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지식을 멀리 펼쳐서, 나를 지으신 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내 말에는 거짓이 없고, 네게는 지식의 온전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되 아무도 물리치지 않으시니, 마음의 힘이 강하시다. 그분은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분은 의인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 (욥 36:1–7)

CO 254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죄도 벌하지 않고 두지 않으신다고 논쟁한 자들은, 더 온전히 밝혔듯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멀리 바라보게 하시려고 많은 허물을 벌하실 것을 당신께 남겨 두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지금 트집 잡을 데 없는 온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랄 계기가 없을 것이고, 그분은 더는 세상을 심판하실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에서 죄를 벌하시되, 그것이 늘, 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재판관이시라는 어떤 표지와 표를 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선한 자들을 지키시는 것에 관해서도 같은 것이 알아차려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당신께 자기를 맡기는 자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들을 모든 악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러나 그것은 그분이 때로 선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을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그분을 불러도 그분이 그들을 도우려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되, 그분이 많은 것을 마지막 날까지 당신께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후가 여기서 다루어야 할 논지입니다. 그러니 이 장이 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일 위에 고삐를 쥐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쉽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바랄 만한 온전한 형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주 뚜렷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많은 싸움으로 훈련하려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더 멀리 이끄시려 한다는 것입니다.[70] 곧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일들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고쳐 주시기를 구하도록 우리가 그만큼 더 재촉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직무이고,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CO 255 그런데 엘리후는 우리가 말한 것,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일들을 처리하셔서 그분의 의가 경험으로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다루기 전에 여기서 머리말을 씁니다. 그는 "내 말을 들으라. 아직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가 내 지식을 멀리 펼치겠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엘리후가 아직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다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거나 모독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다툼을 지키는 것이 문제일 때 신자는 지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거룩한 성경에서 명하는 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게 하나님의 영예를 지킬 것입니다. 시편

70. 원문은 "et pluie, qu' il nous veut attirer"입니다. "et puis"로 보고 옮겼습니다.

(69:9)에서는 하나님께 가해지는 비방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찔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누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모욕을 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언짢게 하고 괴롭혀야 한다고 말합니다.[71]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누가 우리를 백 번 모욕했다 해도, 우리 영예가 하나님의 영예만큼 우리에게 소중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가운데 누가 상처를 입으면, 오, 그는 곧 원수를 갚으려 할 것이고, 적어도 재판을 요구할 것이며, 그 영예가 회복될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영예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조각조각 찢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럽게 그것을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저주받을 모독을 쏟아 내며, 어떤 이들은 그분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그냥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그것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한마디 했다면 그것으로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난받고, 그분의 위엄이 헐뜯기며, 그분의 이름이 모욕 속에 굴러다니는 것을 견딜 때,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좋은 열심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비겁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셔도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여긴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는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본성이 좋은 자녀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아무 값어치 없는 사람이었다 해도 그 아버지의 치욕을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듯, 또 그분이 실제로 보여 주시듯, 모든 의의 샘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 문제일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를 비틀려 하고 그분의 이름이 치욕으로 끌려가며 요컨대 그분이 완전히 조롱

71. 원문에는 “시편 69편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에 내놓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그것에 찔리지도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CO 256 우리가 그분께 자녀로 인정받을 만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다고 말할 때 이 구절을 훨씬 더 잘 새겨야 합니다. 이 "아직 "이라는 말은, 신자가 하나님의 영예를 거스르는 악인들에게 맞섰을 때 자기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물리치고, 하나님께 모욕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그분의 영광을 줄이거나 흐리게 하려 꾀하는 자들에게 맞서야 합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끝까지 그들의 원수가 되어야 하고, 그런 싸움에서, 그토록 거룩하고 의로운 다툼에서 결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악인들이 늘 나쁜 소송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도 대리인과 변호인을 넉넉히 찾을 것이어서, 호의를 얻고 잘 감싸 받으려면 온갖 악에 빠져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잔치 한 번이나 다른 부패 때문에, 오, 저마다 자기 양심과 혀를 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은 모두 뻔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은 벙어리가 되어 감히 투덜대지도 못합니다. 더러운 일이 그렇게 엄청날 때 (묻건대) 하나님의 영예를 지킬 아무 용기도 굳셈도 없는 자들을 정죄하는 데, 악인들이 그렇게 온갖 악에 매달릴 때 그들에게서 알아차려지는 이 의욕 말고 다른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선을 위해서는 애쓰는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자기에게 줄 선물을 구실로 나쁜 소송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선을 지키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이 좋고 순전한 가르침을 비틀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보여 주고, 사탄과 하나님의 교회에 어지러움과 걸림돌만 놓으려는 자들의 거짓에 맞서도록

그것을 고백합시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롱받고 사람들이 그분을 가지고 장난치며, 모든 경건(religion)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들먹이는 것을 봅니까?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릅시다. 이 까닭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가 상처 입고 경건이 거스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찔리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시다. 셋째로 우리가 모독이 거리와 시장과 술집에서 굴러다니는 것을 볼 때, 그 점에서도 그런 가증한 것을 CO 257 우리 가운데서 없애고 씻어 내도록 할 수 있는 한 맞서려 애씁시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받는 것을 견디지 맙시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가 악이 다스리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앞에 빗장을 걸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애씁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대리인이요 변호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영예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소송을 이긴 것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가장 중요했고 가장 중요해야 했던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아직 하나님을 위한 말이 있다고 말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는 그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 갑니다. 그것은 또한 신자들이 끝까지 거기에 힘쓰고 자기의 모든 힘 이상으로 애쓸 만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지식을 멀리 펼치겠다고 말할 때,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 정신을 우리 타고난 감각이 오르는 것보다 더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자기 공상과 육적인 이성대로 판단하려 한다면 하나님께까지 이르겠습니까? 도리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여기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주어지듯 우리 지식을 길고 넓게 펼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분의 위엄이 우리의 모든 깨달음보다 더 높고,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들어 올리셔야 한다는 것을 알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 말하려고 마땅히 그래야 하듯 자기 지식을 펼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들어 올리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당신의 가르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온갖 공경으로 우리를 낮추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제일 때 우리가 우리 지식을 길게 펼쳐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는 설교에서나 성경 읽기에서나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설교에 오는 자들이 내놓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얼굴을 보인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온 그대로, 그렇습니다, 더 나빠져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이 보물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자들을 눈멀게 하여 벌하시는 것도 아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여기 와서 주둥이만 거기 들이밀고, 그분께 경의를 바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받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은 구원의 가르침에 그토록 작은 영예밖에 드리지 않았으니 신성 모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경을 읽을 때, CO 258 우리가 (마치 모든 것에 대해 선고할 줄 아는 넉넉한 재판관인 것처럼) 우리 교묘함을 믿고 와서 넘겨 보는 교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세상적인 애정 속에 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우리 지식을 길게 펼치기는커녕, 헛되고 허망한 공상과 우리를 죄어 아래로 구부러뜨리는 나쁜 탐욕에 사로잡혀서 머리를 하늘로 들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빈약한 유익을 보고, 신자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고 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를 본보기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 지식을 들어 올리고 길게 펼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또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공경을 가지는 이 영예를 그분께 드리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에게 선을 한 방울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룩한 성경의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 머리에 고삐를 풀지 말고, 우리 지식을 더 멀리 펼치기를 배웁시다.

엘리후는 자기를 지으신 분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모든 말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봅니다. 곧 그분의 영광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녁을 향하는 모든 가르침은 좋고 거룩한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줄이려고 논쟁할 때, 그들이 어떤 아름다운 빛깔을 내세우든 그들 안에 비뚤어짐밖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분을 의롭다고 증명하는 것, 곧 그분께 속한 것을 그분께 돌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높여지시고, 우리가 그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대로 그분을 알며, 모든 입이 막혀 그분을 못마땅해할 계기가 없게 하는 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쓰는 기도에서도 그것을 간구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동시에 자기 말이 거짓 없을 것이고, 욥에게 자기가 지식에 온전하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덧붙입니다. 그는 여기서 좋은 가르침에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것을 꾸미려 애쓰지 않겠다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또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점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말씀을 다루려고 입을 열 때, 어떤 섞음도 없어야 하고 순수함이 지켜져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CO 259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나쁜 말 속에 싸는 사람은 좋고 맛있지만 독이 든 음식을 내주는 것 말고 무엇을 합니까? 어떤 아름다운 겉모습을 가지고 실제로 좋고 참된 말씀을 가져오지만 그 사이에 그것을 거짓과 오류 속에 싸는 모든 자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교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말씀을 가지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순전한 가르침에 아무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이 단순함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잘 다스려진 믿음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는 거기로 향해야 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순전한 뜻 말고는 우리를 인도할 것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우리의 모든 말이 거기로 향하고 거기에 맞추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들이 다르게 다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곧음과 올곧음이 없다면, 우리가 보듯 그분은 당신의 말씀이 단순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런 욕구를 가진다면 결국 우리가 방탕해졌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듯 순수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섞이지 않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좋은 음료나 좋은 음식에 독을 섞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엘리후의 말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욥에게 지식에 온전하리라고 말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 받아들입니다. 마치 엘리후가 결국 욥이 하나님께 과제를 보여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그가 그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원망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려 하고, 그분께 만족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고발하고 그분의 뜻을 뒤엎으려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까닭으로 어떤 이들이 보기에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식에 온전하신 분으로 드러나시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말은 말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그가 "너는 내가 신실한 교사라는 것을 느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것이니 욥이 자기의 모든 말을 잘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그가 거기에 자기 것을 하나도 섞거나 더하지 않고, 참된 가르침을 온전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르침 받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높일 때, 그것을 그가 너무 높아지는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높음 위에서 우리에게 지켜져야 하고 아무것도 그것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받아들여지고 저마다 그 아래 자기를 낮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것을 거슬러 CO 260 대들러 온다면 그것은 괴물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온 세상이 입을 다물어야 할 만큼 그런 온전함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경배받으셔야 해서 저마다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담긴 일반적인 말로 옵시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머리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소송을 변론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되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렇습니다, 마음의 능력으로 강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람들과 구별하고 그분을 그들의 줄에서 빼내기 위한 원리를 세웁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우리처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잘못 판단하는 까닭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의 작음에 맞추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그분과 우리 사이에 무한한 권능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죽을 사람과 닮게 만들려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위엄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넘치도록 흔하고, 심지어 우리는 온갖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엄격함을 쓰시면 우리는 곧 이것저것을 상상하러 가서 그분을 거슬러 분해할

계기를 잡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협하시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노여움이 지나가리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짐승 같은 주제넘음의 까닭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피조물과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그렇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상에 막히고 붙잡혀서 "어떻게? 나는 그분을 그토록 거슬렀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그분을 죽을 사람과 닮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시편에서[72]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에서 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분은 이 말씀을 확인하십니다. "어찌 된 일이냐? 너희는 내가 너희 방식대로 노한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자극했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가 넘치도록 자격이 없다 해도 그분이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까지 펼치기를 그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엘리후의 이 가르침이 쓸데없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넘치도록 유익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 가운데 섞지 않을 수 있는 자는 아주 적어서 그분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 차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서 먼 것보다 더 우리와 다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재서는 안 되고, 그분에 대해 우리 공상대로 아무것도 선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비트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직합시다. 곧 요컨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높여지셔야 해서, 사람들이 자기 CO 261 본성을 따라, 이 아래에서 사람들이 처신하는 것을 보는 대로 그분을 판단하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말고, 그것이 완전히 다른 일이며 낮이 밤과 다른 것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72. 원문은 "시편에서"라고 하지만,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에 가깝습니다. 칼빈은 CO 263쪽에서 이 대목을 시편(103:11)과 이사야(55:9)에서 끌어온 것으로 다시 말합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시되 아무도 물리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을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려 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팔꿈치로 밀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를 넘어지게 하려 애쓰게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아무개가 올라가면 나는 그만큼 밀려난다" 하는 그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죽을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연약함이 있으므로 그들은 늘 자기 이웃이 너무 높아질까 두려워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다툼과 가시 돋친 말로 가득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늘 너무 큰 권위와 신용을 가진 자들을 깎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이웃을 낮추려 애쓰는 까닭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형편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기하시기에는 너무 크시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아랑곳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커진다 한들 하나님께 해를 끼치거나 그분의 영예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보좌를 구름 위로 높일 수 있는 왕도 제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위, 천사들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사 40:22)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아지려 할 때의 이 교만을 말하면서 그들이 메뚜기라고 말합니다. 메뚜기가 뛸 때 다리가 길어서 어느 정도 뛰기는 하겠지만 곧 땅으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면 개구리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사람들의 야망을 조롱하려고 놓는 비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름 위로 날고 천사들의 동료가 된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위엄을 경배하고, 이사야서 구절에서 말하듯 날개로 눈을 가려야 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해를 끼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가 그분께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기하려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의 위엄은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늘 온전하게 남을 것입니다. 일이 그러하니, 그분과 우리 사이에 더는 아무 비례도 없다는 것, 그리고 "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스름을 당하실 때 그분은 마땅히 노하신다. 사람들이 그분께 속한 것을 그분에게서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일에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그것으로 아무 손해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당신 안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피조물을 CO 262 시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크시고, 더욱이 그는 그분이 마음의 힘이 크시다고, 또는 마음의 능력이 강하시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으로 엘리후는 사람들에게 있는 둘째 악덕을 짚습니다. 권세가 있어서 아랫사람들을 시기해서는 안 될 자들도, 그렇게 여자 같은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듯 심지어 악한 본성을 가진 왕들과 제후들도 덕 있는 사람을 보면 언짢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신 것은 내가 덕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영예롭게 하라는 것이다" 하고 말할 참된 고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그들은 자기가 더러울 때 온 세상이 자기를 닮기를 바랄 것이고, 심지어 선한 사람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보십시오, 온갖 더러움에 자기를 더럽히려 하고, 자기 궁정에 사창가를 두려 하는 제후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추함이 드러나는 것을 언짢아합니다. 음행이 어디서나 다스릴 때,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일에 빠질 방종을 더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그토록 더러운 마음이 보이므로, 엘리후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권능 있으시고 사람들이 그분께까지 이를 수 없다는 것 말고도, 그분은 마음의 능력에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덕을 귀히 여기시고, 의가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은 선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많을수록 그분이 그만큼 더 잘 섬김받고 영예를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말고는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이 덕스러운 것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 가운데 어떤 이들이 자기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것을 보면 언짢아하고 분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자기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선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하고, 그것이 그 샘에서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일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영예가 사람들의 덕으로 흐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타고난 감각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려 한다면 그분은 당신 안에서 그분이 받으실 만큼 의롭고 권능 있는 분으로 알려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정신은 그렇게 높이 오르기에는 너무 둔하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덕과 은사를 바라볼 때, 보십시오, 그분이 나타나시는 아름다운 거울과 살아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르게 걸을수록, 그분이 그 점에서 섬김받고 영예를 받으시듯 그것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줄에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 방식과 식으로 그분을 판단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그분이 완전히 구별되셔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미 내세운 시편(103:11)과 선지자 이사야(사 55:9)를 따라, CO 263 실제로 하늘이 땅에서 먼 것만큼도 그분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짧지 않습니다.[73] 그런데 이제 엘리후는 그렇게 말한 뒤에 우리가 이미 다룬 것을 덧붙입니다. 곧 세상에서 많은 일이 뒤죽박죽이라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 고른 질서를 지키지 않으신다 해도, 그래도

73. 원문에는 "(557 9)"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 위에 계시고, 그분이 고삐를 쥐지 않으신다면 이 아래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무서운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섭리의 어떤 표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게 여기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 어쨌든 주께서는 세상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많은 죄를 벌하지 않고 두시고 의롭고 죄 없는 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 이끌리고 주께서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은 통치권을 가지신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하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엘리후가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살려 두지 않으시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인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드는 이 말씀들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 의의 어떤 표지를 알아차릴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밝힌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일들이 아직 우리가 바라는 만큼 그런 질서와 온전함으로 되돌려지지 않은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당신 아들의 인격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리라는 경고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우리 믿음의 조항을 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처리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부활에 관해 더는 믿음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 두시는 것을 봅니까? 그것이 마지막 날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굳게 하게 합시다. 그분께는 지금 뒤죽박죽인 일들을 바로잡고 다시 세우시려고 당신의 위엄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를 벌하시고 우리든 다른 이들이든 당신의

사람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게 여깁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를 벌하신 것을 본다. 그러니 그분이 거울에서처럼 내게 당신의 의를 보여 주셨고, 악인들이 그분 앞에서 셈에 들어가리라고 결론 내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땅의 재판관처럼 한때 반짝 좋은 재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CO 264 땅의 재판관은 어떤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것을 큰 엄격함으로 벌하겠지만, 그 사이에 어떤 부패나 호의를 구실로 다른 많은 범죄를 그냥 넘길 것이고, 보십시오, 그 재판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보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재판정은,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조차 좋고 곧고 꾸준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강도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호의에 움직이지 않으시고 선물에 썩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분은 진리를 따라 심판하십니다. 일이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악행을 벌하셨을 때 그 점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그분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 앞에서 셈에 들어가야 하리라는 것, 그리고 오늘 그것이 감추어져 첫 번에 알아차려지지 않는다 해도 거기 나아가야 할 때 우리가 죄 있는 자이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대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기를 배웁시다. 곧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악인들을 살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고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말했듯이).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한 자들을 지키시려고 그들 위에 깨어 계시고, 그들을 당신의 지키심 안에 두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신다고 결론 내리기에 넉넉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그것의 그런 본보기를 보니, 우리 안에 이 말을 확정하고 결론 내려 두어야 합니다. 그

밖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누르시려고 강한 손을 드시는 것을 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벌하지 않고 두시고 못 본 체하시며, 심지어 여러 곳에서 악인들을 편드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 믿음을 굳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지 않으시는 것을 마지막 날에 당신께 남겨 두신다는 것을 알고 그런 걸림돌에 맞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행을 벌하실 때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고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신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여기 놓인 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이듯, 그것이 우리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시는 것을 봅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분께 달려가도록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데 굳게 섭시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건지시거나 우리 자신을 건지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 돌아가게 하여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어찌 된 일이냐? 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믿음을 두는 모든 자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경험으로 내게 느끼게 하셨다. CO 265 그리고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증거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 선하심의 약속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굳게 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살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 그것을 실천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어떤 범죄가 벌받는 것을 봅니까? 두려움 속에 걷도록 재촉을 받아 "여기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저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희생으로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시고도 그런 엄격함과 진노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두에게 준비되어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도 느끼게 하실 수 있었던 그분의 보응을 피하라고 우리가 경고받게 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징계와 바로잡음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본보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침이 되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 사람은 자기 삯을 받았다" 하고 잘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는 바로잡음을 인정할 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을 볼 때, 나는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같은 악덕에 물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데서 죄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위에서 나를 낮추고 지금까지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로잡음에서 또 다른 열매를 얻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또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저 사람을 모욕한 자들을 쓰러뜨리신다면, 그분이 우리 다툼을 손에 맡아 주시는 것 말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 원수들을 거슬러 일어나시고, 한동안 그들에게 판을 치게 두신 뒤에 그들 위에 벼락을 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데 기대도록 굳게 서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악인들과 그분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분의 모든 보응을 앞질러 막도록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께 순종하는 데 붙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0편

욥기 36장 설교 2

CO 35:266–27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시고,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그분은 의인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왕들을 보좌에 앉히시니 그들이 영원히 높아질 것이다. 그들이 차꼬에 채이고 고난의 줄에 묶여 있다면,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보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느끼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으로 찔림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듣고 순종하면 그들의 날을 좋은 것 가운데, 그들의 해를 영광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칼을 지나고 지식 없이 멸망할 것이다. 마음이 위선적인 자들은 진노를 더하고, 묶여 있어도 부르짖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영혼은 한창때 죽고, 그들의 생명은 음란한 자들 가운데서 끝날 것이다. (욥 36:6–14)

CO 266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그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악인을 살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입증하려고 개별적으로 그분이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신다고 덧붙입니다. 모든 도움을 빼앗기고 온 세상에게 내쳐진 불쌍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박해할 때에도 건짐을 받는다면, 이것은 그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아무 뒷받침도 없는데 그 사이에 억세고 권세 있는 원수들이 있다면, 우리가 멸망했고

우리 생명에 더는 소망이 없다는 것 말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이 아래 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특히 이 말을 놓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섭리의 둘째 본보기도 놓습니다. 곧 다스림, 곧 CO 267 다스리는 제후들과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일들이 질서 없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다루었듯이 한결같은 고름은 없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있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우리는 거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혼란에 고삐를 풀어 주셔서 아직 우리에게 당신 의의 어떤 표지와 표를 주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편으로 사람들의 본성이 어떠한지, 다른 한편으로 다스리고 권위와 재판의 칼을 손에 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어떤 다스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껴야 한다는 것을 보고 판단하기 쉬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본성이 저마다 자기 이웃 위에 다스리고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복종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한 자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본성을 고삐 매실 뿐 아니라 사슬로 묶어 두신 것처럼 하셔서, 이 교만이 다스림을 넘어설 만큼 높아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모두가 악에 빠져 있고 탐욕이 너무 끓어올라서 저마다 온갖 방종을 가지고 아무 바로잡음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재판의 질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점에서 그분이 사람들을 어떤 바름과 어떤 절제 아래 처신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는 왕들과 제후들과 더 낮은 지위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의 칼로 무장시키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이 정하신 것을 없애려 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모든 것을 비트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평화롭게 지켜야 할 그들이 그것을 뒤엎으려 애쓰고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려고 싸우는 것 같은데도, 다스림이 세상에 남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의 어떤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뒤죽박죽이지는 않다면,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의로우시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후가 괴로움당하는 자들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을 말한 뒤에 동시에 다른 종류, 곧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되 하루만이 아니라 이 질서가 세상에 계속되도록 세우신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쪽저쪽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통치권과 영주권에 큰 뒤바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 CO 268 하나님께서는 또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것이 당신의 직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사나움에도 불구하고 이 아래에 아직 어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지어 폭군들에 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불의하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며, 잔인함과 폭력으로 가득하고, 채울 수 없는 탐욕을 가졌다 해도, 그래도 그는 아직 의의 어떤 그림자와 모양을 지켜야 하고 그것 없이 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당신을 선언하시는 것 말고 그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에서 유익을 얻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영화롭게 되시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더는 견딜 수 없고 사람들 쪽에서 아무 도움도 가지지도 기다리지도 못하는 불쌍한 억눌린 자들을 건지시는 것을 볼 때, 거기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알아차리고 그분께 마땅한 찬양을 드릴 마음을 가집시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방법을 따라 부당하게 박해받는 자들, 그렇게 발에 짓밟히고 앙갚음할 거리도 뒷받침도 없는 자들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도록 조심합시다. 말하건대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쓰고 진지하게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뚤어지고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완전히 고삐를 풀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때, 거기서 그분의 섭리를 경배하도록 우리를 낮추고, 그분이 그들의 죄악을 막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넘치도록 무서운 홍수 속에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곧 삼켜지고 구렁에 빠지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다스리고 칼을 손에 쥔 자들이 완전히 악하고 악에 빠져 있는데도 의와 좋은 질서의 어떤 남은 것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높여지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도 재판의 질서를 지킵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높은 좋은 것이고, 거기서도 그분이 당신의 섭리가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후들과 관원들과 모든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뚤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신 이 질서가 그렇게 속되게 되는 것을 보며 탄식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분이 위에 두신 다스림에 맞서는 자들을 몹시 싫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죄의 열매라는 것을 알아서 모든 악의 허물과 원인을 우리 자신에게 돌립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으로 옵시다. 그는 선한 자들이 때로 차꼬에 채이거나, 아니면 그가 말한 큰 자들, 곧 CO 269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와 존귀함 가운데 세상 나머지 모두보다 높이신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때로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치욕에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고 그들이 차꼬에 채이며 부끄러움 속에 밧줄로 묶인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곤경 속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느끼게 하시며, 그들이 저지른 허물을 알려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고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기를 더 잘 생각하고 자기를 알도록 그들의 귀를 여십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더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일 때에도 그 점에서 그분께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해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의롭고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에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계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다룬 것을 늘 새겨야 합니다. 곧 이 세상에서는 일들이 고른 방식으로 다스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하시려는 심판의 큰 부분을 마지막 날까지 남겨 두셔서, 우리가 늘 미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여기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을 알아차릴 몇몇 표지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니 엘리후의 의도는 선한 자들과 의인들이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인들의 폭정에 내놓으시며, 사람들이 까닭 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아무에게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들을 못살게 굴기를 그치지 않을 때 품을 수 있는 걸림돌을 앞질러 막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시선이 우리에게까지 미치지 않으며, 그분이 운수가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어지러운 일들에서 우리가 곧 시선이 흐려지고,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까닭으로 엘리후는 여기서 선한 자들이 박해를 받거나, 권세 있게 높여졌던 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섞으시는 것처럼 쓰러진다 해도, 그 때문에 우리가 정신에서 너무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첫 번에 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참으며 기다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유익하게 하시고 그것이 좋은 끝을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때 그분이 그렇게 괴로움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 주시고, 그들이 어떤 자인지 느끼게 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좋은 바로잡음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일들을 겉모습을 따라 평가해서는 안 되고, 더 멀리 살펴서 첫 번에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CO 270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움직이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선한 사람이 그렇게 박해받고 저마다 그에게 덤벼드는 것은 모든 이치에 아주 어긋나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끝을 바라보아야 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자들처럼 첫 번에 우리 판결을 서둘러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고, 우리는 그것에서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흔히 그것에 대해 듣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언짢아서, 저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매를 조금만 느껴도 분해하고,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인내 속에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움을,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관해서는 부당하게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에도, 그 사이에 그분은 우리 구원을 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보여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번영의 때에는 우리가 눈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징계로 우리를 거기로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 담긴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움 속에 있습니까? 저마다 잠들고 자기 죄 속에서 자기에게 아첨해서, 번영은 우리 영혼을 잠재우는 그만큼의 술취함

입니다.[74]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천 가지로 거슬렀는데도 그분이 우리를 평안 속에 두실 때, 우리는 자기에게 박수치기를 그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알도록 자기 죄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번영이 우리를 그렇게 취하게 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저마다 자기 죄 속에서 자기에게 아첨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참으며 견뎌야 합니다. 고난은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참된 여선생이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정죄한 뒤에 전에 그 속에 몸을 담그고 있던 자기 허물을 미워하기를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의 열매를 알았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부드럽게, 더 잠잠한 마음으로 그것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실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가엾을 만큼 무관심합니다. 그 밖에 우리 허물을 느끼려고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삐를 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박해를,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당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CO 271 그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학교로 부르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 손으로 우리를 때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 넘기실 때, 그것은 우리를 더 잘 길들이고 낮추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들에게 우리를 괴롭힐 방법이 있으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악으로 거기에 애쓴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 손에 맞을 가치도 없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려 하시는

74. 원문은 “se datte“입니다. “se flatte“(자기에게 아첨하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우리는 우리 허물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도록 부추김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에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 곧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여신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뜻합니다. 때로 그것은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놓이게 하실 때 우리 귀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귀먹지 않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들어갈 길을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움직이며 그 힘이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 귀를 여시거나 벗기십니다(그 낱말이 본래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귀를 여는 두 가지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또 당신이 괴롭히시는 자들의 귀를 여십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보다 자기를 더 잘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당신 진노의 어떤 표지를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영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물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즐거움과 세상적인 애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건강하고 평안할 때 흥겨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더는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을 가지지 못하실 만큼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당신 진노의 그만큼의 전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거슬렀다는 것에 찔려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고난은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가르침이 되어서, 그들이 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해도 그분께 가까이 가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분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에 들어갈 길을 주시며, 시편(40:6)에서 말하듯 그들을 당신의 섬김과 순종에 바치시려고 그들의 귀를 뚫으실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스림받도록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75]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먼저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그것은 CO 272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고 우리 소송을 다루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박차에 둔하고, 더욱이 완전히 반역하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권고에 귀먹었으므로, 그분이 우리 귀를 뚫으시고 당신의 가르침에 들어갈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은 찔리지 않고 공기만 울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돌아가도록 움직여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바로잡음을 내던질 뿐이라는 것을 압시다. 경험이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보여 주듯, 하나님의 매를 맞는 자들이 그것 때문에 고쳐지지 않고 도리어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 그런 본보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여실 때까지, 곧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하시고 그렇게 알아들은 뒤에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게 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그들이 듣고 순종하면 그들의 날을 좋은 것 가운데, 그들의 해를 영광 가운데 마칠 것이지만, 듣지 않으면 칼을 지나고 지식 없이 죽으리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주는 유익을 더 잘 선언합니다. 우리가 회개로 이끌려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되돌리시는 것은 이미 큰 좋은

75. 원문에는 "시편 40편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이고 넉넉히 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한 것이 있습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실제로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악에서 건짐을 받고 그분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경험으로 알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을 때 우리에게 기뻐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취하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일찍 거기에 처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그분의 손을 알아차리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은혜와 우리 믿음의 특별한 입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더러움과 (선지자들이 말하듯) 우리 찌끼 속에 고여 있게 두신다면,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거기서 썩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떨어졌던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셨을 때 나타나는 그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바로잡으셨을 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갑절의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먼저 CO 273 그들은 그분께로 되돌아오고, 둘째로 그분의 은혜로 건짐을 받을 때 그분의 아버지 같은 선하심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려는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분의 계획이나 뜻이 그러한지 누가 압니까?" 하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대답을 가집니다. 우리가 고난이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 손 아래 쓰러

지고 낮아지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 맞서려고 놋쇠 목을 가지려 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바로잡음에 굽히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매를 거듭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느껴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가 참으로 그것에 찔렸다는 것을 아실 때, 그분은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약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 위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지십니다. 말하건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어지러움을 보내시는 것을 볼 때 더는 원망하지 말고, 마치 그분이 눈을 감으신 것처럼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그분은 당신이 하시는 것을 잘 아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셨으며, 그것이 첫 번에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 결국 우리는 그분이 일들을 좋은 질서와 좋은 분량으로 처리하셨다는 것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앞당기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 분해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과 언짢음 속에 있을 때 낫기를 바랍니까? 좋고 바랄 만한 결말을 가지기를 바랍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길, 곧 듣고 순종하는 길을 따릅시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당신의 학교에 두실 때 가르침을 받고, 고난이 우리에게 그분께 가까이 가라는 그만큼의 경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그다음에 한 귀로 들어온 것이 다른 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합시다. 오히려 순종합시다. 곧 우리가 그분께 빚진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우리를 맞추는 것 말고는 바라지 맙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악에서 건짐을 받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들어 가고, 그렇습니다, 늘 더 깊이 자기 비참 속에 잠긴다고 놀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받는지 보이고, 오늘 하나님의 매가 어디나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온 백성이

CO 274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전쟁에 짓눌리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십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를 겨우 열둘쯤 찾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채찍 소리가 공중에 울리고 메아리칩니다. 울음과 탄식이 어디서나 무서울 것이고, 사람들은 넉넉히 "아아" 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치는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선지자(사 9:13)가 고집스러운 자들에게 그들이 매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알지 못한다고 꾸짖듯이 말입니다.[76] 우리는 역병과 기근에서도 같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칠 수 없는 상처를 보내시고 선지자 이사야(사 1:6)에서 말하는 것을 행하신다고 놀라야 하겠습니까? 곧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이 백성에게 성한 데가 한 방울도 없고, 나병 같은 것이 있으며, 그들이 모두 썩고 악취가 나고, 그들의 상처가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배은망덕하여 그분께 문을 닫고 그분께 순종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그것에 놀라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맞을 때 곧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느끼고 그것을 언짢아하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을 듣기를 배웁시다. 그렇게 했으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깊이 찔림을 받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직무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보내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집 센 말처럼 굴려 합니까? 그분은 여기서 말하듯 우리를 잘 물리치실 것입니다. 곧 우리가 칼을 지나고 지식 없이, 곧 우리 어리석음 속에서 소멸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칼을 지나리라고 말하는 것은 상처가 완전히 치명적이어서 더는 아무 나음도 바랄 수 없고 우리에게 더는 처방이 없으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경고하실 때 우리가 고집스럽지 않다면, 그분은 우리를 거기서

76. 원문에는 "이사야 9장 12절"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는 13절입니다.

깨끗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좋은 의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자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 이치도 고침도 없고, 우리가 우리 죄를 느껴 그것을 언짢아하지 않고 재갈만 씹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리라는 것을 압시다.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회개할 자리를 주실 때 그분께 돌아가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곧 우리가 알맞은 때에 나아가고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 때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유익을 위해 주어졌던 모든 징계가 우리에게 더 큰 정죄로 돌아가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만큼의 소환장이 되어야 하며, 심지어 모든 불행의 꼭대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면서 하나님의 그런 보응을 자극하지 않도록 CO 275 그만큼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상처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작은 일이겠습니까?[77]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당신께 들어갈 길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분해하고 자기를 맞추려 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들 때, 그것은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은혜를 발로 짓밟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의를 견디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에게서[사 22:13–14]) 당신이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하실 때 그들이 흥겨워하며 "먹고 마시자" 하고 말하면 그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고 당신의 위엄을 두고 맹세하시기 때문입니다.[78]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에 너무 노하셔서 그 죄가 끝까지 당신 앞에 기록되리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실 때, 그분이 그 일에서 우리 구원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낮추도록 그만큼

77. 원문은 "Car ostee peu de chose"입니다. "Car est-ce peu de chose"로 보고 옮겼습니다.
78. 원문에는 "22,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자"는 13절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말씀은 14절이므로 13–14절로 적었습니다.

더 우리를 재촉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당신의 멍에를 두려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내던지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매를 마치 그분이 모루를 치시는 것처럼 튕겨 내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은 자들은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곧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허물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려 할 때 무지의 방패를 잘 들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 나는 그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지를 말할 때, 그것은 그들이 짐승같이 되었고 그들 안에 아무 이치도 없었으므로 그들을 그만큼 더 정죄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사 5:13–14)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열렸고, 무덤이 모든 것을 삼켰으며, 온 백성이 소멸되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79]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죄인들이 알면서 멸망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이 그들에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이 유대 백성에게 그들이 짐승같이 되었다고 꾸짖으십니다. 주께서는 당신 쪽에서 우리가 잘 가르침 받지 못하는 것이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넉넉히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스승이시고 우리는 나쁜 학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먹었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는 스스로 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과제를 보여 주시고 당신께 나아가기를 가르치시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도리어 늘 자기 흔한 길을 가기를 더 좋아하며, 눈을 감고 귀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CO 276 악의와 반역으로 가득한 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79. 원문에는 "5, 14"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말씀은 13절, 지옥이 입을 연다는 말씀은 14절이므로 13–14절로 적었습니다.

물론 한동안 악인들은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않을 때 스스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그 본보기를 보듯, 그것은 그들에게 더 나쁠 뿐입니다. 온통 악에 빠진 이 방탕한 자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보응으로 그들을 위협하면, 그들은 고개를 흔들고 비웃기만 하며 그것이 장난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은 설교를 조롱하고 거룩한 성경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것이 더는 아무 공경도 권위도 가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자기 처지를 더 나쁘게 합니다. 이 말씀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식 없이 멸망해야 하리라는 것, 곧 그가 짐승같이 되어 있는 그 무지가 더 큰 파멸의 원인이 되고 그를 하나님의 저주 속에 그만큼 더 잠기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귀를 세우며,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듯 우리 본성이 늘 우리를 대들게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 밖에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나 생각 없는 자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 드리는 것이 문제일 때에는 어리석음과 무지라는 이 핑계를 잡으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더 우리는 일찍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분의 매를 맞는 만큼 우리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끌립니다. 그러니 그분이 귀먹은 자들에게, 나무토막에게 말씀하시듯 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놓는 가르침을 받으려

고 귀를 열어 둡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실 고난을 견디도록 참읍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무언가가 있을 때에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그 속에 절여져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때문에 늘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높이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지 않다면,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느 쪽에서 오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보내실 때 그분이 무엇을 노리시는지도 알아들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CO 277 그분의 손에서가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동시에 마음이 위선적인 자들은 진노를 더하고, 묶여 있을 때 부르짖지 않으며, 그들의 영혼은 젊음 가운데 죽고, 그들은 음란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마음이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는 악의에 절여져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뒷가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곧음으로도 이끌릴 수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 죄를 짓고, 경박하며, 쉽게 방탕으로 이끌리지만, 그들 안에 아직 고집스럽고 뿌리박힌 악의는 없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위선적인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곧 업신여김과 온갖 반역의 뿌리를 가져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아무 공경도 없고, 마귀가 그들을 너무 홀려서 그들은 선을 정죄하고 악을 따르며, 적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그것을 기르려 합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여기서 마음이 위선적인 자들을 말할 때, 그는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져서 경박함으로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악에 너무 길들여져 (흔히 말하듯)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버릇이 든 자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본보기가 너무 많이 보입니다. 경박하고 연약함으로 거스르는 자들을 악인들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견주어 보면, 악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여기서 그들을 마음이 위선적인 자들, 또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 곧 끝까지 악의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 복종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진노를 더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런데 이 "진노를 더한다"는 말을 잘 새깁시다. 그것은 늘 불을 더 지피고 그것을 키우려고 장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뚤어진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고 분해할 때 무엇을 합니까? 자기 소송과 처지를 고칩니까? 아아, 그들은 늘 장작을 더 쌓을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그만큼 더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맞서서 CO 278 우리 악의와 고집으로 그것을 튕겨 내려 한다면, 우리는 진노를 더할 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소멸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들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이 뿌리 박힌 반역과 이 감추어진 악의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잘못했다 해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고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하는 것 말고 무엇입니까? 또 늘 이 마음의 삼감과 단순함에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를 만큼 그렇게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약고 꾀바르게 굴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셈을 낫게 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거스르는 그분의 진노를 키울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게 자기 위에 커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나쁜 행실을 어떻게 잘 바로잡아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진노의 자람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가지 악에서 건지셨을 때 그들이 빠져나갔다고 여기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이런

수단들, 곧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새 매를 펼치시고 칼을 뽑아 두셨으며 우리가 기다리지 않을 때 갑자기 우리 위에 벼락을 치러 오시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충분히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그것이 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점점 더 우리 위에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돌려 생명으로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시던 전갈을 우리가 업신여겼을 때에는 십만 가지 죽음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업신여겼을 때 우리는 우리 위에 그분의 무서운 보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분은 당신의 선한 뜻에 스스로 원해서 복종하는 자들을 늘 기쁘게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단언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1편

욥기 36장 설교 3

CO 35:279–28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가난한 자를 그의 고난 가운데 구별하시고, 억눌림 가운데 그들의 귀를 여신다. 심지어 그분은 너를 괴로움의 입에서 건져 내시어, 아무 곤경도 없는 넓은 곳에 두셨을 것이고, 네 상의 평안함은 기름짐으로 가득했을 것이다. 너는 악인의 심판을 채웠다. 그러나 심판과 공의는 굳게 설 것이다. 이는 보라,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그분이 너를 네 넉넉함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고, 많은 예물이 너를 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네 큼도, 네 모든 비축도, 네 모든 힘도 귀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욥 36:15–19)

CO 279 우리는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처지를 더 나쁘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보응을 키우고 불을 더 지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결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려는 자들은 한창 젊을 때, 음란한 자들과 함께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흔히 “멋진 건달이로군, 저자는 교수형을 당할 것이다” 하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힘을 가진 채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편안한 것을 볼 때 거만함과 교만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잘 소멸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다시 자기가 말한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괴롭히시는 자들의 귀를 여신다는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신시키기 어려운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가르침

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혹독하고 언짢아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화나고 찔리며 하나님의 손을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우리는 거기서 돌아오는 열매를 알지 못하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실 때 그들의 귀를 여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상기시켜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 그분이 고난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낱말을 "건지다"로 풀이하고, 그렇게도 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고난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엘리후가 놓는 비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징계하시는 자들을 당신께로 거두시고 따로 떼어 두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번영 속에 있을 때에는 떠돌고 그들의 감각이 눈이 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느끼게 하시자마자, 그것은 마치 그분이 그들의 허물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려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CO 280 이제 요컨대 엘리후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귀가 고난 가운데 열린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움 속에 있으면 우리 눈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듯, 번성하는 자들은 기름짐으로 눈이 터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죄 속에서 완전히 고집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우리 귀가 막혀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고난으로 우리 귀를 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가르침은 흔한 경험으로 넉넉히 입증되어서, 모호한 것처럼 여기서 풀이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에 짓눌리지 않은 자들이 아무 바로잡음도 견디지 못하고, 누가 그들에게 말하자마자 분해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에게서뿐 아니라 백성 전체에서도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쟁도 역병도 기근도 없으면, 죄를 꾸짖을 때 사람들이 원망하고 걸핏하면 맞서는 것밖에 없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이 살찌면 귀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죄를 경고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권고에 맞서 대드는 이런 거만함이 없을 때에도, 그래도 말해서 얻는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허물을 꾸짖어도 매한가지이고, 사람들은 그냥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 저마다 이미 자기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또 세상에 그토록 많은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임을 받지 못하시고 그분이 강한 손을 쓰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분의 입을 아랑곳하지 않으므로, 그분은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으로 부풀어 있고 달리는 그들을 다룰 수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길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억지로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늘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집스러운 악의로 하나님의 손에 맞서고 늘 완고하게 남아서 매를 느낄 때 더 나빠지는지 보이고, 그것은 너무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괴롭히실 때 그분은 두 가지 목적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유기된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핑계할 수 없게 하려 하시고, 선한 자들에 관해서는 그들을 CO 281 꺾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려 하지 않으시고 그 까닭으로 징계하시는 자들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일하셔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다스리시려고 그들의 구원을 마련하려 하시는 자들을 말합

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아직 귀가 막혀 있을 것이고 자기 즐거움에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본성에 무서운 비뚤어짐이 있다는 것을 압시다.[80]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에게 그분께 나아가려는 어떤 좋은 욕구와 마음이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늘 이 도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고 박차를 가하시며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우리를 당신께로 길들이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시다.[81] 그리고 우리 육신이 그렇게 꺾이지 않으면 늘 그 안에 반역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언짢음과 비참함을 이 쓰임에 적용하도록 쓰이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을 거슬러 고집부리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 귀를 여시려 한다는 이 앎을 가졌으니, 고난이 우리에게 쓰이고 유익이 되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바른 길로 들어섰다면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 정욕 속에서 헤매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보듯 대부분의 사람은 들떠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실 때 그분에게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리로 갈 길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구별하도록, 곧 하나님께로 거두어진 것처럼 되도록 조심하고, 우리가 너무 빠져 있는 것을 보듯 그렇게 우리 헛된 것과 나쁜 애정에 취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그분이 사람을 괴로움과 고난의 가장자리(본래는 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에서 건져 내시어 넓은 곳에 두실 것이고, 거기서

80. 원문은 "u ce horrible perversité"입니다. "une horrible perversité"로 보고 옮겼습니다.

81. 원문은 "qu' il nous doute à soy"입니다. "qu' il nous donte à soy"(당신께로 길들이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는 더는 곤경 속에 있지 않을 것이며, 그의 상의 평안함이 기름짐으로 가득하리라고 덧붙입니다. 이 "평안함 "이라는 말은 그 위에 놓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의 상이 평화롭고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후는 그에게 그의 배은망덕을 꾸짖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 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너그러우시지 않았다면 네가 가졌던 그 많은 재물이 어디서 네게 왔겠느냐? CO 282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은 아직도 그렇게 너그러운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곧 네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부드럽게 대접받을 만한 자라면 말이다. 그러니 그분이 시작하셨듯이 이루실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너는 악인의 심판을 채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서 네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잘 본다." 그런데 물론 욥은 여기서 일부는 부당하게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엘리후가 그를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했다고 정죄하고, 이 모든 원망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공의가 굳게 서리라고 그에게 선언하는 것은 완전히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절에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지럽지 않고 그분 손의 징계가 까닭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도 우리를 거기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좌에 높이시고 그의 원수들을 이기는 그토록 많은 승리를 주신 뒤에, 그를 극한까지 괴롭히셔서 그가 완전히 구렁에 빠질 것처럼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완전히 그분 손에 있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를 처리하셔야 하며 우리가 그분이 보내시는 징계를 참으며 져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좋은 것들을 기억하되, 그렇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우리를 이리저리 돌리시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는 것을 알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기억은 또 우리 슬픔을 누그러뜨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엄격함밖에 느끼지 못했다면, 우리 고난 속에서 너무 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께 달려갈 용기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언하셨고 부드러움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그분은 그분을 믿고 그분 손에 다스림받도록 자기를 맡기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과 고난에 짓눌린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 정신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생각하지 못할 만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징계만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구렁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엄격함 가운데 섞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받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께 달려가기를 그치지 말고, 그분이 우리 고난에 좋은 결말을 주시리라고 바랍시다. CO 283 그렇게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자들이 그분을 좋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로 찾는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기서 엘리후의 입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악인의 심판을 채웠다고 말하는 이 절로 옵시다. 물론 이 말을 그가 공의와 심판을 죄악의 심판으로 채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뜻은 욥이 고삐를 풀어서, 그렇습니다, 악인들과 짝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그가 도둑이나 음행하는 자나 살인자였던 것처럼, 그가 모독하는 자나 방탕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그런 것을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욥이 자기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그분을 거슬러 너무 속을 끓였으며, 심지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못하시고 자기에게 잔인함을 쓰시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 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여기서 정죄받는 것은 이 점에서입니다.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고난을 충분히 참으며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인들의 심판을 채운다", 곧 그들의 방식과 엄청난 일에 뜻을 맞춘다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당신 이름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음행에, 어떤 이들은 폭력에, 또 어떤 이들은 탐식에 빠질 때 그 점에서 하나님의 의가 범해지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질서가 비틀리고 썩으며, 우리로서는 우리 죄가 늘 하나님의 위엄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드러내 놓고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고 그분 손 아래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다른 모든 죄를 넘어서고 더 무겁게 정죄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에게 그가 악인의 심판을 채웠다고 꾸짖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사람이 길을 벗어나자마자 이미 악인들 가운데 휩쓸리기 시작하고, 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빼앗는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에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허물이 중간쯤인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꼭대기에 이르고, 마귀가 우리를 그분을 거슬러 부추길 만큼 그렇게 그분을 업신여기게 되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려고 광증이나 미침처럼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천사 같은

온전함의 거울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앞에서 단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곧 그가 CO 284 고아들의 보호자, 과부들의 보호자, 눈먼 자들의 눈, 저는 자들의 다리였고, 그의 상이 모든 가난한 자에게 열려 있었으며, 추위에 떠는 자들을 자기 가축의 털로 입혔고, 어디서나 판을 쥐고 있어서 많은 강탈을 할 수 있었는데도 결코 자기 신용을 남용하여 아무도 억누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그런 격렬함으로 그를 짓누를 때 그가 고삐를 풀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말하자면 알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은 길을 벗어날 때 그들로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사탄의 그물에 뛰어들러 갑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의롭게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에게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버림받은 것처럼 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토록 빨리 악으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자극하기를 이어 왔고 우리로서는 그분 성령의 빛을 꺼 버렸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알아서 우리를 눈멀게 하는 아무 주제넘음도 가지지 않도록 그런 조심스러움 속에 걷도록 잘 조심합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굳센 손으로 우리 손을 잡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기울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꼭대기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그분의 자비에 달려가려고 탄식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더 잘 붙잡혀 있도록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 곧 심판과 공의가 굳게 서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마치 사람들이

아무리 미친 자처럼 굴어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남으실 것이고 결국 그들의 재판관이 되셔야 하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82] 사람들이 높아진다 해도 그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겨누어 아무리 쏘아도 그렇게 높이 이르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해를 뽑아낼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을 건드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고 그분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듯 싸움을 걸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여기서 선언하듯) 공의와 심판이 굳게 서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의도를 보았으니, 그가 여기 놓는 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합시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다투는 데 아무 어려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분을 CO 285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앎으로 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위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다를 꺾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고 그분의 의를 거슬러 원망하려는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 어쨌든 공의와 심판이 굳게 설 것이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그분을 거슬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무한하고 그분의 심판이 늘 그 기운과 힘 가운데 남아 있으니,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완전히 따르는 것 말고 무엇이 남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서 눈이 부시는 것을 보듯 우리의 헛된 주제넘음 속에서 더는 스스로 속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께 고유한 것, 곧 우리가 줄일 수 없는 의와 우리가 아무 손해도 끼칠 수 없는 심판을 돌려 드립시다.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렸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더 절제하고 삼가게 될 것이고, 그분을 거슬러

82. 원문은 "en son entrer"입니다. "en son entier"로 보고 옮겼습니다.

변론하려고 부리를 날카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겸손으로 우리 허물을 알아 우리가 그분을 거슬렀을 때 탄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 속에서라면, 우리가 그분 손에 징계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억지로처럼 우리를 거기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학교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유익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가르침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진노는 사람이 자기 넉넉함 속에서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는 아무 용서도 없으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분은 금도 은도 세상의 모든 힘도 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다룬 것의 아름다운 확증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끼신다면 우리는 점점 더 잠들기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울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실 때, 그분이 그들을 오래 기다리실수록 그들이 짐승같이 되기만 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쓰실 때 그분의 의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얻으시려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너무 비뚤어진 본성을 가져서 그분께 가까이 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치고 그분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기만 하는 것이 너무 흔하다는 것을 봅니다. 일이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펼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오래 아끼실수록 그것은 우리 멸망을 키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고전 11:32). 곧 우리가 CO 286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거칠게 나타나실 때 그것을 마련하시니, 우리 언짢음 한가운데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을 견딜 수 없고, 늘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노를 느끼게 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말하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실천된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수고도 들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를 갈고, 저마다 날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처럼 여기거나 우리 마음이 죄어서 우리 죄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쓴맛을 품는 대신, 우리는 부드럽고 잠잠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이 참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천할 때가 오면 그것을 잊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 그토록 자주 이것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그 기억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노하신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제로 그분의 진노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 선하심의 증거이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를 당신께로 다시 부르셔서 우리가 들어섰던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이 바라보시는 끝과 과녁을 어떻게 경고받아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다시 우리 본성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경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려 하시고 말하자면 당신의 품에 안아 두려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발길질하고 그분을 할퀴며, 요컨대 그분이 늘 우리에게 쓰실 준비가 되어 계신 이 선하심과 부드러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더럽

고 너무 배은망덕한 본성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이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스럽고, 약한 자들을 참아 주시며, 사람들이 그분을 거슬렀어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일이 그러하니,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엄하고 매섭게 나타나실 때, 그분은 말하자면 모습을 바꾸시고 당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히려 우리 악의 때문에, 우리가 들짐승이고 너무 고삐가 풀려서 그분이 우리를 너그럽게 당신께로 거두려 하실 때 CO 287 곧 물어뜯고 그분을 거슬러 발길질하므로, 그분은 그런 거칢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거칢을 쓰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비뚤어짐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벼락을 치려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이 한 손으로 우리를 치신다면 그것은 다른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무덤에 두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늘 위로 높이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보이시고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위로받을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로는 동시에 평온한 양심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격함에 놀라서 그분이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때 우리가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려 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께 피난처를 두고 겸손 가운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이시라고 선언하실 때, 그것은 우리 마음을 모든 반역과 모든 쓴맛에서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그분께 순종하도록 맞추고 이렇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그토록 선하시니, 내가 주의 손을 거슬러 대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손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우리를 맞추어서, 그분께 다스림받도록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의를 좋게 여겨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 반역으로 불을 더 지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넉넉함과 함께 무너뜨리시고 소멸시키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교만을 꺾으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손을 거슬러 자기를 무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엘리후는 아무 무름도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큰 예물을 가져와도 소용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금도 은도 없을 것이며,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리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거슬러 쌓아 올리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부자이고, 어떤 이는 신용이 있으며, 어떤 이는 귀히 여겨지고 영예를 받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성벽을 쌓으려 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막을 만큼 무장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 해도 어쨌든 늘 우리 안에 어떤 멍청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진 것처럼 되어 자기 안에 덕이나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맞서기에 넉넉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의 모든 넉넉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CO 288 그분은 그 위에 숨만 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힘을 아무리 모아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힘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억센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위아래에서 피조물에게 있는 모든 힘을 모았다 해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거스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려면 모든 헛된 주제넘음을 버려야 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우리 안에 어떤 힘과 기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기를 기뻐하실 때 그 모든 것이 연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이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해 주시기를, 곧 우리가 우리 생명과 거기 딸린 모든 것을 그분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에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그분께 기대게 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들의 넉넉함과 함께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소멸되리라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무름도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말한 것을 더 잘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저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무를 수 없다고 고백할 것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재물과 신용과 그와 비슷한 것들 속에서 잠드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는 하나님께 맞설 수 없다" 하고 말했을 때에도, 그래도 그들은 마치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것처럼 그것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주제넘음이 어디서 옵니까? 보십시오, 썩은 고기와 부패일 뿐인 땅벌레가 와서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질 것입니다. 거기에 무서운 멍청함, 짐승보다 더한 멍청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부자이고, 귀히 여겨질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자기를 내세우려 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기까지 할 때, 그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해도, 보십시오, 그는 너무 멍해져서 자기 금과 은이 자기를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행위가 이 마귀적인 오만을 참으로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 금과 은을 믿고, 그것을 좋은 쓰임에 쓰는 대신 그것을 계기로 그런 교만을 거두어 하나님께 부딪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여기서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업신여기신다는 것이 CO 289 선언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만큼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가장 지혜로운 자들, 곧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평판을 가진 자들이 번번이 너무 눈이 멀어서 자기가 금과 은으로 무름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가졌고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영예롭게 한다는 구실로, 보십시오, 그들은 너무 취해서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더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자기를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을 더는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이 마귀적인 대담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그러하니, 지금까지보다 하나님의 매에서 더 잘 유익을 얻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우리를 치지 않으실 때에도 그분이 눈으로 보여 주시는 바로잡음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알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희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할 징계를 내놓으시는 그런 선하심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조심하고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지 맙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무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당신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름 값으로 달려갑시다. 사도 베드로도 보여 주듯이(벧전 1:18) 우리는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흠 없는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로 무름받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의 결론으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모든 수단을 빼앗겼고, 그분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온전히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뒤에,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놓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에게 좋은 처방을 주셨다는 것, 그때 우리가 무름받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애기에 넉넉한 값이라는 것, 마귀가 더는 우리 위에 아무 권리도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많은 죄에 짓눌려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답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범죄를 갚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피난처가 있어야 할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주제넘음을, 그렇습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나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나 벗어 버릴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기서 깨끗하게 하실 이 수단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우리 죄 속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구렁에 빠졌으리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가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려고 더는 그런 광포함에 들뜨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저마다 고삐에 매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스스로 원한 끈으로 매인 것처럼 머뭅시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처럼 우리를 사슬로 묶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저마다 스스로 원해서 자기에게 고삐를 맵시다. 그분을 거슬러 아무것도 꾀하지 않는 이 절제를 우리 안에 가집시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실 때 저마다 자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를 징계하신다. 나는 그것에서 유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못 들은 척하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를 가까이서 살피고, 그분이 주시는 본보기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앞에서 말한 것, 곧 우리가 늘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더 무서운 보응을 우리 위에 쌓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2편

욥기 36장 설교 4

CO 35:290–30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백성들을 그들 아래에서 멸절시키려고 밤을 허비하지 말라. 죄악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고난보다 그것을 골랐기 때문이다. 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높이시니, 가르치는 데 누가 그분과 같으냐? 그분이 누구를 당신의 길들에서 당신 위에 세우셨으며, 누가 그분께 "주께서 죄악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겠느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분의 일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라. (욥 36:20–24)

CO 290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좋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보십시오, 우리 평생을 위한 모든 가르침과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할 곳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밤에, 우리가 물러나 있을 때 우리는 이 공부에 전념할 겨를을 가집니다. 낮에는 우리가 본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만, 밤에는 그것을 CO 291 더 큰 겨를과 평안 가운데 생각하고 더 잘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량을 지켜야 합니다. 곧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높고 우리 정신을 넘어선다면 거기 멈추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분이 당신이 하시는 일의 이유를 우리에게 숨기기를 기뻐하실 때에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83]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백성들이 자기 아래에서 멸절되는 것을 두고 너무 곱씹으려고 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멸절시키시는지 캐묻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을 배우기

83. 원문은 "trop hantes"입니다. "trop hautes"(너무 높은)로 보고 옮겼습니다.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논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 전체와 그 주민을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 수고도 들지 않는다면, 불쌍한 한 사람은 어떻겠는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큰 무리의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한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가 영원한 형편을 가졌다고 여겨야 하겠는가?” 그러니 보십시오, 유익한 견줌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거스른 한 나라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죄를 아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겠는가? 나는 비참한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때로 우리 정신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질문이 우리 머리에 떠오른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배하는 이 삼감 속에 머무는 것 말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을 너무 길고 깊이 캐묻는 지나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밤을 허비하거나 삼켜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금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백성들이 자기 아래에서 멸절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더 높이려는 것이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살라고 주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을 구렁에 빠진 것처럼 녹아 없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백성이 눈에 보이게 쫓겨나 어떤 먼 지방으로 옮겨졌는데 늘 전과 같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눈처럼 녹이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때로 사람이 많이 살던 나라가 지금은 황폐한 것을 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그들을 짚어 낼 수 없을 때, 그들의 기억은 지워진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말하자면 자기 발밑에서 멸절되리라고

말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치 땅이 열려서 그들이 거기 삼켜지고 그들이 다닌 길의 흔적조차 알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CO 292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실 때,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나라에서 끌어내어 새 거처를 주시는 것이 알아차려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정신이 오르는 것보다 더 높게 깨달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를 놀라게 해야 할 그분 안의 높으심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없애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는 데 우리 정신을 쓸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을 가지기를 배웁시다. "그것은 너무 높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했을 때 우리는 짧게 멈추어야 하고, 우리 정신은 그렇게 길게도 넓게도 뻗지 못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아주 좋은 권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시키려 하실 때 아래의 보이는 수단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다 해도 그분은 우리를 녹아 없어지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받치는 땅이 우리에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지 않으신다 해도 말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노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옮기시거나 우리 목을 부러뜨리시려고 우리를 던지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서 있고 우리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시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고,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를 낮추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말고 다른 기초를 가지지 않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시겠다고 약

속하시니, 그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를 맡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헛됨과 모자람을 알아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어떤 주제넘음으로 높아지지 맙시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죄악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고난보다 그것을 골랐다", 또는 "고난 때문에 그것을 골랐다"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낱말과 말투가 둘 다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욥은 여기서 악으로 돌아서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 아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시기나 그와 비슷한 것을 알아듣지 말고, 참지 못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분함과 원망과 반역을 알아들읍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악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의를 고백할 만큼 충분히 참는 자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O 293 그런데 특히 그에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거기 넘어지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욥에게 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쓰여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마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악으로 기울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입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드리자마자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분하고, 우리를 언짢게 하는 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난이 크고 격렬하면, 전에 어떤 힘이 있었든 우리는 쓰러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꺾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어도 우리는 용기를 잃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으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하고, 굳게 버티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애쓴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아직 아주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신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악을 조심하려고 수고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서 소멸될 것을 보시면 우리를 참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거기로 향하고 우리 저마다 거기에 힘쓰기만 한다면,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우리 의무를 온전히 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이는 수고를 받아 주시고 좋게 여기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따라 이 점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첨하지 말고 그 위에서 힘써서 악으로 돌아서지 않게, 곧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 너무 언짢아하지 않게 합시다. 말하건대 그분을 거슬러 대들지 않고 그분의 의를 거슬러 원망하지 않도록 수고합시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고 그분께 반역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분이 하시는 것을 좋게 여길 수 없을 때 그것은 죄악의 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이 사람들의 판단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치도록 엄청난 범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느낄 때마다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도록 경계합시다.

그리고 엘리후가 욥이 고난보다 악을 골랐다고, 또는 고난 때문에 골랐다고 덧붙일 때 그것을 더 밝게 보여 줍니다. 두 풀이 모두 같은 과녁을 향합니다. 곧 욥이 자기를 낮추도록 자기 처지를 잠잠히 지지 않았고,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졌으며, 자기를 당신 권능 안에 쥐고 계신 분의 손 아래 CO 294 자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욥이 우리에게 인내의 거울로 내놓이는데 어떻게 그런 반역으로 정죄받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을 풀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를 참는 자로 잘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덕이 그에게서 칭찬받고, 그는 죽을 사람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성령께 그 증언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에게 불완전함이 있었고 어떤 점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전하도록 잠잠하려 애썼는데도 정죄받는다면, 묻건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있던 인내를 우리의 분함이나 원망과 견주어 보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 하나만 드셔도 노여움으로 불타오르고, 원망하고 언짢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욥의 덕에서 아주 멀다면, 우리는 그보다 백 배나 더 정죄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고난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우리에게 보내진 것이지만, 그 본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악덕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부추긴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잘 다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면서 그분께 피난처를 두고, 그분을 우리 재판관으로 안 뒤에 그분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더는 우리 허물 속에서 즐거워하거나 박수 치지 않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완전히 거꾸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를 낮추는 대신 대들기만 하고, 이를 갈며 날뛰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가난하거나 병들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다른 비참함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 속에 두시기를,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공상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뜻을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에서 악으로 기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런 비뚤어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삐 속에, 그분의 순종 아래 붙드시려고 정하신 수단을 우리가 반대로, 완전히 거꾸로 돌려서 들짐승처럼 굴고 그분을 거슬러 분해하며 박차에 발길질하는 것을 봅시다. 말하건대 그런 악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있는 한 그것에 맞서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런데도 욥이 여기서 고난 가운데 죄악을 골랐다고 고발당한다면,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일어나리라고 생각합시다.

그 밖에 “고난보다“라고 말할 때(그것이 더 알맞고 더 자연스러운 풀이

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CO 295 둘 다 같은 것으로 돌아오지만 말입니다), 그 말투에는 어떤 맛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가르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고난보다 죄악을 골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할 때, 그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빠져나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쓰러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거슬러 싸웁니다. 물론 그것은 헛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대에서 헛되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참지 못하여 그분을 거슬러 이를 갈 때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는 하나님께 매이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나는 이 말이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난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 없는 모든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언짢아하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물리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낀다면, 우리는 참지 못함을 지금보다 더 몸서리칠 것이고, 심지어 그것이 견딜 수 없는 모독이라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분해하고 속 태우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 곧 참지 못하는 모든 자가 더는 하나님께 매이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자기 위에 가지신 통치권과 권위를 없애 버리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으로 맞추려 하실 때마다 우리가 늘 하던 것보다 더 참으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높이신다고, 그리고 가르치는 데 누가 그분과 같으냐고 덧붙입니다. 또는 "누가 그런 율법을 주시는 분이냐?" 하고 읽고, 다른 이들은 "누가 그분처럼 던지거나 내던지는 자냐?" 하고 풀이합니다. 그 낱말은 "던지다"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의 흐름이 보여 주듯,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문제이니 그 낱말을 “가르치다“, 또는 “법과 가르침을 지우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 낱말이 대개 그것을 뜻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먼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가르치는 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생하게 찌르시고 우리 마음을 뚫으셔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펼치시는 속의 능력에도 관련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이시고, 우리를 당신의 학교에 두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이 없다고 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를 둘 때까지 우리 안에는 헛됨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만 굳셈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CO 296 그리고 실제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아주 학식 있고 아주 교묘했을 때에도, 늘 그들의 깨달음을 흐리게 하는 구름을 가져서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었고, 늘 혼란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은 선생이 없다는 것은 아주 참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결코 온전히 가르침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여기서 더 멀리 나아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속을 찌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알아 거기에 우리를 맞추도록 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 성령의 고유한 직무이고, 그분은 어디서나 그것을 당신께 남겨 두시며, 경험이 그분이 이 찬양을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끝없이 쉼 없이 거룩한 성경을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풀이되며, 학식이 뛰어나고 솜씨가 큰 사람들을 가진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마음을 찌르시고 부드럽게 하실 때까지, (여기서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 귀를 뚫으시고, 우리 눈을 여시며, 돌처럼 단단한 우리 마음이 살로 바뀌고, 우리가 그분의 순종 아래 굽힐 때까지 그들의 모든 수고는 쓸데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흘러가 버리기만 할 것이고, 결코 우리 영혼에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과 같은 선생이 없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밖에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르침을 받도록 그분께 나아가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생각과 상상 속에서 지혜로운 체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학교에 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문을 닫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실 때까지 완전히 무지한 자가 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 공상에 떠오를 모든 것은 그것이 온통 거짓과 속임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발아래 둡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이 구절에서 뜻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보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높이신다", 또는 "들어 올리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끝까지 안다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작품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살필 수 있고, 그것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살펴봅니다. CO 297 우리는 또 그것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능력으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놀라우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끝까지 캐물으려고 거기까지 꾀하고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전체를

깨닫지 못할 때 경솔하게 판단하고 자기 무모함에 고삐를 풀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분의 무한한 능력에서 나오는 만큼 그토록 높다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또한 우리를 거기 붙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엎드려 있고, 거리가 멀며, 그렇게 높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성령께 절제를 받는 것을 견디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기를 바라지도 탐하지도 맙시다. (요컨대) 그분의 학생이 되고, 우리 공상이 헤매지 않도록 그것을 붙드는 데 우리의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이제 우리는 엘리후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러니 앞에서 한 말을 더 잘 굳히도록 이 권고를 따릅시다. 우리 정신의 작음을 알고 거기서 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 우리 공부를 쓰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높이신다고 말할 때, 그분이 우리 욕구대로 우리를 헤매게 내버려 두려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작품이 사람들의 작품과 비슷하게 여겨진다고 말할 만한 그런 거만함을 품지 말고, 그분이 그것이 높여지고 경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 밖에 우리에게 영이 모자라고 그 사이에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캐물으려고 우리를 재촉하고 간지럽히니, 가르치는 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정신이 그분의 손과 이끄심 아래 다스려지도록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그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이고,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호기심을 물리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늘 우리를 붙들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절제하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데 길들여졌다 해도, 그래도 늘 그들 머릿속에서 날아다니는 호기심이 있고, 그들은 마음이 흐트러지며, “이것은 왜 그런가? 저것은 왜 그런가?” 하는 많은 상상이 그들 앞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이 결론으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없고 어떤 피조물도 그것에 넉넉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고, 그분이 CO 298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거기 담긴 것을 배울 뿐 아니라, 우리가 비춤을 받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당신께 맞추어 온전히 고삐 속에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84]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누가 그분의 길에서 그분 위를 돌보겠느냐? 누가 그분께 '주께서 죄악을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또는 "누구를 그분이 당신의 길에서 당신 위에 세우셨느냐?" 하고 읽습니다. 그 낱말은 때로 높은 자리와 주권에 세우는 것을 뜻하고, 때로 "돌보다"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엘리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곧 마치 그분이 악하시고 일들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처리할 앎을 잘 가지지 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감독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에서 트집 잡으려고 캐물으며 그분을 꾸짖는 것은 죽을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담긴 것의 요약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친근한 가르침을 끌어내려면 이것을 한마디로 받아들입시다. 곧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하고, 그분 위에서 심판할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후가 여기서 쓰는 말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려 합니까?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것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풀이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을 당신 홀로에게 남겨 두시니, 마치 그분이 하시는 것에 트집 잡을 데가 있고 그분이 책망받을 만하며 우리에게 더 나은 이유와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분을 감독하고 그분을 거슬러 대들려는 이 마귀적인

84. 원문은 "que Don seulement"입니다. "que non seulement"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대담함을 삼가는 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실천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절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모독이 입에서 굴러다니는 대신, 하나님의 찬양이 어디서나 울리는 것이 들려서 그분의 의와 지혜와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을 높이는 조화로운 가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고 고백할 것이지만, 어쨌든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본성으로 그것에 기울어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교만을 삼갈 수 있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아니 도리어 성령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간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그 일을 높이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아무도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그분을 꾸짖을 수 없으리라고 말한 뒤에, 우리가 그것을 높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사람들이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CO 299 온갖 올곧음과 공평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헤매고 들판을 가로질러 내달리지 않도록 우리 정신이 붙잡혀 있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 놓인 대로 이 두 말씀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첫째는 "누가 하나님께 '주께서 불의하게 행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까지 높아질 줄 잘 알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원망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공평하시다 해도, 어쨌든 사람들은 그분을 고발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그분께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후는 아무도 하나님께 그분이 죄악을 행하셨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고 말할 때 이 오만을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모독을 넉넉히 쏟아

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라지고 물처럼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남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뛰어들려 할 때 이 주제넘음을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보여 준 그런 절제 속에 머물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많이 말대꾸했을 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아무도 당신 위에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할 때 참으로 어리석고 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들을 그 직무에 세웠습니까? 누가 자기에게 아무 권세도 없는 자들을 심판하려 하고, 세금과 공물을 부과하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런 주제넘음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면서 훨씬 더 우습습니다. 불쌍한 거지가 공작령과 영주령을 나누어 주고 한 나라에 재판관과 대리인을 세운다면 저마다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그분께 그분의 과제를 보여 드리겠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훨씬 더한 것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제후를 우리 욕구에 복종시키려 한다 해도 그것만큼 그런 오만은, 그만큼 광포한 오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여기서 우리가 너무 서둘러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는 시험을 받고 우리 이성이 너무 대담하고 거만할 때 이리로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무엇이냐?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 때 하나님을 감독하고 살펴보며, 그분의 손이 거쳐 간 데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일이냐? 우리에게 그분 위의 감독권이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길을 캐물어야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온전히 결심해 두었을 때, 그것은 모든 호기심 어린 질문을 물리치고 우리를 고삐 속에 붙들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CO 300 일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가 그분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고 결론 내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85]

여기서 "누가 그분 위를 돌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방식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작음을 느끼고, 우리가 이 아래에서 기어 다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토록 높고 깊은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정신을 높이 들 때입니다. 요컨대 이 겸손이 믿음과 결합되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경배할 때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좋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 아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낮고 작으며, 우리 분량을 알고서 머리를 높이 들고 눈을 들며, 온갖 공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만, 그 이상은 말고 알기를 바랄 때,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그분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구절에서 "누가 그분의 길에서 그분 위를 돌보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반대되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고 으스대며 마치 하나님의 일이 자기보다 아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 그들은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다리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어리석은 상상 속에서 애써도, 우리에게 우리를 받칠 아무 기초도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비뚤어지고 저주받은 방식이 있습니다. 곧 사람들이 마치 그분 위의 감독권을 가진 것처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자기 발아래 두고[86] 그것을 셈하며 판결을 내리려고 그분께 나아갈 때입니다. 이 마귀적인 교만을 조심합시다. 그것은 확실한, 그렇습니다, 동시에 치명적인 파멸이기

85. 원문은 "comme nous estans nu dessous"입니다. "au dessous"(아래에)로 보고 옮겼습니다.
86. 원문은 "tout ce qu' il ait"입니다. "tout ce qu' il fait"(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로 보고 옮겼습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말씀에 관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권고를 간직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딸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앞의 것과 이어 붙여야 한다고 말한 둘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엘리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높이라" 하고 말할 수 있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는 "기억하라"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나쁜 공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잊는 일이 있으니 우리는 우리 정신을 기억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본보기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자마자 우리 공상에 처음 떠오르는 것은 우리를 분하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거나 CO 301 어떤 불신에 휘감기게 하거나 완전히 파멸에 떨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어떤 환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정신이 그런 무지에 얽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이에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려고 우리 공상에 어떤 나쁜 말을 넣을 만큼 넉넉히 교묘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그들은 완전히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뿌리 박힌 병을 느끼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쁜 공상의 시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신으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께서 묻혀 계신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에게 새기신 것,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애정을 사로잡아 두고 발아래 두는 고삐가 되어 이렇게 말하게 합시다.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여기 와서 네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에

들어가고 그분을 복종시키려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 네가 그렇게 와서 그분을 감독하고 그분이 네 손 아래를 지나가셔야 한다니, 그것이 무슨 대담함이냐?"[87]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살핌에 들어갈 때, 그것은 그들 정신에 떠오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높이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모든 나쁜 공상을 그들이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 머리에 나쁜 공상을 넣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그것이 받을 만하게 우리에게 높여질 때 그에게 멀리서부터 방패를 듭시다. 그러면 어떻게 높입니까? 우리가 우리 앎을 따라 그것을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서고 우리가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이유를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그것을 경배하고, 그래도 "주님,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올곧으시며, 공평하십니다" 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않을 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무엇에 우리를 훈련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 일의 크기와 뛰어남이 그러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위로 높이지 않고는 그것이 받을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실컷 싸웠을 때에도(우리가 보듯 이 거만함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진 채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솔하게 그분을 캐묻는 것을 잘 참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어리석은 욕구에 고삐를 풀고 사탄이 우리를 우리 육적인 애정 속으로 들뜨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러나 너무 늦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그렇게 남으시리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경험이 하나님의 일이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을 끝까지 캐묻겠다고 주제넘게 굴겠습니까? 그것을 조심합시다. 오히려 온갖 겸손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배우고, 그분을

87. 원문은 "qu' il passe comme vous ta main"입니다. "qu' il passe sous ta main"(네 손 아래를 지나가다)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경배하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의를 그분께 돌리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과 능력이 그분의 모든 일에서 너무 나타나서 그분이 계신 그대로, 곧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너그러운 아버지로, 당신이 유기하신 자들에게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알려지실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3편

욥기 36장 설교 5

CO 35:302–3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저마다 멀리서 그것을 본다. 보라, 하나님은 크시니, 사람들은 그분 햇수의 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셀 수 없다. 그분이 물방울을 붙드시고, 당신의 김에서 비를 흘러내리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것을 하늘에서 오게 하시니, 그것이 많은 사람 위에 흘러내린다. 누가 그분 구름의 다양함과 그분 장막의 쌓임을 알 수 있겠느냐? 그분은 당신의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뿌리를 덮으신다. 그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신다. 그분은 마른 기운으로 구름을 입히시고, 그것이 마주 나아가라고 명하신다. 그분의 동무가 그분께 다툼을 알리니, 올라가면서 진노가 있다. (욥 36:25–33)

CO 302 우리는 어제 시작한 말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여기서 사람들이 눈을 감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지 않게 하거나 그분의 일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가 CO 303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지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므로 악의 때문이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너무 뚜렷하고 어디서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그 일이 너무 뛰어나고 그런 큼과 위엄이 있어서 먼 거리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

리는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면 우리 시선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면 큰 성이 있어도 멀리서 보면 작은 오두막처럼 보일 것이고, 도시는 집 두세 채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먼 거리는 가까이서 볼 때 큰 것들의 겉모습을 줄입니다. 우리는 해에서 그것을 넉넉히 경험합니다. 해는 겨우 두 발 크기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치와 철학자들과 자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보여 주는 것을 알면, 보십시오, 해는 땅보다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멀리서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선이 완전히 흐려져야 할 만큼 멉니다. 그러나 어쨌든 멀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그분의 일에는 우리가 잘 경배해야 할 만큼 그런 위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은 무지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의 일이 우리에게 뚜렷해야 하므로 그것은 헛된 덮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선이 너무 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높은 일하시는 방식을 가지셨다고 내세운다면,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높이는 데 필요한 만큼 알아차리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 우리 시선이 약하다 해도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큼과 뛰어남과 존귀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 어떤 맛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아는 데 우리 공부를 쓰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우리 분량을 따라 알아야 한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분이 멀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바랄 수 있고, 우리 쪽에서도 날마다 그분과 그분의 일을 더 친밀하고 온전히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겸손 속에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가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머뭅시다.

CO 304 그 사이에 (내가 말했듯이) 알면서 애꾸눈이나 소경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하시는 것을 견딥시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선언하실 때, 그분을 안 뒤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그분께 드립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크시니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햇수에는 수도 셈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과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안다"와 "알지 못한다"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주 멀리 계셔도 우리가 그분의 일을,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바라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지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위엄 가운데 계신 그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떤 작은 맛을 가지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빛을 깨달을 수 없고, 그 작은 불티 몇 개를 가지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알려지지 않으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분량이 그분을 깨닫고 담기에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사람들에게 숨겨지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경배받으실 만큼 넉넉히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이 앎은 우리가 그분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분에 대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아시는 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우리에게 당신을 선언하신 뒤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지실 수 있는지 봅니다. 곧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보이는 위엄을 입으실 때 거울에서처럼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피조물이 그분의 보좌 같다고, 보십시오, 그것이 그분의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군주가 더 큰 공경을 받으려고 위엄 있게 차려입듯,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당신의 장식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본질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펼치셔서 우리가 소경이라 해도 거기서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27절)에서 이 비유를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때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을 배웁시다. 거기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실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규정할 줄 알 만큼 그분을 온전히 안다고 주제넘게 굴지 맙시다. CO 305 그분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시므로 우리는 눈을 내리깔고 그분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안에 그런 무지가 있고 우리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의 위엄의 어떤 맛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감각이 모자라고 우리가 넋이 나간 것처럼 될 때 여기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하건대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작음 속에 머물러야 하고, 사도 요한에게서 말하듯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때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보도록 이 죽을 육신을 벗겨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육적인 헛됨과 우리 안에서 느끼는 이 모든 무거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당신을 바라보기에 그만큼 더 알맞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정신의 약함을 알면서) 하나님께 점점 더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데 유익을 얻고 자라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햇수의 수를 말하고 그것을 셀 수 없다고 말할 때, 물론 처음 보기에는 이것이 거칠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시작이 없으셨으니, 그 영원함에 대해 그분의 햇수를 셀 줄 모른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알아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찾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교만에 너무 들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여기고 그분의 감독관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요컨대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말고 그런 대담함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런 오만을 꺾으려고 하나님의 햇수의 수를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88] 그러니 우리가 그분 위에서 판단하려 하고, 우리에게 속하고 허락된 것보다 더 높이 오르려는 이 주제넘음과 욕구에 시험받을 때, 이렇게 압시다.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달팽이 같아서 땅 위에 있은 지 사흘도 되지 않는다." 나는 여든이나 백 년을 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는 네 하나님을 판단하려 한다. 그러면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네가 세상 창조까지 거슬러 간다 해도, 그것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함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네 어리석음과, 그분 위에서 판단하려는 그런 미로에 들어갈 때 네가 얼마나 완전히 정신이 나갔는지 본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이가 무한하다는 것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고받듯 우리 삶의 짧음과 견주어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우리는 CO 306 우리가 쇠잔하고 그림자처럼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짧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곧 시간도 분량도 없는 그 영원함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런 주제넘음으로 높아지지 않게 막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컨대 여기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봅니다.

88. 원문은 "le nombre des "n' a de Dieu "로 깨져 있습니다. "le nombre des ans de Dieu "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는 하나님의 일의 선언으로 가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는 비와 천둥과 김, 그리고 우박과 폭풍과 회오리 같은 것들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위엄의 그런 표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배은망덕하고 멍청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이것보다 더 높고 깨닫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의도는 우리가 둔하고 무거우니 우리를 거칠게 가르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후는 여기서 우리가 흔하다고 말하는 자연의 일들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비와 우박과 좋은 날씨와 공중에서 보는 변화를 알려고 학교에 다녔거나 큰 학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이치가 보통 사람들에게 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식한 불쌍한 사람에게 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물어보면 그는 그것을 규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다음에 물이 공중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보지 못하며, 그것은 이치에 어긋나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사람들은 철학으로 알려지는 것, 곧 비가 어떻게 생기는지, 해가 땅을 내리쬘 때 땅이 작은 구멍으로 가득하고 작은 결이 없을 만큼 그렇게 촘촘하지 않으므로 해가 위로 끌어당겨 김을 빨아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조금씩 김이 짙어져서 공중 가운데 있을 때 비로 생겨난다는 것을 풀어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빨아올림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이 무르익어 우리에게 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또 공중의 이 가운데 층이 해에 더 가까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덥지 않은지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열이 여기 땅에서는 아궁이에서처럼 갇히지만 공중에서는 너무 퍼져서 거기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여름에 우박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어서, 우박이 공중에서 뭉친다는 것, 그리고 해가 더 가까운데도 거기서 큰 추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좀처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지한 사람들은 CO 307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이치를 찾지 못하며, 거기서 놀란 채 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일 자체는 넉넉히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의 김을 끌어당기시고 그다음에 비가 생겨나며, 비가 공중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도 그것이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구름이 통이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 물을 담아 두는 통이 있다 해도,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구름을 볼 때보다 더 두드러진 기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려고 떨어지지 않고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정신이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만큼 뛰어난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아주 교묘하거나 큰 학자가 아니어도,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앎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흔하므로 우리를 핑계할 수 없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보기를 들자면, 우리가 비와 우박과 천둥과 그와 비슷한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 주어서,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방법으로 당신 안에 있는 위엄을 억지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배은망덕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끄려 애쓴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왜 여기서 비와 그와 비슷한 것들을 말하는지 봅니다. 하나님께 더 놀랍고 뛰어난 다른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지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이고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을 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경의를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안에서 모든 교만이 꺾이며, 그분의 뜻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분이 하시고 처리하시는 모든 것을 좋게 여기기를 배우는 것 말고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가르침을 거두기 전에 낱말들을 풀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방울을 붙드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을 그분의 뛰어난 능력을 더 잘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물방울이 붙들린다고, 곧 우리가 보듯 흘러내리고 녹아서 아무 굳음도 없는 그토록 날랜 물이, 그런데도 그 방울들이 그런 무리와 분량으로 공중에 붙들려 있다고 말한다면,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물이 굳고 뭉친 것이라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물의 산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작은 구름 하나에 방울이 일억 개나 있고, CO 308 그 본성상 떨어져서 몸체의 나머지를 모두 버리지 않을 방울이 하나도 없는데(물은 그토록 흐르는 것이어서 아주 잘게 나뉜 조각이 있는 만큼 그만큼의 나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없을 것을 볼 때 하나님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엘리후는 그분이 물방울을 붙드신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 비를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권능을 더 잘 나타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그분이 당신의 김에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비가 어디서 생기는지 묻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입니다. 김은 그 구멍 속에 연기를 품고 있는 땅에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을 것입니다(그것이 땅의 본성이니까요). 오히려 해가 그것을 끌어당길 때 그것을 들어 올리고, 그 축축함을 빨아들여 위로 끌어당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밧줄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었던 김, 곧 우리 앞에 아무 겉모습도 없던 김이 그 본성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올라갔습니까? 거기서 비가 생기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땅이 그것으로 적셔지고 열매를 맺으며, 사람들은 거기서 양식을

얻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땅에서 김을 끌어내실 때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에서 축축함과 즙을 짜내서 그 안에 더는 힘이 없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땅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분이 그렇게 땅을 말리시고 거기서 말하자면 양분과 피를 끌어내셨을 때 그것이 다시 적셔지게 하는 방법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보여 주듯 비가 열매를 넉넉히 주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전에 우리가 보려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위엄을 확신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눈을 감는다 해도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그분의 위엄이 온갖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당신의 장막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구름과 심지어 하늘의 이 모든 펼쳐짐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때로 구름이 그분의 수레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이고, 또는 마치 그분이 개선 행렬을 하시려고 그 위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당신의 궁전으로 가지시고 거기서 그분의 위엄이 나타날 때 군주처럼 우리에게 내놓이십니다. 그 밖에 구름은 그분 장막의 기둥 같아서, 우리가 그 장막의 웅장한 작품을 알도록 그만큼 더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일이 그러하니, CO 309 하나님께 그분께 고유한 것을 돌리기를 배우고, 우리 배은망덕으로 그분의 영광이 지워지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이미 앞에서 이 비유가 놓였고 엘리후가 아직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호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그분의 본질 가운데 바라보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알맞은 이런 말투에 그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입니까? 그분은 당신의 궁전에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려 합니까? 우리 능력이 감당하는 대로 그분을 알려 합니까? 이 궁전으로 옵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으려고 광포한 대담함으로 거기 들어가지 맙시다. 그분이 궁전에 거하신다면, 그분은 쇠잔한 피조물일 뿐인 세상의 왕이 가질 만큼의 권능은 적어도 가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위엄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이 그토록 뛰어난 궁전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온갖 공경으로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야 하고, 우리 분량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구름이 하나님 궁전의 기둥이라고 불리고 그것이 그분의 장막을 받치거나 그 한 부분으로 거기 이어져 있다고 말할 때 이 말투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위엄이 무엇인지 맛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비의 결과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고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비가 당신의 선하심에 쓰이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분이 사람들에게 먹여 주시는 아버지로 나타나려 하신다면 구름이 그분에게서 군량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군주가 기근이 있는 나라를 도우려 할 때 물길과 땅길로 멀리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명하듯, 구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가져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선언하실 때 말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엄격함을 보이려 하실 때에는 구름이 우리 위에 그분의 보응을 집행하고, 그분은 거기서 당신의 진노를 펼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넘치면 큰 피해를 주고, 급류를 일으켜 풀밭과 밭이 쓸려 가며, 그다음에 다른 피해도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때로 큰 나라를 구렁에 빠뜨리는 것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로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은 반대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바다의 뿌리를 덮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와 구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가 놀라며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CO 310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붙드셔서 그것이 세상 위에 다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첫 번에 여기서 삼켜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더 잘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엘리후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그런데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어둠을 섞으시리라고 말합니다. 해가 비칠 때 갑작스러운 회오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때로 놀라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좋은 날씨가 있다가, 손바닥 뒤집듯 보십시오,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합니까? 명령하는 뛰어난 주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뛰어남이 놀라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올라가라고 명하시고, 그다음에 공중에 있는 불, 곧 불의 본성을 가진 덥고 마른 기운에게 명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그것들에게 올라가려 애쓰는 구름과 맞붙으러 오라고 명하시고, 거기서 마치 두 군대가 진을 치고 노여움이 있는 것처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구름과 위에 있는 이 마른 열기가 이렇게 마주칠 때 그러합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들이 모일 때 노여움이 있고, 그들은 성난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너무 짐승 같을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우리를 조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고 위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낱말들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담긴 가르침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낱말들은 내가 말한 목적에 관련짓도록 잘 달아 볼 만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곧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끄시며 자연의 모든 질서를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데 큰 교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살아서 비가 서너 번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위엄의 넉넉한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더는 핑계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를 갈더라도 이 아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모든 경건(religion)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위엄에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사탄에게 홀린 것 같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 가르침을 얻으려고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O311 학식 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자기가 충분히 영리하다고 여기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짐승같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유기하셨고, 그들이 너무 멍해져서 사탄이 그들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줄에 인정받을 가치도 없을 만큼 그런 어둠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래도 그들에게 늘 가책이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앎을 지우려 애쓴다 해도, 그래도 그들의 양심에는 데인 자국이 있어서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자기가 없애고 싶은 이 위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시고 그들에게 당신을 선언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것이 경험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립시다. 곧 사람들이 눈을 뜰 때 그들은 자연의 모든 질서에서 위엄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당신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더 넓게 풀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그것을 말했으니 우리가 밝힌 것을 기억에 되살리는 것으로 넉넉하고 너무 거기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령께서 여기서 큰 자에게나 작은 자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일을 내놓으셔서, 저마다 하나님을 안 뒤에 그분을 경배하도록 용기를 내게 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교묘하고 높아서 학식 있는 사람들만 거기 입을 댈 수 있다면, 우리는 뒷걸음질 칠 것이고 대부분이 "아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선언하실 뿐이다" 하고 말할 계기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씹어 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우리에게 먹여 주시며 우리 둔함에 당신을 맞추시고, 가장 작고 가장 무지한 자들조차 (흔히 말하듯) 자기 몫과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들을 내주시는 것을 볼 때, 묻건대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느끼고 깨닫도록 그만큼 더 용기를 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토록 큰 이 선하심 속에서 위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우리 구원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돌보심이 없다면 그렇게 낮게 내려오실 생각도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들 안에 낮아지려 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점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와 구름과 회오리와 우박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더 CO 312 교묘하게 논하실 수 없다고 여기지 맙시다. 누가 이 속된 철학자들에게 자연의 비밀을 그토록 잘 다룰 줄 아는 정신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분은 우리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구원의 가르침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내놓여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왕이나 제후로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 세상 위로 높여서 천사들의 동료로 삼고 하늘 위로 오르게 하려는 것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올리려 하시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낮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좋은 것에 모두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경을 너무 흔한 것처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연약함에 당신을 맞추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흔할 때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서 굳어 있다는 것 말고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까닭입니까? 나는 비가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내게 아주 익숙하니 나는 그것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멍해진 것처럼 되어 더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러운 배은망덕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자연의 질서를 따라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평범한 일이라 해도, 그 모든 것을 잘 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위엄의 무한한 보물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하나하나 바라보기를 그치지 말아서 그분이 우리에게 경배받으시게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여기서 엘리후가 완전히 다른 논쟁,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헤아릴 수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죽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의롭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시면서 잔인하신 것처럼 그분을 거슬러 대들거나 자기 다툼을 지키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논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을 풀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길게 말한 것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지나가며 한마디 하겠습니다. 곧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아래의 것들을 내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으로 우리를 더 높이 오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와 구름과 회오리와 우박을 볼 때, 좋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자연의 것들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생명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세상과 이 아래 있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CO 313 하나님의 위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캐물었을 때 우리 감각이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고 낮은 것들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점에서 우리 연약함이 알려진다면, 우리가 구름 위로, 그렇습니다, 모든 하늘 위로 올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간직하시는 그 영원한 뜻으로 올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문제일 때, 묻건대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소용없고, 사람은 십만 번 목이 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런데도 하나님께까지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엘리후가 여기서 지킨 가르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익숙함이 우리에게 흔하게 만들었으므로 작아 보이는 이런 것들로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으심 가운데 우리에게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감각이 모자라지 않고는 구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거슬러 말대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내가 구름에 질서를 세우러 가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비가 땅의 김에서 생겨나 해가 그 열의 빛살로 이 아래 있는 것을 그렇게 끌어당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말하건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 것을 막으러 가겠습니까? 아아, 그것은 너무 정죄받을 미침일 것입니다. 저마다 그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내놓으시는 가장 작고 아주 흔한 것들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니(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우리 깨달음이 날마다 보는 것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더 큰 이유로 그분이 날마다 집행하시는, 우리에게 흔하지도 익숙하지도 않은 그분의 감추어진 뜻과 심판에 이를 때에는 우리 정신을 짧은 고삐 속에 잘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높이 오를 때 그것은 마귀적인 주제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극한의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슬러, 그렇습니다, 자연의 모든 질서와 우리가 우리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분의 비밀한 뜻에서 높아지려는 이 오만을 조심합시다. CO 314 보십시오, 요컨대 엘리후가 바라본 것, 그가 노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끝과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연의 모든 질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공기가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고 비도 해의 욕구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새깁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반대되는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물은 사람들을 꺼뜨리고 없애며, 그다음에는 그들을 먹여 살립니다. 보십시오, 반대되는 두 결과가 있습니다. 한쪽은 양식이고, 다른 쪽은 하나님께서 망치시고 멸하시며 모든 것을 구렁에 빠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둘 다를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다스리시는 것 말고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이 기뻐하시는 쓰임에 적용하시는 것을 볼 때 그 점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한쪽에서 그분의 엄격함을 볼 때, 그분이 우리

죄를 벌하려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그 점에서 재판관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분의 자비에 피난처를 두어서, 그분이 당신 선하심의 보물을 펼치시고 너그러운 분으로 나타나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름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보내시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실 때 우리를 돌보신다고 선언하시며 그렇게 하십니다.[89] 우리가 다른 쪽에서 그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배부르게 되어서, 거기에 온전히 우리 신뢰를 두고 거기 기대며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그분이 쇠잔한 썩은 고기일 뿐인 우리 몸을 먹이시는 데서 아버지로 나타나신다면, 더 큰 이유로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새롭게 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머지 모든 것에서보다 그 점에서 더 아버지로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 기쁨대로 적용하셔서, 그것을 당신의 심판을 집행하는 매처럼 쓰시고, 다른 쪽에서는 그것이 우리 쓰임에 쓰이게 하시며 심지어 현재 생명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시는 것을 볼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기뻐하고 쉬며, 우리 신뢰가 거기 온전히 머물도록 그 모든 것을 압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89. 원문은 "il ne IS declare "입니다. "il nous declare "로 보고 옮겼습니다.

제144편

욥기 37장 설교 1

CO 35:315–326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또한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떨고, 그 자리에서 뛴다. 그분 음성의 소리와 그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그분은 그것을 온 하늘 아래로 보내시고, 그분의 빛은 땅의 날개 위에 있다. 그다음에 그분은 큰 소리로 울리시고, 당신의 장엄한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며, 그분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지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무섭게 천둥을 치시고, 놀랍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분은 눈에게 땅에 내리라고 명하시고, 부드러운 비와 세찬 비에게도 명하시기 때문이다. (욥 37:1–6)

CO 315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비록 학식 있거나 교묘한 사람이 아니라 해도 우리에게 가깝고 보기 쉬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일입니다. 가장 무식한 사람들도 자연의 질서가 그러해서 거기서 거울에서처럼 하나님의 위엄을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원문 머리말은 “SUR LE 2[XXVII. CHAPITRE“로 깨져 있습니다. 37장(XXXVII)의 첫째 설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잘 생각하도록 더 높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들이 어떤 끝으로 향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와 좋은 날씨를 보내시고, 천둥을 치시는 분도 그분이시며, 번개가 공중을 달리고 오가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다" 하는 것만 안다 해도, 그것은 이미 그분께 지극히 높은 능력을 돌리는 것이고, 그 점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으로 알려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실 때,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려 하시고, 때로 당신 선하심과 너그러움의 보물을 펼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손과 이끄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도 새겨야 합니다. 곧 그분이 우리 죄를 넉넉히 참으셨을 때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요 구원자,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으로 알게 하시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지혜가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걷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그분 사랑의 그토록 CO 316 아름다운 증거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우리가 의논할 길을 잃었을 때 그분께 달려가면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자연의 질서를 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안의 지극히 높은 능력을 높여서 사람들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을 깨달아 거기 기대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피난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이 벌받지 않고 남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후가 다룬 것이고, 어제 풀었듯이,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과 폭풍으로 때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때로 넉넉히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 마음이 그 자리에서 뛰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놀랐다고 덧붙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공중에서 사변하고 그 사이에 죽은 생각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찔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 할 이 두려움을 할 수 있는 한 죽여 버리고, 신자들은 거기서 유익을 얻어 하나님의 위엄께 온갖 공경으로 경의를 바치도록 스스로 원해서 놀라게 자기를 재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 논쟁할 줄 알게 하는 경박한 깨달음을 주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그들 속에 생생한 가르침을 주셔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말하건대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찾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느낀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방종을 가지려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한 곳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타고난 감각과 싸우고, 자기 안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더는 아무것도 없도록 짐승같이 되려 애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온통 악에 빠져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디실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을 피하고 그분을 없애려 애씁니다. CO 317 강도나 도둑이 죄가 벌받지 않도록 세상에 아무 질서도 없기를 바라듯이 말입니다. 모든 속된 사람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당신의 위엄 가운데 앉아 계시는 동안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나기를 잘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미 말했듯이)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을 끄려 애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재갈을 씹는 노새 같고,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하며, 어쨌든 완고해지고 늘 멍청함을 거두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듯(엡 4:19) 더는 슬퍼함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는 아무 조심도, 곧 더는 아무 거리낌도 없고,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용서하고 늘 자기 흔한 길을 갈 때, 그것은 모든 악의 극한이요 그들 파멸의 꼭대기입니다. 솔로몬도 말하듯이(잠 18:3) 말입니다. 곧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자기를 낮추며 자기 허물을 언짢아할 감각이 더는 없을 때, 그는 죄악의 이 구렁과 꼭대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에 찔림을 받아 불을 더 지핍니다. 마치 이미 숯 몇 개와 불붙은 장작 하나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바르게 걷기를 바라는 모든 자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찌르시고, 그들이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지극히 높은 위엄이 있다는 것을 느낀 뒤에, 그들은 이 놀람을 자기 가르침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자기 마음에서 자기를 찌르고 재촉하며 그분을 기억에 되살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선을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다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들과 속된 사람들이 눈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거슬러 완고해지고 마침내 깨달음도 판단도 없는 짐승 같아지려 애쓰는 반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앎에서 유익을 얻고, 그 결과 이 빛이 그들 안에서 자라고 굳어지며, 그들이 온 힘으로 거기에 자기를 재촉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후가 여기서 자기 마음이 떨었고 그 자리에서 뛰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도 천둥과 번개에 놀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을 건드려서 거기서 어떤 은밀한 경보를 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은 그런 생각을 물리치고 발아래 둡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자들은 CO 318 그런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보내신 이 두려움과 놀람에서 유익을 얻는 데 모든 공부를 쏟고 적용합니다.

그 밖에 엘리후는 여기서 천둥과 번개와 비와 서리와 폭풍을 그리면서 아름다운 비유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큰 소리의 음성과 그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우리가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전파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당신의 선하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천둥을 하나님의 울리는 음성, 그분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부르고, 그 점에서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떨게 하는 말씀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시편 29편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을 치고, 하나님의 음성이 레바논 산을 울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큰 나무들을 쪼개고, 하나님의 음성이 염소를 낙태하게 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산들에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을 떨게 한다." 이 음성은 천둥으로 나타나는 음성 말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둥 치시는 것을 듣지 않으므로 그들의 배은망덕을 꾸짖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친 자처럼 굴 때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천둥 치시는 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속담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멍청함을 꾸짖고 동시에 모든 핑계를 없앱니다. 누가 "오, 우리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풀이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면, "무엇이냐? 우리 평생에 천둥이 한 번도 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순종하

도록 자기를 맞추어 낮아져야 할 만큼의 위엄을 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들짐승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우위를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 안에 교만과 결합된 광포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천둥이 쳤을 때 사람들은 넉넉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공중을 울리게 하는 그토록 크고 우렁찬 이 소리를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가 무지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면, "무엇이냐? 번개는 하늘을 가르는 것 같다." 우리는 거기 그런 빛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나타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덮개를 없애셔서 아무도 자기 위선 속에서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고,[90]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처럼 의롭다 함을 받겠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번개는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에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후가 여기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와 음성을 말합니다. CO 319 그런데 그는 그것을 부풀립니다. 사람들이 꽤 무관심해서 우리가 방금 푼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여기서 힘주어 자기 말을 더 길게 이어 갑니다. 우리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비와 서리와 우리가 알아차리는 모든 폭풍에 있는 질서를 잘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부드럽고 상냥한 비를 말하고, 또 흔히 보이는 비의 거셈과 격렬함도 말합니다. 그가 이미 말한 것을 따라서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보내실 때 때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때로 넉넉히 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알맞은 때에 오는 부드러운 비가 있으면 그것은 땅이 열매를 맺게 할 것이지만, 우리가 양식을 기다리던 모든 좋은 것을 썩히고 망칠 비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둘 다를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은 생각할 만합니다.

90. 원문은 "ne se datte"입니다. "ne se flatte"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내시는 벼락으로 놀랍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번쩍이게 하셔서 번개가 어디서나 날고 천둥이 들린 뒤에는 동시에 폭풍이 올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비와 폭풍과 우박도 지체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폭풍이 덮칠 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재로 탄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는 모습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고 완두콩만 한 구멍도 좀처럼 찾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 사람은 타 버렸을 것입니다. 칼날조차 녹아 없어지는데 그것을 감싼 칼집은 온전할 것입니다. 나무는 때로 뽑히고, 때로 잘리며, 때로 완전히 타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폭풍의 모든 결과를 보면 그것은 경험으로 알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을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 감각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작품이 얼마나 웅장한지 보면서 여기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넘치도록 멍청하지 않다면, 그것으로 그분께 우리를 맞추고 그분을 영예롭게 하며 그분께 모든 영광과 모든 통치권을 돌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여기서 엘리후가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다룬 것을 간직합시다. 곧 하나님께 모든 능력을 돌리도록 그분을 세상의 창조주로 깨닫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이 마치 우리가 당신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그토록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그분을 아버지로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난 자들을 위해 그만큼 하는 땅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CO 320 무엇인지 잘 알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고, 우리는 이 죽을 생명 가운데에서도 그 열매를 받고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멀리 이끌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어서, 그분이 우리를 짐승처럼 멸망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으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에게서 받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바른 신뢰를 세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이 우리 몸보다 그분께 더 귀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기에 맞는 것을 보내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내놓인 자연의 질서를 바라보려고 눈을 뜨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분께 온전히 우리 신뢰를 두도록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그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깨어 계시니 우리 기도가 그분께 알려지지 않을 리 없고 그분이 그것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거기에 우리 감각을 머물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넉넉히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사변 속에서 떠돌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헛됨 말고 다른 삯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땅의 것들에 휩싸여 있는지, 그리고 하늘나라를 말하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지 봅니다. 그들은 또한 그럴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담긴 것에 그만큼 더 주의해야 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데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그토록 좋은 보증을 가지고 있으니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께 우리 피난처를 둘 담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당신 입으로만이 아니라 손을 펴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에게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워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복종시키려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를 배우고 알면서 그분의 진노를 자극하지 않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위엄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으시려고 권능으로 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분이 우리 위에 그런, 그토록 두려운 능력을 펼치지 않으시도록 온갖 공경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이 생각으로 데려갑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땅의 모든 주민을 물로 쓸어버리셨다는 것, 그런데 그 물이 CO 321 세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벧후 3:5–6).[91] 누가 세상이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창조되었는지 묻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경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신 뒤죽박죽인 재료였고, 구렁과 혼란밖에 없는 물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좋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그런 기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셨을 때 무엇으로 무장하셨습니까? 그분은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온 세상의 재료 같았던 그 물이 그런데도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아래에서 하나님의 손 없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해의 빛을 받고 공기에서 숨을 얻으며 떡으로 먹고 양분을 얻는다 해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때 모든 것을 죽음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분 선하심의 도구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치명적인 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박이나 나쁜 비나 서리를 보내실 때, 그 점에서 그분이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거스른 것에 대해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잘 그분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그분 손의 한 번 매를 느꼈을 때, 그것이 하루만이

91. 원문에는 "(2. Pier. 27 5)"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세상이 생겨났고 물로 멸망했다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5–6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는 데 쓰이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뭄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자, 나는 세상을 살았다. 나는 때로 비가 땅에 있던 모든 씨를 썩혀서 밀 대신 가라지만 거두거나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열로 땅을 말리셔서 모든 것이 먹혀 버렸거나, 사람과 짐승의 모든 양식을 쥐어짜고 갉아먹는 바람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나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기근을 보내신 것을 보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매를 거둡하시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평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천둥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 감각이 마치 명령하는 지극히 높은 주인 없이 천둥이 거기서 생겨난 것처럼 공중에서 뛰고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그분 입의 능력으로 천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공기가 그렇게 어지럽고 모든 것이 울릴 때, 그것이 CO 322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그것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개와 비와 폭풍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뒤죽박죽인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더 친밀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면, 곧 그분이 우리에게 확실한 가르침을 내놓으셔서 우리가 거기서 세워진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갑절로 죄가 있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실 뿐 아니라 기쁘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지 않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무겁게 정죄받을 만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비참을 느끼게 하시려는 이 목적을 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애정을 캐는 양날 선 칼이라고 불리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종의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안에서 유익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우리 본성에 속한 것이 꺾여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천둥 치시고 벼락 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말씀으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시며, 요컨대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도록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연의 질서만 바라보며 천둥을 듣고 거기서 움직인 자들보다 우리 위에 더 무겁고 무서운 정죄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미 말했듯이) 이 깨달음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넉넉할 것이고, 사람들이 율법도 성경도 결코 가지지 못했다 해도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았으니 더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히 당신을 선언하셔서 그들을 분명한 악의와 반역으로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당신의 위엄을 가장 크게 업신여긴 자들을 말하자면 고문대에 올려 고문하신 것을 봅니다. 이방인들의 역사를 읽어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하나님 조롱자들이 너무 놀라고 겁에 질려서, 싫든 좋든 천둥소리를 들으며 벼락과 폭풍 위에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죄셔서 그들은 처형대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CO 323 거기 놓여서, 마치 군주의

위엄을 범한 자에게 공개 사죄를 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가장 큰 군주들도 폭풍과 천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 위엄의 그런 표가 있을 때 천둥이 가장 완고한 마음도 굽히기에 넉넉해야 한다는 입증입니다. 그러니 모든 경건(religion)을 조롱하는 이 개들과 돼지들을 정죄하는 데에는 공중에서 보이는 폭풍과 번개만 있으면 됩니다. 율법도 기록된 가르침도 없다 해도, 그래도 천둥 하나만으로 그들은 확신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를 갈더라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음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한마디도 듣거나 읽지 못했다 해도 그들을 정죄하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내가 말한 이 견줌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뒤죽박죽인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불쌍한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에 넉넉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번개를 날리실 때 소경들을 정죄하기에 넉넉한 빛이 있다면, 그분이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방식을 가지시며 심지어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더듬더듬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겠습니까?[92] 그분이 우리를 놀라게 하실 뿐 아니라 부드러움과 인자함으로 당신께 오라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운 시편(29:9)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저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산을 움직이고, 바위를 녹아내리게 하며, 땅을 떨게 하고, 레바논의 나무를 쓰러뜨리며, 숲에서 염소를 낙태하게 하고, 온 세상을 흔들고 뒤흔드는 이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말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가 땅의 날개, 곧 모든 끝으로 날아가고, 천둥이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92. 원문은 “il beguaye avec vous“입니다. “avec nous“(우리와 함께)로 보고 옮겼습니다.

모든 것에서 알려지셔야 하고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분께 경의를 바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왜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말한 견줌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실 때 이방인들을 겁나게 하시고 깨우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완전히 확신시키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위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헛된 덮개를 내세우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정죄받기에 넉넉할 만큼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려 합니다. CO 324 거기서 그분은 공중을 울리게 하시려고 천둥만 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했듯 뒤죽박죽인 소리를 가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부드럽고 친밀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펼치시며,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우리 위에 비치는 당신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도록 초대받으며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억지로 강요받는다 해도, 우리에게 전파되는 가르침에는 훨씬 다르고 더 웅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런 식으로 당신을 선언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권위로 우리에게 알리는 모든 것에 우리를 복종시키도록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넘치도록 멍청하고 짐승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알려진 뒤에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토록 나쁘게 받아들여지고, 공경이 그토록 적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알고 확신하는 모든 가르침을 내던지며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의 악의가 얼마나 극한인지 압시다.[93]

93. 원문은 “la malice esté du monde“입니다. 문맥에 따라 “la malice extreme du monde “(세상의 극한의 악의)로 보고 옮겼습니다.

오늘 교황주의자들의 반역이 어떠한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 가운데로 옵시다.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들이 풀어지고, 가장 마귀 같은 자들조차 전파되는 것이 거룩한 성경에서 끌어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만큼 씹어서 내놓아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대드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려고 고집스럽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악의와 함께 뻔뻔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드러난 반역,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다스리지 못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굽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마귀적인 음모를 보려고 제네바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반역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설교에서 말할 모든 것을 우화만큼만 셈에 넣습니다. 그것은 너무 뻔하고 본보기가 너무 드러나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것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그토록 큰 주인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들은 선지자 스가랴(슥 12:10)에서 말하듯 자기가 찌르고 쏘아붙인 분을 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새겨야 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순전한 말씀에 속한 모든 것을 내던지려고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사나워지는 이 사나운 짐승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기를 배우도록 그것을 새겨야 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기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위해 거룩한 성경을 거슬러 싸울 때 CO 325 그들은 거짓 주석과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요컨대 그들이 젖은 자루로만 자기를 덮는다 해도, 그래도 그들은 자기 의도가 하나님께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으로 아는 한마디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런 불경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거슬러 언짢아하고 분해하며, 자기가 좋다고 아는 것을 받을 바름조차 없고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행할 때, 그

점에서 우리가 불쌍한 교황주의자들보다 비할 데 없이 더 나쁘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94] 그러므로 (이미 말했듯이)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갑절로 정죄받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귀 기울임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모으시며,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분께 자기를 맡기도록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려 할 때,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고 한마디로 고백하는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유업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실제로 입증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이 좋은 것, 이 은혜, 이 헤아릴 수 없는 영예를 베푸시니, 서로 주고받는 드림도 있어서 우리 쪽에서 온전히 그분의 손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시며 우리를 누리시게 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고 벼락과 폭풍을 보내시며 크고 웅장한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분이 율법과 복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감각 위로 높이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비밀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아는 이 원리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내놓이는 그분의 말씀에서 결코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CO 326 사람의 눈이 결코 보지 못했고, 사람의 귀로 듣지 못했으며, 피조물의 마음에 결코 들어가지 않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면 날마다 우리에게 전파되는 것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맛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하늘나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지시려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94. CCEL 원문에는 이 쪽 표시가 “326“으로, 다음 쪽 표시가 “326_1“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 쪽 순서에 따라 이 쪽을 325쪽, 다음 쪽을 326쪽으로 보았습니다.

얻는 좋은 학생이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 썩어질 것들 속에 잠겨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 애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주 예수와 하나 되도록 날마다 우리 애정과 싸웁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듯, 우리가 하늘에 몫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저 높이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고자 한다면 땅에 속한 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닫기에는 너무 둔하고 약한 감각을 가졌다는 것, 심지어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면 그 작은 맛조차 결코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룬 구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내세울 때 그렇게 결론 내리듯이 말입니다.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한 뒤에,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그분의 성령으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거기서 다시 선언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의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우리에게 알맞은 만큼 우리를 당신의 회의에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을 알았으니, 우리에게 너무 높고 깊을 것들을 알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5편

욥기 37장 설교 2

CO 35:327–33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분은 모든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니,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아시려는 것이다. 짐승들은 굴로 물러가 자기 거처에 머문다. 그분은 쌓인 곳에서 회오리를 나오게 하시고, 흩는 바람에서 추위가 온다. 하나님의 숨으로 서리가 주어지고, 다시 좁은 곳에서 넘치는 물이 나온다. 그분은 적시려고 구름을 수고하게 하시고, 비를 보내시며, 당신의 빛으로 구름을 흩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다스림으로 둘레를 돌게 하시니, 온 세상 위에 당신이 명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매를 위해서든, 당신의 땅을 위해서든, 당신이 베푸시는 은혜를 위해서든 그러하다. (욥 37:7–13)

CO 327 우리는 어제 사람들이 천둥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 능력의 입증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면서 사람들의 손에 봉인 같은 것을 두셔서 그 손을 감추어 두신다고,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아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또 짐승들을 그들의 굴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람들을 모두 모으는 것처럼, 가장이 자기 가족을, 군주가 자기 신하들을, 대장이 자기 모든 군사를 점호하려고 모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의 주된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들짐승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그들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천둥만

으로도 그들은 그때 갇히고 틀어박힌 것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구절은 흔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인장 같은 것을 두셔서 그들이 자기 일을 알게 하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것저것에 자기를 쓰는 모든 솜씨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표를 새기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것을 하늘에서 주어진 가르침에서 말고는 가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알아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낱말 그대로는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을 아시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집 안에 갇히고 틀어박힌 것처럼 붙드실 때 그들을 아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잘 알아들으려면, 사람들이 가고 달릴 자유를 가질 때 그들은 권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어떤 이는 들로 가고 어떤 이는 거리로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CO 328 더는 고삐에 매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나쁘고 천둥이 치며 어떤 회오리가 일 때에는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모아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저마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다. 모두 내게 셈을 해 드려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거두어질 때를 정하셔서 그들을 점호하시고 모두가 당신께 매여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말했듯이) 들짐승에게까지 미칩니다. 짐승들은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어떤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자기 거처에 숨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실 때 그들을 붙드실 은밀한 고삐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어제 다룬 것이 더 분명하게 선언되는 것을 봅니다. 곧 천둥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점에서 하나님 위엄의 전령일 뿐 아니라, 그분이 그들을 억지로 집 안에 숨어 있게 하신다는 것, 그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오가는 자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허락을 주시기 때문이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면 그들을 가두어 두기도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늘 하나님께 경의를 바치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천둥 칠 때에만 하나님께 빚진 복종을 안다면 우리는 가르침에서 아주 빈약하게 유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기념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 없이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고, 늘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께 다스림받도록 우리를 맡기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분별과 지혜가 없다면, 보십시오, 짐승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자와 곰과 이리와 다른 모든 짐승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 말고 어떻게 그들의 굴과 거처로 물러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헤매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 아래 갇힌 것처럼 붙드시는 것을 견디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봉인과 서명을 내던지려 한다면, 짐승들이 그들의 본보기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전체에서 더 잘 유익을 얻도록 우리가 또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엘리후가 여기서 쓰는 낱말은 본래 CO 329 "봉인하다"를 뜻합니다. 편지가 보이지 않도록 봉인할 때처럼 말입니다. 궤나 찬장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 위에 인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폭풍을 보내실 때 무서운 봉인을 쓰십니다. 그분은 여기서 반지가 달린 밀랍이나 어떤 물질적인 인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억지로 갇힌 것처럼 거기 머물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 집에 사로잡혀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위에 주인이 있고 자기 삶의 모든 길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 비유가

여기 놓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우리가 사람이라는 피조물에게서 볼 수 있는 모든 것과 견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름이 쌓인 곳에서 폭풍을 오게 하시고, 그다음에 흩는 바람, 또는 북풍이 있어서 추위를 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잘 보여 주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게 합니다. 물론 고른 흐름이 있어서 큰 더위도 큰 추위도 결코 없고 비도 바람도 결코 없으며, 공기가 늘 알맞고 그런 분량이 있어서 사람들이 늘 한 가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이 더 바랄 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접받는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우리는 끝없는 봄 같은 것을 가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 더위가 우리를 언짢게 하듯 추위도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는 둘 다에서 벗어나 트집 잡을 데 없고 우리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알맞은 공기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알아차려집니다. 그분이 땅 위에 비를 오게 하실 때, 그다음에 구름을 흩으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며 회오리를 일으키시고 더위 뒤에 추위를 오게 하실 때, 그것이 그분의 위엄을 더 잘 드러내고 우리를 깨워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또 사람들의 정신이 얼마나 멍한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생생하게 찔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밝고 순수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지혜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둔하고, 게다가 악하며, 그분이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시면 결코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일어나는 변화로 찔림을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좋은 날씨를 보다가 갑자기, 보십시오, 공기가 흐려지고 더운 뒤에 구름이 모이며, 비가 오면 그것이 공기를 시원하게 하고 서리가 뒤따르며, CO 330 땅이 완전히 탈 것처럼 보일 만큼 그런 가뭄이 있은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보내려 하실 때 우리를 받쳐 주도록 구름을 수고하게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그런 뒤바뀜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넘치도록 멍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은 일들이 늘 자기 흐름을 간다면보다 더 보이고 드러나는 방식으로 당신을 상기시키시고 나타내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엘리후가 이 구절에서 그토록 힘주어, 좋은 날씨와 비, 추위와 더위, 구름과 맑은 날씨, 회오리와 서리와 다른 여러 가지로 공중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풀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림으로 둘레를 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이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풀이하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계절이 있다면 한 가지 단순한 얼굴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하루 비치다가 갑자기, 보십시오, 그것이 덮이고 숨겨지면, 보십시오, 서로 다른 두 세상 같고, 그런 다양함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더 잘 생각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뒤바뀜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땅이 추위에 죄어 있고 공기가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좋고 상냥한 날씨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또 새 세상들입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둘레, 곧 세상들을 돌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저렇게 돌게 하신다고 덧붙이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방법으로 넉넉히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눈을 하늘로 들고 사방을 바라보아서, 적어도 갑자기 일어나는 뒤바뀜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 그분이 영화롭게 되시도록 우리를 더 부추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그럴 계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예롭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시려고 그분께 나아갈 수단을 더 많이 주실수록 우리 배은망덕에 핑계가 그만큼 적고,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그만큼 더 정죄받으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좋은 날씨도 비도 더위도 추위도 우박도 폭풍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거슬러 일어서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었던 악의를 보여 주고 드러낼 우리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고 사방에서 CO 331 우리를 그분의 위엄을 바라보도록 이끄신 분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씨가 바뀔 때마다, 그 변화가 처음에는 우리를 언짢게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압시다.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씨를 가졌다면 변화가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를 취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옵니까?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손바닥만 뒤집으면 하나님께서는 새 세상을 만드실 수 있다. 그렇다, 실체가 멸망하지 않고서도. 그러나 형태가 너무 흐려져서 세상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대로 그런 다양함을 쓰시는 것이 우리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기 놓인 말투들을 잘 새깁시다. 큰 가뭄이 있었을 때 하늘이 쇠나 놋 같아 보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사람들을 벌하시겠다고 위협하실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쇠 같은 땅과 놋 같은 하늘을 줄 것이다. 땅이 죄어져서 너희를 젖 먹이려고 젖가슴을 열지 않을 것이고, 하늘도 너희에게 비를 주지 않고 굳어질 것이다." 그런데 큰 가뭄 뒤에 비가 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지 않고서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우리 시선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귀히 여기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늘이 그토록 빨리 돌려

지고 바뀌며 갑자기 어두워질 때,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땅을 적시려고 구름을 수고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구름이 쪼개지고 비워져서 땅이 그 양분을 받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구름에서 비를 끌어내시고, 구름이 이 아래의 물을 빨아들인 뒤에 자기 양분을 돌려주고 시들어 마침내 없어질 때, 그분이 우리 섬김을 위해 구름을 쓰시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을 이끄셔서 우리 쓰임에 적용하시며, 그것이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삯 주고 부리는 남종과 여종을 주시는 것과 같다는 것을 들을 때, 그 점에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압시다. 그리고 구름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토록 고귀한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해와 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섬김에 쓰신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과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생명이 그분께 귀한지 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존귀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CO 332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그 사이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우리 쓰임에 복종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와 달을 경배했을 때 그만큼 더 짐승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섬김에 두셨다고 그들에게 꾸짖으시는 것도 이 목적 때문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구름을 수고하게 하시고 땅을 수고하게 하실 때, 그분이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아버지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셈에 들어갈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땅과 공기와

심지어 짐승과 견주어 보면, 사람들이 여기서 받쳐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썩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만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당신의 빛으로 구름을 쫓아내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또 놀랍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느끼게 해야 할 다른 변화입니다. 보십시오, 날씨가 흐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를 보는 것을 빼앗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면 물이 지금 우리를 묻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름이 그렇게 공중 전체를 차지하고 우리가 보듯 땅이 그렇게 젖어 있을 때 구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구름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연의 질서"라고 말하고 "습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너무 멍청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손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니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날씨의 다양함으로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려고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위엄을 보여 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을 쓰는 것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간직합시다.

그리고 특히 그는 그분이 구름도 회오리도 보내시는데, 그 모든 것이 그분이 온 세상에 정하신 것을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권능과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위의 그분 통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벌하실 때 우리가 우리 죄를 느끼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고(그가 곧 다시 덧붙이겠지만), 또 그분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완전히 배부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알도록, 피조물들이 스스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그것은 그분이 땅 위에 명하신 모든 것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서 우리는 좋은 가르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CO 333 천둥과 다른 것들을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지 않음의 정당한 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각 없는 피조물에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더 큰 부끄러움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경건(religion)을 발아래 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마귀적인 미침이 그를 들뜨게 하고, 그는 선과 악의 모든 분별을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는 천둥에 놀라고 완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며 얼어붙은 것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의를 바치려 하지 않는 모든 자가 받을 만한 삯이 이것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피조물에게 경의를 바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권능을 돌리기를 배워서, 무지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모든 악한 자들과 모든 경건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가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 우리는 그분 손에 있으니 그분이 기뻐하실 때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리라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날아다니고 거의 한순간에 하늘에서 땅으로 닿는 것을 본다 해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이 땅에 놓여 있거나 칼집 속에 있을 때 상처를 입힐 수 없듯이, 벼락도 그러해서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천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에 놀랄 것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굳어지고 점점 더 거기서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지키심 안에 있으니 천둥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천둥에 겁에 질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보내시는 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때문에 너무 겁에 질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떤 뒤에 우리의 모든 육적인 애정에서 죽고,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선언하시면서 주시는 이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쓰여야 할 피조물들의 본보기도 있습니다. 비와 바람과 회오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해에게도, 땅에게도, 구름에게도, 공기에게도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성도 감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CO 334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의 뜻 없이는 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해는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정하셔서 한순간도 어긋나지 않게 하신 대로가 아니면 뜨지도 지지도 않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말을 간직하고, 들을 귀가 있으며, 감각과 이성을 가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의 모든 질서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입증일 뿐일 때, 우리를 정죄하기에 넉넉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말했듯이)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시편[100:3]에서도 말하듯) 사람이 자기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그분을 거슬러 뛰어들고 그분께 맞서며 그분의 뜻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 광포함 같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공부가 그리로 향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힘써 나아가는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맞서고 그분을 거슬러 싸우기를 그치지 않으며 그분의 진리를 없애는 것 말고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더 큰 악의가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하고 그분이 순종받으시며 사람들이 잠잠히 다스림받도록 그분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것을 막기를 그치지 않을 때, 비와 바람과 회오리와 폭풍과 그와 비슷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반역을 드러내리라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온 세상에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것을 한다고 말할 때 이 구절에서 둘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95] 그런데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우리를 되돌리듯 어제 다룬 것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매를 위해서든, 당신의 땅을 위해서든, 은혜를 위해서든" 하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어제도 이미 다루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아무것도 그분의 뜻과 처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분 계획의 목적을 지켜보아야 하며[96]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그 원인을 새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감각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씹어 주셔도 우리 정신에서 그것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가르침이 하나하나 내놓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친근하게 만들어 주셔도, 어쨌든 우리는 너무 멍해서 마땅히 요구되는 만큼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이끌리고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는 데 기초를 두도록 CO 335 그분의 선하심과 의와 지혜를 아는 더 낫고 더 구체적인 분별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를 위해서든, 당신의 땅을 위해서든, 당신의 은혜를 위해서든" 하고 말합니다. "매를 위해서든" 하고 말할 때, 그 점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비와 더위와 추위와 폭풍과 비바람으로

95. 원문은 "pur le monde universel"입니다. "par le monde universel"로 보고 옮겼습니다.
96. 원문에는 "6n"으로 되어 있습니다. "fin"의 OCR 오류로 보고 옮겼습니다.

세상을 징계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치시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이 세상을 우리만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땅이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직 당신이 지으신 땅을 지키려 하시고, 그 땅이 그다음에 그들에게 쓰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때로 당신 자신과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돌아보셔서, 우리가 그분을 노하게 했다 해도 당신의 엄격함을 누르시고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거나 한동안 그것을 참아 주지 않으신다면, 땅이 우리 위에 멸망하고 온 세상이 소멸되어야 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파멸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아끼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 자비의 큰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결론은 우리에게 두 가지 쓰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이미 푼 것을 더 잘 굳히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다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며 온전히 그분께 우리 신뢰를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이 말이, 우리가 여러 방식과 변화의 다양함을 볼 때 더 잘 확인된다고 말합니다. 본보기를 들어 봅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어떤 기근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에는 앞선 원인이 있습니다. 서리가 오고, 가뭄이 있고, 해로운 비가 있고, 폭풍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보십시오, 공기가 우리를 벌합니다. 그런데 공기는 감각 없는 것입니다. 비가 우리 허물을 바로잡을 생각을 합니까?[97] 사람들은 우리에게 비가 이런 방법으로 생기고 바람과 폭풍도 그렇다고 말하려고 자연적인 이유를 내

97. 원문은 “playe“입니다. 뒤 문장의 “pluye“(비)에 맞추어 옮겼으나, “plaie“(재앙)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에 어떤 원리가 있고 그것이 어떤 아래 원인들로 처리된다고 말하려고 이유를 잘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떤 아래 원인들에 돌릴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쁘게 처신한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이 그 위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에게 거친 채찍이 닥쳤습니다. 자연이 일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라들을 징계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분이 하늘의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CO 336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고 바랄 만한 계절을 보내실 때 당신의 은혜와 선하심을 펼치신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그분이 좋지 않은 어긋난 날씨를 보내신다면 우리 죄와 범죄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가르침이 그만큼 더 잘 확인될 것입니다. 곧 비는 자기 자연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회오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정하시는 것 말고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특별한 결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만큼 더 잘 이끄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점도 있습니다. 곧 비와 회오리와 우박이 하나님의 채찍이니, 그분이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우리가 꺾이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헛되이 치시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아래 굽혀서, 그분이 우리 위에 잠잠히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그토록 부드럽게 우리를 초대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억지로, 큰 몽둥이질로 당신을 섬기게 이끄셔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꺾여야 하고 폭력으로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께 오려 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본성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반역과 우리가 다루기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거칢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토록 거친 매를

느끼고 그분이 우박과 비와 천둥과 바람과 서리와 회오리와 가뭄으로 치실 때 그때 그분 아래 굽히는 것은 최소한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를 그렇게 매섭게 느끼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떨게 할 때, 그리고 그 떨림이 우리를 겁나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께 맞추어서 우리 죄의 용서를 그분께 구하게 하려는 것일 때, 우리가 그렇게 맞을 만하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점점 더 그분의 보응을 자극하기를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예롭게 하도록 그분께 나아가라고 우리를 어떻게 재촉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 사이에 "당신의 땅을 위해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때 당신 자신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두시는 것을 봅니까? 그것이 많은 재앙 가운데라 해도, 어쨌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을 만한 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첫 번에 쓸려 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새깁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눈을 감으시고 CO 337 우리처럼 그토록 더러운 피조물을 생각하실 마음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업신여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하늘과 땅을 멸절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교만을 벗기고 우리에게 그만큼 더 큰 부끄러움을 주어서,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에게 아첨하지 않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더러움을 덮으려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든 그들은 자기를 기뻐하기를 그치지 않고, 늘 자기가 대단한 값어치가 있다는 어떤 헛된 공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히 여겨질 만한 것보다 땅을 더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 남지 않도록, 특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선언하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실 마음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돌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불쌍히 여김을 쓰겠고, 너희에게 내 자비를 느끼게 하겠다. 나는 너희를 아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온전히 결론 내려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렁에 빠뜨리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그분은 그다음에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 악의를 이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위해 하신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은, 비가 우리에게 알맞고 좋은 날씨도 바라는 대로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인자하게 대하시는 것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분이 그럴 의무가 있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당신의 자녀로 여기셔야 할 만한 자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어떤 삯을 여기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순전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굶주려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께는 당신이 선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말고 우리에게 양식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쓸어버리셔도 마땅한데, 그분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우리를 먹이시려고 손을 펴십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값없는 선하심을 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말했듯이)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어떤 삯이고 우리가 그분께 받을 만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너그럽고 후하시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모든 은택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 손에 구렁에 빠져 마땅한 뒤에도, 썩은 고기일 뿐이고 연기일 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몸에 대해서까지 아버지의 직무를 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몸에 그렇게 너그럽게 일하시니,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고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우리 허물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리라는 바른 신뢰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먹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현세의 좋은 것을 쓸 때마다, 그분은 동시에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 허물에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희가 내 순전한 자비로 받쳐지기를 구하기만 하면, 너희는 늘 너희를 받아 줄 준비가 된 나를 찾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6편

욥기 37장 설교 3

CO 35:338–3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아, 이것을 들으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에게 법을 지우셨는지, 어떻게 당신 구름의 빛을 비추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지식에 온전하신 분의 기적을 네가 깨닫느냐? 그분이 남풍을 불게 하실 때 네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느냐? 네가 그분과 함께 하늘을 펼쳤느냐? 그것은 부어 만든 거울처럼 단단하다.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말할지 우리에게 보여 보라. 어둠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돈할 수 없다. 내가 말한다 해도 누가 그분께 그것을 아뢰겠느냐? 누가 그분께 말한다면 그가 삼켜지지 않겠느냐? 해가 가려질 때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으나, 그다음에 바람이 불어 맑은 날씨를 다시 가져온다. 맑은 날씨는 북풍 쪽에서 돌아오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높여지셔야 한다. 그분은 선하심에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과 심판과 공의에 강하시며, 괴롭히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할 것이고, 그분은 마음에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돌아보지 않으실 것이다. (욥 37:14–24)

CO 338 CO 339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 곧 그것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정신에 있는 작음과 연약함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을 생각하는 데 더 큰 수고를 들이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재빠르다고 여겨서 눈길 한 번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곧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그 존귀함대로 귀히 여겨지지 않고, 익숙함 때문에 흔한 것처럼 되어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절에

담긴 것을 잘 새겨야 합니다. 한편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의 기적이라고 단언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신이 그것에 대한 참된 앎을 그렇게 빨리 가지기에는 너무 약하니 거기 멈추어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공부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특히 듣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데 우리 모든 감각을 아무리 써도 결코 가장 중요한 것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세 가지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볼 수 있는 뛰어남과 위엄이어서 그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는, 사람들이 둔하고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는 것을 지나가듯 바라보려고 시선만 던져서는 안 되고, 그 위에 힘써 거기에 공부를 잘 쏟으며 끝까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자기 이성을 믿지 말고 잘 판단할 만큼 솜씨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지 말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시작해야 할 곳도 그 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 갈 때까지 우리 눈이 부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앞을 지나가도 요구되는 만큼의 감각을 가지지 못할 것이며,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아무 분별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길게 풀 필요보다 우리 저마다 잘 생각할 필요가 더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할 때마다 그것을 경배하도록 우리 감각을 높이 듭시다. 곧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의를 경배하도록 말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요컨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공경하지 않고, 곧 그것에 영예를 드리고 그것이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지 않고 생각하는 자는 배은망덕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

님의 일을 말할 때마다 이 공경을 가져갑시다. 우리가 CO 340 그것을 우리의 모든 정신을 넘어서는 기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을 펼치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경배할 거리가 넉넉한 기적으로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다루었듯이)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 만큼 그렇게 재빠르다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첫 번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공부에 지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간 살았는데 아직 배우는 자이고 바랄 만한 그런 온전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다 해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이 공부를 이어 갑시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일에 담긴 기이함을 느끼기를 배웠다면 많은 것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구절에서 멈추어 서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변 속에 한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에 우리를 쓰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곧 저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수록 자기 직무를 하도록 더 부추김을 받고 더 흔들리고 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멈추어 서는 자들은 (속담에서 말하듯) 더 잘 뛰려고 물러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계획에 그렇게 매여 있을 때 달리고 뛰어다니고 움직이며 심지어 세상을 자기와 함께 움직이려 하는 것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는 팔다리가 부러질 수는 있어도 거의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이끄는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흥겨워하지 않고 떠돌이가 되지 않도록 고삐에 붙들릴 만큼 하나님의 일에 멈추어 섭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도 우리를 쓰고, 거기에 우리 과녁을 둡시다.

그 밖에 우리가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일 지혜도 이성도 없으리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서 유익을 얻도록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은 그분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자연의 비밀을 교묘하게 논했고, 거의 아무것도 그들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 골몰하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혜가 뒤죽박죽인 구렁 말고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그토록 꼼꼼히 뜯어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은망덕입니까? 그러니 이런 아래 것들을 교묘하게 캐묻는 데 골몰하면서 그 사이에 창조주를 업신여기는 그런 지혜는 CO 341 저주를 받으라. 그 밖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그토록 교묘하게 다룬 자들에게 정신을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았고 바르게 인도받도록 그분의 말씀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큰 철학자들을 읽거나 그들에 대해 듣고, 그들이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학교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눈멂을 비추는 그만큼의 거울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교묘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맛보지 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자 할 때 우리 재빠름을 믿지 말고 우리 타고난 힘을 내세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분의 이끄심 안에서 걸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쓰임과 가르침에 적용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첫 절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동시에 자기 말을 이어 갑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어떻게 명하셨는지, 어떻게 구름을 정하셨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 가운데 빛을 두시는지 아는지, 그리고 구름의 질서와 배치와 지식에 온전하신 분의 기이한 일을 알았는지 묻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피조물에게 법을 지우셨는지 네가 알았느냐?" 하고 말할 때, 여기서 새겨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한 번에 창조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쓰임에 적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며칠 이미 다루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여기 다시 놓였으니 그것을 달아봅시다. 그것은 또 좋은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은 일들이 되는 대로 간다고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빈약하고 아주 싸늘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의 모든 이방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어떤 좋은 경건(religion)의 씨앗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하다고 여긴 이 미친 짐승들은 제쳐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지혜로운 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에게는 견줄 자가 결코 없었는데도 그는 거기 멈추어 섰고, 마귀가 그를 들뜨게 해서 그는 세상의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았다 해도, 하나님의 얼굴 같고 그분이 바라보아지기를 원하시는 CO 342 세상의 창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건의 씨앗을 가진 모든 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알았다 해도 그분의 섭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들이 지금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의로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까닭으로 여기 놓인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합시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늘 일하시니 나도 함께 일한다"(요 5:17)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맞습니다. 그분은 솔로몬이 8장에서 말하는 그 지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듯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자 합니까?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잊지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름이 우연히 공중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땅이 원하는 대로 거기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98] 오히려 모든 것을 이끄시고 좋은 날씨와 비에 법을 지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그러니 그것은 이 지극히 높은 통치에서 옵니다) 결론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는데 비 한 방울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결코 날씨가 좋지 않으며, 결코 작은 바람 하나도 불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감각이 없다 해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에게서 은밀한 움직임을 받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 만큼 날카롭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맞추어야 하고, 믿음이 우리의 모든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편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 모든 것이 그분의 뜻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둔함을 경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 분량을 넘어선다 해도, 그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 곧 들으라는 데로 달려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이 너무 작고 약하다면 우리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공상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깨달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을 때

98. 원문은 “selon, me la terre voudra“입니다. “selon que la terre voudra“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이는 것들과 세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큼밖에 판단할 수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보다 비할 데 없이 더 높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CO 343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 보이고 썩고 쇠잔한 것도 판단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판단이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온갖 방식으로 우리를 낮추고 절제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맞는 것들을 아는 일에 이를 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잘 유익을 얻으려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그분께 우리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림받는 것을 견딥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려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여기서 우리 공상대로 판단하려고 정신 나간 자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교훈을 되새기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엘리후는 여기서 볼 수 있지만 그 이유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 무언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너무 높다는 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풍으로 땅에 쉼을 주실 때 네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네가 논할 수 있겠느냐?" 곧 여름에 아주 덥고 해가 다스리며, 북풍이 불지 않고 남풍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아차려지는 바람이 아닙니다. 여름에 날씨가 잠잠할 때 물론 미풍이 남쪽에서 오지만, 그것은 알아차려질 수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날씨가 너무 잠잠해서 어떤 바람도 부는 것이 알아차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더위에 숨이 막힙니다. 그때가 또 가장 큰 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풍으로 땅을 쉬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너는 왜 네 몸에서 땀이 나는지 판단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것으로 네 옷이 젖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해가 그것을 꿰뚫을 만큼 내리쬐었을 때 옷이 타서 그 열을 막아 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 이유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셨을 때 네가 그분과 함께 있었느냐?” 사람들은 이 작품을 부어 만든 거울처럼 봅니다. 보십시오, 하늘의 이 펼쳐짐은 놀라운 주조물입니다. “너는 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이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컨대 이 말씀들에서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은, 더위와 추위에 어떤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름에 이 남풍이 CO 344 다스려서 큰 바람도 큰 격렬함도 없이 사람들이 더위에 탈 때, 우리는 그것의 어떤 아래 이유를 잘 알아차릴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알았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능력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추어져서 우리의 모든 감각이 거기서 모자라고 눈이 부실 수밖에 없는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하고 그분께 그분의 과제를 보여 드리며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원망하며 어떤 불만의 표시를 보이려 하는 것이 무슨 교만인지 봅니다. 보십시오, 마귀적인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땀과 해의 열의 원인조차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가 뜨겁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땀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그때 몸이 풀리고, 그 풀림 때문에 축축함이 그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추운 때에는 감각이 죄어져서 축축함이 사람의 생명을 기르려고 물러가고, 더운 때에는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열은 약함을 낳고, 그 약함이 김을 녹게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땀의 원인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논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말했을 때 사람의 몸에 놀라운 비밀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런 솜씨를 두셔서 우리가 잘 생각했을 때 우리 감각의 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더럽고 우리 배은망덕은 너무 짐승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그런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땅과 어떤 비례를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무슨 재료로, 곧 불의 재료로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 상태와 그런 배치로 지켜지는지, 그다음에 그 돎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큰 이치로 일하셔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이치입니까? 무한한 이치입니다. 거기서 모든 사람의 감각이 낮아져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놀라운 장인이 계시다. 우리가 그분의 비밀을 경배하고, 그런 높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모든 일에서 그분께 경의를 바쳐야 할 만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를 이끄시려는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일에서 어떤 이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으로 일하시는지 보며, 그분의 의와 능력과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늘 이 결론을 내리기를 배웁시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백분의 일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99] 우리가 혀끝으로 핥듯 그 작은 맛이라도 가진다면 그것이 큰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맛조차 CO 345 위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앎은 우리 깨달음의 둔함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자람을 알았으니 가르침 받기를 바라고 점점 더 유익을 얻기를 바라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 우리 공부를 쏟는 일에 결코 지치지

99. 원문은 "Que tant, a que "입니다. "Que tant y a que "로 보고 옮겼습니다.

맙시다. 우리가 그 어떤 부분을 배웠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맛을 들이게 되었을 때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로 거두실 때까지 우리가 평생 거기에 몸 바쳤을 때 반쯤 왔다면 그것이 많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더위와, 부어 만든 거울 같은데도 그 펼쳐짐이 무한한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이 솜씨에 관해서는 이러합니다. 그러니 장인은 놀라운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말할지 우리에게 보여 보라. 어둠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돈할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향합니다. 곧 하나님께 따지고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하겠다고 주제넘게 굴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지, 그분과 그분의 일에 트집 잡을 데가 있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려고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고치려 할 만큼 그렇게 오만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대담함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다면 저마다 자기 조각과 토막을 덧붙이려 하리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좋을 텐데." 요컨대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르려 하신다면 무서운 뒤범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트집 잡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려 하는 이 마귀적인 교만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성령께서 그런 오만을 조롱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마다 그렇게 큰 주인이라고 주장하니, 하나님께 어떻게 말할지 우리에게 보여 보라. 너희가 그분께 가서 '보십시오, 나는 이런 일이 이루

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한다면 이유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께 무슨 이유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특히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못마땅해할 때 자기 공상에 휘감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슬러 분해하고 CO 346 이것저것 말대꾸할 그런 방종을 줍니까? 우리가 그분의 위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라본다면 우리가 떨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데로 되돌리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분께 무엇을 말할지 보여 보라. 너희는 뒤에서처럼 투덜대러 가기 때문이다.” 어떤 불쌍한 촌뜨기가 정신과 권위 있는 사람을 보고 그가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트집을 잡겠지만 감히 그에게 말대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 속을 끓이며 분해하고 많은 모함을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와 같은 자들과 있을 때 전에 품었던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오, 아무개는 자기가 아주 지혜롭다고 여기고 아주 학식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그가 그렇게 말하도록 어떻게 내버려 두는지 놀랍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그분을 거슬러 부리를 쳐들 만큼 그렇게 대담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자연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을 거슬러 그렇게 높아지는 것을 몸서리쳐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몰래 투덜대러 가고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며 이것저것에 말대꾸할 만큼 그렇게 더럽고 비열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트집을 잡으려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여기 담긴 것을 생각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말하겠느냐? 어느 끝에서 시작해야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를 누를 계기가 있을 것이고, 전에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리석음이 길들여져서 완전히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보라” 하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둠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돈할 수 없다” 하고 말할 때, 여기서 사람들의 무지가 우리에게 더 잘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만큼 어둠 속에 휘감겨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을 정돈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거하셔서, 죽을 사람처럼 해가 비칠 때에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도 한낮에 걸을 때에는 자기 길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몰두할 때에는 자기 이끔과 솜씨를 가지며, 그다음에 자기 밭과 소유를 바라보려 하면 시선을 뺍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너무 크고 무한한 빛 가운데 거하셔서 아무것도 그분께 숨겨지지 않고 모든 것이 그분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께는 지난 시간도 올 시간도 없고, 앞에서 보았듯이 그분은 구렁까지 이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CO 347 어둠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그분께 그분의 과제를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갇혀서 빛 한 방울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네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소경이 다른 사람에게 “너는 네 길을 모르고, 네가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고 깨우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과 견주어 보면 우리가 소경보다 더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방식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선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반박하고 그분을 거슬러 논쟁할 계기를 찾겠다고 주제넘게 굴 때 우리는 미친 자보다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처지를 압시다.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고, 지금 하듯 그런 방종으로 변론하겠다고 더는 주제

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올곧음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평과 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것의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그래야 하듯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정죄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서둘러 말하는 무모함으로 꾸짖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는 우리 혀가 얼마나 경박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분의 기이한 일을 말하는 것이 문제일 때 그러한지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작음을 따라 우리 말을 다스리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다른 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어둠 한가운데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지금 일하시는 수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당신의 뜻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분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산을 높이시고 골짜기를 낮추시며 우리가 보는 이 질서를 세우셨을 때 그분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이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고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희에게 나를 준다. 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심지어 그것이 내 즐거움이다. 보라,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내 모든 기쁨이다.” 그러니 (그 자체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에게 친밀한 것이 자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고 단언할 때, 묻건대 우리에게 CO 348 우리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에서 유익을 얻도록 깨어 있을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말고는 알기를 바라지 않을 만큼 그런 삼감과 절제로, 그리고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리도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절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내가 말한다 해도 누가 그분께 그것을 아뢰겠느냐? 감히 한마디라도 하는 자는 삼켜지지 않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우리가 이미 다룬 것을 더 잘 나타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는 모든 무모한 말, 우리 머릿속에서 품는 모든 터무니없는 공상은 몰래 하는 원망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가져온 이 비유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줄 모르는 어떤 촌뜨기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신 자들을 거슬러 투덜대러 가고 남을 헐뜯으며 지혜로운 체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말대꾸할 줄 알 만큼 너무 대담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투덜대기만 하고 그분은 우리 말을 들으실 마음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설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분께 아뢰겠느냐?" 그것은 마치 어떤 거지가 큰 왕에 대해 말하면서 "오, 왕이 더 잘 생각해야 할 텐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텐데"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게, 그렇다면 자네가 말하는 것을 그에게 알려 줄 어떤 전령을 찾아야겠네. 왕이 자네가 조언하지 않으면 넉넉한 의논도 지혜도 가지지 못한다니, 자네가 가서 그에게 자네 의견을 아뢰든지, 아니면 그에게 자네 조언을 알릴 어떤 전령을 찾아야 하네." 어떤 불쌍한 거지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마다 그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하려 꾀할 때 우리 어리석음을 조롱할 계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기 놓인 이 말투를 잘 새깁시다. "누가 그분께 아뢰겠느냐?" 우리는

여기 아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개구리 같습니다. 개구리들은 자기 늪과 진흙탕에서 많이 개굴거릴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지나가고 그 모든 개굴거림에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그러합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잘거리기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침묵하시고 모든 것을 그들의 입맛대로 하시리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부리를 쳐들 때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 우리 말이 공중으로 흘러가 연기가 되리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CO 349 우리의 크고 무서운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 오만이 감히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할 만큼 그렇다면, 그런 모독이 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벌받지 않고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슬러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하려는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게 합시다. "누가 그분께 아뢰겠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아무것도 그분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은 마치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자인 것처럼 우리 재잘거림에 당신을 매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보십시오, 개구리들입니다. 요컨대 이것은 우리가 변론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 소송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은 대답하시려고 낮아지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는 우리 수다로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혀를 날카롭게 하고 그것이 공기를 베고 자른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늘 온전하게 남으실 것이고, 우리를 거슬러 말대꾸하시고 어떤 변명을 찾으시려고 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이 찬양으로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

시도록 그런 공경으로 말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혀를 깨끗하게 하셨을 때, 곧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서 나온 것, 그분의 학교에서 배운 것 말고는 입 밖에 내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엘리후가 덧붙이는 것을 새깁시다. "누가 말한다면 그가 삼켜지지 않겠느냐?"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감히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서고 그분의 일에 트집 잡으려 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삼켜질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위엄 아래 떨어야 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드러난 반역이 있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길 한 번으로 산과 바위를 녹이실 것이고, 바다를 CO 350 흔드실 것이며, 기뻐하신다면 온 세상을 구렁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도 물에도 그런 모든 피조물에도 반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 줌의 재일 뿐인 사람이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싸우려 할 것입니다. 묻건대 그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데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벌레, 불쌍한 썩은 고기가 하나님께 침묵을 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영예를 빼앗으려 하고, 그분이 받으실 만큼 지혜롭고 의로운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아, 우리가 그런 대담함으로 그렇게 그분을 거슬러 올 때 우리는 눈먼 자보다 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다룬 것을 따라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우리 수다를 높일 때 우리는 우리 파멸을 찾는 것이고, 완전히 삼켜지기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지키심 아래 지켜지기를 바랍니까? 그분 아래 겸손하기를 배우고,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만큼, 우리가 늘 절제 가운데 걷고 늘 이 과녁, 곧 그분이 우리에게 영예를 받으실 만하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께 그런 경의를 빚졌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그분께 우리를 복종시키기를 배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진노의 무서운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지켜지는 시원함 같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일을 캐물으려고 너무 나아가려 하지 않고 온갖 겸손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보여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은 우리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7편

욥기 38장 설교 1

CO 35:351–36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주께서 회오리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지식 없는 말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보여 보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말해 보라. (욥 38:1–4)

CO 351 우리는 앞에서 엘리후가 욥을 꾸짖으려 하면서, 욥이 너무 높은 권능으로 대접받는다고 하소연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와 같은 죽을 사람이라고 단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치로, 부드러움으로 그를 얻으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듯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끼셔서 당신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을 들으려고 더 큰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가르침이 우리에게 씹어서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의 사역자로 당신의 이름과 권위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 분량을 아시고, 우리가 약하니 그분의 위엄에 곧 삼켜지고 그분의 영광에 구렁에 빠지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작음에 맞추어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공경을 드리도록 찔림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남용할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결국 그분과 친구처럼 굴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욥이 엘리후가 가져온 말과 이유로 충분히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보시고, 회오리로 그에게 당신의 크심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서 그가 자기 허물을 알도록 자기를 맞추고, 자기에게 내놓이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맞추시는 것을 봅니다. 한편으로 그분은 낮아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오르기에는 너무 둔하고 거칠다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머릿속에 너무 큰 거만함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계신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고 온갖 겸손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점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과 그분이 우리 구원에 대해 가지신 돌보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CO 352 말하자면 모습을 바꾸셔서 고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고 맞다는 것을 보실 때 우리와 함께 더듬더듬 말씀하시며, 그다음에 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업신여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높아지셔서 당신께 속한 대로 당신을 높이실 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를 알아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분량에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그만큼 더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려 하셨고 그 사이에 우리를 당신께 순종하도록 맞추시려고 높아지시는 것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께 귀 기울일 용기를 그만큼 더 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높고 모호하다거나, 두렵다거나, 너무 단순하다는 헛된 핑계를 더는 대지 맙시다.

모든 것을 셈하고 따져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떨게 하는 위엄을 우리에게 내놓으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무지하고 무식한 자들도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단순함이 있고,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자이기만 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입을 댈 수 있을 만큼 큰 밝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특히 당신을 겸손한 자와 작은 자의 스승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더 자유롭게 가까이 가고, 그분이 당신 쪽에서 내놓으시는 것을 더 큰 여유로 받으며, 분량을 넘어 놀라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박차에 둔하고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영예를 드리지 않으니, 그분은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의 위엄 가운데 높아지셔서, 그것이 우리를 그분께 경의를 바치도록 이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께서 회오리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에게 당신이 계시다는 어떤 표지를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폭풍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에게 말씀하려 하실 때 그렇게 천둥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때로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 자리의 정황을 달아 보아야 합니다. 곧 욥이 충분히 꺾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CO 353 그에게 무서운 힘을 보이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까닭으로 그분은 천둥을 치시고 이 회오리를 일으키셔서 욥이 자기가 어떤 주인을 상대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두운 구름 속에 사시는 것 같다고, 또는 빛에 둘러싸여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 이를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면 우리 감각이 눈이 부시며 너무 짙은 어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너무 캐묻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맛보며,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거나 우리를 당신께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말고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까닭도 있습니다. 곧 우리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부드럽게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기만 바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께 복종하도록 잘 준비되어 있을 때 그분이 이 사랑스러운 방식을 쓰시고 더할 나위 없이 인자하게 그들을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굳음을 알아차리실 때에는 먼저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거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실 때 천둥을 일으키시고, 나팔이 공중에서 울리며, 모든 것이 떨어서 백성이 놀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보라, 우리가 구렁에 빠졌다" 하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땅을 흔드시고 그분의 음성이 그런 두려움으로 울렸습니까? 그분이 귀 기울임을 받지 않으시려고 백성을 멀리 쫓아내려 하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당신의 율법을 헛되이 주지 않으셨고, 백성이 생명의 길을 알도록 확실한 가르침을 주려 하셨다고 말합니다.[100]

그러니 그분이 공중에 회오리와 폭풍을 일으키실 때 그것은 백성을 겁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건대 그것은 그분의 의도가 아니었고, 오히려 그것은 백성의 이 높음을 꺾으시려는 준비로 쓰였습니다. 거기 덧붙은 이 표들이 없었다면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도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조차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100. 원문은 "la voye de rie"입니다. "la voye de vie"(생명의 길)로 보고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오리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그토록 거룩하고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데 모든 공부를 쏟은 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질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욥과 견주어 봅시다. 보십시오, 천사 같은 거룩함의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한 단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괴로움을 당하고 원망하며 터무니없는 말이 그에게서 새어 나왔다 해도, CO 354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위엄 아래 자기를 낮추는 이 원리를 늘 간직했습니다. 그가 일부 기울었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육적이고, 우리 헛된 것들이 우리를 너무 들뜨게 해서 우리는 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좀처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내놓으면 우리는 거기 굼뜨고, 심지어 나귀보다 더 둔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위엄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진지하게 찔림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폭풍과 회오리를 일으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듯 그분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양심에 거리낌과 어지러움을 가지고, 어떤 이는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어떤 이는 다른 역경을 가질 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지 않으니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그런 굳음을 요구되는 만큼 꺾으셔서 우리 정신이 바른 순종 속에 쓰러지게 하십니다.[101]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반역을 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당신께 이끌고 얻으시려고 내가 이미 말한 이런 방식과 수단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도록 그분은 회오

101. 원문은 “il ma te une telle dureté“입니다. “il matte“(꺾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리에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박차에 발길질하고 고집 센 말처럼 구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셔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치셔서, 그 머리가 아무리 단단해도 부드러워졌어야 했을 이 촌뜨기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늘 이를 갈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꼼짝 못 하는 것이 보이는데도, 그들은 거만함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이고 할 수 있는 한 그분께 대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든 자가 그분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의도는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경을 보내실 때마다, 마치 그분이 천둥으로 말씀하시고 당신을 들리게 하시려고 우리 위에 벼락을 치시는 것처럼 그분께 달려가기를 배웁시다. 그것을 알되, 우리 정신이 참으로 그분 아래 꺾이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낮추는 것 말고는 찾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압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치지 않으신다 해도, 그분 말씀의 CO 355 입증으로 옛날에 주어진 모든 표지가 오늘 우리에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우리는 동시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어 붙여야 합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보내시고 공중에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셨을 때 율법이 마땅히 확인되었고 그분이 그것에 온전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율법이 세상 끝까지 온갖 공경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이 이 책에 담긴 것을 확인하려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뿐 아니라 이 권위를 그분의 모든 말씀에 넓혀야 합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려고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시작하셨고 끝에 거칠고 매섭게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께 순종했는지 알도록 우리 삶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한편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아주 뚜렷하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은혜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얻으시려고 이 둘째 수단을 쓰셔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본보기를 들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 당신 양 떼의 것으로 삼으려 하실 때 때로 우리를 꿀처럼 달게 달래십니다. 아무 고난도 보내지 않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거기서 유익을 얻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 굳어지고, 우리의 악한 탐욕을 버리며, 세상을 잊고 온전히 그분께 몸 바치는 데 유익을 얻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우리를 참아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한 것을 보실 때 그분은 치기 시작하십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상냥하게, 인자하고 아버지다운 방식으로 가르치려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분이 까닭 없이 회오리에서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까지 우리가 결코 그분께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을 보시니 그분은 그런 격렬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분이 단순한 말씀으로 얻으시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이 고집스러운 것을 보시면 그들에게 어떤 어지러움, 어떤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려 하신다는 어떤 표지를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복음에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마음에 바르게 찔림을 받지 못했을 사람이 많습니다. 그 위에서 그들이 고난으로 이 세상에 비참함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자기를 언짢아하고 전에

잠겨 있던 즐거움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CO 356 사람들을 당신께 이끄실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분이 우리에게 쓰시는 모든 수단에서 유익을 얻읍시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회오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 쪽에서 그분께 친밀하고, 양과 어린양처럼 그분께 다스림받는 것을 견딥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떤 굳음을 보시면 우리가 싫어도 우리를 꺾으셔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동안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굴게 두신다 해도, 그래도 결국 우리는 그분의 무서운 위엄을 느끼고 그것에 놀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당신의 음성이 우리 마음까지 들어와 우리가 그것에 상처 입도록 당신의 음성으로 천둥 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그분이 모두에게 베푸시지는 않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이 믿지 않는 자들 위에 벼락을 치실 때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돌아올 소망이 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죄를 들으라고 그들을 소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모든 반역을 꺾으시려고 어떤 회오리를 일으키실 때, 곧 우리에게 당신의 위엄을 느끼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이 도움을 그만큼 더 잠잠히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 없는 말로 계획을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고 내 모든 물음에 대답하라" 하고 말하는 것으로 옵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기서 욥을 조롱하십니다. 그가 대들었고 논쟁으로 자기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누구인지 깨우쳐 줄 때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물론 사

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큰 존귀함이 있다고 믿으며 자기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를 아무리 귀히 여겨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온갖 더러움과 악취밖에 알지 못하시고, 그들을 내던지시며,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증히 여기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덕과 지혜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오만하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애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너 사람아" 하는 이 말만 쓰십니다. 이것이 선언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서 모든 영광의 계기를 온전히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이 한 방울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내세울 계기가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하고 덧붙이십니다. 곧 "네가 원하는 만큼 재빠르다 해도, 네가 거인 같다고 믿으라. 네가 잘 CO 357 갖추어져 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다고 하자. 좋다, 결국 네가 무엇을 얻겠느냐? 불쌍한 피조물아, 내가 너를 맞설 때 네가 버틸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봅니다. (이미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고 무엇인가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너무 뿌리 박혀서, 우리를 우리 비참에 대한 바른 앎으로 이끌어 모든 교만과 주제넘음이 비게 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 안에 아무 값어치도 없다고 보여 주는 구절들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달아 봅시다. 세상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는 어리석음과 헛됨일 뿐이고, 힘 대신 약함밖에 없으며, 의 대신 부정과 더러움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그들 모두를 한 단으로 묶

듯 담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두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자에서 가장 작은 자까지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치욕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그러니 "이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을 생각하되,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모든 죽을 피조물에 대해 받아들입시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인 사람, 온갖 더러움과 추함으로 가득한 그릇일 뿐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를 거슬러 논쟁하고 그토록 깊이 캐물으려는 그런 대담함이 있다니,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사람아, 너는 누구냐?" 사도 바울도 이 말로 우리를 물리치듯이 말입니다(롬 9:20 참조). "사람아, 하나님께 대답하고 그분을 거슬러 변론하는 너는 누구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할 그럴듯한 빛깔이 있다고 여기는 반론들을 내놓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들을 멸하시는가? 그리고 이유 없이 와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구별하시는가? 한 사람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다른 사람은 내던지시는가?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한 뒤에, 사람들이 그런 반론을 즐긴다 해도 "오, 사람아,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말합니다. "이 자가 누구냐?"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교만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생각합시다. "아아, 너는 누구냐?"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자들, 우리와 동등한 자들과 싸움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캐물을 만큼 CO 358 대담하려 한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상상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영예를 거슬러 말하려고 우리 공상과 혀에 고삐를 푼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아, 나는 누구냐?" 저마다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기 약함을 바라보고, 요컨대 자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넉넉히 물리쳐질 것이

고, 우리가 전에 품었던 이 모든 수다가 꺾일 것이며, 우리의 모든 공상조차 이 뒤에 더 온전히 선언되겠지만 고삐 매이고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하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자기 힘을 잘 모아 펼쳤을 때에도 그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을 도발하시거나 그에게 도전하셔서, 그가 채비를 갖추고, 거인처럼, 또는 찾을 수 있는 가장 재빠른 사람처럼 무장하고 갖추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가 말한 것을 더 잘 나타내십니다. 곧 사람들이 성경에서 정죄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보통 사람들, 업신여김받는 자들, 신용도 존귀함도 없는 자들에 대해서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자들, 구름에 닿는다고 여기는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영예를 받을 만한 어떤 겉모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보기를 들자면, 뛰어난 자들이 자기를 이웃과 견줄 때 물론 그들은 자기 사람됨에 대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자기 자신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식 있고 정신 좋고 품위 있다고 여겨지면, 좋습니다, 그는 같은 자질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비해 자기를 귀히 여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크고 칭찬받을 만한 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덕을 가질 때 그것은 (흔히 말하듯) 우리에게 배짱을 주어 우리를 내세우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힘을 한 방울이라도 가진 멋쟁이나 억센 자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더는 거룩함도 지혜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 요컨대 온 세상이 자기 장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도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온전히 없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우셔서, 모든 것이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빌리듯 받을 덕 말고는

우리 안에 덕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용사"라는 이 말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봅니다. 곧 우리가 어떤 특별한 덕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계기를 우리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CO 359 그리고 그 밖에 또 욥이 지식 없는 말로 계획을 휘감는다고(또는 어둡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비밀을 다룰 때 삼가고 온갖 두려움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계획"이라는 말 아래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높은 일들을 나타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찮은 잡동사니를 두고 아무렇게나 논쟁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말은 헛되고 허망하겠지만, 어쨌든 모독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속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가르침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들어가며, 그분의 섭리와 뜻을 논쟁할 때에는 그렇게 경솔하게 거기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 없는 말로 계획을 휘감거나 감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서 욥을 꾸짖으시는지 봅니다. 곧 그가 자기 분량을 넘는 것에 대해 너무 서둘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뛰어난 은사가 있었다 해도 그래도 그는 자기 연약함을 알고 늘 자기를 낮추어야 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몰라서 감각의 끝에 이른 것 같을 때 고삐 속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을 느끼면서 자기 정신의 약함을 바라보아야 했고, 자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아, 내 안에는 무지와 어리석음밖에 없다" 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과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것이 그를 겸손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늘 참된 과녁을 바랐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가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꾸짖음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은 신비와 당신의 하늘나라에 관한 것에 사람들이 드리기를 원하시는 공경을 우리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두고 논쟁한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세심한 조심스러움으로 거기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땅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에 담긴 것을 말하는 것이 문제일 때마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으로 거기 나아갑시다. 우리 공상에 떠오를 모든 것을 쏟아 내려고 입을 벌리고 있지 말고, 심지어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캐묻도록 정신을 너무 열어 두지도 말며, 우리 정신을 붙들고 우리 혀에 고삐를 맵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곧 우리에게 너무 모호하고 너무 높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우리를 거기로 가르치려 하시는 만큼 말고는 우리가 거기 이르리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 실천되게 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102] 그러면 우리는 CO 360 오늘 온 세상에 있는 싸움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엄에 찔림을 받는 자가 아주 적은 것이 보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우리 구원의 가르침과 거룩한 성경 전체를 다룰 때 저마다 아무렇게나 갈 것입니다. 술잔 그늘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면 저마다 자기 몫을 한바탕 늘어놓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해야 하고 온갖 조심스러움으로 경배해야 할 그토록 높은 하나님의 신비를 다루는데, 말하건대 그것을 두고 재잘거리는 데, 다섯 푼짜리 소송이나 무엇을 다룰 때보다 더 대담할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시고 흐리게 하시며, 성경에서 우리가 복종해야 할 당신의 뜻을 펼쳐 보이셨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 말고 그것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고, 거룩한 성경 전

102. 원문은 “pleust à ieu “입니다. “pleust à Dieu “로 보고 옮겼습니다.

체를 뒤엎고 거짓되게 하며 타락시키고 썩게 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조롱하는 데 아무 수고도 들지 않는 교황주의자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계획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결코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 공상에 똑같이 복종시키려 할 술주정뱅이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재빠르고 거룩한 성경에 더할 나위 없이 훈련되어 있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위에 있다는 데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멍청하고 짐승 같아서 지식도 이성도 없고, 돼지들 위에서처럼 포도주가 거기서 다스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학자 노릇을 하고 감독하려 해서, 오늘 그들을 믿는다면 완전히 새 복음을 짓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간직합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지껄이고 재잘거릴 방종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분이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셨으니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이 그것을 경배하도록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지식 없는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이 계획의 가르침, 높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고 우리 정신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 없는 말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듯, 사람들을 저울에 달면 그들은 헛됨보다 가볍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만큼 말고는 우리 안에 아무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다룰 줄 아는 아무 은혜도 없으리라는 이 가르침을 그만큼 더 잘 새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CO 361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지혜롭게 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무지한 채 남아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디라도 말하려 하자마자 지식이 없고

우리 안에 거짓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욥을 거슬러 놓으시는 고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그분은 "내 모든 물음에 대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네게서 알고 싶은 것을 내게도 알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너무 교묘함이 있어서 그분을 거슬러 논쟁하고 변론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어리석은 오만을 계속 조롱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좋다, 물론 너희는 말할 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차례를 내줄 때 너희가 보기에 아주 재빠르다. 그러나 나도 내 차례를 가져서 너희에게 조금 말해야 한다. 그러면 내게 말대꾸해 보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모자람을 잘 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슬러 나서도록 그토록 무모하게 합니까? 그들이 말할 허락을 자기에게 주고,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말대꾸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무모함을 꺾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문하기 시작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완전히 붙잡힐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아주 들썩이고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을 단순하게 따르도록 우리 자리에 놓인 것 같을 것입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아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분은 입이 열려 있지 않으시며 우리를 심문할 권위와 주권을 가지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데 너무 성급하니,

곧 우리에게 속한 것보다 더 끼어드는 이 본성의 악덕이 있으니 우리 입을 붙들기를 배웁시다. 무엇이 우리가 곧 입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쏟아 내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CO 362 나서서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 직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죽을 사람이 자기 창조주를 앞질러 자기에게 귀 기울임을 받게 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비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조각조각 찢으며,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하고 말하려고 아무렇게나 말을 던질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우리가 그분 위에서 귀 기울임을 받기를 바라는 것 말고 무엇이 그 까닭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만을 바로잡도록, 우리 하나님께 대답하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 우리를 심문하실 이 권위가 있으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입맛이나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심문하실 권위가 있으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입을 막으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가 넘치도록 어찌할 바를 모르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 물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추어져 있고 우리의 모든 정신이 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103]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친 주제넘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고 우리를 이끄실 곳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그런 심문을 가지시고 우리가 넘치도록 어찌할 바를 모를 것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실 수 있으니, 우리를 낮추어 그분께 가르침을 받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 세상의 어둠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바라보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103. 원문은 "ne choses qui nous sont"입니다. "de choses"로 보고 옮겼습니다.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기도 배웁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잘 유익을 얻은 방식도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좋게 여길 만큼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배웠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모자란 좋은 것을 거기서 찾도록 그분께 달려가려고 우리 자신을 언짢아하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 안에서 자랑할 거리를 가지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8편

욥기 38장 설교 2

CO 35:363–37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게 보여 보라. 네가 알거든 누가 그 치수를 정하였느냐? 누가 그 위에 줄자를 대었느냐? 그 기초는 무엇 위에 받쳐졌으며, 누가 그 모퉁잇돌을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승리 가운데 노래하였다. 바다가 모태에서 나오듯 쏟아져 나올 때 누가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느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삼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삼았다. 내가 그 위에 내 규례를 정하고 빗장과 문으로 그것을 가두었다. 그리고 말하였다. 너는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물결의 높음이 여기 머물리라. (욥 38:4–11)

CO 363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늘과 땅에서 그것을 보는 그대로 충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 한마디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가르침에 담긴 것에서 유익을 얻을 줄 안다면, 그것은 우리를 겸손으로 가르치기에 넉넉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맛대로 일을 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거나 그분을 거슬러 변론하려고 더는 입을 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려놓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크심과 높으심,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권능, 그분의 일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선하심과 무한한 지혜가 우리를 낮추고 놀라게 하기에 넉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분을 경배하고 온갖 두려움과 공경으로 그분께 경의를 바치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 위에서 그것을 우리 눈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 안에서 보여 주실 때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아주 뚜렷한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고 그것을 바다 한가운데 앉히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104] 물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치 큰 성벽 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가두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그 일꾼이 뛰어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곧 우리의 모든 공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쏟아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고 CO 364 공평과 올바름으로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께 성내고 분해하며 그분의 일에서 흠을 잡도록 부추김을 받을 때 짧은 고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그분을 경배하는 것밖에 남지 않도록 그런 겸손과 삼감 속에 우리를 붙들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일의 이유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고 모든 것을 좋고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무 반대 없이 거기 온전히 동의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이제 여기 담긴 말씀으로 옵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욥이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불쌍한 피조물아, 너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네가 나와 같아야 할 것이다. 네가 내 지혜에 가까이 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다음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네게 깨달음이 있다면 내게 보여 보라. 누가 땅의 치수를 정하였느냐? 네가 알거든 내게 말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자를 대어 그것이 그토록

104. 원문은 "il 17a assise "입니다. "il l' a assise "(그것을 앉히셨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잘 균형 잡히게 하였느냐? 누가 땅을 그 모퉁이 위에 앉혔으며 그것은 무엇 위에 받쳐져 있느냐? 욥아, 이 모든 것을 내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땅의 크기와 무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거기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런 덩어리가 우리 감각을 눈부시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할 나위 없이 큰 이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잘 보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그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넉넉한 판단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정하시고 결정하실 때 그분의 좁고 숨겨진 뜻들은 (묻건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이유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정신을 넘어서는데 우리가 우리 공상대로 그것을 판단하려 할 만큼 그토록 오만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조차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으려 할 때 그것은 어리석음, 아니 너무 큰 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무슨 뜻으로 말해졌는지 잘 살핍시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깨닫도록 이렇게 견주어 봅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석공과 목수를 데려오되 고를 수 있는 가장 숙련된 자들을 데려와도, 자기 기술에 아무리 뛰어난 석공이나 목수라도 CO365 집을 지으려면 먹줄과 줄자와 치수와 다림추와 그 비슷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이 비뚤어질 것이고, 두 길 높이도 올리기 전에 흠잡을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장인들이 자기 기술에 아무리 숙련되고 뛰어나도 먹줄과 줄자와 치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지어진 가장 큰 궁전과 성들이 백 길 높이도 되지 않는다면, 땅과 바다를 지은 것에 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듬은 돌로 성을 하나 지으려 할 때도 사람들은 아주 애를 먹을 것입니다. (먼저) 좋은 기초가 없고 잘 받쳐지지 않으면 그 위에 올리는 모든 것이 헛되이 짓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

음에 그것이 잘 재어지고 정돈되지 않으면 공사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궁전과 성을 한데 모아 바다와 땅에 견준다면 (묻건대)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에 무슨 비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숙련되었어도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과 구조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둘러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가 보는 대로 물 위에 그렇게 앉히셨고 거기 그토록 아름다운 질서가 있을 때 땅에서만 나타나는 그토록 뛰어나고 웅장한 이 작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견줄 수 없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추어진 그분의 일에서 하나님을 감독하겠다고 주제넘게 군다면 우리는 미친 자들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를 때 그것이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하고, 그런 건물을 오랜 시간의 연속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단순한 뜻으로 지으신 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게 합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작한 것을 첫날에 짓고 마칠 수 없고, 거기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작품을 얼마나 빨리 이루셨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서 당신을 감독하겠다고 주제넘게 굴 때 그들의 교만을 조롱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석공 기술과 목수 기술에 숙련된 자들에게 어떤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소" 하고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 일이 내게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도편수 노릇을 한다면, 도편수와 목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어찌 된 일이냐? 이 사람은 반 자짜리 창문 하나도 만들 줄 모르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감독한다" 하고 말할 정당한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기술에 밝은 자들은 누가 와서 그렇게 어리석게 그들의 작품을 나무란다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오만한 자를 CO 366 그의 가나다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

리가 도편수와 목수들에게, 삼감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는 그들의 작품에 대해 감히 말하지 못할 만큼 이런 영예를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훨씬 더 겸손하고 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꾼이 아닐 때 손으로 하는 작품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다. "물론 나는 이것에 밝지 않소. 그것은 내 직업이 아니오. 그러나 내 의견은 이렇소. 그래도 나는 늘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맡기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손일꾼이 만든 건물이나 보통 작품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가 그런 삼감을 쓴다면, 묻건대, 그분의 일이 문제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영예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먹줄과 줄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죽고 썩을 피조물이라 해도, 사람들은 내 일을 바라보며 '여기 아주 뛰어나고 잘 아는 장인이 있다. 그는 아주 숙련되었고 그의 작품이 말한다' 하고 말하는 영예를 내게 줄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말했듯이) 손일꾼이 어떤 보통 작품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은 감히 거기서 흠을 잡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그런 일에 밝지 않은 자들은 말이다. 그런데 그토록 뛰어난 작품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렇다, 무에서 창조하고, 그것들을 보이는 대로 그토록 아름다운 질서와 그런 배치로 재어 놓은 나를,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서 감독하려 하다니,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사람들의 모든 작품을 내 일에 견주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가까이라도 오겠느냐?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로 일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서 면제되지 않겠느냐? 저마다 감히 '왜 이것이냐? 왜 저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교만이냐? 사람들이 와서 죽을 피조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보다, 전능하고 온전히 지혜로운 나보다 앞세울 것이냐?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배은망덕이 아니냐? 죽을 사람이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은 큰 삼감으로가 아니면 그를 감히 판단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이런 영예를 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지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나를 백 배 더 영예롭게 할 만하지 않으냐?"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눈을 던지면 이렇게 살핍시다. "보라, 무서운 덩어리다. 접근할 데가 없는, 벽이 잘 쌓인 큰 성 같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기 어떤 무게가 있는지 보고, 그것을 떠받칠 넉넉한 기초를 찾는 것이 CO 367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 위에 받쳐져 있습니까? 물 위입니다. 땅은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둘레에 물이 있습니다. 물론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은 철학자들도 물이 어떻게 땅을 둘러싸고 전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지 이유를 잘 찾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교묘하게 논쟁했고 어떤 이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도 이를 갈면서도 이것이 자연을 넘어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살 자리를 가지도록 물이 그렇게 물러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될 수 없다. 여기서 일하는 어떤 신적 섭리가 있어야 한다." 보십시오, 그들이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배은망덕으로 눈이 멀었다 해도, 어쨌든 그들은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감각이 모자라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땅을 물 위에 받치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둘레를 보면 온 땅을 둘러싼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땅이 굳게 머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무슨 기적입니까? 물론 때로 지진이 보일 것이고, 모든 것이 구렁에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든 우리는 온 땅의 몸체가 늘 버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작품을 생각할 틈을 내지 않는다면 무슨 핑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거기서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그토록 여러 가지로 펼치셔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확신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면서도 그분의 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악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졸고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배은망덕하고 천한 자들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는 아무 핑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드러나고 뚜렷한 그분의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죄가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땅의 줄자와 치수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배치하는 데 놀라운 권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을 잘 봅니다. 땅이 하늘 한가운데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대칭과 비율, CO 368 그런 조화와 고름 속에 있지 않다면 결코 굳건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땅에서 구름까지뿐 아니라 별들과 행성들이 있는 하늘까지 있는 그토록 먼 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놀라는 것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땅 위로 하늘에서 보는 이 높이를 바라볼 때, 땅은 무엇입니까?[105] 거기 아무리 큰 덩어리가 있고 아무리 큰 무게와 크기가 보여도, 그것을 하늘의 이 크기에 견준다면 우리는 철학자들과 함께 그것이 작은 공일 뿐이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와 다른 하나 사이에 무슨 비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산들만 바라보아도, 우리는 거기서 다시 놀라고 모든

105. 원문은 “qu’ est. ce de la tel c?“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상 “qu’ est-ce de la terre? “(땅은 무엇인가?)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을 만드신 일꾼을 경배할 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땅의 굳건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큰 다양함을 보는데도 땅은 늘 제자리에 머물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땅을 혹투성이로 만드는 높은 산들이 있고, 고르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그것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심지어 완전히 넘어지게 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그런 비율과 치수를 두셔서 땅이 늘 제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들이 땅을 뒤엎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가 다른 하나에 그렇게 맞서서 평형이 늘 유지됩니다. 요컨대 어떻든 땅은 거기 있는 비율과 고름으로 끝까지 늘 버티고 보존될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조금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땅이 물에 둘러싸여 있고 큰 산들이 그것을 바다로 떨어뜨리려는 듯 솟아 있는데도 땅이 굳게 머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것 이상의 방식으로 일하셨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크심과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 아래서 우리가 완전히 모자란다고 고백하는 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106] 실로 온 자연의 질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가 겸손과 두려움 속에 걷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담긴 것을 훨씬 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 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땅을 우리에게 거울로 내놓으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그분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권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으로 이끄시듯 CO 369 훨씬 더 크고 더 뛰어난 그분의 일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셔서, 우리가 거기서 경탄에 넋을 잃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심 아래 우리를 낮추고 그분을

106. 원문은 "nous detaillons"입니다. "nous defaillons"(우리가 모자란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경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토록 뛰어나게 꾸미셔서,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하거나 그분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분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대담함에 들어가는 것이 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누가 그분의 무한한 높으심을 깨닫겠습니까? 눈을 뜹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땅을 보면 그것은 우리를 먹이고 기르는 유모 같은데,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런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이 어떻게 갈리는지 잘 보고 그것에 대해 잘 말할 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점에서 놀라움으로 넋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로 밟는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의 거울을 가진다면, 우리를 훨씬 넘어서고 우리가 이를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거슬러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고 말대꾸하러 와야 하겠습니까? 아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땅을 잘 바라볼 때 그것이 우리 정신을 고삐에 매인 것처럼 붙드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가 하늘 위로 우리를 높이려고 손을 뻗지 않고, 그분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고 온전한 영광을 가지시며, 그분의 능력과 놀라운 권능이 그분의 의와 무한한 지혜에 이어져 있어서 그분 안에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루치로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별들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승리 가운데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옵시다. 이 말로 하나님께서는 별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는 질서 있는 노래와 가락 같았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별들이 노래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감각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의 크심과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셨으므로, 그것은 그분이 크고 맑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로 눈을 듭니까? 우리는 별들이 창조될 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한 대로 그 가락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락이 주님의 찬송을 부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려고 우리를 잘 깨워야 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머거리보다 더하지 않다면 그런 노래, 그토록 아름다운 가락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의 귀를 거기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낙원의 천사들조차 CO 370 그렇게 하도록 부추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점에서 너무 멍청해서, 별들을 바라보려고 하늘로 눈을 들면서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에 쓰여야 하는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유익을 얻도록 그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별들이 창조될 때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우리가 이미 다루었듯이 혀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감각 없고 말 못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별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의 찬가가 되어야 합니다. 공중이 크고 맑은 목소리로 울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내놓으신 이 놀라운 질서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더 부추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더 잘 이끄시려고, 천사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말 못 하는 피조물의 이 가락을 들었을 때 기뻐했고, 그것이 그들을 승리 가운데 즐거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르고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는 즐길 줄 모르는 저 미친 세상 사람들과 방탕한 자들의 기쁨과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내놓이는 아주 다른 기쁨을 봅니다. 곧 낙원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그토록 뛰어나고 놀라운 이 운행과 질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것을 바라

보았을 때 기뻐하며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기쁨으로 부추김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하니,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아름다운 질서를 바라볼 때 그 점에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으로 눈을 들 때마다 우리가 와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권면받는 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우리는 아주 멉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의 어떤 구절을 들을 때조차 그것이 우리를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해의 밝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거듭거듭 권고받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넉넉히 경고받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셈을 치르러 갈 때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주 비싸게 팔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된 섬김은 그들에게서 찬송받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도 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분이 받으실 만한 대로 우리에게서 영화롭게 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영예를 빼앗고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서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받으실 만한 대로 높임받으실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CO 371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서 당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송하도록 움직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성모독자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기를 배웁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에 달려가도록 그만큼 더 이끌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당신의 영광을 퍼뜨리셨으니 위로나 아래로나 이 가락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승리하고 한마음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들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칭호는 특별한 특권으로 천사들에게

돌려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있을 만한 그런 고귀함을 그들 안에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일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들과 권세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분이 당신 손으로 하시듯 그들을 통해 당신께 좋게 보이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천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그들과 이 칭호를 함께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상이 아담의 죄로 지워졌다 해도,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내지셨을 때 그것이 택함받은 자들 안에서 회복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 높아져서 보십시오, 우리의 처음 지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내려오시는, 곧 우리 본성을 입으시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따라서 우리가 낙원의 천사들과 함께 가지는 하늘 유업을 소유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보여 주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여기 땅에서 기어 다니고, 우리가 그토록 비참한 피조물이고 그토록 많은 연약함으로 가득해서 우리 가난과 비참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낙원의 천사들과 짝지어 주실 방법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 떤다는 것을 압시다. 그들이 뛰어난 피조물이라 해도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보다 뛰어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런 크심 아래 눈이 부신 채로 머문다면,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토록 CO 372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일에 있는 이 아름다운 가락을 들을 때, 우리는 경탄에 넋을 잃는 것 이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아,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을 만큼 그토록 배은망덕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귀머거리 노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여기서 우리에게 인도자로 내놓인 천사들을 따릅시다. 우리가 그분의 일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인정하실 것이며 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당신을 보이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새벽 별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승리 가운데 기뻐했다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서 펼치신 능력으로 그분을 높이는 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집에서 잘려 나갈 것이고 그분의 자녀 반열에 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다로 오십니다. "누가 바다에 빗장을 질렀느냐?"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것을 빗장과 문 사이에 가두었느냐? '너는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여기까지만 오리라. '" 바다가 일어날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삼키고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감옥에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유모가 어린아이를 붙들 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드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바다 둘레에 구름과 안개를 작은 강보처럼, 그리고 그것을 덮는 옷처럼 두셨습니다. 그러니 바다는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대로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분은 또 당신의 일을 높이기를 계속하셔서, 우리가 그런 뛰어남으로 넉넉히 만족하여 온갖 겸손 속에 걷고 그분을 거슬러 감히 부리를 쳐들려고 더는 손을 뻗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듯 말입니다(렘 5:22). "바다에 경계를 둔 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다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하고 무식한 자들은 바다가 우리를 넘어서고 땅보다 높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물이 땅 아래 있고 훨씬 더 낮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반대이고, 우리가 바닷가에 있을 때 그것이 땅보다 높다는 것을 눈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물이 그렇게 우리 위에 있다면, 물이 우리 머리 위로 훨씬 높이 솟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순간마다 삼켜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한때 온 땅을 덮은 홍수에 대해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깊음과 하늘의 모든 창을 여셨고 또 심연을 여셨으며, 물이 더는 붙들리지 않고 그분이 그것을 CO 373 풀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홍수의 이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기적으로 물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온 땅 위에 늘 있을 일을 거울에서처럼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다가 모든 것을 삼켜야 할 것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막습니까? 그것은 아주 뚜렷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배받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에 따라 두려움을 받지 않으셔서 우리 위에 온전한 다스림을 가지시고 우리가 완전히 엎드리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부리를 쳐들겠다고 주제넘게 군다면, 바다를 상대로만 변론해서 바다 위에서 귀 기울임을 받을지 보라고 하십시오. 그 모든 큰 파도와 사나운 물결을 가진 바다는 그 창조주의 능력의 표지 말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아아, 우리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두려워야 하겠습니까? 바다가 보이는 그런 사나움으로 물보라를 던질 때 우리는 떱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께 혀를 내밀겠습니까?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가 이미 이 구절을 인용했듯이)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둔 나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 적힌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경계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그분이 땅의

줄자를 언급하셨듯이 이제 바다의 경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더 잘 나타내시려고 그분은 바다가 당신 손안에서 어머니 배 속의 어린아이 같다고 덧붙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태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바다가 자기 경계 사이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다는 큰 소리를 낼 것이고, 특히 바람과 폭풍에 흔들리고 솟아오를 때 온 세상이 그것에 구렁에 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붙듭니까? 아이가 무덤 속에서처럼 어머니 태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연의 보통 질서에 따라 날과 기한이 찰 때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적을 보듯이, 바다도 그러합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곧 강보가 어린아이를 붙들듯이 안개가 바다를 붙들어서 그것이 자기 경계와 한계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는 즐겁게 놀려고 팔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싶어 하겠지만, CO 374 강보 안에 그렇게 싸여 있어서 거기 갇힌 자처럼 머물러야 합니다. 바다도 그러합니다. 바다는 그렇게 솟아올라서, 이곳저곳으로 껑충껑충 뛰어야 할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했듯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온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다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보는 그런 사나움을 막을 어떤 사슬이 있습니까? 그토록 사나운 그런 피조물을 붙들려면 큰 장애물이 필요할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시려고 격렬한 처방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붙들도록 안개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다루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공중의 수증기에서 생겨나는 아무것도 아닌 안개가 보일 텐데, 그것이 바다를 이긴다는 것이 아주 놀랍습니다. 안개가 일어나자마자 바다가

잠잠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바다가 강보에 꼭 싸인 어린아이 같다는 것 말고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들이 처음 보기에는 아주 이상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데 더 알맞은 말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알려고 그분의 위엄으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날마다 우리 눈앞에 두시는 놀라운 것 이상의 그분의 일로 우리가 그분의 크심과 높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아이가 강보에 붙들리듯 안개에 붙들린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부끄러움입니다. 보이는 대로 그토록 사나운 바다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자기 경계 사이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뛰고 솟아올라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분의 기이한 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분께 속한 찬송을 그분께 드리려고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를 알아보지 않을 만큼 그분께 그토록 천하고 배은망덕했던 것을 부끄러워합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주된 의도로 돌아갑시다. 곧 우리가 그 일을 단순히 생각하려고 바다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107] 물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다를 붙드셔서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않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이미 어떤 좋은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대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고 이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CO 375 그런

107. 원문은 “nous-nous a restions“입니다. “arrestions“(멈추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데도 그것들은 그토록 높아서 우리는 거기서 눈이 부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에서조차 우리 감각이 그분의 높으심을 깨닫기에 너무 약하다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면, 그분이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나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비밀들과 그분의 좁고 숨겨진 뜻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우리 감각과 이해를 넘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서 되는대로 판단하고 우리 판결을 내리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많은 악을 보내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잃고, 어떤 이는 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며, 어떤 이는 치욕과 모욕 속에 있고, 어떤 이는 능욕당하고 맞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거칠게 다루시며 지나치시다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늘 의로우시고, 그분이 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지 이유를 아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어도 좋고 의롭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그분 손안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원망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편안한 것을 봅니까? 그들이 신용과 권위를 누리고 세상의 주인이자 영주인 것을 봅니까?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대드는데도 첫 매에 벌받지 않는 것을 봅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때는 모욕을, 어떤 때는 괴로움을 견뎌야 하고, 어떤 때는 배신으로 붙잡히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 것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리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여기 아래에서, 우리 자신에게까지, 우리가 발밑을 보듯 바라볼 수 있는 것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탄한다면, 더 강한 이유로 우리는 천사들의 능력조차 넘어서는 그 뜻을 경탄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이 낮은 것들로 인도받아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분의 성령으로 인도받고 다스림받는 것을 견뎌서, 그분이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처리하시게 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49편

욥기 38장 설교 3

CO 35:376–388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가 사는 날 동안 새벽에 명령하였느냐? 빛에게 그 자리를 정해 주어, 땅 끝을 차지하고 악인들이 거기서 털려 나가게 하였느냐? 땅은 도장이 찍힌 진흙처럼 모양이 바뀌고, 옷처럼 서 있다. 악인들에게서는 빛이 가려지고 높이 든 팔이 꺾일 것이다. 네가 바다의 깊은 물에까지 이르렀느냐? 심연의 밑바닥을 살펴보았느냐? 죽음의 문이 네게 알려졌느냐? 죽음의 그늘의 문을 보았느냐? (욥 38:12–17)

이 설교는 8–11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376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너무 서두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알려고 결말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재판관은 판결이 짧다"는 속담을 실천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서둘러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 한마디로 말한 것이 우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솟아오르는 파도를 바라보면, 그것이 모든 것을 구렁에 빠뜨리고 세상이 삼켜져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셨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파도가 멈추고 저절로 부서지며 자기 경계를 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아울러 그분의 능력을 더 잘 압니다. 바다가 그런 사나움으로 흔들려도, 어제 다룬 대로 그분이 그것을 어린아이 다루듯 붙드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 완전함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을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CO 377 우리가 우리 버릇대로 서둘러 판단한다면, 우리의 무모함이 드러나고 우리는 우리 대담함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규례를 두셔서 "너는 거기까지 가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간직합시다. 바다가 (사람들 말대로) 늘 잔잔하고 회오리도 폭풍도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이 사람들을 당신이 두신 곳에 지키시려고 가지시는 아버지다운 돌보심이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 그토록 높고 그토록 힘차게 솟아오를 허락이 주어지고, 그런데도 그것이 넘쳐 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규례에 막힐 때,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치수와 이치로 배치하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멀리까지 넓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위아래로 뒤섞여야 할 것처럼 보이고, 우리 손에 달렸다면 우리는 곧장 와서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고 그분을 거슬러 투덜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결말을 기다린다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실 때 그들을 정당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이 그것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이려 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불이 그렇게 붙었다가 그 뒤에 한순간에 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을 꺾고 칼을 부수며 병거를 뒤엎고 전에 그렇게 들끓던 것을 가라앉히는 것이 당신의 일이라고 시편 46편에서 다루는 당신의 직무를 행하십니다.[108]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늘 눈앞에 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것에 따라 나쁜 끝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는 소란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치료를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은

108. 원문은 시편 46편 10절로 적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46편 9절입니다.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쓰셔서, 우리가 늘 평화와 안식 속에 있는 것보다 이 소란들이 일어나는 것이 훨씬 낫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런 소란을 보내시게 하는 까닭을 잘 생각할 때 우리는 더는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해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간직하시는 그 뜻을 온갖 공경으로 경배하기를 그치지 말고, 우리의 작은 분량과 거칢을 알면서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대로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새벽빛에 명령하였느냐?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할지 그 자리를 알게 하였느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주제넘게 굴 때 그들의 대담함을 계속 조롱하십니다. "너희가 언제부터 태어났느냐? 너희 앞에는 낮도 빛도 없었느냐? CO 378 너희가 나를 꾸짖을 만큼 그토록 지혜롭다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세상에 질서가 없었고, 새벽빛은 어디로 나와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으며, 너희 없이는 아무 배치도 없었고, 너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지혜롭다고 여기고 내 감독관이 되려 하니, 나는 너희에게 이것만 묻는다. 너희가 빛에게 어디로 나와야 할지 명령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하는 일에서 늘 흠을 잡는다. 나는 세상 처음부터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밤의 때를 어둠에게 정해 주었으며, 그다음에 내가 좋게 여길 때 새벽을 나오게 하였다. 나는 놀라워야 할 영원한 질서를 세웠다. 너희가 너무 천하지 않다면 너희는 이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나 너희 온 족속이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와서 나를 꾸짖고 나를 거슬러 부리를 쳐들다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이 지속된 해를 조금 세어 보라. 나는 지금까지 다스렸고, 그렇다,

지금도 다스리되, 모든 피조물이 내가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을 바라보며 놀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다스린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너희에게는 내가 너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너희가 그토록 지혜롭다고 여기니, 빛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것을 어둠에서 끌어내야 했는지 아느냐?"

그러니 여기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출생으로 데려가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해를 세어 보라. 너희가 언제부터 세상에 있느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달팽이 같아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그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 동안 살게 하시면, 그들은 시편 90편에서 말하듯 여기서 거닙니다(시 90:3). 그러나 곧 그분은 그들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세 바퀴를 돌고 개구리처럼 조금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거두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람처럼 지나가고 곧 흘러가 버리는 그토록 짧은 생명 속에서, 썩음일 뿐인 사람들이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다투고 변론하려 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분의 영원하심을 조금 바라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그토록 깊이 끼어들려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산 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하심이 무엇이고 반대로 우리 생명의 짧음이 무엇인지 단단히 생각하려고 하늘로 눈을 들기에도 겨우 될까 말까 했다는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한 번 그것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감각이 갇혀서, 우리가 CO 379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려고 더는 손을 뻗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명을 세상에 있었던 긴 지속과 견주어 봅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곧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위엄으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한계를 넘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판단하려고 헤매려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

온전히 그분께 맡기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네가 사는 날 동안 새벽에 명령하였느냐?"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세우셨고, 그렇습니다,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기 전에 우리에게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낮춥시다. 그리고 그 밖에 여기서 새벽빛을 언급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아울러 그분의 능력을 압시다. 우리가 새벽을 보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짓누르고 멍하게 했던 어둠을 보았는데, 그다음에 손을 뒤집듯 순식간에 보십시오, 온 세상이 지금처럼 그렇게 밝아졌을 때, 우리는 겁에 질리는 것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익숙함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익숙함이 우리를 그런 배은망덕으로 이끕니다. 그것 자체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이 새벽빛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라보면 놀랄 수밖에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동쪽이 늘 어떤 정해진 지역에 있다 해도, 해가 계절에 따라 어떤 때는 더 낮게, 어떤 때는 더 높게 떠오르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해가 우리에게서 더 멀리 있으므로 더 먼 지역에서 떠오르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높이 솟는 만큼 거기 우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컨대 동쪽이 어떠하냐에 따라 새벽빛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서가 있고 거기 줄자가 대어져서, 하나님께서 해가 늘 제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그 궤도를 정해 주신 만큼 말고는 해가 일 분도 벗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가 결코 제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표시하면

한 해의 모든 날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루와 다른 날을 견주면, 그렇습니다, 한 해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끊임없는 걸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는 오늘은 한 지점에서, 내일은 다른 지점에서 나오고, 질 때도 CO 380 마찬가지이며, 한 해 끝에 이르면 세상 창조 때부터 이어 온 걸음을 계속하려고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는 자기 질서를 그렇게 지켜서, 해의 궤도만큼 정확하게 시계를 맞추는 것은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덩어리입니까? 온 땅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해 내내 하루에 하는 것 같은 그런 궤도를 해야 한다 해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질서가 그렇게 지켜질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경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눈이 있으면서도 조금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못 하는 피조물들을 울리게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거기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락을 조금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보이고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그분이 세상에 세우셨고 더할 나위 없이 굳게 지키시는 질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 그것은 오직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이어서 새벽이 퍼져서 땅의 모든 날개(곧 끝)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날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빛이 나타나자마자 온 세상에 퍼지고 뻗어 나갑니다. 우리가 밤의 어둠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려면 큰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누가 땅에서 어둠을 씻어 내어, 전에는 굴속에 갇힌 것 같던 곳에서 어디서나 보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빛이 놀랍고 무서운 싸움 없이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새벽은 떠오르자마자 곧 땅의 모든 끝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가 와서 자기 영토를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에게 낮을 다스리는 주권을

주셔서 당신이 맡기신 직무를 행하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가 그토록 빨리 차지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거의 생각하기도 전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해가 빛살을 던지고, 보십시오, 어둠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죽은 피조물인 해에게 돌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꾼에게로 와서, 모든 사람이 낮아지고 엎드려야 할 만큼 그토록 뛰어난 이 위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드러나는 이 크심과 뛰어남을 경배하려고 멍에를 메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더는 그분을 거슬러 투덜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드러나는 것에서 우리가 어리둥절하고 우리 정신이 모자란다면,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뜻이 문제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겸손해야 하고 CO 381 마지막 날에 있을 온전한 계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더 배울 때까지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게 합시다. 그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죽을 육신을 벗기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며, 우리가 당신의 영광에 같은 모양이 될 때일 것입니다.

이어서 악인들이 땅에서 털려 나가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해가 많은 병을 낳고, 그래서 새벽이 떠오를 때 어떤 병이 악인들을 데려가는 한 그것은 세상에서 악인들을 씻어 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먼저 새벽은 오히려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 몸이 더 날래고 더 좋은 상태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병자들도 밤새 시달렸을 때 아침이 오면 기운을 얻어서, 보십시오,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며 그분을 의의 해라고 부를 때, 물질적인 해와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비유를 가져옵니다. 곧 해가 그 날개, 곧 그 빛살에 건강을 가져온다는 것, 그것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밤이 가져온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습한 기운에 짓눌렸던 우리 몸을 가볍

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109] 그리고 새벽이 병을 낳는다 해도, 선한 자들도 악인들 못지않게 거기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알맞은 뜻은, 악인들이 땅에서 털려 나가리라는 것, 곧 그들이 구별되리라는 것입니다. 늘 어둠이 있다면 검은 것과 흰 것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그렇게 퍼뜨리셨을 때, 그때 저마다 어떻게 처신하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악인들은 낮 내내 방탕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부끄러워한다 해도 온갖 방종을 부려서, 한낮에도 방탕을 저지르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의 어떤 흔적을 여전히 알아봅니다. 세상에서 일은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거기 나타나고 그 가운데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고삐를 늦추시고, 하실 수 있는 만큼 악인들을 붙들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악 속에서 즐길 자유를 주신다. 좋다, 보라, 한쪽에는 뒤죽박죽인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보존하시려고 빛을 보내셔서 악인들을 누르려 하신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로 붙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CO 382 첫 매에 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미는 사탄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어떤 광기로 내던지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이 모두의 죽을 원수이고 모든 피조물을 없애고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 말고는 바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란과 혼란은 사람들 쪽에서 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한낮에도 땅에 살며 거기서 혼란을 저지르기를 그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땅은 씻긴 것 같습니다. 밤에 지배했던 수증기와 공기가 그렇게 짙어질 때 고이는 다른 더러움에서

109. 원문은 말라기 3장 20절로 적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4장 2절입니다.

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악인들도 씻어 내십니다. 그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방탕한 자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들에게도 여전히 어떤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뻔뻔한 자들, 거의 눈이 가려진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 안에도 여전히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들은 자기 죄악의 끝까지 가도록 자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새벽이 땅을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게 씻어 내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씻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해의 밝음의 다른 효과를 덧붙이십니다. 곧 해가 그렇게 비출 때 땅이 새 모양을 얻고, 그것이 담은 것들이 땅에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땅에 아무 모양도 없고 거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큰 진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해가 빛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흙덩이로 그릇들을 빚어서 잘 다듬은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아무 모양도 없던 흙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낮의 밝음을 보내실 때, 그것은 그분이 온 땅을 빚으셔서 그것에 아름다움을 주시고 우리가 경탄하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땅에 옷을 입히십니다. 전에는 땅이 벌거벗었고 메마르고 불모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의 눈길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땅이 버려진 것 같고 비어 있으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보십시오, 땅이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든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아름다운 장식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복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신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시 65:11).[110] 그분이 땅을 당신의 열매로 채우실 때, 그것은 그분이 땅에 아름다운 옷과 관과 화관과 다른 장식들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일의 크심이 우리의 모든 감각

110. 원문은 시편 65편 12절로 적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65편 11절입니다.

을 넘어서고 우리가 거기 CO 383 모자란다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의를 일부 맛볼 수 있다 해도, 그래도 결국 결론으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의 일이 얼마나 놀랍고 깊은지요! 그것은 심연이니 누가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지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말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온 창조와 당신이 거기 세우신 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일부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이미 다루었듯이)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의 어떤 흔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보는 모든 것을 맨 끝까지 깨닫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놀라서 "주님, 주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이 새 모양을 얻고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것들이 땅을 꾸미는 옷과 같다고 말하는 이 구절에서 요컨대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익숙함이 그토록 흔하지 않다면 우리는 "보라, 놀라운 일들이다" 하고 말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일의 존귀함을 재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아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무엇을 깎아낼 수 있다고 여기며 손댈 수 없는 일꾼이고, 오히려 우리가 온갖 겸손으로 그분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악인들이 빛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높이 든 팔이 꺾이리라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을 앞질러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도록 해를 정하시고 그토록 아름다운 질서를 세우셨는데, 왜 그분은 악인들이 그 좋은 것을 누리도록 두시는가? 당신을 섬기고 영예롭게 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그것을 따로 두셨어야 했다." 그러니 해의 밝음이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함께 주어진다는 것에서 흠잡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만큼 더 잘 느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여 주시듯 말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해를 비추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를 본받으라. 그러니 너희 원수와 너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대부분이 아무 쓸모도 없고 악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그분을 영화롭게 할 정당한 계기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또 다른 권고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심판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 해가 CO 384 선한 자들처럼 악인들도 비추고, 모두에게 공통된 삶이 있다. 그러나 기다리라. 악인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받고 해의 밝음을 얻으려고 눈을 뜨고 있다 해도, 그래도 결국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 그분은 "그들의 빛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지금 이때에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속된 사람들보다 (보기에) 나은 것을 더 가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공기를 들이마시고, 우리처럼 빛을 받으며,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런 뒤섞임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들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하지 않을 빛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우리 생명과 그 모든 딸린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13절)에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모든 신자

에게 돌리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해가 빛날 때 그것이 우리 유업의 일부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으니 해는 우리에게 빚진 자이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땅이 내는 모든 것을 누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지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순전한 너그러우심에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된 뒤로, 땅은 우리에게 양식을 빚지고, 모든 피조물이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그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씀은 우리에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먹고 마실 필요가 있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씀이 우리에게 영원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을 쓰는 것은 우리 구원을 앞당기는 그만큼의 도움입니다(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하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우리 것일 것입니다.[111] 먹거나 마시거나 입을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 해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가진 것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한 소유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악인들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빛이 그들에게서 빼앗기리라고 덧붙이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것이 앞에서 다룬 것, 곧 악인들이 새벽에 털려 나가리라는 것, 그들이 숨으리라는 것, 그때 우리 주님께서 CO 385 그들을 억누르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혼란이 있다 해도 그것이 없다면 세상을 구렁에 빠뜨릴 큰 소란들을 누그러뜨리려고 섞여 있는 질서가 보인다는 것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악인들이 우리와 함께 빛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111. 원문은 “que in Mais“로 깨져 있습니다. 문맥상 “que maintenant“(지금보다)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있는 것이 보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잘나가며 하나님의 불쌍한 자녀들이 발에 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모욕에 내맡겨지며, 아주 빈약하게나마 먹을 것도 겨우 가지는 것이 보인다면, 말하건대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빛이 악인들에게서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높이 든 팔이 꺾이리라고 말합니다. 높이 든 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권세와 신용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그들에게 잘나가도록 허락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단련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꺾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을 우리 입맛대로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무엇인지 더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이는 이 소란과 혼란 가운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낙원을 가진다면 우리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찾도록 부추김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비참한데도 우리는 바랄 더 좋은 처지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진다면 그에 비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찾도록 우리를 재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악인들에게 그렇게 잘나가고 팔을 높이 들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악인들이 그렇게 세상의 영주와 주인 같은 것을 볼 때 이 시험은 아주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그렇게 높이려 하셨다는 것 말고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불쌍한 약한 자들이 어떻게 흔들릴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억센 팔들이 깨지고 꺾이리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니 악인들이 교만과 잔인함으로 다스리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자기 신용으로 높아지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려는 이 가르침에 달려갑시다. 곧 오늘 그들이 우리 위에 팔을 들고 우리 머리를 부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부수고

꺾으실 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섭리에 자리를 내어 드리도록 평온한 정신을 가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분은 일하실 알맞은 때를 아시고, 그분께 무엇을 정해 드리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악인들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주로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괴롭힘과 능욕을 당할 때 그들의 역경과 CO 386 억눌림 가운데 붙들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실 때까지 그 팔이 한동안 높이 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래도 성령께서는 악인들도 위협하려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미쳐서 자기가 산과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높이 든 팔들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원수와 상대편으로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팔을 높이 들지 맙시다. 곧 (성경이 말하듯) 능욕을 행하려고 그것을 뻗지 맙시다. 악을 행하거나 우리 이웃을 해치려고 애쓰지 말고, 저마다 온갖 삼감으로 자기에게 허락된 것을 바라봅시다. 우리 팔을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게 하고, 아무도 자기 소명 밖으로 손을 뻗지 않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팔이 늘어져 있어도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에, 곧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팔을 높이 드는 자, 곧 자기 분량을 넘어 일을 벌이려는 자는 누구든 결국 하나님께서 꺾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만하게 높아지고 자기 안에 아무 삼감도 없는, 일을 크게 벌이는 이 모든 자들의 원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네가 바다의 방울에까지 이르렀느냐?”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쓰시는 말은 눈물을 담고 있습니다. “울다“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큰 깊음에까지“라고 옮겨도 그 말이 그만큼 잘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비유를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심연에 있는 샘들이 눈물 같다고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이 끝없는 물의 넘침이 거기 방울들이 있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 말고 어디서 옵니까? 그런데 그 넘침이 눈물 같습니다. 실제로 샘들은 땅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에게서 눈이 울듯이 땅도 습기를 방울방울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이 비유를 쓰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네가 바다가 던지는 방울들을 낱낱이 살피려고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갔느냐?” 곧 “네가 바다가 방울져 떨어뜨리는 물을 보고, 보이고 네가 어리둥절해하는 이 넘침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고 심연에까지 이르렀느냐?”

그런데 그것을 더 잘 확인하시려고 그분은 덧붙이십니다. “네가 죽음의 문을 보았느냐? 죽음의 그늘의 문을 바라보았느냐?” 여기서, 그리고 그분이 이 뒤에 땅의 이 큰 넓이에 대해 덧붙이실 것에서, 요컨대 그분은 CO 387 우리에게 가장 드러나 있고 가까운 것들에서도 우리 감각이 거기 있는 것을 깨닫기에 너무 작고 약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넘어 우리를 넋 나가게 하는 기적들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를 갈면서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드러나 있고 그분이 거의 손가락으로 보여 주시는 그분의 일에서조차 그런 지혜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그분이 마지막 날까지 간직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상하고 감추어져 보이며 우리가 아무 이유도 보지 못하는 많은 일을 허락하시거나 정하실 때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적인 뜻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 우리 발밑에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들을 깨달을 수 없다면, 말하건대 우리가 거기 손댈 수 없다면, 하늘 위에 있고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의 보통 질서를 넘어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신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 위에서 판단하려고 너무 들썩일 때, 말하건대 바다와 물의 깊은 곳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기를 배웁시다. "자, 불쌍한 피조물아,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그토록 깊은 심연이라고 말하는데(시 36:6), 그 심연들은 바다의 심연을 훨씬 넘어선다."[112] 네가 물이 어디서 솟는지 보려고 강 하나라도 퍼낼 수 있겠느냐? 너는 큰 강이 흘러나올 작은 샘 하나의 근원이 무엇인지조차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잘 생각해 보아도 강이나 샘 하나를 퍼낼 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바다의 구렁에까지 들어가서 거기 모인 이 물의 넘침이 어디서 나오는지 낱낱이 풀어낼 줄 알겠느냐? 그런데 이제 네가 물질적인 것 하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와서 네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고, 네 재판관을 거슬러 말대꾸하며 그분을 너에게 복종시키려는 그토록 큰 무모함과 주제넘음을 가지느냐?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흔해 보입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판단할 허락과 방종을 자기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작음을 알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아래에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주제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 속에 붙들려 하신다는 것을 결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엄을 알려고 CO 388 구름 위로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눈만 내리깝시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

112. 원문은 시편 36편 7절로 적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36편 6절입니다.

발밑을 봅시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성은 오르기보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에게 그토록 높이 날 날개를 주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거워서 늘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아래만 보아도, 보십시오, 우리를 삼키는 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 감추어 두신 것을 캐물으려고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오만이, 그렇습니다, 망각에서 오는 오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차분한 분별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삼가기를 배울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가르침은 쓸데없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잘 실천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깨달음의 연약함과 우리 거칢 속에서 심연을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 복음의 거울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하늘의 비밀들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방탕한 욕심을 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만족하고(그분의 말씀 너머로 캐묻는 호기심을 부리지 맙시다),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마땅한 대로 판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모세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가 심연까지 내려가겠느냐? 누가 구름 위로 오르겠느냐? 누가 바다를 건너겠느냐? 하고 더는 말하지 말라. 보라, 말씀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만족하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모든 것을 당신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바다 건너로 지나가게 하시고, 심연에 들어가게 하시며, 구름 위로 높이시는 것과 같고, 요컨대 우리를 당신 품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지금 당신의 말씀과 당신 복음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앎으로 만족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더 넓은 계시를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보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하실 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0편

욥기 38장 설교 4

CO 35:389–401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가 땅의 넓은 곳을 살펴보았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말해 보라. 빛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이며, 어둠이 있는 곳은 어디냐? 네가 빛을 그 경계에서 맞아들이고 그 거처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날의 수가 얼마나 많을지 알았느냐?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곳간도 보았느냐? 그것은 내가 환난 때와 충돌과 싸움의 날을 위하여 남겨 둔 것이다. 빛은 어떤 길로 나뉘며, 동풍은 어떻게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비의 물길을 나누고 천둥 번개의 길을 내어, 아무도 없는 땅에, 사람 하나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거칠고 황량한 곳을 채우고 풀의 싹을 돋게 하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처럼 숨고 깊음의 수면은 붙들린다. 네가 묘성의 즐거움을 묶을 수 있겠느냐? 오리온의 매임을 풀 수 있겠느냐? 네가 마자롯을 제때에 나오게 할 수 있겠느냐? 북두성과 그 아들들을 이끌 수 있겠느냐? (욥 38:18–32)

CO 389 여기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너무 잘 알려진 것일 뿐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 저마다 우리의 오만이 한마디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 같은 긴 권고로 눌러져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기에 너무 약하다고 우리가 고백했다 해도, 어쨌든 우리를 어떤 어리석은 호기심과 주제넘음으로 이끄는 데는 손바닥 하나 뒤집는 것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그 대담함은 우리를 내던지는 미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그토록

긴 말씀을 쓰셔서, 그분의 일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거칢에 따라 그것을 일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것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신다고 새삼스럽게 여기지 맙시다.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다룰 것을 우리 유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는 말씀을 봅시다. 땅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것을 잴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땅을 재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O 390 사람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아는 것이고, 그것은 짐작으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바다에 덮여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 그 자체로서 온 땅이 있는데, 그 크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안 뒤에 놀라서 그 일꾼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재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길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인지 알 어떤 근거가 여전히 있지만, 이 온 덩어리와 온 몸체를 말한다면 그 넓이를 안다고 말할 만큼 끝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의 정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뜻을 우리 정신 안에 가두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붙드시는 것은 내가 손에 먼지 서너 알을 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손을 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먹을 쥐고 그 먼지를 그 안에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 비유를 쓰셔서(사 40:12), 우리가 그분에 대해 말하거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따라 그분을 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땅이 우리에게는 끝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을 당신 주먹 안에 쥐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본질,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영광과 땅의 이 온 큰 덩어리 사이에는 아무 비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볼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땅이 우리 정신이 모자랄 만큼 넓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쥐고 계시거나 당신 주먹에 쥐실 수 있는 분은 당신 안에 다른 크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에게는 우리 약함과 우리가 너무 거칠고 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전하며, 우리가 너무 무지하니 그것을 거슬러 말대꾸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고백합시다. 보십시오, 여기서 하는 말씀에서 요컨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CO 391 이어서 빛의 길, 그리고 이미 언급했던 대로 천둥과 번개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되풀이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듯이) 새벽이 나오자마자, 보십시오, 온 세상이 어디서나 밝아지고, 땅의 날개, 곧 끝이 드러나서 땅이 새 모양을 얻으며,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기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재주꾼 노릇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오만이 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는 것을 깨달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을 조롱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빛이 어떤 길로 걸어야 합니까?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이 우리 몫입니까? 우리가 빛에게 길이로나 너비로나 길을 내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온 땅덩이를 넘어 세상 끝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빛이 낮을 다스리려고 해의 이름으로 차지했을 때 그토록 빨리 퍼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에서 판단하겠다고 주제넘게 군다면 그것은 얼마나 사나운 대담함이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을 그분의 크심과 그분 일의 높으심 가운데

높이되, 우리 쪽에서는 우리 작음을 알고 고삐에 매인 것처럼 되어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영예를 돌리는 방식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자기를 전혀 자랑하려 하지 않고 그분 위에서 아무것도 꾀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도, 그 사이에 내가 그분의 동료처럼 되려 한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분과 견주거나, 그분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려 그분이 우리와 같고 동등하다고 말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되고 우리 안에는 온갖 가난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서 마땅한 영예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빛을 붙드는 길, 또는 빛이 질 때나 세상에 드러날 때를 언급할 때 우리가 더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무도 눈과 우박의 곳간을 알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간의 비유를 쓰시는 것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모든 징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곳간에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서운 종류의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큰 쌓임을 담고 있고(금화 CO 392 열두 닢을 곳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곳간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의 곳간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사람의 정신을 넘어서는 쌓임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놀라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또 그 원인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눈과 우박을 잘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눈과 우박을 만드실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봅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물론 철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논쟁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어떤 원인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두신 놀라운 질서에

대한 어떤 작은 이해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그분은 더 물러나 있고 더 멀리 떨어진 당신의 뜻을 가지셔서 우리는 거기서 모자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눈과 우박의 곳간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기술로 눈 한 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물이나 수증기를 우박이나 얼음으로 바꾸겠습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해 보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끝까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눈으로 덮으실 때 우리는 그분의 값을 매길 수 없는 권능을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양의 물을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것이 차가운 공기의 이 중간 지역에서 생겨나고, 수증기가 많을 때 결국 그것이 얼고 모여서 눈이 생기며, 그 양이 더 빽빽하면 더 단단해지므로 우박이 생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고 그것은 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토록 짧은 시간에, 보십시오, 감추어져 있던 그런 곳간이 드러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겨울에 때로 날씨가 좋고 맑다가, 사흘 뒤에는, 보십시오, 땅에 한두 자 높이로 쌓이도록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묻건대, 그런 변화는 (우리가 멍청하지 않다면) 우리 머리털을 곤두서게 해서 우리를 어떤 하나님 두려움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우리에게 바른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능력이 이 보이는 땅의 것들에서조차 우리 위에 그토록 높아서, 우리 무지를 고백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할 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 우리 하나님께 그런 공경을 드리도록 부추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곳간"이라는 이 말에서 그것을 우리 쓰임에 잘 적용하도록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징계를 당신의 곳간에 감추어 두셨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시다(신 32:34). 우리가 CO 393 헤매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

은 자기가 그분 손에서 벗어났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자주 대듭니다. 그분이 그들을 어떤 악에서 건지셨을 때 그들에게는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흔히 말하듯 귀만 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권고를 기억합시다. "너희가 내 곳간에 감추어진 매를 아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가지로 치고 그 뒤에 너희를 불쌍히 여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셈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게는 너희가 헤아릴 수 없는 다른 수단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징계를 받았을 때에도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재앙이 열두 가지나 있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고 내 진노를 앞질러 막으며, 이제부터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내가 너희 위에 내 매를 더 펼치지 않도록 말이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곳간들을 환난 때, 충돌과 싸움의 날을 위해 남겨 두신다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그분이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려 하실 때 그분의 대포와 창과 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돌과 싸움이라는 이 비유를 쓰실 때, 우리가 그분과 전쟁을 할 때 그분이 그렇게 무장하고 계셔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 손에 맞설 힘도 덕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들고 세상의 모든 도움을 모아도, 그분이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싸움에 내세우시고 그것들에게 우리를 치러 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려 하실 때 도움을 빌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분이 당신의 계획만으로 그것을 정하시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이시면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그분께 끝없는 군대를 가져다드릴 것입니다. 그분이 땅을 한두 자 높이까지 눈으로 덮으시듯이, 그분이 좋게 여기실 때 우리를 그것으로 짓누르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권능이 줄어들어서 그분이 우리 머리 위에 서른 길 높이로 눈을 보내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는 때로 땅이 얼어붙은

것을 볼 것입니다. 바람이 땅을 그렇게 조여서 그것이 쇠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늘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쳐부수시려고 큰 채비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을 구렁에 빠뜨리지 않을 피조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를 두기를 배웁시다. 그토록 강한 주인과 전쟁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 그분께 순종하기를 배웁시다. 우리는 그분 손에 붙들리든지, 아니면 그 손이 우리를 거스르든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CO 394 중간은 없습니다. 물론 얼마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거의 숨어 계신 것처럼 사람들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듯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든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 원수이시고 그것이 결국 드러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 아래 있도록 그분께 우리를 두려고 힘씁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구원의 지킴이가 되실 때, 우리는 우박에 대해서도 폭풍에 대해서도 안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박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눈은 명령받지 않고는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사람이 원할 때 자기가 넣어 둔 것을 펼치듯이, 모든 피조물도 그러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것들을 내놓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킴 속에 두셨을 때 우리는 우박도 폭풍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신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이 그것을 싸움의 날, 환난의 날을 위해 남겨 두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새깁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으실 때 그들이 버릇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번영이 우리를 그렇게 잠들게 해서 우리는 우리 허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려고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휴전이 있는 동안 우리는 나쁜 채무자,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소환받지 않고 그의 날이 오지 않았다면 금화 백 닢을 빚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갑에 한 닢이라도 있는 동안은 잔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유예를 주시면 우리는 즐기는 것만 생각하고 더는 그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박과 천둥을 보내지 않으시고 이런 저런 식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치지 않으실 때 그 위에서 헤매서는 안 되고 거기서 잠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실 알맞은 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질러 막읍시다. 이 싸움의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나팔이 전투 준비를 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화해합시다. 방법이 있을지 봅시다" 하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더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틈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심판에 들어가도록 휴전 같은 것을 가지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엄격함을 앞질러야 합니다. 그분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됩시다. 그분의 은혜와 무한한 선하심으로 사함받도록 우리 자신을 정죄합시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움의 날을 위해 남겨 두시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이 CO 395 부딪치시기 전에 이미 그분과 전쟁 중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원수인 두 군주 사이에 전쟁이 선포되었을 때, 약탈하고 노략하는 것처럼 여러 번 마주침이 있겠지만 큰 결전의 날이 모든 것을 정하고, 그때 누가 졌는지 이겼는지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손에서 멀어지며, 그분께 반역할 때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우리 쪽에서 완전히 선포된 전쟁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께 대들지 않고, 그분께 도전하려고 전령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 죄가 사나운 미침에서

나오므로 그것은 그분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원수시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사이에 물론 싸움이 첫날에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 두셔서 우리가 얼마 동안 발로 서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부딪쳐야 하리라는 것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맙시다. 곧 오래전부터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우리 죄와 죄악 속에 고여 있지 않고, 그분 진노의 불에 우리를 태우도록 땔감을 더 보태지 않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압니까? 그분께 용서를 구하도록 일찍 우리 자신을 살핍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더 지켜볼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박과 폭풍으로 악인들처럼 의인들도 벌하실 것입니다(고난은 모두에게 공통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당신의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추시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께서 우박과 폭풍과 그 비슷한 것들을 보내실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 죄를 바로잡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매라는 것을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의인들은 위로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듯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아버지다운 부드러움으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징계는 (그것이 하나님 진노의 증언이므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잘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걷고 그분께 신뢰를 둔다면, 그분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엄격함이 아니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바로잡으신다 해도 그것은 우리 유익과 구원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지로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걷는 자들과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잘 보이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모든 것이 그들의 구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이 그들을 향한 당신의 엄격함을 누그러뜨리시고 일시적인 징계가 그들에게 약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경고하는 징계

이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했으며 그분이 우리를 거슬러 싸우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모든 피조물을 무장시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말입니다. CO 396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이 구절을 실천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땅이 그렇게 적셔져서 싹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늘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연의 보통 질서에서조차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가 거기서 어리둥절하고 우리 감각이 눈부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볼 것이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이유를 알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을 셈하고 따져 본 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이 모든 드러난 것들에서 말입니다) 우리 위에 있고 우리가 이를 수 없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늘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것을 잘 깨달으려면 우리는 늘 그 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비가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요컨대 비가 수증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땅을 싹트게 하고 아무도 살지 않던 광야까지 그렇게 푸르러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랄 거리가 넉넉합니다. 사람은 정원 하나에 물을 주는 데도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무엇을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운을 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물 대기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기술로 끌어올 수 있는 모든 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가 푸르러지는 것을 볼 때,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실한 표지로 그분이 보내시는 비가 무엇인지 보여 주려 하십니다. 작은 정원에서 사람은 물 주기를 그치지 않고, 그 뒤에 비와 이슬을 얻어서 거기서 것들이 눈에 띄게 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타 버린 광야가 있고, 아무도 거기 물을 주지 않으며, 땅은 본디 메말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비로 거기 풀과 건초가

넘치게 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더 친밀하게 당신을 드러내시니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우리 배은망덕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데(그분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보여 주십니다. 그것은 평생에 한 번만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풀을 발로 밟으면서도 "땅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은 복되시도다" 하고 말하려고 거기까지 눈길 한 번 던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아울러 우리의 거칢과 멍청함을 살핍시다. 나는 풀잎 하나가 어떻게 생기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만 그 원인이 내게 너무 감추어져 있어서 나는 거기서 CO 397 어리둥절합니다. 나는 밀알 하나가 썩어서 싹트고 사람들의 양식이 될 많은 알을 내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나는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이 가르침이 쓸데없고, 밀과 풀이 어떻게 자라는지 다룰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저마다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하나님께 그분께 마땅한 영예를 돌립니까? 우리에게 달린 만큼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졌다고 여기는 이 앎은 우리를 그만큼 더 죄 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배은망덕이 그 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가장 낮은 것들에도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간직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큰 자와 작은 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말해도, 가장 높은 원인까지 가면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거기서 어리둥절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교묘함을 보이려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에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알 때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만큼 일부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했듯이) 늘 어떤 부분을 당신께 남겨 두셔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되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원인들을 당신의 뜻 안에 가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마땅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과 당신 곁에 간직하시는 것을 그렇게 구별할 줄 아는 것은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당신께 두셨고, 드러난 것은 율법에 담긴 대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신 29:29).[113] 물론 모세는 거기서 공포된 율법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걷도록 알맞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에게 특별한 좋은 것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 증언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스승의 직무를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을 견디자.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께 그분의 비밀을 남겨 드리자." 곧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가르침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우리 분량이 되게 하며, 더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가지시고, 드러난 것만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여기서 풀어내는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의 질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 만큼 그토록 높이 오르기에는 너무 거칠고 CO 398 너무 작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늘 우리를 고삐에 붙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113. 원문은 "Deut. 29, 293"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로 바로잡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읍시다. 그리고 그 밖에는 더 넘어가지 맙시다. 보십시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무관심을,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어리석은 주제넘음을 생각하면 아주 알맞은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비밀을 감추려 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면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려는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아,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알고 싶다" 하고, 그들은 논쟁에 들어가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성경에서 그들에게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늘 가장 수고한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미친 주제넘음을 봅니다.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 머리로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데도 그분의 비밀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배우는 데 이런 무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만큼 당신의 뜻을 밝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시므로 우리가 삼킬 수 있도록 음식을 씹어 주시고, 우리 본성에 따라 친밀하게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보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밝은 계시인 성경이 있고, 아울러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기 우리 공부를 쏟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 거칢에 당신을 맞추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말하자면) 유모가 어린아이들과 그러듯이 더듬더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익을 얻고 따르는 데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을 얻는 데 그토록 게으르고 무관심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에게 속한 것보다 더 알려는 이 호기심, 아니 오히려 이 미친 어리석음을 가진 것을 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간직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가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으신 것을 캐묻지 맙시다. 그분이 정하신 수단으로 여기서 가르침 받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 그분의 비밀을 남겨 드리고, 그 위로 아무것도 손대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보는 그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고, 먼저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불완전함을 벗기실 때까지 완전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합시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았을 때 CO 399 우리가 가장 높은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길 한가운데서 모자란다고 결론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온전히 그분께 복종하도록 경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간직합시다. 그런데 땅과 심연과 물과 눈과 공중에서 생기는 것들과 적시는 비를 언급한 뒤에, 이어서 하늘과 별들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을 다시 두십니다. 곧 하늘의 질서에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의 여러 증언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이 우리 재판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 진노의 표지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특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라. 내가 행성들과 다른 별들과 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창조할 때 너는 태어났느냐? 너는 거기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네가 그것들에게 가고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 네가 묘성의 즐거움을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의 매임을 끄를(또는 풀) 수 있느냐?” 여기에는 히브리 사람들조차 일치하지 않는 하늘의 몇몇 별자리가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놓인 첫 낱말은 봄에 나타나서 땅을 열고 열매 맺게 하는 부드러운 비를 가져오는 어떤 별들을 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닭으로 “땅이 푸르러지기 시작하는

원인인 묘성의 즐거움을 네가 묶거나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즐거운 날씨를 보내시지 못하도록 네가 맞설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오리온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별자리로서 큰 사나움과 폭풍을 가져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북두성으로 풀이하는데, 그것은 공중으로 오르는 수증기 같은 조여질 수 있는 것들의 지킴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거기 너무 머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큰 폭풍과 비바람을 가져오는 별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 매임을 풀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아무 다스림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놀라움으로 넋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구절에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짧음을 경고받는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것은 그들이 너무 날뛰려 할 때 그들을 누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겨우 태어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그분을 정죄하려 합니다. 정말입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그분의 공과를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그런 그토록 놀라운 질서가 유지될 때, 우리가 그분을 도우려고 그분의 회의에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겨우 CO 400 어머니 배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의 재판관이 되려 합니다. 겨우 말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 하고 저 혼자 계획과 분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은 볼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견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든이나 백 살이 되었다 해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지혜에 비하면 그런 기한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토록 오래 지속된 이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생명의 짧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만을 꺾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논쟁하려 할 만큼 그토록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울 첫째이자 주된 공과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는 자랑할 거리가 넉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을 간직하여 점점 더 거기서 유익을 얻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나 그 밖에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려고 손을 뻗지 맙시다. 우리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밖에 없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를 겸손과 삼감 속에 붙들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한편으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또 좋은 위로를 거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을 그 상태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앞날을 위해서도 돌보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이것저것으로 재촉하는 너무 큰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그분은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새내기 살림꾼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창조 때부터 지속된 이 질서를 바라보고, 어떤 변화들이 있었든 모든 것이 그토록 잘 배치되어 세상이 그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하건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분의 의와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거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시작하신 대로 끝까지 잘 이어 가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볼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의 별자리에 명령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보는 이 질서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별들에서도 다른 어떤 움직임에서도 올 수 없다는 것을 늘 새깁시다. 그러니 별들이 우리 위로 떠오르고 그다음에 숨는 그 철이 있다 해도, 그것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시다. CO 401 그분이 별들

에게 그 하늘의 기운을 주셨다 해도, 그 사이에 그래도 그분이 그 위에서 다루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행성들이 해마다 움직이는데도 거기 큰 고르지 않음이 보입니다. 봄에 땅이 싹트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묘성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하늘의 별자리에 그 기운을 주셨다 해도 그것들은 제 움직임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정도의 봄을 볼 것입니다. 곧 결코 더 춥지도 더 덥지도 않을 것이고, 한 해에 다른 해보다 비가 한 방울도 더 내리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른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함이 있어서 해마다 다르다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비도 눈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별들에게 어떤 성질을 주셨다 해도 늘 그 위에서 고삐를 쥐고 계시며, 최고의 다스림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유익하다고 아시는 대로 배치하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별들이 그 자연스러운 운행과 성질을 가졌다 해도 스스로 가지 않고, 제 힘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명령하시고 그것들이 그분이 모든 피조물 위에 가지신 이 최고의 통치에 순종하는 만큼 말고는 세상에 기운을 주지 않는다고 밝히시는 이 구절들을 그만큼 더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별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선이나 악을 행할 힘을 가진 것처럼 하늘의 별들에 정신 팔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이 우리 쓰임에 이바지하게 하기를 기뻐하셨으니, 우리가 거기서 유익을 얻되 그분만 거기서 영화롭게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천둥과 번개, 폭풍과 비바람을 볼 때, 명령하시고 그것을 당신 뜻대로 쓰시는 분이 그분이시니,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만 하면 안심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언을 우리가 가질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그런 절제와 삼감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너무 캐묻지 않기를 배우게 합시다. 오히려 우리 분량과 능력에 따라 가르침 받는 것으로 넉넉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당신의 말씀에 담긴 보통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마땅히 생각하도록 눈을 뜨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세우며, 이 점에서 무관심하지 맙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높고 너무 깊은 것은 거기 남겨 두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온전한 계시의 날을 기다립시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될 때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1편

욥기 38–39장 설교 5

CO 35:402–4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가 하늘의 길을 알며 땅 위에 다스림을 세우겠느냐? 네가 구름에게 큰 소리로 외쳐 넘치는 물이 너를 덮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겠느냐?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겠느냐? 누가 마음에 지혜를 두었으며 누가 그것에 깨달음을 주었느냐? 누가 자기 지혜로 하늘이 할 일을 정하며, 누가 하늘의 물통을 멈추게 하겠느냐? 먼지가 뭉치고 땅이 굳어질 때에 말이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고 젊은 사자를 배불리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있고 숨어 엎드려 노릴 때에 말이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을 것 없이 헤맬 때 누가 그 먹이를 마련하느냐? 너는 산양이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알았느냐? 그것들이 새끼 배는 기한과 새끼 낳을 때를 네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려 새끼를 낳고 그 괴로움을 쏟아 낸다. 그 새끼들은 살찌고 곡식으로 자라며, 나가서는 어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욥 38:33–39:4)

CO 402 여기서는 요 며칠 다룬 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곧 CO 403 사람들이 자연의 온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우둔함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좋고 잘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경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곧 거기서 어떤 질서가 지켜져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본다면 거기서 드러나는 그토록 큰 지혜에 놀라야 합니다. 하늘을 짓는 것이 우리 몫이라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별 하

나나 행성 하나의 몸체만 문제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별들의 그토록 큰 무리가 있고, 아울러 다양함이 있으며, 구별과 거리가 있습니다. 행성들도 질서 있게 놓여서, 달은 우리에게 더 가깝고, 해는 훨씬 더 높으며, 해 위에 또 다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창공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늘에 그런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것을 궁리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의 모든 운행과 질서를 낱낱이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별들이 하늘의 군대 같다고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우리를 잘 놀라게 해야 할 채비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에서 알아보는 것에서 무한한 지혜를 보여 주실 때 그분을 경배하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우리 분량을 넘어서 일하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일부 맛보는 것, 곧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바른 목적에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일 만큼 그렇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걸작 하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죽을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만큼 재주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 고백은 우리가 그에 비하면 거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로 옵시다. 뛰어난 작품을 만든 사람을 높이듯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점으로 돌아옵시다. 곧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고, 우리 분량을 넘어 손을 뻗지 않으며, 우리가 버릇처럼 그러듯 무모한 재판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누가 하늘의 물통을 붙들거나 멈추게 하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구름이 그렇게 불리는데, 이 구절에서만이 아니라 시편에서도 그러합니다. 거의 그 본성을 거슬러 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흘러내리고, CO 404 무거운 본성을 가졌으므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런데도 멈추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통이나 통이나 병 속에 가두어 두시듯 하시는 것 말고 이 멈춤이 어디서 옵니까? 여기 놓인 이 말은 본디 병이나 물동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구름은 하나님의 그릇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로도 흙으로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재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물에게 거기 머물라고 명령하셨으면 충분하고, 물은 거기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늘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늘을 조이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보여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땅은 늘 질척일 것이고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가 없다면 땅이 굳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고, 거의 쇠처럼 되어 거기서 아무것도 끌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리시고 또 좋은 날씨를 위한 어떤 철도 남겨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경탄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그분 몫이며,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좋고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신의 약함을 알면서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비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려 드는 자는 누구든 그분과 맞서 자기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일 위에서 판단하지 않도록 잘 조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가져온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향하는지 봅니다.

또 특히 번개나 행성이나 그만큼의 폭풍을 보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도록 다루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해와 달에게 아무리 명령해도 그것들을 재촉할 수 있겠

습니까? 그것들의 운행을 일 분이라도 늦추거나 앞당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신 단 한마디, "나는 해가 낮을 다스리고 달이 밤을 다스리며, 봄과 여름과 겨울과 나머지의 여러 철이 있기를 원한다" 하신 그 말씀으로, 그러니 그 한마디로 지금 하늘이 움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잘 다스려진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벌받지 않고 남지 않을 마귀 같은 교만이 있다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행성과 번개와 벼락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말을 잘 달아 봅시다. 물론 여호수아가 해의 운행을 늦추었습니다. CO 405 "해야, 너는 네 자리에 머물고 나아가지 말라." 그러나 그것이 그의 힘으로였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의 입에서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어떤 힘을 가졌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것은 공중에서 사라질 수 있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꾀하지 않으므로 해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므로 해가 죽을 사람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영광과 영원한 본질 가운데 말씀하셔서 해와 달의 운행과 하늘의 온 질서를 정하셨을 때, 그것은 더 웅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새겨서 유익을 얻을 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그분이 받으실 만한 대로 높이고, 그분 아래 우리를 복종시키며, 그분께 온전히 속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 밖으로 아무것도 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아무리 돌쩌귀에서 빠져나가 날뛰어도, 여기서 말하듯 행성과 번개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속한 것보다 더 손을 뻗으려 하고, 하나님께 대들려 하고, 심지어 모독하기까지 방탕했을 때, 그들이 자연의 질서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해나 공기나 세상의 어떤 부분을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움직일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조롱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그분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게는 정신도 지성도 없지만, 그것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세상 창조 때 선언하신 것을 행하게 하는 은밀한 기울어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감각 없는 피조물조차 순종하는 이 위엄을 경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 말 아래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고 젊은 사자들을 배불리 먹이며, 까마귀들에게 먹을 자리를 내주고 그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먹이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라고 합니다.[114] 우리는 사자와 다른 야수들에게 어떤 먹성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것들을 채우는 데 세 조각으로는 안 되고 큰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은 집어삼키고 들이켜는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그것들에게 식량을 대 주겠습니까? 물론 군주는 재미로 사자나 다른 야수를 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군주가 CO 406 세상의 모든 사자에게 식량과 양식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이라 해도, 우리가 야수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보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보도록 우리를 부추기기에 넉넉한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잘 바라볼 것입니다. 무엇이 사자와 다른 야수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삼키지 못하게 막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의 먹이가 되지 않습니까?

114.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38장 33–38절과 39장 1–7절입니다(칼빈의 39장 1–3절이 개역한글 38장 39–41절, 39장 4–7절이 개역한글 39장 1–4절).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과 코끼리와, 그토록 많고 그토록 다양한 다른 모든 짐승에게 고삐를 늦추신다면, 묻건대 우리는 곧 멸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자들이 그토록 많은 양식이 필요한데도 배부르고, 그 사이에 세상이 보존되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보시고 처방하시기 때문 말고 무엇 때문입니까? 해의 밝음이 짐승들을 세상에서 몰아내어 굴로 물러가게 하고, 그때 사람들이 오갈 자유를 가진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수들을 가두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장사하고 일하도록 땅을 주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머물 모퉁이 하나라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알아들을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신다면 온 땅이 곧 사람들로 비고 모든 것이 잃어지고 망할 것이며,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일하셔야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호 아래 두셔서 우리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가지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사자들이 사람들을 삼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은 특히 광야 지방과 야수가 더 많은 저 더운 나라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돌보지 않으신다면 이 악이 온 세상에 미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야수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먹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아름다운 거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더 쫓아오지 않고, 집 안에까지 뛰어들지 않으며, 모든 것이 먹혀 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놓인 빗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막는 것은 사람들의 솜씨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분이 야수들에게 먹이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리고 그 밖에 이 구절을 읽었으니, 시편 34편에서 말하는 것도 간직합시

다(시 34:10).[115] 곧 사자들이 CO 407 먹이를 찾는 그런 힘과 사나움이 있고 그것들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보이는데도 굶주린다는 것, 그러니 그것들이 그렇게 굶주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먹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견줌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납고 무서우며 우리에게 가증스럽기까지 한 짐승인 사자들을 먹이신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분이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그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다스리실 때, 그분이 그들을 먹이실지 의심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그분이 야수들을 먹이시고 (곧 이야기하겠지만)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리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짐승들을 돌보시고 그것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존되는 것에서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자와 야수들을 먹이시는 분이라면 더 강한 이유로 그분이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려고 돌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당신께 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기를 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신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까마귀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과 그 새끼들이 당신께 부르짖을 때 그것들을 먹이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새끼 새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할 목소리조차 없고, 참된 믿음으로 이끌린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것들은 먹이가 없고 이 세상에서 먹을 아무 수단도 없으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115. 원문에는 “시편 34편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거기에도 같은 말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달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 것의 큰 확증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여야 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도 모른 채 울부짖고 소리치고 으르렁거리는 야수들을 먹이신다면, 자기를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지키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직무를 당신께 남겨 두셨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그들에게 모자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그 밖에 먼저 "부르짖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새깁시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믿음이나 깨달음으로 부르짖거나 사람들이 배우는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든 수단을 잃었으므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들이 굶주린 채 남을 것입니다. 그 어미 아비들이 CO 408 먹이를 찾으러 날아가지만 때로 하나도 찾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새끼들이 반쯤 죽어 있고, 그것들을 돌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처방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것들에게 쪼아 먹을 벌레를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은밀한 수단이 있든지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에 대해서도 그만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단이 모자라면 그것들이 피할 곳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무슨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그러해서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헤매도, 보십시오, 모든 도움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시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것들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나누어 주시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짐승들의 이 견줌으로 돌아갑시다. 짐승들에게 더는 아무 자연스러운 수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것이 짐승들이 그분께 오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넘쳐흘러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핍하고 모자라게 되면, 우리는 그분께 오도록 그만큼 더 부추김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단을 잃었을 때 머뭇거리거나 재갈을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신다" 하고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은 짐승들을 소환하듯 당신께로 물러오게 하시고 당신이 그것들의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이려 하신다고 밝히시고 단언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실 것이고 모든 것이 비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분께 달려가야 할 것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식량이 없고, 어떻게 될지, 어느 쪽으로 돌아서야 할지 모를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신의 직무라고 밝히시는 것과 같고, 그 수단으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신뢰가 당신 안에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과 깨달음을 가진다면 아울러 기도와 간구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음식과 먹이를 기다린다고 자랑하면서 그 사이에 그분을 부르려 하지 않는 자는, 자기 안에 위선과 거짓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부르도록 부추기고 떠밀어서,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손에서 받듯 먹이를 받으며,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분의 순전한 선하심으로 먹여진다고 고백하게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절을 실천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는 아울러 더 높은 견줌으로 와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을 먹이신다는 것을 알아들었을 때, 더 강한 이유로 우리 영혼의 양식도 그분과 그분의 손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CO 409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을 가지고 머리만 숙이면 배를 채울 수 있다 해도, 그래도 우리 영혼의 먹이는 여기 아래에서 찾기에는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썩을 음식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분은 이 지나가는 현재의 생명에서 우리 몸을 먹이는 것이 오직 당신께 속한다고 밝히십니다. 그러니 특히 영적으로 먹여지기를 원할 때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분별이 없다면, 까마귀 새끼들과 하늘의 새들과 세상의 모든 짐승이 우리를 정죄하는 증인과 재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수단을 잃었을 때 그것들을 당신께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듯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분이 그것들에게도 당신의 직무를 행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바른 마음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 구하면 헛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너는 산양, 곧 그 암컷이 새끼 치는 때를 아느냐? 암사슴의 기한과 그것들이 새끼를 낳으려 할 때 어떻게 몸을 구부리는지 아느냐?" 하고 말합니다. 물론 온 인류에 대해 우리 자신 안에 가진 본보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하려 할 만큼 그토록 오만할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기에 넉넉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너는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네가 어머니 배 속에 잉태되어 모양을 얻었을 때 어떻게 아홉 달 동안 거기 품기고 먹여졌느냐? 결국 어떻게 나왔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정할 수 있었겠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리둥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자기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에서 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썩음과 더러움에서 잉태되고, 그런데도 우리 몸이 빚어진 것을 보듯 모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 배 속에서 모든 배설물 가운데 더러움과 악취 속에서 먹여지고, 그런데도 영양을 끌어내며,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잘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거기 넋을 잃어야 할 만큼 그토록 뛰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야수나 암사슴이나 산양 암컷에게로 보내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어머니 배 속에서 어떻게 품기고 먹여졌는지, 세상에 오려고 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바라보는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수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CO 410 왜 그렇습니까? 여자들은 해산할 때 그래도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중드는 이들이 있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는 익숙함과 경험이 있어서 그들은 위험을 조심하고 자기에게 알맞은 것을 살피며 채비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기적은 여자들보다 짐승들에게서 더 크게 여겨져야 합니다. 불쌍한 짐승은 배가 불렀을 때 자기가 무엇을 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거북하게 하는 짐만 느낍니다. 그것은 성을 낼 수도 있고, 유산하려고 자기 배를 부딪칠 수도 있으며, 새끼들이 그 안에서 부딪칠 때 절망한 듯 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렇게 붙드셔서 그것들이 자기 열매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들에게 무겁고 괴로운 것인데도 열매가 기적처럼 보존됩니다. 수사슴과 암사슴이 자기 비계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살찌면 그것들은 굶으러 갈 것입니다. 그것들은 자기를 거북하게 하는 무엇도 지니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십시오, 암사슴들이 새끼를 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큰 수고 속에 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암사슴이 새끼 낳기를 몹시 힘들어하고 그것이 그것들에게 엄청난 고통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것들이 몸이 끊어질 듯 구부리고 큰 몸부림이 있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암사슴들에게는 그것이 더해서, 자연의 이 비밀들을 아는 자들은 그것들이 약을 쓴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자기를 돕도록 먹는 어떤 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몸을 비우는 데 어떤 도움을 얻지 않는 한 거기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암사슴과 산양 암컷에게로 보내시는 것이 까닭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그 종류는 전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이 자기가 무엇을 품었는지 모르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경고하시며 "너희는 너희 종과 혈통을 남겨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을 견디고 자기를 지키는 그런 분별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짐승들에게 그런 기울어짐이 있을 때, 그것은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러 올 때, 거기 있는 그 짐승스러움 속에서는 그것들에게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새끼가 생길 것이고 그것으로 기뻐하리라고 보여 줄 일이 없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사람 하나가 세상에 나온 것을 볼 때 기뻐할 거리가 있으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짐승들에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배에서 무엇이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CO 411 자기가 품은 것이 자기 배를 터뜨리고 창자를 쏟아내게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것들은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필요를 처리할 줄 압니다. 그것들은 새끼들을 깨끗이 하고, 어떤 고통이 있었든 여전히 새끼들을 위해 수고해서 새끼들이 자기 탓으로 죽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높일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짐승들의 다양함을 생각하고, 그런데도 그것들이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보일 때, 묻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기 당신의 팔을 펴시고 기적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가 학교에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교묘해야 하고 크고 아주 깊은 이유들로 논쟁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출생에도 짐승의 출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 손이 거기서 다스리듯이,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작거나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우리는 짐승들에게까지 미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도 경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거기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점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볼 때, 우리는 적어도 그분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가장 무지한 자들도 어디서나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짐승들에게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능력과 선하심을 아는 데 자기 공부를 쏟지 않을 때 배은망덕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암사슴과 산양 암컷이나 다른 들염소에 대해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요컨대 모든 짐승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번성하게 하려 하실 때 그 질서를 이끄시려고 손을 펴고 계셔야 한다는 것, 그 수단으로 그것들이 혈통과 계보를 가진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끄셔야 하고 그분의 인도 없이는 무서운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그 비밀들을 알 때, 곧 내가 이미 다루었듯이 암사슴에게는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풀을 찾으러 가는 그 솜씨를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이 앎으로 유익을 얻읍시다. 누가 암사슴의 의사였습니까? 그것들이 풀 하나를 찾으러 가서, 그것이 몸을 비우고 새끼를 내보내는 데 자기에게 알맞다는 것을 아는 그 기술을 어느 학교에서 배웠습니까? 누가 그것들에게 그것을 보여 주었습니까? 누가 그 선생이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알려지시고 영화롭게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CO 412 여기 우리 눈앞에 놓인, 하나님의 영광이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 종류들을 잘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내가 말한 이 일반적인 가르침을 거두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새들이 가진 알과 거기서 새끼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말할 것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수들에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데 우리의 모든 공부를 그렇게 쏟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와 의를 그들 안에 드러나는 대로 알고, 그것을 느끼고, 거기 참여하는 것이 주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암사슴의 기한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곧 그것을 정하는 것이 그들 몫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그분의 다스림에서 우리를 면제하려고 손을 뻗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그분이 그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암사슴이 얼마 동안 새끼를 품어야 하는지 알 것입니다. 확실한 짐작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수컷과 암컷이 짝짓는 때를 보면 그것들이 여덟 달 동안 품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 그 기한은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는 암사슴이 새끼 낳을 기한을 아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그렇게 배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암사슴이 얼마 동안 품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그것들에게 달이나 날을 정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재주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암사슴들이 그만한 기간을 품기를 원하셨고, 그다음에 기한이 차면 그것들을 해산시키시고 수단을 주시며 일이 그분이 배치하신 대로 이끌어지니,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이 모든 짐승에 대한 주권을 당신께 남겨 두셨다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들을 어미 배 속에서 먹이셨으니, 그것들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분은 그것들을 고삐로 붙드셔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에게로 옵시다. 나는 날뛰며 교묘한 체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말대꾸하려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왜 그분

은 내가 바라는 것을 보내지 않으시는가? 왜 나는 이런 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려고 그런 원망에 들어갈 때, 우리 출생으로 돌아와 생각합시다. "아아, 너는 어떻게 어머니 배에서 나왔느냐? 누가 너를 거기서 꺼냈느냐?" 물론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CO 413 태에서 꺼내셨다는 것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렇습니다, 기적의 힘으로 일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 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출생만 생각해도 우리는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주께서는 내가 주의 인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꺼내셨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나를 어머니 배 속에서 지켜 주셨을 때 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면, 아이가 거기 갇혀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기로 삽니다. 그리고 숨을 쉴 수 없을 때, 보십시오, 우리는 곧 숨이 막힙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숨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 숨을 막기만 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머니 배 속의 어린아이들도 어떤 호흡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로입니까? 배꼽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이는 무엇으로 지켜집니까? 온갖 썩음으로입니다. 아이는 거기 모든 배설물과 모든 비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여덟 달 동안 거기 어떻게 품기고 어떻게 지켜지는지 생각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토록 뛰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놀라야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웅장한 그런 일들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졸고 있다면, 묻건대 우리는 굳어진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증언으로 감동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짐승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거스르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기를 배웁시다. 특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에서 놀라우시고, 우리가 자연의 질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때 놀라움으로 넋을 잃어야 할 만큼 자연의 질서가 그런 광경이라고 고백하기를 배웁시다. 그러나 늘 이 결론으로 옵시다. CO 414 곧 우리를 고삐에 붙들어, 그것이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판단할 만한 정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그분을 감독하며 "왜 이것이고 왜 저것인가?"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일에서 흠을 잡으려 할 때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 심지어 우리가 우리 분량을 넘어 높아지려 했을 때 우리 무지와 약함을 느껴야 하리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파멸로 느껴야 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있는 것이 보이는 이 마귀 같은 오만을 조심합시다. 특히 우리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문제일 때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배치하셔서, 모든 것이 그분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이끌어지는데도 우리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흠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입니다. 그 위에서 이렇게 말대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나쁘다고 결론짓는다." 불행한 자여, 어찌 된 일이냐? 너는 여기서 하나님을 네 어리석은 머리 같은 그토록 작은 분량 안에 가두려느냐? 그것은 "그것이 내 눈앞에, 내 다리 사이에 있듯이 있지 않으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여기 우리에게로 끌어내리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분 안에 있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크심을 경배하도록 우리 정신을 거기로 높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으로 거기 올라야 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주제넘게 여기지 않으며, 우리가 여기 아래에서 기어 다닐 뿐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놓인 것도 바로 그 의도로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2편

욥기 39장 설교 2

CO 35:415–42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으며 누가 사나운 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광야를 그 집으로, 소금 땅을 그 거처로 삼았다. 그것은 성읍의 소란을 비웃고 세금 걷는 자의 고함을 듣지 않는다. 그것은 산들을 살펴 꼴을 찾고 온갖 푸른 것을 뒤쫓는다. 일각수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네 구유 곁에 머물겠느냐? 네가 일각수를 줄로 매어 (밭을 갈려고) 고랑에 세울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의 흙덩이를 깨뜨리겠느냐? 그 힘이 크다고 네가 그것을 믿고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네 씨를 거두어 네 곳간에 모으리라고 네가 믿겠느냐? 네가 공작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주었느냐? 황새와 타조에게 깃털을 주었느냐?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고 먼지 위에서 데워지게 하며, 발이 그것을 밟거나 들짐승이 그것을 짓밟을 것을 잊는다. 그것은 새끼들이 제 것이 아닌 듯, 제 수고가 헛된 듯 모질게 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에게서 지혜를 빼앗으시고 깨달음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그것은 높이 일어나 말과 그 탄 자를 비웃는다. (욥 39:5–18)

CO 415 우리가 온 세상에서 한 가지만 바라본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넉넉해야 할 것입니다.[116]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예롭게 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데 너무

116.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39장 8–21절입니다.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게으르고 굼뜬 것을 보시고, 그런 다양함으로 그들을 부추기려 하셔서, 그들이 위로나 아래로나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끝없는 것들을 바라본 뒤에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더는 핑계가 없게 하셨습니다. 말하건대 사람이 더 나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하나님을 높일 거리가 넉넉합니다. 또는 피조물 가운데 한 종류만 보아도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루 돌아보며 생각하고, 세상의 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뒤에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 모든 피조물을 헤아리듯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일에 우리가 아무리 높여도 모자랄 만한 그런 완전함이 있다고 고백하도록 움직여져야 할 것이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종류를 내놓으십니다. 아직 동물들의 성질에 대한 완전한 이야기와 CO 416 온전한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 적힌 본보기들에서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넉넉해야 할 것을 가집니다.

이를테면 지금 들나귀와 사나운 나귀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들나귀를 바라볼 때, 온 세상이 모인다 해도 그것들에게 그것들이 가진 그런 본성을 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능력과 힘을 넘어서 배치하셨다는 것, 우리가 거기서 흠을 잡는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무모함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그토록 끝없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을 경배하려고 높은 곳으로 눈을 드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들나귀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그분은 일각수,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짐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흔히 여기서 일각수에 대해 말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일각수는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소나 말이나 나귀처럼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을 결코 길들일 수 없을 것이고, 그것은 땅을 갈지 않을 것이며, 곡식을 곳간이나

타작마당으로 끌어가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나귀나 어떤 다른 사나운 짐승 하나도 길들일 수 없다면,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흠잡을 데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배치하신 우리 창조주를 거슬러 감히 부리를 쳐들겠습니까?

끝으로 그분은 공작과 타조에 대해, 또는 (이것을 그렇게 알아듣는 이들이 있듯이) 황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둘째 자리에 황새를 말하지만, 끝에 덧붙인 것은 타조에게만 맞을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이 빠르기로 말과 그 탄 자를 비웃고, 그다음에 제 알을 잊으며, 너무 미련해서 그것을 모래에 내던지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들에게는 황새보다 타조에게 맞는 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의 거울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디서나 드러나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는 CO 417 하나님을 찾도록 부추김을 받고 움직여져야 하고, 그분을 찾았으면 그분께 우리를 두되, 그분의 일의 이유를 알아보지 못해도 사로잡힌 것처럼 머물러 어떤 식으로든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지 않을 만큼 그런 순종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부분으로 옵시다. 들나귀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들이 산을 다니며 꼴을 찾으며, 광야와 소금 땅에 살고, 그 사이에 도성에 살며 인두세와 세금과 그런 부담에 매인 자들을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들나귀들은 그 모든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들에게는 자유로운 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꾸짖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높이 여기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매여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자랑하는지, 땅이 자기를 떠받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런 오만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이 자기를 들나귀와 견준다면 나귀들이 훨씬 더 바랄 만한 것, 곧 자유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주된 좋은 것이라고 저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여 있고 들나귀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랑하러 가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구름에 실려 다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어깨에 올려 두시려고 손을 내미셔야 할 만큼 그토록 뛰어난 존귀함을 가졌다고 믿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점에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바로잡으려 하셨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는 분량을 넘어 우리를 높이 여기기를 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도 그분의 일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낮추려고 그분의 위엄까지 그토록 높이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 말고 다른 선생을 가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나귀들이 어디나 돌아다니고, 고삐에도 마구간에도 매이지 않으며, 길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들보다 낫다고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에 머물렀다면 그들은 이성에 복종했을 것이되, 종살이의 모양으로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다스리셨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법도, 재판도, 사람들이 악에 빠질 때 그것을 집행할 칼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에게 법과 이성이 되었을 것이고, 저마다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 418 그렇게 자원하는 그런 복종이 세상의 모든 제국보다 더 고귀하고 뛰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했으므로 우리는 종살이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실 때, 그 점에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멍에 아래 붙드는

법과 질서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부담이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때로 폭군들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들이 자기 백성의 아버지이기는커녕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괴롭히고 노략하며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점에서 우리 처지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점에서 짐승들이 우리보다 나은 때를 보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사람들을 그렇게 내던지셔서 짐승들이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호 8:9) 이스라엘 백성을 들나귀에 견주실 때, 그것은 그들 안에 아무 이성도 인간다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너는 따로 있으려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너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 떼 안에 붙드시려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에게 선생의 직무를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우리가 그분 손에 다스림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우리에게 고칠 수 없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두신 이 복종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의 흔적을 본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이 (그들이 나쁘고 엄하게 다루어진다 해도) 들나귀들이 그렇게 사납게 산에서 뛰노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거칠게 매질로 징계하실 때 그들은 자기 죄를 경고받고, 그것은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그분은 그들에게 선과 악 사이에 분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런데 나귀들은 거기 자기 짐승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어떤 복종을 두셨든 그들에게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늘 그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하는 이 경고는 이것을 향합니다. 곧 사람들이 교만해지려 하고 자기 존귀함과 고귀함에서 자기를

너무 높이 여긴다면, 그들은 들나귀에게로 보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불쌍한 사람들아, 너희는 누구냐? 너희에게는 내가 더는 너희를 다스려서는 안 되고 너희가 내 동료가 되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사이에 너희는 많은 부담에 매일 것이고, 많은 괴로움과 하소연과 고함 없이는, 저마다 CO 419 늘 의심 속에 있지 않고는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은 의심과 꺼림칙함 없이는 서로 함께 살 수 없고, 어떤 이들은 속임수로 해를 끼치고, 다른 이들은 이것저것 꾀하며 배신과 악의로 원수를 이기려 애쓰고, 다른 이들은 독으로 가득해서 자기 악을 고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를 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들나귀들은 산에서 뛰놀고, 꼴을 찾으러 가며, 사람들이 그토록 수고하는 모든 질서를 비웃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더는 그렇게 높이 여기지 않기를 배우라. 산을 돌아다니는 들나귀들이 너희에게 너희 공과를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자기를 높일 만큼 너희가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하는지 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짐승들의 본보기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안의 모든 교만을 꺾으려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다른 한편으로 어떤 점에서 우리 처지가 짐승들의 처지보다 못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이어 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를 그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풀린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수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오도록 가르침을 받으므로 사람들의 복종이 짐승들의 자유보다 낫다는 것, 우리가 종살이에 붙들려 있다면 그것이 주인도 마구간도 없이, 법이 무엇인지도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뛰노는 짐승들에게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머리를 숙여 우리 존귀함 속에서 높아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

신께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나귀에 대해 말한 뒤에 아울러 가까운 것인 일각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각수를 길들일 수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이 꽤 힘세고 날래도 우리 입맛대로 땅을 갈지 않을 것이고, 쟁기를 끌지 않을 것이며, 밀을 곳간으로 나르려고 수레를 끌지도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컨대 그것은 사람들의 쓰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먼저 우리가 새길 것은, 짐승들이 우리를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꺾으시고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왜 말이 사람에게 다스림받아 쟁기나 수레를 끌고, 탄 자와 다른 짐을 지겠습니까? CO 420 왜 사람들이 노새와 나귀와 소를 다룰 수 있습니까? 말은 사람에게 넉넉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용감하고 활기찬 짐승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소도 그 뿔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길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은 무서운 짐승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겁주는 데 머리만 흔들면 됩니다. 그 큰 눈과 그 굵은 목, 그리고 그것이 뿔을 세우면, 보십시오, 다가오는 사람을 꿰뚫을 것입니다. 또 그 몸의 큰 덩어리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주권을 주려 하셨기 때문 말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각수에게 그런 본성을 주지 않으셨다면, 일각수도 말이나 소만큼 길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그 생김새만으로도 우리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감히 다가가지도 못할 짐승들을 우리 섬김에 쓰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시다.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그렇게 다루어서, 소들이 멍에에 익숙해지면 작은 막대기 하나로 그것들을 거기 붙들 것입니다. 그 굵은 목을 굽히게 하고 그 뿔을 숙이게 할 것입니다. 요컨대 그것들이 모든 것을 짓부술 수 있는데도 아무 저항이 없

도록 그것들을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를 겁줄 수 있는 짐승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런데도 그것들이 우리 섬김에 쓰이고 길들여질 수 있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코끼리조차 길들여지는데, 그것은 무서운 것 이상의 짐승입니다. 그 생김새만으로도 다른 모든 동물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것은 산 같아서 우리를 짓부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코끼리가 길들여지면 어느 정도 순해집니다. 늘 제 본성을 조금 간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쓴다는 것에 놀랍시다. 반대로, 보십시오, 일각수라는 작은 짐승은 어떤 날램만 가졌을 뿐인데도 늘 제 반역을 간직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솜씨와 힘으로도 그것을 복종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적어도 그런 견줌으로 확신하게 됩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짐승들을 우리 쓰임과 유익에 쓰게 하신 데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힘 안에 두지 않으신다면 (말하자면) 달팽이 한 마리도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물론 세상 창조 때 모든 짐승이 아담에게 주어져 그가 그것들의 주인이자 영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유를 잃었습니다. CO 421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봉신이 자기 군주에게 어떤 비겁한 짓이나 배신을 했을 때 그의 재산이 몰수되고 그가 완전히 쫓겨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마땅한 경의를 바치지 않아 배은망덕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종류의 짐승을 평화롭게 다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짐승 위에 주어졌던 주권과 통치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의 쓰임을 남겨 두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것들을 복종시키지 않으신다면 짐승들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수 없을 것이므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미침이라는 것을 경고받습니다. 짐승들이 필요할 때 우리를 잘 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나 일각수를 무장시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좋게 여기실 때 이와 벼룩으로 우리와 전쟁을 하셔서 우리 교만을 조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우리가 짐승들을 전혀 다룰 수 없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시다. 곧 아담의 죄와 우리 악함과, 우리를 이 세상의 군주로 세우시고 모든 피조물을 우리 손에 두셨던 분께 우리가 반역한다는 것에서입니다. 그것을 알고, 야수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탄식합시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비참을 보여 주신다" 하고 압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그분께 그렇게 순종해서 그분의 표를 지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시다. 짐승들이 그분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죽을 생명 동안 그분이 우리를 늘 고삐에 붙드시려 한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둘째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물음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더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존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셔야 할 이유가 그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장식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이미 그것으로 넉넉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미 말했듯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여러 광경을 가집니다. 그 다양함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그분의 능력과 아울러 선하심과 의가 무엇인지 더 잘 느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좋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짐승들을 누릴 수 없을 때 우리가 너무 높이 오르겠다고 주제넘게 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십시오, 말과 소도 우리를 들이받고

발길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가 그것들에게서 섬김받기를 원하셔도, CO 422 때로 말 한 번 걷어차는 것으로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너무 허세 부리지 않도록 머리를 숙이게 하는 좋은 가르침을 늘 가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밖에 흙덩이를 깨뜨리고 땅을 갈고 밀을 곳간으로 나르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잘 경고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실 것과 먹을 것이 없으면 세상에 머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먹여지지 않으면 이틀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빵을 줍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그토록 재주 있어서 땅을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팔의 모든 힘을 쏟고 아무리 파도, 아아, 그것으로 그들의 양식이 될 밀을 자라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을 갈려 하는 동안 누가 그들을 입히겠습니까? 그들이 옷이나 바지나 신발을 어디서 얻겠습니까? 누가 그토록 많은 필요를 채워 주겠습니까? 마시거나 먹는 것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불쌍한 생명에서 우리를 지키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도움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생각합시다. 이를테면 그분이 땅을 갈도록 말과 소를 정하셨고,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나르도록 그것들을 정하셨으며, 그다음에 다른 솜씨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모자랄 때 아울러 처방을 손에 가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선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배은망덕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되, 그렇습니다, 겸손으로 섬기도록 얼마나 매여 있고 빚지고 있는지도 압시다. 보십시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주된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거나 그분께 그분의 공과를 가르쳐 드리려 하겠다고 주제넘게 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그분께 속한 영예를 드리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 학교로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그런 지혜를 가지셔서, 앞에서 보여 주었고 이 말씀이 여전히 이어지듯이, 말하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어리둥절하니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작과 타조에 대해 덧붙인 것으로 옵시다. "누가 공작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주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분은 깃털 하나가 CO 423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공작 깃털 하나에 눈을 던져 봅시다. 거기 그토록 놀라운 솜씨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말고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말하건대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다스림과 견줄 수 없이 훨씬 더 높은 것들이 문제일 때 (묻건대) 우리 감각이 거기까지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모자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작 깃털 하나가 우리를 사로잡아 거기 놀란 것처럼 붙든다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솜씨는 어떻겠습니까? 특히 인류의 다스림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독을 펼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날뛰며, 그분이 자기들의 계획과 공상대로 다스리시기를 바라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바람대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의무를 확신하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타조의 날개를 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분

이 거기 있는 미련함과 가벼움과 힘에 대해 덧붙이시는 것에 머무르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황새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거기 있는 이치로 우리를 이끄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서 흔히 찾는 것보다 더 많은 인간다움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끼 황새들은 다 자라면 아비와 어미를 알아보고, 그들이 어릴 때 해 준 것을 갚으려고 늙은 어미 아비를 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하면, 아비와 어미에게 반역하고 그들이 바다 밑에 있기를 바라는 자식들의 배은망덕을 정죄하는 데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부모를 위해 힘쓰고 자기 입에서 음식을 덜어 그들에게 주기는커녕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짐승에게서 아름다운 거울을 가집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먹이시며, 우리가 그 손안에 있고, 늙으셔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일이 없는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있는 것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넉넉히 베푸시는데, 우리가 적어도 그분께 마땅한 찬송을 드릴 줄 모르다니요. 우리가 그토록 천하고 비뚤어질 때 우리를 정죄할 황새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타조에 훨씬 더 머무르시니 그것에 대해 하는 말로 옵시다. "보라, 말과 그 탄 자를 비웃는 타조가 있다"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큰 짐승에게 있는 날램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은 새이고 반은 땅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O 424 타조의 몸에는 그런 무게가 있어서 그것은 아주 높이 날려고 떠오를 수 없지만, 그렇게 퍼덕이며 다녀서 아무도 그것을 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역마로 뒤쫓아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반은 발로 뛰고 반은 날면서 그것은 말과 다른 짐승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빠르기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어떤 솜씨도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길에서 돌을 움켜쥐어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짐승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어리석음이, 그리고 또 달

리면서 돌을 모아 뒤로 자기를 쫓는 자들에게 차 던지는 그 꾀가 있습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타조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런 미련함이 있어서, 그것들이 머리를 숨겼을 때 온몸이 숨겨진 것처럼 여기는데, 그 사이에, 보십시오, 큰 덩어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제 알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더운 나라에 사니 그것들은 알을 모래 속에 숨기고, 해가 그 위에 내리쬐어 알을 데웁니다. 보십시오, 그것들의 알이 그렇게 깨어납니다. 한편으로 이 짐승들에게 있는 이 앞일 대비를, 다른 한편으로 그렇게 알을 숨기는 미련함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모든 것을 이끄시는 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타조에게 있는 힘과 빠르기에 대해 말할 때, 그 점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해도 그 조건에서는 타조가 우리보다 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로, 사람들은 버릇처럼 그러듯 자기를 그토록 높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자랑을 조롱하려는 이 본보기들로 그들을 번번이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힘과 날램과 다른 것들에서 솜씨까지 가진 이 짐승들이 한 가지 점에서 아무 꾀도 감각도 없을 만큼 그토록 미련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타조보다 더 많은 분별을 주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상품을 살 금이나 은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분별을 주셨을 때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매여 있는지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거기 마땅한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보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를 빼앗으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성과 판단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좋은 것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큼 더 매여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려는

것임을 압시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 세상에서 걷기 위해서뿐 아니라 CO 425 하늘 생명을 바라기 위해 우리 직무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저 위에 우리 유업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직과 천함, 악덕과 덕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가지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하늘이 우리에게 열린 것 같고 우리가 세상을 넘어 천사들의 무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 주신 죽지 않는 영광에 이르러 갈 때, 말하건대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보배를 얼마나 높여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줍니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미련한 짐승들과 같았을 것이고, 타조보다 더 많은 분별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사람들은 고삐에 붙들려야 하고, 자기의 모든 분별과 이성을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데 쏟아야 하며, 더는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고, 그들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일의 이 크심과 높으심이 무엇인지 작은 부분이라도 판단할 수 있으면 넉넉하다는 것, 그리고 땅에서 기어 다니면서 늘 온갖 겸손과 삼감으로 높은 곳을 향하되 자기가 아직 하나님 비밀의 저 큰 심연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구절을 더 잘 확인하려고 내가 처음에 다룬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느끼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보다 야수들에게 더 나은 처지를 주신 것처럼 성낼 계기가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가 죄의 부패 이래 가진 이 처지에서 짐승들이 어떤 면과 특정한 점에서 우리를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짐승들보다 앞서고 더 높은 단계에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짐승들이 가진 그토록 큰 힘과 날램이 없다

해도 그것은 우리 유익을 위한 것, 곧 우리를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보는 많은 것으로 우리 약함을 경고하시는데도) 그래도 그분이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야수 같다고 하소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소는 자기가 먹는 구유를 알고 나귀나 말은 주인의 마구간을 아는데, 우리는 우리 창조주이신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분은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길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고 우리가 그 야수들만큼 억세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CO 426 우리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 짐승들에게서는 빼앗으신 그토록 많은 은택에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늘 간직합시다. 여기서 이성과 깨달음에 대해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있는 이 보통의 이성만 단순히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에 담긴 이 지혜로 우리를 비추시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여셔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헤아릴 수 없었을 당신의 비밀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도 옵시다. 그 점에서 그분을 높이기를 배웁시다. 이것이 우리가 간직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서 타조의 알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알을 깨어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버려지고 내던져졌을 때에도) 당신의 섭리를 펴신다면, 더 강한 이유로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새깁시다. 말하건대 더 뛰어난 피조물인 우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이 짐승보다 인류를 훨씬 더 잘 돌보셨다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제 알과 거기서 나올 새끼들을 잊을 만큼 그토록 미련한 어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그들이 자기 아기들을 알아보고 자기 피와 자기 몸의 양분으로 그들을 먹이는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인류에 그런 질서를 두셨을 때, 그 점

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신 아버지다운 돌보심을 우리에게 밝히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을 그것으로만 재서는 아직 안 됩니다. 그분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옵시다(사 49:15). "어미가 자기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세상의 모든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미들을 그 직무 안에 붙드셔서 그들이 기꺼이 자기 아이들을 먹이는 데 힘쓰게 하실 때 당신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어미에게서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려 하지 않는 연약하고 까다로운 어미들이 많아서, 유모가 자기 아이도 아닌 아이들에게 그 친어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기울어짐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수단으로 인류를 보존하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밖에 우리가 피조물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분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알았을 때, 좋습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우리에 대한 염려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겸손으로 그분께 올 때 그분은 늘 계신 그대로, 곧 모든 자비의 샘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악을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그 CO 427 신뢰를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한 피조물이라 해도 그렇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그분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될 때, 그분 쪽에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알아본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시리라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3편

욥기 39장 설교 3

CO 35:428–439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네가 말에게 힘을 주었느냐? 그 목을 울림으로 둘렀느냐? 네가 말을 메뚜기처럼 놀라게 하겠느냐? 그 콧김의 울음은 무섭다. 그것은 발로 땅을 파고 기뻐하며, 무장한 사람을 향해 대담하게 나아간다. 그것은 두려움을 개의치 않고 겁내지 않으며 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화살통이 울리고 창날과 방패가 번쩍여도 그러하다. 그것은 성난 듯 떨며 땅을 삼키고 나팔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아하” 하며, 멀리서 싸움 냄새와 지휘관들의 외침과 군대의 함성을 맡는다. 매가 네 지혜로 깃털을 얻으며 남쪽을 향해 날개를 펴겠느냐? 독수리가 네 명령으로 떠올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겠느냐? 그것은 바위 위에 살고 높은 산 위를 요새처럼 삼아 머문다. 거기서 먹이를 살피고 그 눈은 멀리 바라본다. 그 새끼들은 피를 삼키고, 주검이 있는 곳에 그것이 있다. 주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전능자와 다투는 것이 가르침이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는 이것에 대답하라. (욥 39:19–40:2)

CO 428 우리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을 채비가 되어 있다면, 그분도 당신 쪽에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셔서 당신의 모든 가르침이 첫 매에 우리를 당신께로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117]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듯 친밀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스리기 어렵고,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는 대신 너무 지혜로워지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117.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39장 22–35절입니다.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를 짐승들의 학교로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여기서도 그분이 계속 그렇게 하시듯 말입니다. 말과 그 본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을 거슬러 높아지려 할 때 당신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은 원하시면 우리의 모든 말대꾸에 대답하실 마음도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짐승들로, 우리 집에 있는 말들로만이라도 확신하게 되면 충분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를 물리치시려고 멀리 가실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리와 들판과 집에 당신의 소송을 꽤 잘 변론할 변호사들을 두실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큰 웅변가들을 일으키지 않으시며, (내가 말했듯이) 짐승들을 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여기서 말의 본성을 교묘하게 논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그런 문체를 따르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무식한 자들에게도 알려진 것을 단순하게 내놓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깨닫는 데 많이 훈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천체와 별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도 큰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방식으로가 아니었듯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다면 유익을 얻을 사람이 적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해와 달과 나타나는 것에 대해 투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무 학식도 아무것도 없고 대단한 학자가 아니어도, 앞에서 해와 별들에 대해 말한 이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거기 천문학은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짐승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분은 이 같은 방식을 이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기 무지를 기꺼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는 것이 문제일 때에는 그것을 방패로 삼습니다. “아, 그것은 내 정신을 넘어선다. 그것은 내게

너무 교묘하다. 나는 거기 손댈 수 없다." 대부분이 그런 핑계를 대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친 자들도 당신께 배은망덕하고 악했으며 자기에게 아주 뚜렷했던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리라고 밝히십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에 대해 말할 때 그것들이 크고 작은 CO 429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그대로 단순하게 이야기됩니다. "그렇다, 말에게서 보이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사람에게 달렸느냐? 그리고 그런 그토록 거센 본성을 주는 것이?"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들이 억셀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싸움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위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그것들을 불타오르게 하는 격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팔과 큰 소리와 손발이 맞는다고 말할 정도이고, 심지어 그것들은 사람들을 대담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콧구멍에조차 무서움이 있고 그것이 그 자체로 무서운 짐승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 일의 작은 부분만 알게 되고 그분이 거기 당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펼치지 않으시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의 어떤 작은 표지와 표만 주셨다는 것을 볼 때, 그러니 그것을 잘 바라볼 때 사람들이 더 말대꾸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께 덤비겠습니까? 그들은 말 한 마리에게도 감히 대꾸하지 못하고 거기 감히 비비대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에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모든 말에서 단 한 방울만 알아보는 이 끝없는 능력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의 대담함과 그 힘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메뚜기처럼 놀라게 할 수 없고 그것이 창과 화살을 향해 뛰어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쓸데없는 말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대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드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대담함을

주는 것은 우리 멍청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너울을 우리 눈앞에 두기 때문에 저마다 그렇게 짐승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붙잡는다면, 우리가 모두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더는 교만도 오만도 보이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카로운 척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려고 모든 것을 우리 공상대로 깨달으려 하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말을 다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 안에 있는 덕을 내놓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끄심에 경탄하며 넋을 잃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들에게 당신의 손을 완전히 펼치지 않으셨고, 거기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으며, 거기 당신 섭리의 한 방울 같은 것만 두셨다는 데로 늘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잘 알았을 때, 우리가 말을 보고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다면 저마다 그 앞에서 달아날 것입니다. 그것은 CO 430 무서운 짐승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 싸움에서 드러나는 대담함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말에 대해 여기서 낱낱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우리 가르침에 적용해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들을 그렇게 길들이셔서 사람들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들의 섬김에 쓰이게 하시는 그분의 선하심도 새겨야 합니다. 본디 길들여지지 않고 심지어 싸움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은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 큰 용기를 그것에게서 거두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다스림받고 다루어지도록 자기를 맡기리라고 생각합니까?[118]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감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들에게 그런 대담함을 주시고 그것들을 그렇게 사납게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밝히신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말들을 쓰려고 그렇게 길들일 수 있고, 그것들이

118. 원문은 “lui eust esté“입니다. “lui eust osté“(그것에게서 거두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부리는 것, 수레를 끌고 땅을 갈게 하는 것, 사람들이 그 위에 타는 것을 견딜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의 특별한 증언도 주셨다고 결론지읍시다. 그러니 말들이 그렇게 다스림받도록 자기를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그러우신지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내가 다룬 이 가르침입니다. 곧 이것이 이 대담함을 누르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도록 부추김을 받을 때, 또는 어떤 일에서 그분께 반대하려 할 때, 우리는 짐승들에게 눈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단순한 음성에 순종하려고 우리 하나님께 잠잠히 귀 기울이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학교에 갈 만합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 덧붙이십니다. "네가 매에게 날개를 주었느냐? 그것이 해와 겨루러 갈 듯 남쪽을 향해 떠오를 때 네 명령으로 날겠느냐? 독수리가 너에게서 지어졌느냐? 네가 바위와 산의 탑에, 곧 높고 우뚝한 곳에 그것들의 둥지를 주느냐? 네가 자연의 그런 질서를 배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새끼들이 이미 피를 들이켜고 그것을 위해 태어났을 때, 네가 그것들을 그렇게 먹여지고 그런 젖으로 길러지는 데 익숙하게 하였느냐?" 독수리는 주검이 있는 곳에 있고, 멀리서 그것을 냄새 맡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이 그토록 날카로워서 여기저기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새 가운데 가장 생생하고 가장 날카로운 눈을 가진 새라는 것이 확실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독수리에게 그런 본성을 준 것이 너냐?"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나 아래로나 우리에게 거울들과 살아 있는 형상들을 내놓으시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를 CO 431 낮추도록 그분의 권능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와서 그분께 부딪칠 만큼 그토록 어리석고 미칠 때 그분이

우리를 물리치실 거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송을 변론하시거나 한마디 하시려고 입을 여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있는 그만큼의 피조물이 우리를 십만 번 부끄럽게 할 그만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모독으로 그분을 그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듯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그런 대담함을 가질 것이고, 우리 대담함으로 그분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분은 앞에 놓인 빗장을 넉넉히 가지실 것입니다. 땅의 짐승이든 공중의 새든 우리를 거슬러 증언하지 않을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송이 그분이 끼어드시지 않아도 피조물들로 변론되리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꾸민 모든 것이 우리 머리 위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꽤 쉬운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잘못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하다는 것은, 우리는 새들이 공중에 나는 것을 보고 짐승들이 여기 아래에서 걷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깨어나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이고, 마귀가 와서 우리 정신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원망과 대듦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대접받지 않으면 곧 다툽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여기서 하는 이 권고를 떠올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주 뚜렷하다고 넉넉히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이 쉽고 흔할수록 우리에게 핑계는 그만큼 적을 것이고, 누가 한마디 하지 않아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알려져야 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더 죄 있는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마다 알아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찌를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악함과 배은망덕 말고 무엇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굼뜨고 늘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야 할

것들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루는 것, 곧 저마다 그런 권고로 자기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그만큼 더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 하나가 그렇게 뛰어오르고 그런 꼿꼿함으로 솟아서 구름을 뚫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에 놀라는 것 이상일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그런 본성을 주지 않으셨다면 새들이 그렇게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새 한 마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아주 드러나는 것을 볼 때, CO 432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그분께 그분의 공과를 보여 드리려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작은 일 하나에서도 어리둥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피조물과 견줄 때 무슨 비율이 있고 무슨 가까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매 한 마리를 세상의 나머지 모두와 견주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피조물의 그토록 작은 부분이 우리를 놀라움으로 넋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모든 일을 온전히 헤아리고, 위로나 아래로나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두루 살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엄이 모든 하늘 위로 우리가 이를 수 없을 만큼 그토록 먼 거리로 더 높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귀가 우리를 그분께 찌르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원망하게 하려고 애쓸 때마다, 우리는 모두 머리를 숙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경의를 바치며, 더 나아가지 않고 눌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독수리의 본성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끼들이 이미 피를 들이켜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수리 가운데 일부는 새끼를 내던져서 새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검은 독수리만 새끼를 먹인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쓴 자들도 그 점에서 서로 다르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독수리가 새끼들이 해를 견

디지 못하고 눈이 넉넉히 강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사생아처럼 내던진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들에게서 배우는 이 모든 교묘함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독수리의 본성을 알려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내가 말했듯이) 그런 투박한 방식을 쓰셔서 우리에게 무지라는 아무 덮개나 핑계가 없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넉넉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독수리는 먹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들은 이미 피를 들이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한 마리가 그렇게 피를 먹고 피로 자란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보십시오, 거기 잔인함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 본성은 다른 데서 와야 합니다. 맹금과 다른 새들 사이에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별하셨고 우리에게 당신 섭리의 표지를 보여 주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배치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라는 것, 새들이 그 몸체에 대해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듯이 그것들이 가진 그런 기울어짐도 스스로 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것들에게 다른 데서 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위엄을 경배해야 하도록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말하건대 CO 433 가장 무식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여 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고, 우리에게 아주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그토록 멍청하고 짐승 같았을 때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수리가 주검 냄새를 맡는 곳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멀리서 썩은 고기 냄새를 맡고 거기서 먹이를 바라보며 그쪽으로 뛰어든다는 것을 덧붙였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 은밀한 움직임을 두셨다는 것을 압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기로 이끄시지 않고 거기 그분이 놀랍게 나타나시는 무엇인지 모를 것을 새기지 않으셨다면 독수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런 다양한 작품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를 갈면서도 "아, 여기 다스리시는 창조주가 계시다" 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승이 한 본성과 기울어짐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보다 더 흐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보기에) "다스리는 것은 자연이다" 하고 말할 그럴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철학자들조차 어디서나 잘 살피고 낱낱이 따져 본 뒤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일에서 그분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없애 버릴 자연을 꾸며 내는 데 자기의 모든 감각과 정신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점에서 그들을 이끌어 그들에게 크고 무서운 정죄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다양함을 볼 때, 곧 한 새는 이런 본성이고 다른 새는 저런 본성이며 짐승들도 그만큼 다양할 때, 모든 동물이 평탄한 길을 가고 모든 짐승에게서 고른 맞아떨어짐이 보인다면 그러겠듯이 "보라, 자연이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이 그러하다면 곧 "자연이다, 자연이다" 하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새는 두려움이 있고 다른 새는 없는 것을 볼 때,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이 더 잘 나타납니다. (보듯이) 비둘기는 더할 나위 없이 겁 많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매와 다른 맹금이 보입니다. 또 반대로 먹이 사냥에 빠지지 않을 아주 큰 다른 새들도 보입니다. 본보기를 들자면 백조를 보십시오. 그것들이 그렇게 썩은 고기를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것들이 독수리처럼 맹금입니까? 그러니 그런 다양함이 우리 눈앞에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더 뚜렷이 보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그만큼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새겨야 할 일입니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모든 남자가 한 얼굴을 가지고 모든 여자도 그러하며, 같은 키, 같은 빛깔, 같은 몸의 비율, 같은 몸가짐, 비슷한 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CO 434 당신 영의 은혜와 은사를 당신이 기뻐하시

는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빚는 것이 어머니 배이고, 우리에게 몸체와 모양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씨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경의를 바치려고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여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다양함이 있어서 어떤 이는 크고 어떤 이는 작으며, 몸가짐도 그토록 다르고, 어떤 이는 날카로운 정신을, 어떤 이는 둔한 정신을 가지며, 어떤 이는 말을 잘하는 큰 말솜씨를 가지고 어떤 이는 반쯤 벙어리인 것을 볼 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악하고 비뚤어진 것 이상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의 은사를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그분이시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여자가 소에게서 젖을 짰을 때 치즈에 마음대로 모양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배치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손이 거기서, 그렇습니다, 기적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 말고는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그런 다양함 속에서 눈멀지 않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토록 많은 것이 우리 앞에 떠올라서 하나는 이런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다른 모양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신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 오는 데 굼뜬 것을 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재촉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박차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정해진 악함으로 그분께 맞서고 그분께 대들며 "보면서도 나는 보지 않겠다" 하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로라도 앞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독수리가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 모인다고 말할 때 새겨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맹금이 먹이를 찾으러 가는 그 솜씨를 가지고, 심지어 독수리가 먹을 것이 있는 곳을 멀리서 냄새 맡는다면, 더 강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이 있다고 보여 주시는 곳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들이 썩을 음식을 위해 모이고 심지어 거기 달려가 그토록 수

고하는데, 우리 쪽에서 먹이가 우리에게 내놓일 때 그것을 내던지고 우리 생명이 있는 곳에 모일 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거스르는 데 독수리 말고 다른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내놓으시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을 큰 환난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방에서는 까마귀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 불쌍한 짐승들은 음식과 먹이를 찾는 이 본성의 기울어짐을 잘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어디서 우리 생명을 찾겠습니까? CO 4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우리가 거기 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것이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요해질 것이며, 당신의 실체와 능력으로 온전히 먹여져 만족하리라고 밝히실 때, 우리가 그토록 분별이 없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가지고도 게으르다면, 큰 날에 독수리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다룬 주된 것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결론을 내리시듯이 말입니다. "전능자와 다투는 것이 가르침이냐? 하나님을 바로잡는 자는 이것에 대답하라." 그러니 그것은 그토록 많은 것이 무슨 의도로 풀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지키시고 사람들이 당신을 헐뜯지 않도록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시면서, 별들과 땅의 농사에 대해 말씀하시고, 배 타는 방식에 대해 말씀하시며, 짐승들의 본성을 풀어 놓으시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으로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엉뚱한 논증을 찾으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다룬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내놓지 않고 그것을 논쟁하셨을 때보다 이렇게 당신의 의를 지키신 것이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결론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이 원하시면 우리가 지껄이게 두실 것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귀가 따가울 만큼 높이 외칠 수 없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 앞에 많은 성벽을 두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만큼의 피조물이 우리를 거슬러 일어나고 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을, 그리고 그의 인격 안에서 참지 못하거나 너무 높아지려는 모든 자를 물리치시려고 취하신 이 방식이 그만큼 더 알맞고, 그분이 앞에서 밝히신 것보다 더 나은 가르침의 수단을 취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결론을 잘 새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전능자와 다투는 자가 자기를 지혜롭다고 보이겠습니까? 물론 여기 적힌 말이 "가르치다"와 "바로잡다"를 다 뜻하므로(낱말 그대로는 "전능자와 다투는 것, 그것이 가르침이냐, 바로잡음이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소송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를 징계할 채비를 하느냐?" 그러나 완전히 반대로 그는 굳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지혜는 우리 자신을 징계할 줄 알고, 우리 비참을 알아 그것에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고 CO 436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을 만큼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의 참된 지혜가 이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자들은 완전히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그 뜻은 거기로 돌아올 것이고, 말씀에 차이가 없을 것이며, 가르침은 늘 한 과녁을 가질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그렇게 변론하려 할 때 그들은 생각이 짧을 뿐 아니라 분별과 이성이 완전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 깨닫도록 내가 말한 이 두 단계를 붙듭시다. 첫째로, 우리의 참된 지혜는 우리 자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이

여기거나 자기 분량을 넘어 손을 뻗거나 날뛰는 동안, 그는 자기를 파멸로 내던질 뿐이고 그 끝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은 것은 없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비참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고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얼마나 궁핍하고 없고 비어 있는지 보면서,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의의 샘이신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명과 그 딸린 것들을 그분에게서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바르게 가르침 받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다음에 우리의 모든 악한 욕심과 모든 악덕을 정죄하며 우리 본성에는 비뚤어짐과 부패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를 배웠을 때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었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 할 때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위에서 그 점을 이겨서, 우리를 하나님께 독살스럽게 하거나, 우리가 그분께 불만을 품거나, 그분을 불의하다고 고발하거나, 그분이 우리 식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성내게 한다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물약 같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 머리에 격분을 넣어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분해하고 재갈을 씹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데도 우리를 낮추는 대신 그분을 거슬러 우리를 내세우기를 그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징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119] 그러니 그것은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것, 곧 참되고 좋은 가르침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할 때 그것은 바른

119. 원문은 “nous condamner contre luy“입니다. 문맥상 “nous contremonter contre luy“(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다)에 가까운 뜻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줄 알 때 많은 것을 담는 점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CO 437 공상에 그토록 빠져 있고 그토록 고집 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바로잡으려 한다면 이것, 곧 그분이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에 대답해야 한다고 덧붙이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이 절로 좁혀서,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로잡는지 우리가 대답해야 할 것이고, 반대가 보이고 그것이 아주 뚜렷하니 우리에게 변론할 계기가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앞에서 풀어 놓으신 말씀들의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려 하셨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우리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모든 원망을 삼가고 입을 다물며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꾸짖으려고 손을 뻗지 않으려 하지 않을 때, 그래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거기 와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우리가 실컷 변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손을 뻗은 것에 원수를 갚으실 거리가 넉넉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무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이나 공중에 있는 새만큼, 바다에 있는 물고기만큼, 땅 위에 있는 짐승만큼 우리를 거스르는 변호사와 대리인을 가지실 것입니다. 요컨대 사람이 확신하게 되려고 자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가락 끝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리둥절해야 할 만큼 그분이 그토록 뛰어난 일꾼이시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 손톱이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전능자를 꾸짖는 자는 이것에 대답하라" 하고 말하는 이 말의 참되고 자연스러운 뜻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새겨야 합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꾸짖으려는 것은 너무 천하고 엄청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누가 그것을 그만둡니까? 우리는 그런 삼감을 가진 척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너무 거칠거나 일이 우리 입맛대로 되지 않을 때 성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냄은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고 세상에 보이는 소란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만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선한 자들이 박해받고 악인들이 다스릴 때에도 그분이 그 수단으로 우리 인내를 단련하려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모든 헛됨에서 씻으려 하시며, 요컨대 세상에 대해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알려진다면, 교회가 평화와 안식 속에 있지 않고, 선한 자들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며, 어떤 이는 병에, 어떤 이는 가난에 눌리고, 그 사이에 악인들이 잘나가는 것을 보고 분해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만둘 것입니다. CO 438 말하건대 그것을 알면 그때 우리는 겸손으로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독이 올라서 이 사이로만이라도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기를 그칠 수 없을 때, 묻건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실 정당한 이유가 없으신 것처럼 그분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시고 불의하시다고 입을 벌려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120]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모두에게 속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꾸짖으려 한다면 그분의 모든 일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든 감각을 쏟고 저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봅시다. 묻건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두루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과 만물의 창조에서 하시고 배치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그분께 대답하고 말대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넉넉한 어리석음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사람들은 방탕하고, 마귀도 그들을 그렇게 눈멀게 해서 그들은 자기 창조주께 대드는

120. 원문은 “cruel et iuste“입니다. 문맥상 “cruel et iniuste“(잔인하고 불의하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데 아무 거리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점으로 와야 합니다. 말하건대 우리가 세워진 그대로의 자연 질서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대로의 그분의 능력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지혜로 하시고 정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분의 선하심과 지혜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분의 의를 더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질 때 그들은 아주 멍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 가르침에서 잘 유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실 수 있는 것에 대답하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느끼는 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이미 말한 이 지혜, 곧 우리 자신을 바로잡는 것에 달려갑시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고 자기 비참을 느꼈을 때, 더는 자기를 기뻐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고, 그들은 더는 자기가 이만큼 저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분해하고 자기 더러움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시편에서 말하는 제사, 곧 상한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시 51:17).[121] 우리가 거기 이르렀을 때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날뛰고 CO 439 원하는 만큼 제멋대로 몸을 던지게 두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망치기만 할 것이고, 잘 높아진 뒤에 결국 아래로 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낮추면서 우리가 좋은 기초와 받침을 가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리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실 때 그분의

121. 원문에는 "시편 51편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피조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높여야 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지혜도 이것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 피조물의 다양함을 바라보려고 위아래를 볼 때, 그분의 섭리를 확신하려고 늘 그분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한 번 당신께로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분 손 아래 아주 잠잠히 머물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다스림받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워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우리를 굳게 하셔서, 무엇이 있든 우리가 결코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려고 손을 뻗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4편

욥기 39–40장 설교 1

CO 35:440–45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내가 주께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니 다시 대답하지 않겠고, 두 번 하였으니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회오리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물어보라.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네가 내 판단을 뒤엎겠느냐?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네게 하나님 같은 팔이 있느냐? 그런 목소리로 천둥을 울리겠느냐? 영광과 위엄으로 옷 입고, 뛰어나게 되어 귀한 옷을 입어 보라. 네 진노의 격분을 쏟고,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 그를 낮추어 보라. (욥 40:3–11)

CO 440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바른 겸손으로 가르치시려고 회오리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122] 그분의 음성만으로도 우리를 넉넉히 놀라게 해야 하는데도, 그분이 이 교만을 꺾으시려고 어떤 수단을 쓰셔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내지 못하실 때, 그것으로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굳은지 더 잘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겸손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나오고, 악에 고집 센 자들은 그분이 그들을 거기로 이끌고 억지로 하게 하듯 하는 경고와 경험을 주셔도 결코 스스로 원해서 그분 아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다스

122.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39장 36절–40장 6절입니다.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리시는 자들에게조차 이 격렬한 수단을 쓰실 때, 그 점에서 그분은 우리 본성에 있는 악함과 비뚤어짐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 하십니다. 그분이 천둥 치시고 소리 내셔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늘 멍청하게 머물러서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분의 위엄도 능력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열매가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욥이 자기가 비천한 자이고 잠잠해야 하며 입이 막혔다고 대답했다고 말할 때, 그 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이 당신을 높이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회오리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효과 없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욥이 어린양처럼 길들여졌고, 더는 말대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앞에서 대들었고 자기 소송을 지키며 하나님을 거슬러 다투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꺾였고, 그는 더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말을 내놓았지만 그는 완전히 물러나고 그만둡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격렬하게 천둥 치셨을 때, 처음 보기에는 그것을 거칠게 여겨도 그것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말하건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셔야 합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는 박차에 둔하고 쉽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본디 있는 교만을 꺾으려면 큰 격렬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오리에서처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을 알고 아주 잠잠해지도록 욥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핑계도 없다는 것도 새깁시다. 그리고 그것은 새길 만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꺾고 당신께로 돌이키시려고 얼마나 매섭고 거치신지 날마다 보일 것인데, 그 사이에 그들은 거기서 아무 유익도 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 CO 441 병을 보내시고 다른 이를 가난으로 징계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회오리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분은 우리 머리를 세게 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고치는 자는 아주 적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거슬러 투덜거리고, 다른 이들은 대드는 사나운

격분을 가지며, 다른 이들은 고집 세고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욥의 본보기가 그런 멍청함과 고집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한동안 참지 못했고 그를 휩쓸어 가는 어떤 격동이 그 안에 있었다 해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이 우렁찬 음성을 들었고, 이 회오리가 그에게 어떤 두려움을 일으켜서 그는 자기에게 침묵을 명하며 자기를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로 세우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렬하셨고 우리를 겁주신 뒤에도 우리가 늘 야수로 머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비싸게 치이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해도 거기 머물지 맙시다. 우리가 첫 매에 하나님께 우리를 두지 못합니까? 적어도 그분이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거의 억지로 우리를 당신께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 고집 부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수단을 쓰신다면 거기 맞서지 맙시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우리는 그분 손 아래 구렁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를 참고 견디기를 배웁시다. 그분이 그 수단으로 우리를 당신께 복종하도록 준비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야수에서 양과 어린양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으니, 그런 준비를 쓰라리게 견디지 말고 욥의 본보기를 따라 “주님,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고 말합시다. 그런데 물론 이 말이 대단한 것을 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오만을 잘 안다면, 욥이 자기가 비천한 자라고 말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불쌍한 피조물이고, 우리 근원은 흙이며, 우리는 딱할 만큼 연약하고,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연약함이 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자기를 높이 여

기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 지금 처지가 무엇인지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기억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취한 것 같아서 자기가 큰 값어치가 있다고 믿고, 상상과 공상으로 자기에게 존귀함을 돌립니다. 그러니 누가 참으로, 꾸밈없이 자기를 알아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 안에 자기를 CO 442 내세울 까닭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고, 보십시오,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감동받을 때까지는 결코 그런 이치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는 동안에는 자기를 높이 여길 계기를 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만 못하냐?"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하는 이 견줌이 그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이 늘 자기가 무엇인지 모를 대단한 것이라고 여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오고 그분이 계신 그대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품었던 이 모든 오만은 사라지고 흩어져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가난을 살피는 데 들어가고, 아무도 더는 어떤 어리석은 공상에 속지 않을 만큼 우리 자신을 없앨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아, 나는 티끌과 재일 뿐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우리가 그분을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에도 거의 모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선과 꾸밈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느낄 때까지는 그것이 결코 마음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적힌 순서를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께서 회오리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뒤에 욥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말할 대담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더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덕을 무엇이라도 귀히 여길 만큼 어리석지 않도록 잘 살핍시다. 불쌍한 교황주

의자들이 자유의지를 상상하고 낙원을 얻으려고 공로를 세우며 하나님을 자기에게 빚진 자로 만든다고 여겨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펼치시는 한 사람들의 비참을 드러내는 복음의 밝음을 결코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불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결코 느끼지 못해서 그런 속임수에 속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가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 사이에 우리 더러움을 드러내시며 우리 안에 온갖 가증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시니, 우리는 더는 그런 헛꿈에 매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 안의 모든 교만이 내려놓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순수하게 가르침 받은 자들은 자기를 없애는 이 점까지 지혜로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겸손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온갖 저주밖에 없고, 그분이 당신의 CO 443 자비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잃어지고 구렁에 빠졌으리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를 그 삼감으로, 곧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완전히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데로 이끕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욥은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고, 한 번 말했으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고, 그렇습니다, 두 번 말했으면 아무것도 보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손으로 입을 가리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더 나아가기를 그만둔다는 표시와 단언입니다. 이 말투가 성경에 자주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육이 말하고 싶게 우리를 간질일 때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을 눌러야 하고, 우리를 붙들려고 거기 부리망이나 고삐를 두듯 그것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디 그토록 지혜로워서 나쁘게 말하려는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손으로 입을 가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원해서 자기를 억제할 것이고, 아무 막음도 빗장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가 손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늘 우리를 너무 서둘러 말하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욕심과 정욕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는 하나님을 거슬러 무엇인지 모를 아무 쓸모 없는 것을 던지려고 늘 날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크고 아주 나쁘고 해로운 악덕을 경고받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고 너무 교묘해지려 하고, 헛된 핑계로 우리 비참을 덮으려고 와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향하고 완전히 기울어 있는 곳이 이것입니다. 곧 그들은 위선으로 자기를 덮을 것이고, 이치에 이끌리는 것을 견디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정죄할 것이며, 늘 어떤 거짓을 가지고 핑계를 쓸 것이고, 심지어 결국 모독을 쏟아 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독 있는 혀, 거짓과 허위에 완전히 절여진 혀를 가질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슬러 넘쳐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언짢아할 까닭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사람들이 손을 입 앞에 두어야 했다는 이 말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쁘게 말하는 재빠름을 압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욥과 견줄 때에도, 그가 애쓰지 않고는 잠잠할 수 없었다면, 아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유익을 얻었다는 것과는 아주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첫째로, 사람들은 말해야 할 때 늘 자기를 의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의 본성이 늘 그들을 나쁘게 말하도록 떠민다는 것, 그들의 혀가 거짓과 위선의 가게일 뿐이라는 것, CO 444 그리고 결국 거기 독 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말입니다. 시편에서 고쳐지지 않은 자들의 혀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시 140:3).[123]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거기서는 저주와 쓴 것밖에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를 누르기를 배우되, 우리

123. 원문에는 “시편 140편 4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안에 너무 익숙한 악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이 삼감과 순종에 우리를 두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토록 쉽게 나쁘게 말하므로 우리는 그런 악덕을 바로잡으려고 애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알고 유죄를 받아들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처방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니 욥이 손을 입 앞에 두었습니까? 다른 거룩한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점에서 그들을 따릅시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도록 부추김을 받을 때, 진리를 꾸미고 그것을 거짓으로 바꿀 꽤 교묘한 꾀가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런 악함에 맞서고, 그것이 비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죄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 악과 싸웁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손을 입 앞에 둡시다. 곧 우리 자신에게 빗장을 지릅시다. 우리는 나쁜 짐승처럼 고삐를 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자신을 가까이 살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거나, 어떤 이는 쓰라려지고 어떤 이는 성내며 어떤 이는 독이 오르게 하는 어떤 다른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나쁘게 말하도록 부추김을 받는다면, 우리를 누릅시다.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늘 다른 쪽으로 기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 맞서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긴다 해도 정죄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품은 이 공상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쁘고 악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악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누르려고 애쓰는 것을 보실 때 당신의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기울어짐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받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너그러우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날 수 있는 나쁜 말과 모독과 원망을 물리칠 용기를 그만큼 더 가져야 합니다.

욥이 한 번 말하고 그만두며, 그렇습니다, 두 번 말하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나쁘게 말하

기를 너무 계속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많은 이들은 한 번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들어 멀리 헤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듯 그들은 갑절 내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CO 445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계속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 밀고 나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자마자 우리는 고삐를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오랫동안 잘못하고 악을 거듭했다 해도, 어리석은 말을 아무렇게나 던진 뒤에 두 번 세 번 덧붙였다 해도, 그것 때문에 심술을 부리거나 하나님께 독이 오르지 말고, 세 번 네 번 자기를 정죄하고 그다음에 바른길로 돌아오십시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밀고 나갔다 해도, 우리를 돌이키기에 늘 알맞은 때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많은 계기가 있다 해도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추어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욥은 그럴듯한 빛깔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기 소송을 지키려고 이유 하나만 댄 것이 아니라 많은 이유를 가졌고, 여러 가지로 자기 말을 거듭해서 넉넉한 논거를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그것을 확신했고 이겨서 나오기로 작정한 것처럼 말했을 것입니다. 한 조목을 내세웠다면 다른 조목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말대꾸와,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고 가졌던 이 모든 그럴듯한 겉모습을 버립니다. “내가 한 번 두 번 말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럴듯한 덮개가 있고 우리 소송을 지킬 아주 좋고 근거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더는 우리 헛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추어올리지 맙시다. 결국 우리는 앞에서 다룬 것, 곧 하나님께서 한 조목에 대해 천 조목을 가지시리라는 것으로 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다툼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머리에 넣을 모든 공상에 굳게 맞섭시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대들게 하려 하고, 우리를 재촉하며 원망과 반역으로 불붙인다면, 우리에게 좋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대꾸가 백 가지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오리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욥에게 "용사처럼 네 허리를 동이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안에서 꺾였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욥에게 무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에게 도전하시며 그의 교만을 조롱하시는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나타나지 않는 어떤 교만의 찌꺼기가 숨어 있고, 그분이 우리를 거기서 씻으셔야 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욥이 자기가 불쌍한 피조물, CO 446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꾸밈을 쓰지 않았고, 마음이 담은 대로 말했다는 것은 아주 확실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는 온전히 길들여졌고, 보십시오, 그는 온순하고 겸손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두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시 징계받고 더 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 모든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말했듯이) 늘 어떤 뒷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끌리고 그분께 자기를 두기를 구한다 해도, 그래도 그들은 첫 매에 교만에서 온전히 씻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 여전히 그분이 바로잡으셔야 할 어떤 숨은 병을 아십니다. 보십시오, 아주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셨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것이 정당하다고 고백하고 우리 죄를 인정했는데도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매섭게 대하기를 계속하시면 우리는 놀라기 때문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엄하셔야 하는가? 그분은 내가 나를 낮추었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나는 내 허물을, 그렇다, 내 허물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

하며 나를 고발한다. 그것으로 그분께 충분하지 않은가? 그분이 무엇을 더 구하시는가?" 그러니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잘못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러나 욥을 봅시다.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느꼈고, 더는 말대꾸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둥 치시고 회오리로 나타나시며 그를 겁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꺾인 뒤에도 자기를 더 잘 알아보고 자기 비참을 느끼며 모든 반역을 잊도록 여전히 놀랄 필요가 있다면, 아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위선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뻔뻔함밖에 없어서 입을 닦으며 "그렇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는 자가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시시덕거리며, 그렇습니다, 조롱하듯 그 말을 했으면, 첫 매에 의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아주 섬세하게 대접받지 않으면 아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우리 죄를 느꼈고,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느꼈으며, 꾸밈없이 그것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 모든 통치를 가지시기를 구하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고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숨은 악이 여전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교만을 보지 않으니 더는 교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 처방하지 않으신다면 내일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셨고 우리가 더는 견딜 수 없을 때 그분이 CO 447 회오리에서처럼, 천둥에서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놀라지 맙시다.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 허물이 거기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습니다, 순간마다 거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며 예방약을 쓰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수단으로 우리 구원을 앞당기시고 마련하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참고 견딥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루시는 말씀으로 옵시다. 먼저 그분은 욥에게 도전하시며 "재주 있고 아주 용감한 사람처럼 네 허리를 걷어 올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히브리어로는 한 낱말뿐이지만 그것은 덕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은 "네 모든 용맹을 보여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 한 사람만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외 없이 온 인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힘을 가져오고, 원하는 만큼 채비하고, 그들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거슬러 무엇을 얻겠느냐?"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자들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능력과 같은 어떤 능력도 가져올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완전히 같게 만들려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께서 더는 그들 위에 우월함을 가지지 않으실 만큼 그토록 높이 오르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미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께 찌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 허물을 핑계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분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분과 싸움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분의 상대편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가 꾀하는 것을 해내겠다고 주제넘게 굴 것이고, 결코 붙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무모함이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싸우기까지 휩쓸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상상한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크고 작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와서 그분을 거슬러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미침이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네 허리를 걷어 올려라" 하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CO 448 힘을 믿고 주제넘게 구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우리가 의롭다고 내세우고 지혜로워지려 할 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대담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을 여기기 때문 말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덕이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아무도 결코 그렇게 하나님께 덤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히 여기서 사람의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연기일 뿐이라는 것, 그들이 자기가 억세다고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아신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분은 꾸민 겸손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듯이 많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려 하면서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곧 마음이 담지 않은 것을 입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이 겸손의 덕을 잘 설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아, 나는 불쌍한 죄인이다" 하고 말할 때 완전히 어긋나는 말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고, 죄인이라 해도 자기를 속량할 속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은 두꺼비처럼 교만으로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유죄를 받아들이는 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오만으로 가득 찬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컨대 사람들은 자기가 큰 값어치가 있다고 확신하므로 조롱으로가 아니면 겸손의 표지를 보일 수 없습니다. 이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잘 생각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거슬러 일어서려고 무장하거나 채비하는 것이 더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기는 어떤 이점을 얻으시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벗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만 알면, 그때 우리는 그분을 거슬러 일어설 힘도 덕도 더는 없다는 것을 잘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리를 걷어 올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나라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고, 싸움이나 길을 떠날 때 더 날래지려고 허리를 걷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내세우려고 손을 뻗지 맙시다. 그것은 늘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을 그만큼 더 꾸짖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정죄하면서 우리 소송을 이깁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기를 배웠을 때 그분에게서 사함받으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너무 강한 그분의 손에 부딪치려고 교만으로 거기 간다면, 우리는 CO 449 그 아래서 깨지고 부서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네가 내 판단을 뒤엎고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정죄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세운다면, 네가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꺾을 수 있는지 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거슬러 변론하셔야 할 소송, 곧 누가 더 의로우냐는 것을 맡으십니다. 욥의 의도가 그렇게 천하게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그토록 가증한 말을 생각하느니 차라리 십만 번 죽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고 그 공상을 머리에 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자기 소송을 지키려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뒤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하고, 성령께서 여기 두시는 것은 쓸데없는 되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소송을 지키려고 나서자마자, 그렇습니다, 비스듬히나마 하나님을 정죄하려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124] 그가 그것을 작정하고 품지 않았다 해도 그래도 그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두 정죄받을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실 수 없고 재판관이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안에 어떤 의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재판관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한 번 우리를 모두 정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의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의가 꺾여야 합니다. 곧 우리 안에 죄악밖에 없고, 우리에게 칭찬할 만한 덕이 한 알도 없으며, 악취와 더러움과 썩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기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판관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송을 지키려 하고 자기와 다른 이들에게 자기가 순결하고 죄 없다고 믿게 하려는 자는 누구든, 그에게 달린 만큼 하나님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을 잔인하다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도록 모든 입이 막히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3장(19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우리 쪽에서 입을 열고 와서 우리 소송을 변론하려고 그분을 거슬러 말대꾸한다면, 하나님께 더는 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욥에게 그가 하나님의 CO 450 판단을 뒤엎으려 했고 자기를 의롭다 하면서 그분을 정죄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124. 원문은 “s’ il ostoit iuste“입니다. “s’ il estoit iuste“(의로운 것처럼)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을 봅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거룩함을 가졌고, 시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고 늘 단언했으며 꾸밈없이 그렇게 하기도 했던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아, 그토록 연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처럼 오래전부터 하나님 두려움 안에서 가르침 받았습니까? 그런 실천을 가졌습니까? 거기 힘썼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것 같은 그런 앎을 가졌습니까? 그런 겸손을 가졌습니까? 아아, 아주 멉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핑계하려 할 만큼 그런 극단까지 잘못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 원망이 어떠한지 봅시다. 우리가 거기 어떻게 나아갑니까? 야수처럼 나아가고, 우리 격정은 딱할 만큼 터무니없습니다.[125]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는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시도록 그분의 의를 뒤엎으려 애쓰고, 우리 의를 지키려 하면서 그분을 정죄한다고 우리를 꾸짖는 것은 정당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변론하려 하고 좋은 소송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조여 붙드는 것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아아,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을 거슬러 이렇게 높아지는가? 내가 그분의 의를 벗기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의의 온전한 완전함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넘쳐흘러 하나님을 거슬러 일어섰을 때, 그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이 내게 큰 부끄러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십시오, 우리를 붙들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고 그분 손에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때마다 이것을 압시다. 곧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분의 의를 벗기고 그분이 더는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시게 하려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 들어갑시다. 그러니 그런 모독을 조심하고, 거기까지 가는 것을 끔찍하게 여깁시다. 우리가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기 어려운 깊은 심

125. 원문은 "bestes ouvrages"입니다. "bestes sauvages"(야수)로 보고 옮겼습니다.

연 같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더는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 아래 우리를 낮추도록 힘씁시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나머지는 내일로 미룹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5편

욥기 40장 설교 2

CO 35:451–462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교만한 자들에게 눈을 던져 그들을 짓누르고, 모든 악인을 구렁에 빠뜨려 그 자리에서 쓸어 내어 보라. 그들을 먼지 속에 숨기고 그 얼굴을 어둠 속에 묶어 보라. 그러면 나도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지은 베헤못을. 그것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기운은 배의 배꼽에 있다. 그것은 백향목처럼 꼬리를 세우고 그 생식기의 힘줄은 얽혀 있다. 그 뼈는 놋 같고 그 잔뼈는 쇠 막대기 같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의 으뜸이니, 그것을 지으신 이가 그것을 향해 칼을 던지신다. 산들이 그것에게 풀을 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거기서 뛰논다. 그것은 갈대 사이와 축축한 곳에 산다. 그늘이 그것을 덮고 시내의 버드나무가 그것을 가린다. 보라, 그것은 강을 들이켜도 놀라지 않고, 요단이 제 목구멍으로 지나가리라고 믿는다. 사람이 그것을 낚싯바늘로 그 코를 꿰어 잡고 찌르겠느냐? (욥 40:12–24)

이 설교는 9–11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451 우리는 어제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분해할 때 하나님을 거슬러 소송을 일으키고, 그분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126]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사람이 자기를 핑계하려 하면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 일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소송을 이기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126.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40장 4–19절입니다.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가져와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과 같다는 것과는 아주 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견주어 우리가 무엇인지 권고하여, 우리 수다를 낮추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겸손으로 이끌어야 할 것은 자기 처지를 바라보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어떠한지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단순히 바라본다면 여전히 주제넘게 굴고 어떤 헛된 신뢰 속에서 늘 높아지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높은 곳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기에게로 내려올 때, 보십시오, 그들은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러니 "네 팔이 하나님의 팔 같으냐? 네가 그분 같은 목소리로 울리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팔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끝없는 권능에 견주어 무엇을 찾겠습니까? 물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눈을 더 멀리 던지지 않을 때 자기 힘이 크다고 여길 만큼 CO 452 꽤 어리석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나머지는 모두 없어진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 잘 감동시키도록, 욥에게 영광과 장엄과 위엄으로 옷 입어 보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이 보여 주듯이) 하늘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황제나 임금의 겉옷 말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을 바라볼 때 공경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꾸며서 그것이 마땅하고 받을 만한 대로 우리에게 경배받게 하는 데 쓰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옷을 찾으러 가 봅시다. 재단사나 수놓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나타나는 영광 같은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려면 어디서 그런 재료를 찾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원망하고 그분의 상대편이 되며 그분을 자기들에게 맞서게 할 만큼 눈멀고 자기를 잊을 때, 그들은 아주 정신 나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정죄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요컨대 여기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팔에 대해 말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 풀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팔은 그 자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팔이나 손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온 본질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내가 말했듯이) 하늘이 그분의 옷입니다. 때로는 하늘을 그분의 보좌라고 부르지만, 아울러 그것이 그분 위엄의 보이는 모습 같다고도 말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분의 본질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끝없는 위엄이 있다는 증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큼 그토록 높이 오르거나 이를 수 없다 해도, 그분이 당신을 증언 없이 두지 않으시고 유익한 만큼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시니, 말하건대 그분을, 그렇습니다, 그분의 피조물에서 바라보기를 배우고, 모든 것을 이 쓰임에, 곧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데 쓰기를 배웁시다.

CO 453 그 밖에 이 우렁찬 목소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관해서는, 물론 사람들은 너무 크게 외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하고 그분께 대들려고 혀를 가는 것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시편에서는 악인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하고, 어떤 이를 거짓으로 고발하고, 다른 이에게 도전하고, 배신과 악한 술책을 부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주둥이를 쳐들고 하나님께 덤벼서, 그들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엄을 거슬러 감히 손을 뻗을 만큼 그러하다고 말합니다(시 73:9).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그들을 잘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천둥이 하나님의 음성

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시편 29편에서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천둥이 산들을 울리고, 공중이 갈라지는 것 같고, 땅이 떨고, 나무들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놀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거슬러 더 말하겠다고 주제넘게 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실 목소리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청껏 높이 외친다 해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를 갈아도 들리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원망은 내려놓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천둥 치지 않으신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시면서 우리 입을 막으셔야 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외침은 그분에게서 잘 꺼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여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그 말씀의 힘으로 붙들려 있듯이,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혀뿐 아니라 정신과 우리의 모든 덕에서 모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방식을 가지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거슬러 대들려 할 때 아무 귀 기울임도 받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원해서 잠잠하기를 배우고, 어제의 공과, 곧 손을 입에 대는 것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본디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는 이 대담함을 가졌다 해도, 이 마귀 같은 교만에 맞섭시다. 우리 안에 온갖 가난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단순히 영광을 돌리기를 배웁시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원해서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의 이 음성이 더는 우리에게 두렵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입을 여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이 마귀를 거슬러 자랑하고 죽음에 대들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의 자녀라고 자처할 수 있는 이 대담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했을 때 입이 막혔고, 우리가 CO 454 아무것도 아니며 온갖 헛됨

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입이 막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우리 다툼을 지키지 않으며, 스스로 유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당신 앞에서도 말할 자유를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기 거리낌 없이 와서 그분을 부르며, 우리 목소리가 천사들에게 실려 그분의 보좌 앞에 가고 거기서 받아들여지고 들리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고백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없애려고 단순히 잠잠한 자들이 얻는 것이 이것입니다. 곧 밝혀진 대로 그들이 입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다를 떨려는 자들, 자기 의를 지키려고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두려운지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외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를 갈아도 그들을 부수실 것이고, 그때 그들의 모든 외침은 그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너무 무서운 목소리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 뒤에 사람들을 낮추려고 내놓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셔서, 그들이 교만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없앨 수 있는지, 모든 악인을 쓸어 낼 수 있는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자기 안에 높아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거슬러 무슨 다툼이라도 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늘 내가 다룬 이 견줌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신지, 그분의 본성이 어떠하고 그분의 직무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반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러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영광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토록 많은 비참에도 그만큼 더 큰 빛을 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가 당신의 눈길 하나로 모든 교만한 자를 구렁에 빠뜨리고 악인들을 멸절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잘나가고 승리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그들이 땅에서 쓸려 나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께 돌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원수들을 없애고 특히 악인들을 없앨 눈길이 있습니까? 그 밖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했듯이) 절대적인 권능이 아니라 당신의 의와 이어진 권능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래서 특히 그분은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잘 새깁시다. 곧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로 악인들을 멸하고 망하게 하실 수 있으니 당신을 높이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의 피조물들을 아끼시고 그 능력을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에게만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CO 455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분은 당신의 의가 그 가운데서 알려지기를 원하시고, 사람들이 (일이 보여 주듯이) 그것이 당신의 위엄에 복종하고 매이는 모든 자의 욕심을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그분은 자기를 너무 주제넘게 여기고 교만해지며, 말대꾸와 반대를 일삼아 하나님을 자기들의 죽을 원수가 되시게 하는 자들 위에 벼락을 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소리에 대해 말했듯이, 이제 우리는 눈과 눈길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 당신의 얼굴을 보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쁨과 복과 구원도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고 말하듯이 말입니다(시 80:3).[127]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우리의 모든 만족, 우리의 모든 바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바랄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길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고 우리에게서 숨으실 때 우리는 잃어지고 절망한 것 같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 때 말고는 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아 주시는 동안에는 기뻐할 거리

127. 원문에는 "시편 80편 4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가 있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면 우리는 놀라고, 까닭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먹이로 내맡겨진 것 같고, 십만 가지 죽음이 우리를 둘러싸며, 아무 처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이 바랄 만한 것임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갖 겸손으로, 그리고 그분께 붙으려는 용기와 참된 마음으로 그분께 올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말하듯 우리가 눈썹을 치켜올리고 놋 이마를 가지며, 그분을 무시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려고 부풀어 있다면, 그분은 다른 눈으로 우리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는 우리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렁에 빠뜨리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분을 거슬러 오만한 눈길을 가지려 할 때, 그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 내는 데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는 말, 곧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보실 때 그것은 그들을 완전히 구렁에 빠뜨리려는 것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쁜 눈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며, 그분께 경의를 바칩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찾고, 우리가 거기서 기쁨의 온전한 완전함을 가지며 쉴 참된 만족을 가지도록 그분께 그렇게 보아 주심을 받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가 (성경이 자주 말하듯이) 높아지려는 자들을 뒤엎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CO 456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하고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분량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를 낮추도록 자기 작음을 알지 못하며, 오히려 크게 되려는 모든 자를 거슬러 죽음의 화해할 수 없는 전쟁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주치셔서 그들이 서로 부딪쳐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것이

잘 알려진다면 우리를 겸손으로 이끄는 데 더는 그토록 많은 설교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땅의 벌레들이 작정하고 와서 하나님을 거슬러 싸운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주제넘게 여기는 자들, 자기가 무엇인가 값어치 있다고 여기는 자들, 자기가 지혜롭거나 덕 있거나 의롭다고 믿는 자들, 말하건대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매한가지입니다. 일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울러 하늘에 부딪치지 않고는 자기 안에서 자기를 의롭다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분의 진노를 자기에게 불러일으킨다는 이 가르침을 잘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삼감과 단순함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내주시려고 물러나셔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은 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에 귀 기울여 거기 우리를 두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눈길이 교만한 자들 위에 있어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쓸어 내고, 온유한 자들만 영원한 유업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에서 더 잘 유익을 얻도록 교만한 자들이 누구인지 잘 새깁시다. 교만은 사람들에게 늘 알려져서 정죄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자기 덕을 믿는 자, 누구든 자기 의나 지혜를 주제넘게 여기는 자, 누구든 자기 크기와 신용에 취한 자, 누구든 (요컨대) 자기 분량을 넘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분량을 넘습니까? 자기에게 좋은 것이 한 방울이라도 있다고 여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진 것처럼 될 때까지는 우리 안에 삼감도 겸손도 없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입히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그분께 대들려고 그분을 거슬러 뿔을 쳐들게

하지 않게 합시다. 우리에게 좋고 아주 날카로운 정신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분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높아질 계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가장 큰 자는 작은 자들을 섬기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반열에 두시려고 영예롭게 하신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된다고 여기거나, CO 457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주제넘음에 부풀어 우리 이웃을 업신여길 때,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대들고 우리를 거슬러 그분의 원수 갚음을 불러일으키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 상대로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고 우리를 높이는 아무 주제넘음도 품지 않기를 배웁시다. 오히려 요컨대 간단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예로 다른 이들 위에 높이셨거나 어떤 덕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압시다. 그 밖에 우리 이웃에게 잘못하거나,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 적어도 같은 모양과 본성으로 지어진 자들을 업신여기기를 삼가며 다정해집시다.

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의 직무가 당신의 눈길로 사람들의 모든 오만을 누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울러 악인들을 덧붙이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분이 악인들의 원수시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악으로 넘쳐흐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므로) 그들 안에서 교만과 오만이 다스리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잊고 자기 덕에 대해 엄청난 것을 믿는 이 높은 자들에 대해 명시적으로 더 길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교만이 없다면, 그들은 잠잠히 머물 것이고 그렇게 자기 욕심에 고삐를 늦추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이웃을 거슬러 능욕과 폭력을 쓸 때, 어떤 이를 노략하고

다른 이의 재산을 빼앗으며 온갖 악의를 쓸 때, 교만이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죽을 자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표지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지나가기만 할 뿐이고 자기 생명이 연약하고 덧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그 생각 하나로 붙들리리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넘쳐흐를 때 그들은 홀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처지가 무엇인지 더는 알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할 때(합 2:4) 반대로 모든 높음이 꺾이리라고 선언합니다. 그가 "모든 높음"으로 무엇을 알아듣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반역과 사람들을 거스르는 악의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높음"이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넘쳐흘러 자기 하나님께 대들 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친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멸절하시느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 목에 고삐를 걸쳐 두셔서 그들이 마음껏 승리를 즐기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각에 모든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하신다고 말할 만큼 그 CO 458 기한을 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알맞은 때에 말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들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멋대로 하게 두시는 것 같으며, 심지어 그들이 그분께 자기를 누를 권능이 없는 것처럼 비웃는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당신의 눈길 하나로 이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쓸어 내는 당신께 속한 이 직무를 늘 가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듯 때로 그분은 신자들에게서 숨으십니다. 그분이 결코 그들을 잊으시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그것을 실제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고 심지어 매를 느끼며 요컨대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사이

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려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고 외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이해에 따라 우리가 할 하소연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독을 내뿜게 두시고 그들이 저지르는 그토록 많은 폭력과 엄청난 짓을 견디실 때, 그분이 그들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눈을 뜨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때 그들은 구렁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한동안 참아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른 체하신다면,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이 그들을 멸절하시려고 진노 가운데 그들을 보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압시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두 가지로 쓰여야 합니다. 신자들은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매에 그들을 악인들의 폭정에서 건지지 않으셔도, 그래도 그들은 그분 안에서 쉴 계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직무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거슬러 높아진다 해도,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소를 살찌우듯 그들을 살찌우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잡아야 하는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들과 모든 악인이 망할 날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먼저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들과 악인들을 멸절하기를 미루시는 것을 볼 때 참아야 하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 사이에 교만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실 때 우리 자신을 추어올릴까 두려워합시다. 우리가 그분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를 참아 주시고 모른 체하신다는 핑계로 이것이든 저것이든 꾀할 더 큰 대담함을 거두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분께 보아 주심을 받을 것이고, 그때 우리 허물이 우리의 더 큰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CO 459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조심 속에 걷기를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것도 그 점에서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비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들의 처지가 선한 자들의 처지보다 나아 보일 때에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늘 그것을 소망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128]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눈길 하나로 악인들을 구렁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실 때 하실 수 있듯이 우리가 땅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씻어 낼 수 있겠습니까? 아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러니 세상의 재판관으로 나타나시고, 모든 권능을 손에 가지시며, 흠잡을 데 없는 온갖 질서와 공평으로 그것을 쓰시는 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일이 우리에게 자주 어지럽고 뒤죽박죽으로 보여도, 그래도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을 늘 바라보기를 그치지 맙시다. 우리 눈이 깨끗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분별하는 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 자체로 계신 그대로, 그리고 그분이 실제와 경험으로 당신을 밝히시는 대로 알았을 때,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와 우리 약함을 살펴서 우리를 낮추고, 당신 안에 의와 능력의 온전한 완전함을 가지신 분을 거슬러 다투려고 손을 뻗지 않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덧붙인 말을 잘 달아 봅시다. 곧 사람이 그것을 가질

128. 원문은 “combien qu’ elle que nous apparoisse pas“입니다. “qu’ elle ne nous apparoisse pas“(나타나지 않는다 해도)로 보고 옮겼습니다.

때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에는 사람들이 당신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저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덕을 가질 때, 우리는 더는 하늘로 달려가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로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들을 이 앎으로 데려가시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다른 데서 구원받아야 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며, 결코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지킬 아무 수단도 없다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온 세상이 우리 편을 들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는 대로 가진 것처럼 보여도, 어쨌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CO 460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야 하고 그분의 손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기에는 이것이 꽤 흔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본디 하나님께 달려가도록 가르침 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저마다 자기를 구원한다고 여기고 저마다 자기를 지킨다고 여기는, 우리를 휩쓸어 가는 이 취함, 아니 오히려 이 미침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했습니까? 사탄이 우리 머리에 넣은 이 거짓 헛꿈, 곧 우리 안에 어떤 덕, 어떤 의, 어떤 지혜가 있다는 헛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꾸짖으실 때 그것이 흔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덕을 믿지 말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말고는 쉼도 받침도 만족도 가지지 않을 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순전하고 값없는 선하심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서 무엇인가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좋다, 나누자.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네 몫이다"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빌릴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내세우시려고 와서 우리 몫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가진 것을 빼앗으셔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공상을 상상하지 말고, 우리 안에 구원이 한 방울도 없으며 우리가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고 고백합시다.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때로 악인들이 사람들을 수단으로 멸망하고 망할 것입니다. 재판이 그 목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판석에 앉아 칼을 손에 쥔 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 세우셨고 그분이 그들을 도구로 쓰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엄과 권능과 의를 밝히시려고 이 세상에 정하신 수단들이 그분을 흐리게 하고 그분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빛이 그만큼 더 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 손대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이 원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니다. 결론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에 짐승들을, 그것도 우리를 잘 떨게 해야 할 무서운 짐승들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덤벼들려고 더는 그토록 들썩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베헤못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베헤못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짐승을 담고 있고, 소와 다른 짐승들이 거기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복수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지은 베헤못을" 하고 말하는데, 복수인데도 한 짐승처럼 CO 461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종류를 가리키려 하셨으므로,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은 베헤못을 복수로 두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있는 큰 몸집 때문에 코끼리가 아니라면 그분이 어떤 종류를 다루시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소나 말이나 그 비슷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라, 소처럼

풀을 먹는 베헤못을"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짐승의 종류와 소를 특히 구별하십니다. 그러니 많이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히 놀라야 할 한 종류의 짐승을 고르셨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코끼리는 그토록 억센 몸을 가져서 그 뼈가 놋 같고 그 잔뼈, 곧 사람들이 연골이라 부르는 것이 쇠 막대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기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을 보는 자들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려야 합니다. 그 크기가 그러하니 그것이 솜씨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려고 우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당신을 밝히시는 대로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그들은 짐승들에게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멍청함과 배은망덕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코끼리와 비슷한 짐승들에 대해 우리에게 내놓인 것 같은 그런 거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그런 크기와 그런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봅니까? 그분 능력의 다른 표지가 우리에게 없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그 야수들에게서 밝혀지는 이 높은 위엄을 경배할 계기가 넉넉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끼리들이 우리와 함께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별하셨고 세상에 놀라운 질서를 세우셔서,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할 때 놀라움으로 넋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자기에게 아주 드러나 있는 것을 바라볼 분별이 있다면 말입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작은 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세상의 영주와 주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쓰임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왜 창조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억센 코끼리를 보고, 그것이 사람들의 한 무리를 CO 462 뒤엎는 데 발길질 한 번이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세상에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작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뛰어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이에 짐승들에게도 당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두신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면, 짐승들을 바라볼 때 거기서 놀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크기로 다스리는 것이 문제라면 코끼리들이 우리를 훨씬 이길 것이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마구간의 작은 망아지처럼 사람들에게 길들여지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으셨다는 것을 봅니다. 보십시오, 큰 덩어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은 다리를 굽힐 수 없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코끼리가 누우면 다시 일어설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힘을 보고 다른 한편으로 그런 모자람, 곧 그것들의 다리가 굽혀지지 않아서 이 짐승들이 쉬려면 서 있어야 하고, 코끼리가 거기 누워 있어서 그것을 일으켜야 한다면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화롭게 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들이 우리를 모두 삼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들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온 인류를 쓸어 버릴 만큼 그런 잔인함을 부릴 수 있는 이 짐승들이, 말하건대 그것들이 산에서 풀을 뜯고 나무 그늘 아래 숨으러 가며, 그 사이에 그 크기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격분으로 뛰어들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아래 살 자리를 주시려고 이 짐승들을 길들이려 하셨기 때문 말고 어디서 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많은 종류의 다른 야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수들의 격분을 붙드실 은밀한 고삐를 가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이 세상에서 삼켜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되, 우리를 낮추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 완전히 없어진 채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의를 마땅한

대로 높이도록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6편

욥기 40–41장 설교 3

CO 35:463–475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내고 줄로 그 혀를 매겠느냐? 그 코에 바늘을 꿰거나 가시로 그 턱을 뚫겠느냐? 그것이 네게 간청을 거듭하겠느냐? 네게 부드럽게 말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어 네가 그것을 영원한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새와 놀듯 그것과 놀겠느냐? 네 계집아이들을 위해 그것을 매어 두겠느냐? 동료들이 그것으로 잔치하겠느냐? 장사꾼들이 그것을 나누겠느냐? 네가 그 가죽으로 덫을, 그 머리로 어부의 통발을 채우겠느냐? 그것에 손을 대 보라. 그 싸움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보라, 그것을 잡으려는 소망은 헛되니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넘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을 깨울 만큼 사나운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버티겠느냐? 누가 나보다 먼저 주었기에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그 지체와 그 힘과 그 생김새의 아름다움을 잠잠히 두지 않으리라. 누가 그 옷의 앞을 벗기며, 누가 두 겹 재갈을 가지고 그것에게 다가가겠느냐? 누가 그 얼굴의 문, 그토록 무서운 이빨의 둘레를 열겠느냐? 그 비늘은 단단한 방패 같아 찍힌 도장처럼 닫혀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붙어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들은 서로 이어지고 붙들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재채기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 눈은 새벽빛 같다. 그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티가 튄다. 그 콧구멍에서는 끓는 솥이나 가마에서처럼 연기가 나온다. 그 숨은 숯불을 피우고 그 입에서 불꽃이 나온다. 힘이 그 목에 머물고 그 앞에서는 수고가 물리쳐진다. 그 살의 부분들은 붙어 있어 저마다 단단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 심장은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 아래짝처럼 굳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들도 떨고 물결에 놀란다. 칼이

> 그것에 닿아도 멈추게 하지 못하고 창도 화살도 갑옷도 그러하다. 그것은 쇠를 지푸라기처럼, 놋을 썩은 나무처럼 여긴다. 활 쏘는 자도 그것을 쫓지 못하고 물맷돌은 그것에게 그루터기가 된다. 투창도 그루터기처럼 여기고 창이 흔들리는 것을 비웃는다. 그 아래에는 날카로운 사금파리가 있고 진흙 위에 뾰족한 것을 편다. 그것은 깊음을 솥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절구처럼 만든다. 그것은 지나간 길을 빛나게 하니 깊음을 늙은 것처럼 여긴다. 그 다스림은 땅 위에 있지 않고, 그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어졌다. 그것은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니 모든 교만의 아들들 위에 왕이다. (욥 41:1–34)

이 설교는 앞의 15–24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463 CO 464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의 증언으로 땅의 여러 동물을 내놓으신 뒤에 여기서 한쪽으로는 코끼리를, 다른 쪽으로는 고래를 데려오신다는 것을 보여 드렸습니다.[129] 그리고 그것은 이 말씀의 결론을 위한 것입니다.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다 해도, 그분이 창조하신 짐승들, 특히 그 생김새로 우리를 겁주는 짐승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분의 위엄이 어떠한지 느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만큼 더 영화롭게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는 무서운 덩어리이고 우리를 잘 겁주어야 할 코끼리에 대해 다룬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승 하나 앞에서 떤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변론하고 그분이 우리를 낮추려 하실 때 분해하려고 하나님을 거슬러 대담한 척해야 하겠습니까? 그분의 의를 거슬러 원망하고, 그분께 무엇이든 반대하며, 그분의 통치를 낮추거나 줄이려 할 만큼 우리가 그토록 어리석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짐승들이 사람들을 떨게 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덤빌 때 자기 미침을 알게 하십시오.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129. 본문 상자가 463쪽을 다 차지하여 설교 본문은 464쪽에서 시작합니다. 칼빈의 프랑스어 성경 절수로는 앞의 열 구절이 40장 10–19절이고, 본문이 40장 20절–41장 25절입니다. 이 설교의 절수는 개역한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어제 코끼리라고 말한 이 땅짐승의 종류(여기서는 일반적인 말인 베헤못으로 부르지만)에 대해 그토록 길게 풀어 놓고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더 길게 풀어 놓았으므로, 어떤 이들은 여기서 코끼리나 고래보다는 비유로 마귀에 대해 말한다고 여겼고, 끝에서 이 고래가 교만의 자녀들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 공상을 입증하려 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다룬 이 짐승의 종류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소처럼 풀과 꼴을 먹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마귀를 그려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밝히려는 것임을 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서나 그것은 고래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CO 465 시편 104편(26절)에서 봅니다. 거기서 "고래"라고 옮긴 자리에 히브리어는 리워야단을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땅에서보다도 바다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교묘하게가 아니라 그 단순함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작음에 따라 투박하고 거친 방식으로 가르치려 하시고, 그들이 그분의 권능을 그만큼 더 잘 확신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분은 짐승들이 그들을 꾸짖을 수 있으니 그들이 감히 그분을 거슬러 일어설 때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짐승들에게로 보내실 때 그들의 교만을 조롱하시려고 그들에게 공과를 주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마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고래를 교만의 아들들의 왕 같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그 짐승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고래와 견주려고 하신 말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높이 방패를 쳐들 것이고, 구름 위로 껑충 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힘을 잘 모으고

실컷 주제넘게 굴었을 때 고래에 비하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자기를 내세우고 와서 고래와 마주친다면, 고래가 그 자체로 자랑할 거리를 더 잘 가지지 않습니까? 고래를 집이나 탑에 견주든, 대포에 견주든, 산에 견주든, 그 모든 성질을 고래에게서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큼 무서운 힘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가 늘 고래들에게 지리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교만은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높아지고 그분께 속한 것을 빼앗으며 그분의 의를 벗기려는 이 대담함을 가질 때, 그 점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당신의 위엄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셔도 그러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예를 지키시려면 짐승들을 가지시는 것으로 넉넉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미루어서 고래와 코끼리의 이 비유를 받아들여, 마귀가 공중과 세상의 임금이라고 불리니 그의 덕이 우리를 얼마나 겁주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닭 없이 돌리지 않으신 칭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약한데 우리에게 그토록 강하고 억센 원수가 있다는 것을 보며 두려움 속에 걷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미루어 여기서 경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우리가 CO 466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혀야 할 것이고, 그가 우리를 잘 다룰 것이며, 우리에게 그에게 맞설 힘이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를 들자면, 세상의 창조에 대해 우리에게 말할 때 모세는 천사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는 작은 자들과 무식한 자들의 선생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알아볼 수 있는 이 지금의 밝음은 우리를 더 멀리 이끌어야 합니다. 곧 하늘나라의 밝음이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이 어디서나 빛나는 것을 볼 때, 천사들에게, 그리고 하늘 생명에 관한 모든 것에 더 큰 충만함과 완전함 속에 밝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더 낮은 것에서 더 높은 것으로 단계적으로 갈 때 그것은 좋은 미루어 짐작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이 본문의 단순함을 간직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경을 비유로 바꾸어 가지고 노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자연스러운 뜻에서만 끌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다른 구절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작된 이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바다와 땅에서 당신의 승리를 거두셔서, 사람들이 그분께 덤빌 때 자기 교만 속에서 늘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짐승에 대해 말씀하신 뒤에, 그분은 여기서 우리 앞에 코끼리를 두십니다. 그것들은 그토록 무서워서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몸의 덩어리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기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서는지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당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주기를 기뻐하신 것을 그것들에게는 주지 않으셨다는 것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높아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을 배웁니다. 어떻든 우리는 늘 짐승들에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불쌍하고 아주 빈약한 품삯을 드리니 우리 배은망덕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 말했듯이 코끼리는 우리와 함께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더 귀한 재료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더 뛰어나야 할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무서운 힘을 가진 코끼리들이 그런데도 우리를 향해 뛰어드는 대담함을

가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은 축축한 곳에 숨으러 가고, 자기에게 편한 피난처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매여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CO 467 감히 바라보려고 다가가지도 못할 짐승들에 대해 말할 때 우리 약함을 잘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들지 않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로 이끄시고, 거기서도 우리를 낮출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물고기의 이 무리와 거기 보이는 이 다양함에서만이 아닙니다. 속되고 믿지 않는 저술가들도 땅에서 많은 기적이 보이지만 자연 기적의 참된 가게는 바다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떤 정해진 종류를 생각할 때에도, 고래만 들어봅시다. 물속에 그런 살아 있는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누가 보이는 대로 그토록 크고 그토록 육중하며 그토록 억센 짐승의 재료를 빚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땅으로 먹이를 빼앗으러 오려고 솟아올라야 할 것처럼 보이고, 물속에는 그것에게 넉넉한 먹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뼈, 또는 뼈 이상인 그 가시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쇠와 강철을 볼 것입니다. 그 살집을 보아도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몸을 지키려면 큰 부요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누가 그것을 대 줍니까? 그분은 세상을 지키시려고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모든 것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분께 우리를 두기를 배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정죄하는 데 짐승 말고 다른 재판관이 필요 없을 것이고, 우리를 확신시키는 데 땅 위에나 물속에나 온 세상에 흩어진 피조물 말고 다른 소송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단순함을 간직했다면 사람들이 끌어올 수 있는 모든 교묘한 풀이보다 우리에게 더 나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기서 비유를 지은 자들이 고래의 뼈와 가시뼈를 낱낱이 살피고 가죽과 이것저것을 다루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무엇인지 모를 하

찮은 잡동사니를 찾아내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성경을 그 자연스러운 뜻 밖으로 바꾸어 밀랍 코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다룬 이 한 조목,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확신시키는 데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증언 말고 다른 증언이 필요 없으리라는 것을 간직했을 때,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기 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래와 코끼리에게 가르침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뚤어짐 때문에 보내신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가 악하고 비뚤어지며 악하고 굽은 본성을 가져서 CO 468 이치로 이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짐승들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고집도 있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내놓든, 우리 비참이 우리에게 드러나도, 우리는 늘 어떤 핑계를 찾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굳음을 억지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당신 아래 굽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끼리들에게 짓밟히고 그것들이 우리 배 위를 걸어간다 해도 우리는 그럴 만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와 함께 빚으신 분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고 그분께 마땅한 경의를 바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의 학교로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를 낮추도록 가르침 받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고래들에게 삼켜질 만하고, 그렇습니다, 바다가 온 땅을 다스릴 만합니다(앞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거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순간마다 구렁에 빠질 만한데도 끝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참아 주시려 하지 않으신다면 바다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 구원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우리 게으름과 무지와 악함으로 거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분은 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거둘 주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묘사를 낱낱이 풀기 전에, 여기서 하는 말을 새깁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렇게 고래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밝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가 내 앞에 버티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고래를 감히 깨우지 못하고 감히 다가가지 못한다면, 누가 내 앞에 자기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룬 견줌입니다. 곧 하나님 능력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피조물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면, 그분의 끝없는 위엄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온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을 붙드시고, 이 큰 둘레를 끌어안으시려고 팔을 펴실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이 그분 손안에 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래는 아무리 큰 살덩이가 있어도, 그렇습니다, 바다에 그것이 많아도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바다의 크고 작은 그 끝없는 다른 물고기 말고도, 보십시오, 거기 고래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품으시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품으시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듯 단순한 짐승 하나가 우리를 겁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놀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확증으로 CO 469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고래는 무섭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고 내세운다면, 그분은 "정말이냐? 고래가 내가 던질 투창이나 물맷돌 같은 것 말고 무엇이냐?" 하고 대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고래와 다른 큰 짐승들에게 당신 능력의 어떤 표를 새기셔서, 그것이 그분 손에서 나오고 그분이 그것들을 원하시는 쓰임에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는 우리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거기 물맷돌을 던지셔서 공중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놀라는 것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렇게 그분 손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떨 계기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에게서 멀리 쫓아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공경을 드리도록 첫 매에 넋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가 거기서 온갖 기쁨을 찾도록 우리를 당신께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엎드릴 때까지는 그분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오는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서 우리가 버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당신의 능력을 펼치시면 우리가 끝장이고 잃어지고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여길 때 이 모든 두려움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이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길들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그분이 받으실 만한 공경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반적인 가르침, 곧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은 죽을 피조물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따릅시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납작하게 눕히시고 그다음에 일으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상태를 붙들고 와서 거기서 큰 자와 재주꾼 노릇을 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파멸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버티다"라는 말은 사람이 자기를 의롭고 지혜롭다고 지키면서는 결코 좋은 소송을 가질 수 없고, 먼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의를 가지시며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는 구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버티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 위로 높이십니다(지금은 몸으로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엎드리게 하신 뒤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혜와 의를 돌리며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되려 할 때와, 모든 좋은 것이 비어 CO 470 하나님께 달려가 자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할 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들이 모든 영광을 벗었고 자기 안에 부끄러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을 배웠을 때, 우리 안에 온갖 악취와 더러움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가졌다고 여기는 겉모습이 헛됨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품은 이 모든 생각이 우리를 속인다는 것을 알아볼 때,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잘 확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의 순전한 은혜에서 받아서, 그분을 아버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시고 우리 안에서 아무 공로도 찾지 않으셨는데도 주신 분으로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곧 모든 육체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하고, 우리 안에 어떤 푸르름이 있다면 곧 시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입김만 부시면, 보십시오, 우리는 기운도 덕도 없이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저주일 뿐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은혜가 알려지고, 우리가 거기 피하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말고는 우리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기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쪽에서 그분께 의무를 지우거나 우리 것을 무엇이라도 그분께 가져가지 않고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특히 “누가 나보다 먼저 주었기에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하고 덧붙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변론하려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빚지셔야 하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으셔야 하며, 우리에게 어떤 권리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매여 있다고 말하려고 그분을 거슬러 자기 근거를 가져올 사람이 어디서 찾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고 그분 쪽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빛지지 않으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거슬러 다투려 할 만큼 그토록 고집 셉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넓혀져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 그분을 지혜롭고 의롭고 강하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35절)에서 보여 줍니다. 그는 이 구절을 성경에서 끌어온 것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이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으로입니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을 다룹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좋게 보이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택하시고 원하시는 자들을 유기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누가 그분께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고 더 캐묻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모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말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불의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분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CO 471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들을 때 잠잠히 머물기 어려우므로, 오늘 그것을 거슬러 짖어 대는 개들을 우리가 보듯이 말입니다. 이 허영에 찬 거지들은 선생 노릇을 하려 할 때 "아, 나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불쌍한 개야, 너는 누구냐? 너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네 거름 더미로 가서 네가 누구인지 알라.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에 복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교만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세웁니다. "누가 하나님께 주었느냐? 너희는 그런 대담함으로 여기 와서 너희 덕과 너희 권능을 내세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그분이 하셔야 할 것을 보여 드렸어야 하고, 너희가 그분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야 하며,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잘 매여 계셔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거슬러 그런 근거를 내세운다면, 오라, 누가 그분께 주었는지 알게 하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겠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렇게 다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관한 그의 의도를 아니,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쪽에서 무엇을 받으셨다고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간직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려지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보다 낮으시다거나 우리에게 무슨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특히 우리 육이 우리를 주제넘음과 교만으로 재촉할 때, 우리를 붙들 이 고삐를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너는 누구에게 덤비느냐? 네가 네 하나님을 변론과 소송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분께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보이겠느냐? 네 안에 온갖 가난과 저주밖에 없으니, 너는 온갖 순종과 겸손으로 그분께 복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밖에 이 말로 사람들의 모든 의가 꺾이고, 우리가 공로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사탄의 취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는 것도 새깁시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운다고 여긴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홀려서 낙원의 나라가 품삯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교황제 안에서는 사람들이 낙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의 공로 있는 행위로 말입니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늘 불완전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행위를 하나님의 은혜와 섞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를 준비한다. 자격으로가 아니라(그들은 우리의 자격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CO 472 알맞음으로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자기를 내놓고 준비하는 것이 알맞고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대놓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고, 거기

주해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먼저 주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매여 있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받으며, 우리가 그분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한 섬김에 대해 아무 보상도 받지 않으시며, 그분이 우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그토록 취해 있는 이 거짓되고 마귀 같은 생각을 온 인류에게서 벗기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이제 요컨대 우리는 여기서 인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의가 꺾이고 없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거슬러 높아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지혜롭다고 여길 때이고,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어떤 의와 어떤 존귀함을 가지려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재잘대고 지저귀어도 결국 그분이 우리를 잘 잠잠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무슨 근거를 가졌습니까? 그러니 지혜로워지지 말고 오히려 절제하며 우리를 낮추기를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만큼 그분의 일을 알고, 그다음에 우리를 붙들어 거룩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넘어가지 않는 이 고삐를 가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늘 성령께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 나는 이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하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때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을 캐묻으려고 지혜로운 척하지 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 특히 믿음과 하나님 두려움 안에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상해 보이는 무엇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다” 하고 알면 그것을 반대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기 두실 때, 우리는 딱 멈추어 더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우리 공상대로 교묘해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한 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도 당신의 성령으로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영예를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그분의 학생이 되는 것을 견디도록 우리 입에 고삐가 매여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로 의가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아무 존귀함도 없고, 우리가 많이 수고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서 유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곧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데 힘쓰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CO 473 자기의 모든 힘과 덕을 악에 쏟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귀함이나 어떤 공로를 가졌다고 내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영예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때, 우리는 모든 방식으로 엎드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컨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고래에 대해 하는 이 긴 풀이의 낱말마다 머물 필요가 전혀 없고 심지어 유익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쓸데없지 않다는 것을 압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 위엄의 증언들을 지나가듯 가볍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을 새기도록 정신을 잘 가라앉혀서 그분을 마땅히 영예롭게 하도록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우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경고를 넉넉히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지 않고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행 17:28). 곧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므로 우리가 넉넉히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더듬어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경의를 바쳐야 할 만큼 거기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어리둥절하게 갑니다. 우리가 잘 살피고 좋은 분별을 가졌다면, (말하자면) 새끼손가락 손톱

하나로도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붙들기에 넉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쳐 가고 하나님의 일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긴 풀이를 하고, 그것도 짐승만 문제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긴 해부를 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길어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쓸데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것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먼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네가 그것을 네 종으로 두겠느냐? 그 콧구멍에 고리를 꿰겠느냐? 네가 강아지나 새와 놀듯 그것과 놀겠느냐?" 하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고래와 우리를 견주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창조주를 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논쟁하고 그분을 감독하며, 그분이 자기 입맛대로 하지 않으시면 만족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이 그분을 구렁에 빠뜨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CO 474 보십시오,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견줌이 모든 점에서 어디서나 알맞지는 않습니다. 비유가 부분마다 맞아떨어질 필요도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도 깨달음도 없는 불쌍한 짐승이 자기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달아나게 할 만한 그런 덕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빚으신 분은 어떻겠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사람들이 고래 하나도 감히 깨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히 살아 계신 하나님께 덤벼서 그분께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달린 만큼 와서 그분을 찌르고 그분께 대드는 모든 자가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드럽고 다정하게 당신을 보이기를 구하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참아 주시려고 어떻게 애쓰시는지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친 자와 야수 노릇을 하려 하고, 그분께 도전하듯 대놓고 와서 그분을 찌

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고래의 임재보다 훨씬 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고래가 깊음을 솥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절구처럼 만든다고 말할 때를 새깁시다. 코끼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요단강을 제 목구멍으로 지나가게 하리라고 말했듯이 말입니다. 짐승 하나가 거기 머물며 심연을 들이켜는 것을 볼 때, 묻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얼마나 더 겁을 먹어야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고래는 물 한가운데서 숨이 막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짐승은 그토록 크고 그토록 커서 바다를 한가운데서 가르고, (여기서 말하듯이) 재채기로 그것을 솥처럼 끓게 하며, 배들을 뒤엎고, 제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래의 재채기만 가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선지자 이사야(사 40:24)와 시편 104편(29절)에서 말하는 그 입김을 가지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당신의 입김을 우리 위에 던지시면 우리가 첫 매에 구렁에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130] 그러니 짐승의 콧구멍에 그런 무서움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든 우리를 구렁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시든 모든 능력의 샘이신 하나님의 이 영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부분들이 여기 까닭 없이 놓이고 다루어지지 않고, 이 짐승의 종류들이 좋은 가르침을 위해서만 구별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내가 말한 그런 견줌을 하는 분별을 가지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그 살과 뼈의 단단함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거기로 와야 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을 드실 때 어떻겠느냐?" 보십시오, 큰 배들을 뒤엎어 CO 475 바다에 가라앉히는 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치려 하실 때, 그분께 훨씬 더 단단할 쇠 막대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그분께 부딪쳐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130. 원문은 "Isaie (4O7 24)"로 깨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4절로 바로잡았습니다.

손과 팔의 끝없는 능력이 어떠한지, 특히 그것이 우리를 거슬러 무장했을 때 어떠한지 그만큼 잘 붙잡을 때, 우리는 고래의 살과 뼈를 그렇게 다룬 것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또 짐승 하나가 자기 안에 그런 덕을 가지고, 심지어 그것이 창의 흔들림을 비웃고 칼과 다른 모든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다면 우리는 아주 안전하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계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그런 덕을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 밖에 고래와 다른 짐승들에게 있는 모든 힘이 무서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망하듯이 망하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도록 붙들어야 합니다(그것은 너무 큰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더 잘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의 손이 들린 것을 보고 온 세상에 있는 소란을 볼 때, 한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알아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없어진 것처럼 되기를 배워야 하고, 그 사이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 때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깁시다. 보십시오, 그러니 한편으로 우리는 그렇게 겸손 속에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은혜와 보호에 기댈 때, 우리는 세상의 원수들뿐 아니라 사탄과 그의 모든 힘과 그가 꾸밀 수 있는 모든 것에 대들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특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가 일이 뒤죽박죽인 것을 볼 때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약함을 바라보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아야 하고, 그 사이에 우리를 낮추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기를 그치지 말아, 우리가 그분께 지켜질 때 거기 좋은 보증인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되 그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주제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덕이 있다고

여기는 자는 자기를 망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것도 돌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없애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그런 대담함을 품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십만 가지 죽음에서 지키기에 넉넉하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분이 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란과 혼란을 지나가야 하고 십만 가지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당신께 이끄시고 우리가 그분이 마련하신 이 영원한 안식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능력을 주시리라는 것을 압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7편

욥기 42장 설교 1

CO 35:476–487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생각도 주께 막히지 않음을 압니다. 지식 없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내게 너무 놀라워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여쭈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귀로 주에 대하여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뵙습니다. (욥 42:1–5)

CO 476 우리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이 권고가 욥에게 맺은 열매를 보았습니다.[131] 그러나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거듭하셨을 때, 욥이 그런 바로 잡음 아래서 어떻게 유익을 얻었는지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는 이미 뉘우쳤는데 이제 더 생생하게 감동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가르치셨을 때 그것이 흔히 일부만 유익을 끼쳤을 뿐임을 봅니다. 우리가 CO 477 흠잡을 것이 없고 바른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해도 어떤 작은 준비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더 잘 뿌리내리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가 거기 온전히 머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회개가 첫 매에 완성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패질하신 뒤에 우리를 다듬으셔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나무나 돌로 어떤

131. 원문 머리말은 “LE I SUR LE LII. CHAPITRE“로 되어 있습니다. 42장(XLII)의 잘못으로 보고 옮겼습니다.

작품을 만들려 할 때 망치질을 많이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계속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에 작은 첫발을 들일 것이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거나 불완전하고 거친 것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바로잡으신 뒤에 매 한 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거듭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한 어떤 좋은 가르침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이 맛보기일 뿐이고 우리가 아직 바르게 배부르지 않았으며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그러니 우리가 들은 가르침에 싫증 내지 말고 늘 더 잘 유익을 얻기를 사랑합시다. 우리 평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그분 두려움과 그분 사랑 안에서 굳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변덕스러워 우리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돌이켰다고 여겨질 때 그것은 연기일 뿐이고 곧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또한 욥의 본보기를 따라, 우리가 어느 날 우리 허물을 알았다면 이튿날 그것을 더 잘 알고 그것에 더 상처받도록 힘씁시다. 우리가 한마디 하고 어떤 좋은 생각을 품었을 때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늘 이겨 나가야 하고, 그것이 꾸밈없었을 때에도 거듭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어떤 생각도 주께 물러나거나 막히지 않음을 압니다" 하고 말하는 것으로 옵시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욥이 하나님께 모든 권능을 돌리고, 다음으로 모든 것을 돌보고 이끄시는 끝없는 뜻을 돌리는 것처럼 풀이합니다. 마치 그가 "주님, 나는 주께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고 아무것도 주께 감추어지지 않으며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어떤 생각도 주께 막히지 않는다", 곧 "주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 주께서 생각하신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어서, 주께서

막히신 것처럼 거기 애쓰실 필요가 없고 CO 478 무엇도 주께 모자랄 수 없다 "고 말하는 것이 더 흔한 말투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끝없는 권능에 대해 말하고, 두 말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뜻 안에서 정하신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고 곧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이 여기서 그가 해야 할 만큼 다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단언했지만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별로 유익을 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도 때로 너무 큰 엄격함을 쓰셔서 불쌍한 피조물들이 너무 고통받고 지나치게 괴롭힘 당한다는 그 조목으로 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곧 그분의 강한 손 아래 자기를 낮추고, 죽을 사람들이 그분께 맞서거나 그분을 거슬러 대드는 것이 그들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안에 두시고 이끄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분이 일을 우리 입맛대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내고 속상해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그분의 높은 능력을 깨달아 거기 복종하지 않았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의와 올바름으로 이끄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고 다루시며, 당신 뜻대로 우리를 처리하시고, 우리가 입을 다물며, 그분이 하실 것을 거슬러 말대꾸하려고 손을 뻗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 아래 우리를 없애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알았을 때, 그분이 우리 위에 다스리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시며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되, 그렇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온순하고 평온한 정신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참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위에서 빼앗으려 하고,

그분을 우리 입맛대로 대하려 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따르시고 우리가 품고 상상한 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동안에는, 아아, 그것은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잘못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료가 되려 하고, 심지어 우리 바람으로는 그분 위에 있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을 앞에서와는 다른 뜻으로 다룬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는 하나님을 그분의 최고 통치 가운데 경배하고, 모든 것이 그분께 이끌려야 하며,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의 직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가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거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이 의로우시니 잘못하실 수 없다. 그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대접받고 이끌리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CO 479 모든 좋은 것을 그분 손에서 받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정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말할 때 이것저것을 공상하는 망상가가 많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상상 속에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헛꿈을 향하지 않고, 거기와 아무 공통점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뜻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머리로 지어낸 것을 하시려고입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뜻 안에서 정하신 것을 이루시려고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곧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하나로 묶기를 배웁시다.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그분이 이루지 않으시도록 그분에게서 물

러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132] 사람들이 아는 것과 그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그것은 그들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좋다고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지 봅니다. 곧 그분이 결정하신 모든 것을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서 계획을 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든 지혜의 샘이시니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정하시는 것이 그분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그분 손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지 못하게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천으로 더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엉뚱하고 이유 없이 수다를 떠는 자들은 와서 터무니없는 것들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 왜 이것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분께 여기저기 재주를 부리시게 하는 것이 우리 몫입니까? 정하시는 것도 그분 몫이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도 그분 몫입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문제일 때 그분께 모든 능력을 돌리기를 조금도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을 적용해야 했던 것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데 모자라지 않으시리라는 것, 그리고 우리 구원이 그분 손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 악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원수들에게 이길 수 없는 자가 되리라고 온전히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해야 했던 곳이 거기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지킴 속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빼앗지 못하리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분께 맡기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길 수 없는 권능을 내놓으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

132. 원문은 "de 1m "으로 깨져 있습니다. "de lui "(그분에게서)로 보고 옮겼습니다.

온하여 CO 480 사탄이 우리를 거슬러 어떤 힘을 쓰고 꾸며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분의 선한 뜻과, 그렇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히시는 그대로의 뜻과 이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터무니없는 많은 공상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처럼 가지고 놀려는 자들의 조롱을 물리칠 거리도 가질 것입니다. 본보기를 들자면, 보십시오, 교황주의자들은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고 전에 빵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자기 말을 입증하려고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않으시냐?" 하고 내세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그분께 해를 어둡게 하시고, 달을 물이 되게 하시며, 땅을 하늘에, 하늘을 땅에 있게 하시라고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다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질서를 뒤엎고 비트는 것, 흰 것과 검은 것 사이에 더는 분별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악하게 찢어 모욕에 내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교황주의자들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이 공과,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 강하시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그분의 권능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의 권능을 자기 좋을 대로 날아다니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가르침을 간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셨으니, 곧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며, 우리가 엎드려 있을 때 일으키시고,

우리 약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뚜렷하니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시려고 손을 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과 입이 맞아야 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입, 곧 그분의 뜻이 앞서고, 그다음에 그분의 손이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집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리하시는 것에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뜻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스리는 이 직무가 그분께 속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께 이끌리도록 자기를 맡기며 스스로 자기를 이끄는 자유를 취하지 않고 CO 481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결단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많은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지식 없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것을 욥에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이 그러하다고, 곧 그가 자기 어리석은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휘감았다고 고백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논쟁하고 그 재판관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뜻을 가리는 것이고 (흔히 말하듯) 그것을 덧칠하는 것이며, 그렇습니다, 지식 없이 그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무 지혜로워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는 이 구절을 욥에게 꾸짖었던 것에 대한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아, 주님, 내 말과 논쟁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의 뜻을 휘감으려 했다고 주께서 앞에서 나를 정죄하신 것은 정당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어리석게 해 나갔다는 것을 압니다. 주께서 내게 정하기를 기뻐하실 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것이 내 몫이었는데, 나는 학교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선생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내

어리석음을 내게 밝히신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 사이에 욥은 하나님께 온전한 지식을 갖춘 뜻을 돌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반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감추실 것이지만 왜 그런지 아시고, 그 이유가 그분께 늘 아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된 것보다 더 드러내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얽히게 할 뿐이고, 그 모든 것이 지식 없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유식해지려 할수록 우리 어리석음을 더 드러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지 않고 남겨 두시는 것이 그분 몫이라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작음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신다면 말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고 알맞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많은 어두운 것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높이 오르기에는 아직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뜻을 감추실 것이지만 지식을 가지고 그러십니다. 그분으로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이 왜 이것 저것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 주실 수 없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만큼 넉넉히 재주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우리가 허락된 것보다 더 알려 할 때, 물론 우리는 수다를 떨고 많이 지껄일 어떤 교묘함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우리 말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혜로워지려고 애쓸수록 그는 늘 자기 헛됨을, 자기 정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리고 CO 482 거짓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줄 알도록 순수하고 밝은 깨달음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그분의 학교에 와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간직하며,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보다 더 알기를 바라지 않는 절제를

가집시다.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르게 말할 것이고, 우리 이웃을 세우도록 말해서 그들이 늘 점점 더 굳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경계를 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멀리 헤매려 한다면, 헛됨과 거짓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이 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덧붙입니다. "내가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내게 너무 놀라워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지식 없이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그는 말합니다. 마치 "내가 너무 가볍게 나섰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내게 너무 놀라워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욥이 왜 자기가 무지했다고 말하는지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말하려던 비밀의 높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손을 느끼게 하셨지만, 그는 자기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는 깊은 시험에 들어갑니다. "내가 끝까지 몰리다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가? 나는 그분이 나를 구렁에 빠뜨리셨으면 좋겠다. 그분은 나를 여기서 시들게 하신다. 그분은 내 안에 연약함밖에 없고 내가 그토록 불쌍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신다. 그런데 왜 내가 그토록 오래 그런 극한에 있게 두시는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해도 그분은 내게 더 나쁘게 하실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내가 온전함으로 그분을 섬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보십시오, 욥이 들어간 논쟁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 속으로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를 바로잡으려고 그는 이것들이 자기 위로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오고 그분의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문제일 때,

그것이 우리 정신의 약함에는 너무 높은 비밀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에 대해서도, 그분의 영적인 나라에 속한 것에 대해서도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분 뜻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잘 새겨야 할 비밀입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고 고백한다 해도, 그래도 보이는 대로 뒤죽박죽이고 어지러운 일들이 CO 483 그 위에 고삐를 쥐시고 일을 좋게 여기시는 결말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엄밀한 뜻으로 이끌어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데까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런 비밀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을 두려움 속에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에서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러 그토록 짖어 대고 거룩한 성경에 담긴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거슬러 모독하는 이 개들이 자기 수다를 잘 낮출 것입니다. 오늘도 술주정뱅이나 정신 나간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면 사람들이 더는 죄짓지 않거나 죄가 그분께 돌려져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모독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거지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들 위에 있는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이 점에 자기를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남겨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분별대로 정하려 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기서 욥이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밝히는 것을 잘 새깁시다. 곧 하나님의 일,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것이 문제일 때, 우리는 늘 이 공경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깊은 심연이다.” 그러니 우리 분량대로 그것에 대해 말하려고 손을 뻗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너무 캐묻지 않고 절제합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 결론을 내립시다. 곧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일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미 여러 번 다루어졌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이 우리 위로 놀라운 것들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고전 2:9).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저 위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좋은 것들은 그토록 뛰어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이 없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하늘 위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으로 오르게 해 주시기를 구하기를 배웁시다(우리의 본성적인 분별은 결코 거기 이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때, 욥이 이어서 다루듯이 우리 믿음의 분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말한 이 삼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간직할 것이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 특히 복음에 담긴 CO 484 영원한 구원의 약속들이 우리 위로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담함과 주제넘음으로 되는 대로 거기 와서는 안 되고, 온갖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당신의 비밀을 맛보게 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어두운 것을 밝혀 주시며, 우리가 우리 경계를 넘게 두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비밀에 대해 온갖 공경과 겸손으로가 아니면 결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욥이 자기가 말했으나 깨닫지 못했다고 고백할 때, 그가 자기를 무모함으로 고발하니, 우리도 그의 본보기를 따라 하나님의 입으로 잘 가르침 받기 전에 우리가 한 모든 말을 정죄하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근거 없이

우리 어리석음을 드러냈을 때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꾸짖음을 받을 때 지껄이는 자들처럼 하지 맙시다. 그들은 독이 오르기만 하고, 늘 밀어붙이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아, 나는 그것에 대해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 내게는 다른 의견이 없다." 우리 안에 그런 굳음이 없게 합시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깊이 말할 이 대담함을 가졌고, 하나님의 진리에 잘 터 잡기 전에 어떤 변덕스러운 말이 우리에게서 새어 나갔을 때, 우리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욥과 함께 우리가 가졌던 너무 지나친 교만을 버립시다. "내가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고, 앞에서 인용한 것, 곧 말하기 전에 믿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 말고는 믿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 잡고 거룩한 성경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는 데로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깨달음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밝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물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아울러 처방으로 와야 합니다. 욥도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듯이 말입니다. 그는 잘 깨닫지 못하고 나섰다고 말한 뒤에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여쭈리니 나를 가르치소서" 하고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욥은 자기가 자기 한계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고삐 풀린 말처럼 했다는 것을 보고 자기를 누르려 합니다.[133] 그러니 그는 한마디로 "내가 잘못했다" 하고 말하며 셈이 끝났다고 여기고는 곧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늘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많은 사람처럼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CO 485 내 안에 그런 어리석은 무모함이 있고 내가 넘쳐흘러 너무 헤맸으니, 이제 주께서 내게 물으소서. 그리고

133. 원문은 "ce me du cheval"입니다. "comme du cheval"(말처럼)로 보고 옮겼습니다.

내가 주의 학교에서 가르침 받을 때, 주께서 단순히 나를 가르치려 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시는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보십시오, 요컨대 이 절에 담긴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그는 여기서 자기 좋을 대로 말할 들어 주심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그는 이미 너무 많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134] 오히려 그는 자기를 핑계하면서 아울러 가르침 받으려고 하나님께 여쭈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말하는 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하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거슬러 변론하고, 자기 물음을 가져오며, 반론을 내고, 자기를 잘 지혜롭다고 여길 때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에 들어가거나 그분이 하실 것을 거슬러 말대꾸하려고 손을 뻗을 때 그것은 나쁜 방식입니다. 이 말을 조심합시다. 우리 혀가 뽑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흔한 악덕이라 해도 그래도 그것은 가증하고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악덕입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했듯이) 입을 다물고, 우리 머리로 말하지 말며, 우리 상상이 앞에 떠오를 때 그 모든 것이 꺾이기를 배웁시다.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내가 말할 때, 나는 우리가 혀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에서 눌러져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캐묻고 하나님을 거슬러 논쟁하려는 어떤 들썩이는 욕심을 늘 느끼지 않을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하고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신자가 복음으로 이르러야 할 절제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단순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실천해야 합니다. 곧 그들이 자기 좋을 대로 되는대로 말하려고 손을 뻗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라야 할 좋고 거룩한 다른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곧

134. 원문은 "audivi"입니다. "audience"(들어 주심)로 보고 옮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리석음 속에서 자라는 자가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진리로 이끌려고 애쓰면 그들은 거기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려고 짐승처럼 되고 거기서 완전히 멍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여쭈면서, 곧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밝음과 모든 깨달음과 이성이 없으며, 우리 정신에는 어둠과 거짓밖에 없다고 고백한 뒤에, 그분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백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여쭙시다. "주님, 우리에게 CO 486 아는 것이 좋은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점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붙들 고삐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이 자기 머리를 거쳐 가기를 원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 올 것이고 그분께 여쭐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은 터무니없는 호기심으로이어서 그들의 일에는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우리는 늘 이 단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 구원에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주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주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주께서는 우리 작음을 아시니 우리 분량에 따라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꿀을 먹을 때 그것은 물론 입에 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이 그것으로 배가 부풀고 이 단맛이 그를 터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높은 지식을 찾는다면 그것도 결국 우리에게 쓴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속을 것입니다. 일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우리가 그 앎에 이를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에게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선과 악을 분별하려 했습니다. 그 위에서 그는 우리가 오늘도 빠져 있는 심연으로 자기를 내던졌습니다.

그러니 지나친 영광을 바라지 맙시다. 솔로몬이 말하듯이(잠 25:27)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꿀을 너무 먹으면 그 단맛을 잃고 심지어 쓴 것으로 바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을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보다 더 캐물으려 할 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짓눌리고 싶지 않다면 우리 분량에 따라서만 그것을 알기를 바랍시다.

그런데 특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르침 받으려고 주께 여쭙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으려고 하나님께 온다면 우리는 그분께 가르침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가르침 잘 받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스승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에서 온전히 순종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와서 자기 입맛대로 책을 고르려 하며 "나는 이런 학문을 알고 싶다. 나는 이것저것을 배우고 싶다" 하고, 가나다를 떼기도 전에, 가르침 받아야 할 자리와 단계에 오기도 전에 큰 학자가 되려 한다면, 묻건대 그것이 학생의 삼감입니까? 그런데 학생이 자기를 가르칠 사람을 모실 때 온전히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무슨 견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꾸밈없이 CO 487 가르침 받으려고 하나님께 여쭌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욕심에 맞추어 그분이 우리가 품은 모든 것을 보여 주시라고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아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 넉넉할 것임을 잘 새깁시다. 그리고 분별하시는 것은 그분 몫입니다.

그리고 이 까닭으로 욥은 결론짓습니다. 그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눈으로 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물론 나는 앞에서 주의 위엄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다른 식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께 온전히 복종하려는 것입니다." 욥은 여기서 자기가 전에 가졌던 앎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 남지 않을 만큼 그런 두려움에 감동받은 계시를 견줍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앎이 나오는 곳도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말하듯 믿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무엇을 더 구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듯 그것은 믿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밀,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비밀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육적인 분별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를 참된 지혜의 완전함으로 이끕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욥은 자기가 가졌던 이 앎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와 같았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확실성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 욥의 의도를 잘 새깁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설교될 때 우리가 배우는 가르침을 내던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귀만 울릴 때 가르침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거의 눈으로 보듯 알 때까지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날마다 복음이 설교될 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도록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을 수단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은 당신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감동받아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마음이 꿰뚫릴 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목소리는 흘러가 버리고 쓸데없는 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복음에 대해 들을 자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설교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만큼 더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사 6:9–10).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것이나 깨닫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이 있어도 누그러질 수 없는 굳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일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늘 고집 세게 머물 것임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밝히셔야 하고, 우리가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공경을 드리고 우리를 온전히 그분 손에 맡기도록 가르침 받을 만큼 그분의 위엄을 느껴서, 그분이 우리 위에 모든 권위와 통치를 가지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제158편

욥기 42장 설교 2

CO 35:488–500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먼지와 재 위에서 회개합니다. 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타오른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내 앞에서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의 얼굴을 받아들여 너희에게 어리석음을 돌리지 않으리라.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나를 향해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 42:6–8)

CO 488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영광에 감동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 없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도 그들이 자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머거리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넉넉한 공경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흘려버릴 것입니다. 경험이 그것을, 그것도 너무 많이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CO 489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당신 위엄의 어떤 생생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자기에게 불만을 품고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을 물리친다고 단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재판관으로 느끼지 않으면 결코 자기 행위와 말을 혐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헛된 아첨으로 자기를 기뻐하는 데 빠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눈이 부실 때 아무도 자기 추함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본다 해도 기꺼이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짢아하고 우리에게 행해지고 말해질 모든 것을 붙잡는 이 이치에 이르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바른 회개가 있을 때, 더는 우리 악덕을 덧칠하거나 핑계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습니다, 혐오하며 고백할 것입니다. 죄인이 바르게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자기 범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자기 창조주를 거슬러 높아졌으니 자기를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한 미움을, 그렇습니다, 끝까지 담고 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한 자로 자기를 찾지 못하니 자기를 물리치고 미워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정죄하고, 자기를 싸고 있는 이 낡은 가죽을 벗는 것 말고는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회개를 입증할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자기가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목구멍에서 겸손의 표지를 보이는 말 한마디도 끌어낼 수 없는 자들에게 얼마나 뻔뻔함이 있는지 봅니다.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두고 자기가 일으킨 걸림을 바로잡으려 애쓰기는커녕, 여전히 자기 죄악 속에 자기를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허물을 안다고 해 봅시다. 그가 (우리가 말했듯이) 자기를 완전히 물리치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둘 다 거기 없을 때, 회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거슬러 그렇게 굳어지고 뻔뻔한 것이 얼마나 조롱인지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욥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택함 받은 이 몸인 하나님의 교회에 결코 속하지 않았으므로 떠돌이 같았는데도 그렇게 말했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원리들조차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짐승 같고 거칠 때 우리 위에 어떤 정죄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

에서 얻은 유익이 이것입니다. 선지자들 이전에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의 몸,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로 택하신 이 백성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도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정죄하고 자기 악덕 속에서 CO 490 자기를 없애지 않으면 회개가 없다는 것을 잘 밝힐 줄 알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려는 자들은 회개라는 이 말을 쓰되 자기 더럽고 오염된 입으로 그것을 속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순전히 조롱하는 것을 회개로 여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담긴 것을 그만큼 더 새겨야 합니다. 곧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보이려면 우리 추함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죄받도록 그렇게 바라보아야 하며, 온갖 겸손으로 당신께 달려오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서 사함받도록 우리 자신의 재판관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욥은 재와 먼지 속에서 회개하겠다고 덧붙입니다. 마치 불쌍한 죄인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드릴 채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등에 굵은 베를 걸치지 않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아도 회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죄받았고 하나님께서 불쌍한 죄인에게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 처방도 없다는 것을 엄숙하게 단언하려 할 때 그런 예식을 썼습니다. 그러니 욥이 여기서 보통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범죄가 그토록 무겁고 엄청나서 목에 밧줄을 걸고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 주시고 당신께로 거두어 주실 때까지 자기 안에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표지로 보여야 마땅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물론 이 주제는 더 길게 풀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컨대 여기서 재와 먼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 회개의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겉 표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넉넉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표지가 늘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를 공적으로 단언하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평생

회개하고 자기를 언짢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135] 우리는 우리 안에 많은 비참이 없는 날을 결코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끝없는 허물을 지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여기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 안에 늘 흠잡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탄식할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드러난 단언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겉 표지가 이어지지 않아도 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무겁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고 우리 자신을 언짢아할 뿐 아니라, (무엇이 우리 이웃을 세울 수 있는지 알면서) 어떤 표지도 덧붙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걸림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CO 491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신다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언짢아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겸손에 회개를 확증하는 증언과 인 같은 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듯이 교회가 늘 그렇게 실천했듯이 말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겉 표지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오히려 무엇보다 마음이 상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것을 끔찍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괴로움을 품고,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심이고, 그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니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고후 7:10). 보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요엘에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고 말합니다(욜 2:13).[136] 물론 선지자는 무겁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굵은 베와 재와 먼지를 가지고 돌아오라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135. 원문은 "de plaire "입니다. "desplaire "(언짢아하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136. 원문은 "Ioel 27 13 "으로 깨져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로 바로잡았습니다.

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들이 죽어 마땅하다고 엄숙하게 단언하라고 잘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사람들은 위선에 그토록 기울어 있고 늘 그럴듯한 표정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며 첫째이자 주된 것이어야 할 것을 잊으므로, 선지자는 특히 마음이 찢어져야 하고 그 굳음이 꺾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컨대 우리는 욥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봅니다. 곧 그가 되는대로 말한 것을 뉘우치면서, 자기 죄가 가볍거나 작지 않고 그토록 엄청나서 죽을죄를 저지르고 모든 기다림과 피난처를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에 둔 불쌍한 죄인으로 자기를 세울 채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그런 단언을 해서, 그에게서 걸림을 받은 자들이 다시 세워지고,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자기를 낮추는 것 말고는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 우리가 어떤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줄이지 말고 숨기지 말며, 오히려 그것을 알되,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완전히 엎드리도록 알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 허물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셈에 들어가지 않으시도록 그것을 혐오하며 언짢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단언을 쓰는 그 삼감을 가집시다. 곧 모든 일에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마땅했다고 고백하고, 부끄러움이 우리가 우리 범죄로 일으킨 CO 492 걸림을 바로잡는 것을 막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뒤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돌아서셔서 그에게 “내 진노가 너와 네 친구들에게 타오른다. 너희가 내 종 욥처럼 내 앞에서 옳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꾸짖으셨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둘째로 그분은 그의 친구들을, 그렇습니다, 훨씬 더 거칠게 꾸짖으십니다. 이제 그분은 그를 인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완전히 정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는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이 견줌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순서를

새겨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신 뒤에 그를 부당하게 정죄했던 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돌리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아버지다운 부드러움으로 징계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당신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고받습니다. 그분의 벌과 징계가 그분의 집과 그분의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고, 그 사이에 그보다 더 무겁게 잘못한 다른 이들은 거기 두십니다. 사람들이 "정말이냐?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덜 잘못한 자에게만 말씀하시는가?" 하고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그의 친구들의 허물보다 더 용서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그 혼자를 거슬러 당신의 모든 엄격함을 펼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할 수 있었을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꾸짖음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에게서 인용한 것, 곧 하나님께서 당신 집의 식구들을 먼저 징계하신다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심판을 행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거기 두시고 그들의 허물을 잊으신 것처럼 아끼십니다. 그것들이 잘 기록되어 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자들의 죄악이 익고 썩게 두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밖에 그분은 당신이 양자로 삼으신 자들,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거칢의 표지를 보이시고, 그 사이에 그분께 낯선 자들은 쉬며 편안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신자들의 처지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처지보다 더 비참하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날개를 끌며 이 세상에서 시들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인들은 볏을 세우고,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실컷 잔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이 가르침, 곧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는 가르침이 없다면 거기서 흔들릴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시온 산에서 당신의 모든 일을 CO 493 이루신 뒤에 그때 악인들을 아끼지 않으시리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사 10:12). 그런데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당신의 모든 징계를 이루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당신의 사람들로서 더 소중히 맡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허물에서 그들을 씻으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여 당신께로 돌이키셔야 하고, 그것을 하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분의 인내를 남용하고 그분이 그들을 참아 주시는 동안 굳어진 자들 위에는 무서운 원수 갚음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듯이 말입니다(벧전 4:12, 17–18).[137] "아아,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을 평안히 두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그분 손에 징계받으며 우리 처지가 힘들고 괴로울 때 그들을 시기하지 맙시다. 그것을 아주 부드럽게 견딥시다. 우리가 그렇게 체를 통과하고 그렇게 살펴져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기하신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봅시다. 선지자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자들은 끝까지 남겨졌다가 썩은 것처럼 될 과일에 견주어지고, 더 일찍 딴 것들은 그래도 먹히고 딴 것이라도 그런 영예를 받는다고 말하듯이 말입니다(렘 24장). 그러니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징계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분이 우리 구원을 마련하시고 앞당기신다는 것을 배웁시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137. 원문에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만 되어 있습니다. 옮긴 내용은 4장 12절과 17–18절에 걸치므로 장절을 보충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그분에게서 멀어져 있고,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은혜와 용서의 아무 수단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욥을 그들과 견줄 때 우리는 그가 교회의 식구이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실 때까지 한동안 거기서 쫓겨난 것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욥이 꾸짖음을 받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내가 말한 것을 압시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실수록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더 서두르시고, 우리가 기울고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서둘러 당신께로 돌이키시려고 우리 위에서 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놓인 욥과 그 친구들 사이의 이 견줌으로 옵시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지한 자, 오만한 자,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올바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욥이 잘못 해 나갔지만 좋은 소송을 이끌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욥은 CO 494 그가 밟은 절차에서 잘못했지만, 그 사이에 그의 소송은 좋았습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은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졌고 우리는 거기서 거룩한 가르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기초는 나빴습니다. 그들은 엉뚱하게 일반적인 논증을 끌어왔습니다. 곧 욥이 자기 악행 때문에 벌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격함을 쓰시니 그를 악하고 가증한 자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대하신다고 말하는 거짓되고 비뚤어진 가르침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없애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 덧없고 연약한 생명 안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모든 것을 비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올바름을 알려면 이 두 점을 기억에 되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컨대 우리는 앞에서 시편에서 인용한

것을 새겨야 합니다(시 41:1).[138] "괴로움 속에 있는 가난한 자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자는 복이 있다." 거기서 선지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괴로움당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매에 그를 정죄하지 않고 더 높이 바라보는 그 분별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곧 고난이 때로 사람들의 죄를 징계하려고 오고, 때로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오며,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빠질 수 있을 어떤 허물을 앞질러 막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울로 세우셔서 그들의 순종을 보며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며, 때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은밀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칠게 괴롭히시는 것을 볼 때 무모함을 조심합시다. 그가 그렇게 다루어져 마땅하다고 그를 거슬러 선언하고, 편안한 자들을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처럼 높이 평가하려고 변덕스러운 판단을 가지지 맙시다. 그것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적어 준 원인들을 바라보는 이 인간다움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종들이 흔히 더 큰 엄격함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스르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 공상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삼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늘 우리를 덜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잔인하고 어리석게 지나치다면, 그것도 같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갚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여기서 욥은 옳게 말했고 그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더 잘 깨달으려면, 이 일반적인 규칙을 잡아야 합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길에 있으면, 그가 무거운 허물을 저질러도 그것이 받아들여지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 두려움의 참된 뿌리를 가지지 않았다면, CO 495 사람들에게 아주 높이 평가받을

138. 원문에는 "시편 41편 2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겉보기 덕을 가졌어도 그 모든 것은 아무 쓸모도 없고 악취일 뿐입니다. 말하건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을 행하는 데 바르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절뚝거리고, 휘고, 기울고, 때로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르는 허물은 그에게 용서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려고 늘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든 것이 그의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이 그에게 내놓인 과녁이고 그의 마음이 그를 거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이 평가받고 아름다운 덕을 가지며 영예로울 만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안에 참된 뿌리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이거나 이웃을 향한 잔인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그러할 때, 사람들이 영예롭게 여기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욥이 어떠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말했듯이) 평생 선을 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마음의 단순함이 앞에서 그에게 돌려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꾸밈에서 씻기고 사람들 앞에서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처럼 걸을 때까지 우리 삶이 결코 바르게 다스려지지 않으리라는 것,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힘쓰는 그 둥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욥에 대해 말해졌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해서는, 그는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그러나 결국 끝까지 괴롭힘을 당할 때 그는 분해하고 성냅니다. 특히 사람들이 와서 그를 그렇게 찌를 때 그는 자기를 잊고 넘쳐흘러서, 생각 없는 말이 그에게서 새어 나오니 하나님께 맞서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십시오, 욥의 허물입니다. 곧 그의 인내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만큼 붙들리지 않고, 그가 말에서, 그렇습니다, 몇몇 특정한 말에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늘 우리가 처음에 말한 그 과녁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아무리 기울어도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기로 향합니다. 그가 완전히 곧게 가지는 않아도 말입니다. 활쏘는 자가 쏠 때 과녁 한가운데를 완전히 맞히지 못해도, 그가 거기 가까이 간다면 그가 거기를 향한다는 것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욥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올바름을 돌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를 찾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악덕에 싸여 있으며 휘고 넘어지게 되고 요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다 해도, 그래도 그분은 우리를 참아 주시고 CO 496 우리 연약함과 악덕을 용서 없이 정죄하시려고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웁시다.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데 힘쓴 자들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의롭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서 찾아지겠습니까? 시편에서 말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불쌍한 죄인으로 정죄받고 모두 입이 막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당신의 성령으로 다스리시려고 받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그들이 선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도 받아 주십니다. 불완전한 우리 바람에 완전함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순종은 요구될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섬기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을 돌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들을 의인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으실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자비로 묻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말했듯이) 그분을 영예롭게 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 힘쓰는 것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의롭고 올곧은 자로 받아 주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쓰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이 이 증언들을 자기 공로의 기초로 삼을 때 얼마나 미

쳤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아, 보라, 올바름에 대해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순전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다” 하고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아, 이 올바름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우리를 십만 번 정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허물을 지우시고 잊으시며 그것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시니,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분의 자비와 순전한 선하심만 알아보고 그분께 경의를 바칩시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시고, 그런데도 더럽혀진 것을 좋고 칭찬할 만하다고 인정하신다고 말할 때, 그리고 흠잡을 것이 있고 우리 행위에 큰 허물과 불완전함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께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 악취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혐오하셔도 마땅한데도, 그분이 그렇게 악덕에 얼룩진 행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고 받으신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영예롭게 하는 데 그만큼 더 불타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새길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우리가 (사람들 말대로) 영웅적인 일을 CO 497 하고, 세상에서 가장 덕 있고 사람의 것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어깨 위로 치켜올릴 수 있다 해도, 우리 마음에 살아 있는 뿌리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며 그런 과녁을 잡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새깁시다. 큰 도약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 또는 큰 겉치레를 하면서 그 사이에 마음이 온갖 악한 감정에 싸여 있는 것보다, 절뚝거리며 바른길을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하기를 바라지 않도록 힘쓰고, 오히려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위에 고삐를 쥐시는 데로 와서, 순종으로 그분께 힘쓰도록 힘씁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앞에서 다룬 것의 확실하고 틀림없는 증언을 가집니다. 곧 욥이 어떤 말에서 잘못했지만, 홀로 그것의 정당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니 그래도 좋은 소송을 가지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의 친구들은 그럴듯한 빛깔과 (보기에) 너무 유리한 논증을 가졌지만 그래도 여기서 버림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이유를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욥이 하나님의 손에 맞았기 때문에 그를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판단이 저 위에서 뒤엎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되는대로 판단하지 않기를 배웁시다. 그리고 거룩한 성경에 담긴 원인들을 잘 묵상하되, 우리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지혜로워집시다. 사도 야고보가 인내에 대해 말할 때 특히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듯이 말입니다(약 1:4–5).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은혜를 받은 뒤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곧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어깨를 굽혀 우리 비참 속에서 위로받으며 우리 슬픔 속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학교에서 바르게 가르침 받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실 때 그분을 거슬러 속상함이나 쓴 마음을 품지 맙시다. 우리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을 묵상합시다. 곧 우리가 죽임을 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늘 생명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바람을 이룬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에 많은 은밀한 반역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라도 꺾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는 CO 498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거칠게 다루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점에서 그분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거칠고 괴로운 것들을 보내실 때 우리 구원을 마련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거슬러 원망하지 않는다면, 보십시오, 우리 순종이 잘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새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고난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로, 절제 있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시는 이 올바름을 가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으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욥에게 보내시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며, 욥이 은혜를 얻어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용서되리라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을 그렇게 꾸짖으시는데도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려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정죄가 선고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겪어 용서 없이 거기 완전히 짓눌려 남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에 선고하시는 정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종류는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낮아진 것을 보실 때 우리를 사하시려고 그러시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쓰시듯 우리를 완전히 구렁에 빠뜨리시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두 가지 정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의 정죄로서, 우리가 날마다 벌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집의 식구로 여기시고 우리가 그분과 화목했어도, 그래도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늘 점점 더 우리를 재촉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탄식하며 우리 악덕을 미워하고, 처방을 찾으며,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얻을 때 그분이 거기서 우리에게 펼치신 자비를 그만큼 더 높이게 하십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당신과 화목하고 당신의 양 떼에 속해 있어도 그들 위에 내리시는 정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되는 다른 정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분과 아무 사귐도 없는 자들의 정죄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그분은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던 때에 그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격에서 우리는 내가 방금 말한 것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내세우면 일이 그렇게 알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악해서 사람들이 그가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사도가 되도록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CO 499 그것의 죽을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엎드리게 하시고, 그가 전에 부풀어 있던 이 교만을 벗기시며, 그가 거기 불쌍한 종 같을 때 그분은 그를 정죄하십니다. 그 짐은 그에게 아주 힘들고, 그것은 그에게 정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꺾이고 격렬하게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구원이 되는 정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완전히 절망적으로 보였던 사람의 정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한 번 그렇게 정죄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양 떼에 두시고, 그가 양이, 그렇습니다, 아울러 목자가 된 뒤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일 뿐 아니라 양 떼의 목자가 된 뒤에도, 그래도 그는 다시 정죄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뺨 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은 계시의 높음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모욕하듯 자기를 뺨 치게 허락하셨고,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해독제가 자기에게 필요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고후 12:7).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격에서 우리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정죄 방식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정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을 여시고, 그들이 참된 회개로 당신께 올 때 용서를 얻으리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은 그들을 여전히 물리치셔서, 욥에게처럼 친밀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여기 표현된 수단, 곧 욥이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가 아니면 그들에게 당신께 나아갈 길과 입구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자비의 두 가지 다른 본보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사람들을 여러 방식으로 대하신다 해도, 우리는 그분이 완전히 유기하지 않으신 자들의 구원을 마련하신다는 것을 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바로잡음을 참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께 낯선 자 같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한동안 견딘 정죄를 선과 구원으로 바꾸시리라고 소망하기를 그치지 맙시다.

CO 500 그런데 여기서 제사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을 풀어 놓을 수는 없다 해도, 그래도 한마디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곧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없이는 사람들을 자비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의 용서를 얻으려 할 때 우리 구속을 위해 단번에 드려진 제사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지 않는 동안 우리는 저주받고 잃어지고 절망한 채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의 샘이시니 죄의 원수로 당신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난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원수 갚음이 우리 위에 머물러 거기 영원한 거처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번에 그분과 화목하게 된 이 제사에 피하지 않는 한 거기서 벗어날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수난을 당하신 뒤인 오늘,

우리가 이루어진 이 씻음 말고 다른 수단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있던 죽음의 정죄에서 우리를 벗기시려고 우리를 위해 갚으셨다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으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그만큼 덜 핑계할 수 있다는 것을 새깁시다. 그러니 우리가 자비를 얻기를 찾는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유일한 수단이니), 우리는 우리 구속과 화해의 제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모형 시대에 당신을 거스른 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당신을 밝히셨고, 그렇습니다, 당신 백성의 몸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당신의 자비를 넓히셨으니, 복음이 온 세상에 공포되고 그분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공통의 언약을 맺으셔서 더는 이들과 저들을 가르는 벽이 없는 오늘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139] 말하건대 우리가 이 제사를 수단으로 하나님께 피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맞으러 오셔서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얻고 우리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

139. 원문은 “de par, y“로 깨져 있습니다. “de paroy“(벽)로 보고 옮겼습니다.

제159편

욥기 42장 설교 3

CO 35:501–514

AI로 옮긴 초벌 번역입니다. 신학 감수를 거치지 않았으니, 인용할 때는 원문(CO 권: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주께서 욥의 얼굴을 받아들이셨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욥의 나중 처지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의 모든 형제와 모든 자매와 전에 그를 알던 모든 이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였으며, 저마다 은 한 조각과 금 장식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주께서 욥의 나중 처지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그는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다. 그는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그는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고 둘째를 긋시아라 하고 셋째를 게렌합북이라 하였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아버지는 그들에게 그 오라비들 가운데 유산을 주었다. 그 뒤에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들과 자손을 사 대까지 보았다. 그리고 욥은 늙어 날이 차서 죽었다. (욥 42:9–17)

이 설교는 8절을 계속 다루고, 이어서 여기 덧붙인 본문을 다룹니다. CO 50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로 부르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단언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비로 받아 주실 채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바로잡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확신하게 되어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지 못한다면 절망 속에 구렁에 빠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악을 회개하려는 참된 마음에 감동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재갈을 씹으려고 굳어질 것이며, 우리 안에 아무 바로잡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을 느끼게 하신 뒤에도 그들이 은혜를 찾을 때 그것을 얻으리라는 것을 보여 주실 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제물을 욥에게 가져가 그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CO 502 너그럽고 기꺼우신 분으로 나타나셔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어느 정도 까다로운 분으로 나타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우리 죄에 대한 더 나은 언짢음으로 이끄시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 우리에게는 좋은 한숨 한 번이면 충분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완전히 부끄럽게 해야 하고, 우리를 완전히 짓누를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 우리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흔히 말하듯 숯불 위를 건너뛰듯 지나갑니다. 이 까닭으로 우리 주님께서 짧은 고삐에 붙들듯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더 잘 느껴야 할 숨은 악이 우리 안에 아직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좋고 유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그렇게 싸게 주지 않으셔서, 그들이 늘 더 낮아지고 그들이 저지른 허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구절에서 욥이 범죄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리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제사로도 욥의 인격으로도 사람들이 자기를 당신께 나아가게 하고 당신께 은혜를 얻게 해 줄 어떤 중보자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다는 데는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정하셔서 그 혼자

온 백성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른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에 다가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멀리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결코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물리쳐지고 쫓겨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서 자기 친구들을 위해 간구했을 때 제사장의 자리와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스스로 빼앗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그에게 너무 큰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얻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했고, 그 자신도 중보자와 대언자 없이는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직임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가 어떻게 다른 모든 이들을 위해 은혜를 얻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에 관해서는 욥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그래야 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듯 아무도 그 영예를 빼앗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세워진 자가 참되고 정당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히 5:4).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CO 503 사람들과 천사들의 머리시며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도 스스로 나서지 않으시고, "내가 맹세하였으니 뉘우치지 않으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고 말씀하신 분의 엄숙한 맹세로 부르심을 받으셨듯이 말입니다(시 110:4).[140] 그러니 여기서 욥이 제사장으로 내세워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할 때 저마다 더 나은 수단 없이 나서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게 하시며 우리를 당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는 직무를 가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려는 것임을 잘 새깁시다. 우리가 거기서 들으심을 받고 그 위엄의 보좌가 더는 우리에게 두렵지 않고 다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 시대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친밀하게

140. 원문은 "Pseau. 110 4. 5"로 되어 있습니다.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당신을 나누어 주지 않으셨던 자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간구가 잘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유일한 대언자시라는 온전한 밝힘을 가진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에서 세상의 배은망덕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대언자와 수호성인을 찾았고 저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들여보내려고 따로 자기 경건심을 가졌던 원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알지 못했기 때문 말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범죄했을 때마다 저마다 되는대로 하늘 보좌 앞에 와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정해진 분을 수단으로 거기 와야 한다는 것을 잘 새깁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모자랄 수 없는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매며 거기 온다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제사 없이 결코 들으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두 죽어 마땅하니 정당하게 당신 앞에 올 자격이 없고, 그들이 거기 온다면 그것은 그들의 파멸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얻으려 했던 모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빚진 자이고 제사로가 아니면 달리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려고 어떤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방인들도 그것을 잘 따라 했지만 그들은 그 목적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것은 그들을 거스르는 증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증언을 남기셔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정죄밖에 없고 그들의 죄가 어떤 갚음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음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그 진리를 가집니다. 곧 우리가 CO 504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수난에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리 그분과 화목할 수 없고, 우리 기도가 그분이 우리 얼룩을 씻으시려고 흘리신 피로 적셔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분이 정당하게 우리의 죽

을 원수이시고, 우리가 그분께 전쟁을 했듯이 그분의 원수 갚음과 저주가 우리 위에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방식이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 쓰임에 적용할 때, 그분이 그런데도 우리를 은혜로 받아 주기를 그치지 않으셔서 우리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분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본문에 낱말 그대로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실 때 새길 것이 있습니다. 이 말투는 조금 거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8편에 담긴 것을 보면(시 18:26) 이 말의 밝고 쉬운 풀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141]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대로 대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뚤어진 자에게 비뚤게 하리라." 그것은 아주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거나 우리와 같으시다는 말이 아니라, 흔히 말하듯 "거친 나귀에 거친 나귀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것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 세고 굽힐 수 없는 굳은 목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망치질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고 사나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공상대로 그분을 붙잡는 대로, 그분의 위엄에는 아무 변화도 맞지 않는데도 그분이 그러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과 비뚤어짐대로 너희를 대하지 않도록"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도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 위에 내 원수 갚음을 행하지 않도록, 곧 내가 너희를 너희가 받을 만한 그런 방식으로 대하지 않도록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

141. 원문에는 시편 18편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성경은 시편의 표제를 1절로 세므로, 한국어 성경의 절수로 바꾸었습니다.

것을 따른 것입니다. 곧 욥의 친구들이 자기 범죄를 알았지만 아직 넉넉히 꺾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더 드러내셔야 했고, 그분이 그들을 그들이 받을 만한 대로 대하신다면 무서운 살림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으며, 그러나 욥이 자기 기도를 가지고 사이에 올 때 그때 그분이 누그러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그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그대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귀로 듣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게 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니다. 전에는 CO 505 욥의 친구들이 그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여겼고, 아무 핑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 노릇을 했으며, 그가 불쌍한 땅벌레이고 그보다 더 업신여길 것인 양 욥을 거슬러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에게 오고, 그렇습니다, 그에게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그들을 눈멀게 했던 이 교만을 그들에게서 벗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변화가 어디서 올지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걷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주제넘음에 취해서 우리가 아닌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손을 대실 때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도 우리가 부풀어 있는 이 어리석은 교만에서 우리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전에 그들을 휩쓸어 갔던 이 교만을 잊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자기 회개도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에 우리를 두기를 구할 때, 그것이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감추어져 있을 좋은 뿌리를 보여 주는 참된 열매이듯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합니다(행 2:37). 사도 베드로가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겼던 자들을 거슬러 벼락 치듯 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 날카로움을 느끼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명령될 모든 것을 따르려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런 회개의 열매를 봅니다. 곧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알고 전에 그들을 시험했던 이 어리석은 오만을 벗은 뒤에 와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142]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짢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는 뜻과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상상한 것을 하는 것도 우리 교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혜로워지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교만을 벗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를 가지셔야 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반대 없이 거기 우리를 두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아울러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받아들이셨고,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고, 또는 그의 회개로 돌아서셨다고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얼굴을 들으셨고,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므로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으니, 묻건대 우리는 CO 506 훨씬 더 나은 확실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거절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도 그 수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길과 방향을 늘 붙들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올 때 거절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실성 말입니다. 보십시오, 욥은 불쌍한 사람이고,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거슬러 모독할 지경이었습니다. 결론에 관해서는 늘 인내 속에 자기를 붙들었다 해도, 그래도 그를 들판으로 내던진 끓어오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우리가 밝혔듯이 하나님을 무겁게

142. 원문은 "apres avoir esté ceste folle outrecuidance "입니다. "avoir osté "(벗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거슬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이 직무를 맡기실 때 그는 들으심을 받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낯선 자들, 전에 그의 원수였고 하나님에게서 갈라진 것 같던 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비틀었고, 우리가 밝혔듯이 다가올 생명의 소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들에게 은혜를 얻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고 흐린 그림자일 뿐이었던 그것을 값있게 하셨다면, 이제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정하시고, 그분께 숫염소나 송아지나 숫양을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몸과 영혼으로 당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인격으로 우리 속량을 위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없애시려고 당신을 드리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온갖 인자하심과 은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다루었듯이 세상의 악함은 이 점에서 드러납니다. 곧 사람들이 단 한 분의 중보자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 남녀 성인들을 수호자와 대언자로 찾으러 갈 것입니다. 무엇이 그 원인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존귀함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분의 죽음과 수난으로 속량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라고 잘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자기 대언자로 알지 못하고 그분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의무를 다합니까? 마땅히 가르침 받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속량을 얻어 준 이 영원한 제사가 우리 눈앞에, 우리 기억에 떠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 삼아 겨우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언자시라는 것으로 귀가 넉넉히 울렸어야 하는데도

그토록 둔하고 짐승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불러야 할 때 CO 507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언자가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흔히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부시게 하셔서 그들을 당신이 말씀으로 주시는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신다 해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 악함으로 거기서 돌아섰고, 하나님을 부르려고 그분께 나아갈 아무 길도 없도록 자기에게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가지지 않으면 아무 입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마귀가 늘 사람들을 이리저리 휩쓸어 가려고 하찮은 상상을 넣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헤매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사를 수단으로 사람들을 들으셨고, 율법의 제사장들이 사람 손으로 만든 썩을 성소에 짐승의 피만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헛되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은혜롭고 너그러우신 분으로 찾게 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그분이 드리신 이 제사에 터 잡고,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으심을 받게 하시는 것이 그분 몫이라는 것을 알 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고, 또는 그의 회개로 돌아서셨다고 하는 것도 새겨야 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풀이는 그분이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다는 것, 곧 그가 있던 이 괴로움이 거두어졌다는 것, 또는 그의 사로잡힘, 곧 그의 가축과 재산이 그에게 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종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욥이 자기 친구들, 곧 우리가 보았듯이 그를 박해했던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좋은 것과 구원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좋은 것과 유익이 되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위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슬렀을 때 너무 쉽고 인정 많을까 자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양이 되는 자는 늑대가 잡아먹는다"는 이 마귀 같은 속담이 너무 많이 실천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성나게 하고 우리에게 어떤 모욕을 했을 때 우리는 원수 갚는 데 매달립니다. 용서하면 우리가 온갖 모욕에 내맡겨지고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거슬러 더 큰 대담함을 얻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공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책임 아래 두셨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복이 우리 위에 오리라는 것을 잘 새깁시다. CO 508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면, 좋습니다, 전에 원수였던 그들이 형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악함 속에 고집스럽게 남는다 해도,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한 모든 간구를 우리 위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 특히 욥이 자기를 그렇게 능욕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기억에 되살려야 합니다.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과 끝을 본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고난이 일시적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끝이 복되어서 그들이 늘 편안한 것보다 한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 아끼신다면 이 세상에서 잠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지 더는 알지 못할 것이고, 우리 육의 욕심은 고집센 말처럼 굴 것이며, 우리는 이 덧없는 생명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자들을 괴롭히실 때 그것이 그들을 끝까지 몰

아붙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시다. 그분은 그들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듯(고전 10:13) 그분은 신실하시므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받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분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매에 맞는 것을 바랄 만하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다윗이 말하듯이 말입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시 119:71).[143]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비참과 바로잡음 속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나중 처지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고, 전에도 아주 컸던 그의 재산과 부를 갑절로 주셨으며, 그에게 아들딸을 주시고, 그의 생명을 늘리셔서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을 본 뒤에 자기 혈통에서 나온 자손을 사 대까지 보았다는 것, 이것이 욥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성령께서는 욥의 인격 위에 있던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남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르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르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야고보가 이 거울을 우리에게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까닭 없는 일이 아닙니다(약 5:11). "사랑하는 이들이여, 사람들이 괴롭힘당할 때 인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들의 구원으로 돌리셔서, 그들이 너무 참아 주어지고 귀여움받는 것보다 그렇게 징계받는 것이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요컨대 우리가 고난으로 괴롭힘당할 때마다, 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CO 509 분해하고 절망하도록 부추김을 받거나 하나님을 거슬러 대들 지경까지 소란을 겪을 때, 우리가 욥과 그의 인내에 대해 읽은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악을 견주어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날마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거울을 두려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기

143. 원문에는 시편 119편 67절로 되어 있으나, 인용한 말씀은 119편 71절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한편으로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 지방에서 군주 같았는데 끝까지 잃어서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황폐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대들고 그를 거스릅니다. 그의 몸에서, 보십시오, 그는 썩은 불쌍한 송장 같아서 아무도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자기 가죽이 뼈에 붙었다고 하소연했고, 심지어 그가 자기 살의 썩은 것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무서운 광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욥이 그의 재산과 자녀와 아내와 몸에서 겪는 것의 주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거스르신다는 것을 볼 때 견디는 이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하소연할 때 향한 곳도 거기였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거두지 않으시는가? 왜 내가 세상에서 쓸려 나가지 않는가? 내가 여기서 그토록 시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연약한 불쌍한 피조물일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무겁게 몰아붙이시는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상대편이시고 자기 쪽에서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것을 볼 때 그런 소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니, 우리가 적당히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 따라 우리 저마다를 그 자리에서 징계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고, 우리 가르침을 위해 기록된 이 이야기로 돌아와 그 위에서 끝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박해하시던 때에 그가 있던 이 극한만 바라본다면, 아아, 우리는 완전히 겁에 질릴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온 자들이 가장 불행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서 무엇을 얻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결말을 바라볼 때, 보십시오, 우리가 위로받을 거리가 있습니다. 곧 먼저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그들에게 약이

되며, 그 끝은 늘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그들을 건지실 때뿐 아니라 그분이 그들의 모든 악한 정욕을 죽이시니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또 그 점에서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와 하나님 자녀의 살아 있는 형상이시니 그들이 그분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가르침의 더 나은 확증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CO 510 로마서 8장(29절)에서 다루듯이 말입니다.[144] 곧 우리의 모든 비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모욕과 두려움밖에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지옥의 구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그분의 죽음과 이을 때, 보십시오,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분량을 넘어 근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히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한 인격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지우기를 기뻐하실 모든 치욕과 모든 가난을 우리가 질 때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지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완전히 당황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조이고 우리를 거기 사로잡아 아무 위로도 받을 수 없게 하는 슬픔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결말을 늘 바라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욥에게서도 다윗에게

144. 원문에는 로마서 8장 28절로 되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내용은 8장 29절에 있으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서도 다른 이들에게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신자의 참되고 가장 높은 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보여 주셨듯이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괴로움을 당한 자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갑절로 주셔서, 그들이 전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고 자녀와 계보와 세상에 따라 바랄 만한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드러나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늘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같은 분량으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마다에게 알맞은 것을 아시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실 그대로의 몫을 받을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살림에 무엇이 유익한지 잘 아는 가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는 공통의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고난을 끝내실 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어서,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시던 때에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잠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을 때 늘 우리에게 아버지로 당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리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복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것을 받읍시다. 그러나 주된 것을 바라봅시다. 곧 CO 511 다른 것이 없다 해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굳어지고, 그분의 도우심을 더 크게 입증받으며,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이 늘 단련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우는 데 무엇이 값어치 있는지 넉넉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셔서 고난을 부드럽게 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건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 손을 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한 번 자기를 도우셨다면 결코 자기에게 모자라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없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우심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라지 않도록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으로 당신이 늘 우리를 도우실 채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신다면, 말하건대 우리에게 그것밖에 없다 해도,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익이 아닙니까?

그러나 더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연약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부르도록 마치 그분이 우리를 날카롭게 하신 것처럼 더 부추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바로잡음을 가볍게 받아들였던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분 손에서 받아 유익을 얻도록 가르침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엎드릴 때 하늘 생명을 바라기에 더 잘 준비됩니다. 세상에 대해 날뛰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꺾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아래까지 두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를 만큼 낮아지고 약해질 때, 그것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된 영적 구원을 그만큼 더 잘 맛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들밖에 없다 해도, 우리는 욥에 대해 기록된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것의 참된 본보기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고 그분이 좋게 보시는 대로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베푸시도록 맡깁시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고난의 끝이 늘 복되리라는 것을 압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어질 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시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뿐이라 해도, 우리는 고난을 영예롭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육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매섭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특히 그분이 우리를 지금 있는 비참에서 건지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길게 다 풀 수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것의 작은 요약을 가지는 것으로 넉넉하니, CO 512 지금은 욥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남겨 둡니다. 요컨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따라 그를 번성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고, 그렇습니다, 보통의 질서를 넘어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덧없는 번영으로 신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밝히려 하셨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맙시다. 그때에는 오늘 복음에 있는 것 같은 하늘 생명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위로 이끄시려고 여기 아래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죽지 않음에 이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우리 육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어느 정도 어린아이처럼 대해져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옛 조상들에 대해 말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과 가축과 소유와 그 비슷한 것들, 심지어 긴 생명으로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생명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까지 그들은 그 수단들로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저 위로 오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낙원의 문을 여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따라 우리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지 않으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성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처지가 옛 조상들의 처지보다 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로해야 할 훨씬 더 나은 갚음이 있습니다. 본보기로 긴 생명에 대해 말하는 것만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긴 생명을 많이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래 산 믿지 않는 자들과 완전히 유기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도 모든 신자에게도 공통될 수 있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높은 좋은 것, 참되고 완전한 복이 아니고, 그것과는 아주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조목도 덧붙여야 합니다. 곧 옛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업을 하늘에 마련하셨다는 것을 아직 우리만큼 완

전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맛보았고 믿음은 우리와 그들에게 공통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밝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살게 두시고 이 세상에서 긴 단련으로 유익을 얻게 하셔야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욥이 긴 생명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은 더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이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얻은 이 유업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CO 513 그러니 그림자 속에 있던 것은 보이는 은혜로 확증되어야 했습니다.[145]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실체를 가집니다. 그림자와 모형은 더는 없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몸을 가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늘 그분의 인도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두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가 삶에 배불러야 한다는 것을 압시다. 물론 성경이 욥과 아브라함에 대해 그들이 늙어 날이 차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말한 이 일시적인 복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욥도 아브라함도 그들 같은 이들도 더 좋고 더 뛰어난 끝을 향하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에서 사는 데 배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의 더 긴 경험을 주시려고 그들의 생명을 늘리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더 넓은 밝힘을 가진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때 삶에 배부르고 죽을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를 갈면서가 아니라 기쁜 용기로 거기 가야 합니다. 그들은 십만 년을 살았다 해도 늘 여기 아래 머물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생명 말고 다른 소망이 없어서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145. 원문은 “conformé“입니다. “confermé“(확증되다)로 보고 옮겼습니다.

것처럼 여겨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세상을 떠날 채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옛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늘리셨을 때 CO 514 그 수단을 붙들어 자기 믿음을 굳게 했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 거두기를 원하실 때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밝혔습니다. 곧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선하심을 느끼려고 더는 오래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흘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맛보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고 우리가 오래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자마자,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셨고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 아버지로 당신을 보이시리라는 것을 알면서 늘 죽을 채비를 합시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 사랑의 그토록 좋은 보증을 주셔서, 우리가 더 넓은 확증을 얻으려고 그분이 여기서 우리 생명을 늘리시기를 구할 필요가 없을 때, 우리가 늘 삶에 배부를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분께 구합시다. 그분이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하신 뒤에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분이 여기서 우리를 먹이시고 지키셨으며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영원한 복이 저 위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니, 우리가 배부른 채로 거기 가게 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엎드립시다.